文鮮明先生말씀選集

414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郭 錠 煥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 그리고 영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 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真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만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 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을 실체적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생명의 말씀과 숭고한 삶, 그리고 실적을 통해 마침내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 봉헌하시고, 이 땅에 축복가정왕으로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정계, 종교계를 중심으로 각계의 평화운동가들로부터 평화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와 인종과 종교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아벨 유엔 곧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시고, 전세계 185개국에 국경 없는 평화의 인류 한가족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 제위께서도 인류가 가야 할 참된 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참된 가정을 이루어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새천년 참된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차 례

머리말	3
알래스카의 중요성	9
창조이상 주관권 대전환과 산수원	39
천일국 완성의 길	93
나라 찾는 데 주력하라	130
정성·동성 일화, 애성 안착 통일세계	156
통반격과 축복 완성으로 나라를 찾자	179
섭리사의 재출발과 유엔 공략	208
교차결혼과 애원섭리시대	218
대전환시기와 칠팔절	237
제7회 칠팔절 기념식	267
운동과 부항요법	296
혈통복귀와 해방시대	309

알래스카의 중요성

(《통일교회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Ⅱ》 ‘개천문일 선포’ 훈독)

덴버리 교도소에서 발표한 개천문일 선포

『……그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야 돼요? 허깨비 모양으로 와야 돼요, 사람으로 와야 돼요? 사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먹 구구식으로 안 돼 있다구요. 이론에 맞아야 돼요. 완전한 지식적 기반 위에 서 가지고야 완성이 가능하지, 무지몽매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더 벽머리에 주먹구구식인데 완성이 돼요? 요전에도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인 시대에…』

효율이는 말이야, 개천문일 내용을 따로 해 가지고 한국 전체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해. 오늘 연락해요. 「그러면 신문에 내라 그 말씀입니까?」 신문에도 내고 팜플렛도 해 가지고 전부 다 읽게 하는 거예요. 우선 16세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선생과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읽게 하는 거라구요. 중고등학교만 딱 해 놓으면 어머니 아버지나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천문일’밖에 해

2003년 7월 26일(土), 코디악(미국 알래스카).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구요. 알겠어? 「예.」

이렇게 세밀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멍청이로 살아왔어요. 옥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였어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스트 가든과 연결해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트 가든과 개천문(감옥)이 하늘과 땅, 지옥과 천국과 마찬가지로예요. 어머니는 이스트 가든에 있지만 이스트 가든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 복판이라구요. 또 선생님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이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 복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계단이 있지만, 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이론적이예요. 망상이 아니예요. 이론에 맞는 말이라구요. 몸 마음이 싸우고, 세계 종교가 싸우고, 국가 국경선이 문제가 돼 있어요. 많은 국경이 타락 때문에 생겼어요. 그것을 헐어야 된다고요. 알겠나? 「예.」

그리고 일본에도 연락하고 양창식이 오기 전에 빨리... 「일본, 미국 도요?」 응. 세 나라에 일괄적으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다 이제 개천문을 중심삼고 지옥과 천국이 맞부딪칠 때가 왔는데,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참부모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연락해 줘요.

그리고 이제 칠팔절인가? 「예, 칠팔절입니다.」 칠팔절 4일까지 그때에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Lasting Love Conference; 영원한 사랑 대회)를 한국에서 하는데, 거기에 가르칠 수 있는 책임자들 외에는 최고 간부들 몇 명씩 다 오라고 하라구. 「몇 명씩 회동하시겠습니까?」 응? 여기서 지내려고 한다구. 「몇 명씩, 한국의 몇 명, 일본 몇 명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한국이라든가 최고 간부들! 「한 닷 명씩 하겠습니까.」 응.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부처끼리 오라고 하라구. 이제는 부부끼리 행차해야 할 때야. 가외에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사람

을 불러와도 괜찮아. 알겠나? 「예.」

바로 그때가 이때예요. 개천문이라는 것이 뭐냐? 그때에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천국에 있고, 어머니가 지상에 있지만 지상에 있는 게 더 지옥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옥과 세상의 어머니 있는 곳의 국경을 전부 철폐해 버린 거라고요. 이 모든 내용이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전개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운데 국경을 안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몸 마음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 가정이 싸우는 데는, 나라가 싸우는데 그 국경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위하는 참사랑은 국경을 소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저것을 누가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아하, 역사가 이렇게 됐구만!’ 하고 아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지금은 누구나 축복받을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영계에 간 모든 영인들이 지상에 뿌리를 내린 참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거쳐 가지고 가야만 천국과 영계의 통일권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까지 역사시대의 모든 조상들은 참부모의 사랑의 뿌리와 인연을 맺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의 결의문이 필요한 거라고요. 지상에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달 13일 날 그 놀음을 했지요? 탕감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세계는 참사랑으로 출발하고 참사랑이 영원한 환경으로서 연결돼야 된다고 한 거라고요. 참사랑의 실체화될 수 있는 주인들이 안 돼 가지고는 탕감복귀시대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왜 하느냐? 가정에서 종족, 환경 전부 다 축복받을 수 있는 걸 사탄이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다 헐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을 다 볼 수 있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상지옥 천상지옥을 전부 다 무시하고 차 버릴 수 있는 입장이에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몸 마음으로 싸우던 경계선에 있던 그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이 사랑을 중심삼고 천국 일방도로 직행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결의를 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탕감복귀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할 수 있는 본연의 세계와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다 이론적이구요. 자!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 때 개천문일 선포 말씀을 알려라

『.....선생님이 이렇게 지상에서부터 전부 다 하이웨이를 만들어 천상에 있어서 승리의 패권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수해 주었으니, 전수해 준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절대 사랑하고 부모님이 선 자리, 심정권을 중심삼고 사탄 부모로 말미암은 심정권 뿌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부모님을 중심삼고 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고 여기 서 있는 부모님과 절대 하나되게 되면 사탄은 여러분을 떼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세계를 위해서 대표로...』

효율이는 이번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Lasting Love Conference; 영원한 사랑 대회) 때 이것을 확실히 그 나라의 대학가들 앞에 선전하게 하고, 이번에 이 사실을 알려야 돼. 전 세계 국가 앞에 신문에 내고 다 그렇게 알려라구. 「한일미 3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

우선 3개 국에만... 아시아라든가 남북미, 아시아를 중심삼고 아프리카도 다 알려줘야 하지만, 이번에 참석하는 사람들 대학가를 중심삼

고 전부 다 알려줘야 돼. 천국에 들어가니 나이 많은 노틀들은 제외하고라도 16세 전후를 중심삼고 7년이면 24세가 된다고요. 17, 18, 19, 20, 21, 22, 23, 24세를 중심삼아 가지고, 7년간의 사람들 중심삼아 가지고 접붙이는 것이 제일 적절한 거라고요. 이제 대학기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번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는 사탄세계를 대표한 중요한 나라들을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부모 앞에 연결시키기 위한 역사라고요. 소련과 중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소련과 중국이 문제라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삼고 엮어지면 소련과 미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대학기를 중심삼은 연합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내용을 통고하는 게 좋아요. 자, 읽으라구.

다 알았지? 「예.」 이걸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영계와 육계, 감옥과 어머니를 연결해 개천문, 하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전부 다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본다면 지상에서도 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보다 부모를 사랑하고 보다 여편네를 사랑한 것은 사탄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영계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전부 갈라져 있더라도 이때에 모아 가지고 축복해 주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심정권... 해 봐요, 심정권! 「심정권!」 절대 심정권이예요, 이게. 자, 읽으라구. (이후 ‘개천문일 선포’ 기도 훈독)

책임자는 반드시 선언을 해야

저렇게 선생님이 개천문을 중심해서 역사의 모든 기원에서부터 이론적인 면에서 타당한 결론을 지었던 거예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의 관계, 인간세계와 역사 관계,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사와의 관계, 하나

님의 섭리사와 하나님의 혈통적 관계,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삼은 참사랑,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어떻게 가리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가려진 길을 가게 되면, 지옥과 낙원, 천국 가운데 천국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면 만사형통 승리자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다음은 뭐예요? 그다음에는 ‘영계의 소식’ 좀 읽자! 선생님의 감옥 출감 50주년 기념일을 중심삼고 5대 성인들과 부모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엮어진, 문을 열어 준 그 내용을 읽어 봐요. 그것이 관계돼 있어요. 5대 성인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 성자들이 땅 위에서 살다 갔더라도 그들은 가정이 없어요.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천사장과 같이. 그들이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 놀라운 거지요.

「이남 입감 및 출감일입니다.」 50주년, 50년이지? 「50주년 말씀은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시다. 그게 <통일세계> 3월호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귀중한테 그걸 가지고 다녀야지 왜 안 가지고 다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겠구만. 「<통일세계> 모아 놓은 것 있어요?」 그럼, 있을 거라구. 「<통일세계> 3월호, 4월호…」 「이남 출감일은 50주년이 아직 안 됐습시다.」 어디가? 「54년이니까 2004년이 돼야 50주년 인데요.」 뭐가 50주년이 안 돼? 「1954년에서 50년이 되려면 2004년입니다.」 감옥 출감 50년이 선생님 가정하고… 「이북이요.」 이북 출감일이지. 「예.」 그러니까 이북하고 한 날 아니야? 「예.」 그걸 열었기 때문에 감옥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개를 넘어요, 고개.

그렇기 때문에 성인과 모든 가정적 기준을 넘는 거예요. 가정이 넘었거든. 가정이 넘으니까 선생님의 아들딸과 5대 성인들을 축복한 자리에 서 가지고 넘겨준 것 아니예요?

박상권도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것을 못 가르치면 영계에 가 가지고 어떡할 테야? 책임 추궁을 한다구. 「예.」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

에 생명을 걸고 밀고 나온 거라구. 주저해서 어떻게 하겠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개천문일을 설정해? 저런 내용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선포한 다음에는 선포한 것을 하늘땅에 딱 팻말을 박기 때문에, 그 선포한 팻말은 사탄이 못 깨기 때문에 선생님 자신이 그 팻말을 이리 와 가지고 박아 놓고 뒤로 물러가더라도 팻말이 있으니 사탄이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는 반드시 선언을 해야 돼요. 예수도 로마의 원로원에 가 가지고 메시아를 선포 못 했기 때문에 죽은 거라구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국회의원이나 하늘땅에 전부 다 선포한 거예요. 이번 대회 때도 처음이나 나중이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라는 것을 다 발표했지요? 「예.」 그것이 다 선언이에요. 팻말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책들 없나? 교회는 어디나 전부 다 준비해야지. 너는 다 가지고 다니게 돼 있잖아? 「말씀이 <통일세계>에 나와 있습니까?」「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50주년 말씀은 기억 못 하고 가정당 창당 그 말씀이 <통일세계> 3월호에 있는 것은 기억해요. 제가 읽어 드렸고요.」 그럼 그 가정당 얘기나 읽자구. 「그건 책자로 아직 안 나왔어요. <통일세계> 3월호에서 제가 읽어 드렸거든요, 지난번 미국에서. 인터넷에서 빼야 됩니다, 아버님.」 인터넷이면 컴퓨터... 「좀 한참 걸려야 될 거예요.」 컴퓨터 보고 읽으면 될 것 아니야? 「그게 컴퓨터에도 나와 있는지... 지금 한국은 몇 시인가?」 거기에 뭐 있어? 「한국은 열 한 시입니다.」

다음에 뭐야? 「공산주의 종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85년이에요.」 공산주의 종언! 그래, 그거나 읽자.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했는데, 세상에 누가 믿었어요? 제네바 선언이지? 「예, 제네바요.」 제네바 대회 때예요. 세계의 모든 사람이 문 총재가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거 읽어 보라구. (‘공산주의 종언 선포’ 말씀 훈독)

부모님이 선포한 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따라가야

『1985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회의에서 참아버님의 지시에 따라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였다.』

그게 세계적이예요, 선포가. 박상권, 알겠어? 「예.」 선포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대신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 선생님이 많은 선포를 했어요. 고비 길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가야지 고비 길을 혼자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바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야지 바로 천국 직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포를 해 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이정표가 있지요? 「예.」 사탄은 그걸 거꾸로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선포해서 바로 붙여 줘야 돼요. 거짓 부모는 반대로 해 봤으니 참부모는 시정해서 바로 붙여 주어 가지고 천국 직행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천문일 선포니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는 하늘땅,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준에서 심정권 침단에 서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핏말을 떼어 버릴 수 없어요.

자, 읽어요, 공산주의 종언.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창 때예요. 그렇지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누구인가, 책임자? 카플란이 와서 별의별 말을 하는 거예요. 광정환은 세 번씩이나 와 가지고 ‘종언’이란 말을 그만두고 ‘메이비(maybe; 아마)’라는, ‘그럴지 모른다’는 말을 쓰자고 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너 5년 동안에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했어요. 그것까지 봐 가지고 했는데 5년 이내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 역사적으로 공산세계가 망할 것을 안 사람은 레버런 문 하나 밖에 없다고 언론계라든가 최고의 지식층은 알고 있어요. 모든 언론계라든가 종교계, 누구도 다 몰랐지만, 세상이 반대하고 세상이 부정하는 레버런 문만이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하고 하늘나라의 개문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문을 정정당당하게 중앙을 통해 가게 되면, 갔던 사람을 아무리 사탄세계가 잡아갔더라도 하늘나라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놔주니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이 필요해요. 그 선언을 절대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의 생애노정과 비교해 가지고 이걸 닦아 놓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방권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읽어요. ('공산주의의 종언 선포' 훈독 끝내고 김효율 보좌관 기도)

손해를 보더라도 알래스카 수산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돼

코디악이 이상한 곳이다! 여기서 훈독회 하는 것이 현재 처해 있는 것을 끝장 낼 수 있는 이런 시간과 다 일치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박상권이 바다의 일과 남북통일의 일을 책임지고 있구만. 「예.」 선생님 이상 노력하고 다 그래야 할 텐데... 여기서 손해 보더라도 이번 에 실버 새먼(silver salmon) 공장을 열어요. 「예.」 알겠어? 「예.」

하게 되면 이노우에가 했으니 이노우에를 앞장세워서 해야지, 사토보다도. 내 말 알겠나? 「예.」 그게 빨라. 이거 끝면 안 된다구. 미국 수역에 전 세계 81퍼센트의 고기가 있어요. 미국에 81퍼센트가 있는데 그 60퍼센트가 이 수역에 있는 거예요. 고기는 딱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련과 미국이 전쟁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내 말 알겠나? 캄차카 반도를 중심삼아 가지고 빨리 알래스카와 같은 공장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그럼으로 말미암아 소련 정부가 캄차카 반도를 중심삼고 알류산 열도를 중심삼은 이 해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이미 우리 배를 보내서 개척해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바라고 나온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주변의 인디언들을 중심삼고 7개 도시에서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새면 잡는 배를 사서 기부하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돈 3백만 달러를 박구배보고 하라고 주었는데, 그거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장은 탄 공장은 다 망하더라도 인디언과 합해 가지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알래스카 전체는 인디언 땅이 많아요. 형제지우애를 중심삼고 여기를 중심삼고 소련의 군사기지와 미국 군사기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반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자기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선생님과 의논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간판을 떼고 뭐 이러면 안 되겠다구. 그런 걸 다 모르잖아? 「예.」 선생님이 할 때 손해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손해 조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천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산사업을 하면 선생님이 무얼 할 것인가도 생각하고 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 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십년 동안 전체를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가지도 못하고 이래 놓으면 만사가 실패예요.

소련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은 알래스카밖에 없어

미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소련을 소화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구요. 그

래서 이번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를 본래는 여기서 하려고 했어요. 모여 오는 사람들이 일본, 한국, 소련, 중국, 미국, 어디나 전부 다 거리가 멀고 한국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동해서 코디악 회의를 단축시켜서 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얘기한 거예요. 5개 국에서 모인 그 학생들이 코디악을 중심삼고 활동했다면... 그래서 이번에 연합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구요.

그래서 여기에 기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지 본부가 있어 가지고 수산사업, 소련의 북해를 중심삼은 수산사업 주도권을 미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엮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요. 독일하고 일본의 기지, 소련 기지 해서 셋이 합하면 미국을 밀고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다구요. 그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나라도 북쪽 북해도에 수산사업 기지를 만들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독일도 그런 걸 다 하려고 노르웨이 해역에 배를 지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구요. 그거 다 준비하고 나왔어요. 괜히 흘러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계 해상전략에서 미래의 전망을 두고 방어책으로서 해 나온 것입니다. 소련과 일본과 독일이 합하면 수산사업의 선진국가가 되고, 미국은 후진국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게 되면 태평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지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를 중심한 구라과, 소련을 중심삼은 러시아 정교, 일본을 중심삼은 신도, 이렇게 종교권을 묶어 가지고도 앞으로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 가지고, 태평양전쟁 때에 종교권까지 투입할 수 있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을 알고...: 여기를 자기가 시작했나? 선생님에게 묻고 다 의논하고 이래 가지고 조치를 해야 돼. 자기에겐 전권을 준 것이 아니라구. 미래의 것은 모르잖아? 안 그래? 「예. (박상권)」

응? 「예.」

클린턴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클린턴하고 여기서. 클린턴 정부가 졌지. 부시 정부, 이제부터 공화당이 내가 하는 이 알래스카하고 남극 크릴새우를 중심삼고 지금 배를 7천 톤급... 세계 어떤 나라도 다 선두에서 후퇴해 가지고 우리가 선두에 섰으니, 미국은 앞으로 알래스카와 연결시켜 가지고 정책적으로 협조할 시대권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찰나예요, 찰나.

재판사건도 전부 철수한 걸 아냐? 다 끝났지? 목을 자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서자 취급을 해 가지고 몰아내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 서자 취급을 한다고 화내지 말고, 적자가 망할 수 있는 데서 서자가 적자를 지켜 줘야 하기 때문에 역사를 대표한 나라를 상속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 거예요.

남미의 축구 기반을 중심한 계획

그래서 박구배를 남미에 세워 가지고 우루과이를 중심삼고 남미의 크릴새우 사업을 맡겼어요.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해상 사업의 경험은 누구보다 앞서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빅토리아 농장을 중심삼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사각 지대에 들어가 레버런 문을 밀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교두보를 만든 거라구요. 그것이 레버런 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미 4개 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조치를 했다구요. 김진문을 중심삼고 이 4개 국 전체를 책임지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주변 국가는 이 4개 국에 전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수를 중심삼고 주변 국가를 책임지게 해서 둘을 책임지게 해 가지고 앞으로 원일연합이라든가 사커(soccer; 축구) 팀을 중심삼은 4개 국을 중심삼고 펠레를 중심삼아 가지고 피파(FIFA; 국제축구연

맹)까지 분할해 교육해서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돼요.

펠레 패들은 그걸 몰라요. 33개 국을 교육할 수 있게 1백만 달러를 해 가지고 펠레를 중심삼고 교육해 가지고 연합회를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이래서 육대주를 중심삼아 가지고 클럽 축구팀을 새로이 조직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구라파가 브라질을 못 당해요. 그래 가지고 구라파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미국을 또 흡수해야 돼요. 그게 원일이예요. ‘둥글 원(圓)’ 자를 써요. 서클이예요. 사커와 마찬가지로예요. 그걸 하나 만들기 위해 연합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골프니 아메리칸 풋볼이니 하키니 다섯 가지 이상이 미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영국의 사커를 중심삼고 안 따라가려고 지금까지 무시했다가 세계에 유명해지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바쁘게 이래 가지고 나왔어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지지 않았어요? 그런 전체 미래의 전망을 놓고 올림픽과 이 사커를 중심삼은 두 세계의 언론계의 주류 이권을 누가 쥐느냐? 하늘이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종교 문화대축전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사커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191개 국가에 축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구요. 그건 다 알지? 「예.」 뭘 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세계의 유명한 팀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예요. 그 움직이는 본부가 유명하면 되는 거예요.

피파(FIFA)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것 없어 가지고 중간에 타고 앉아 가지고 사기 쳐 먹고 있는 거라구요. 피파(FIFA)에 소속해 있는 그 패들도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용당하기 때문에 모여 가지고 회의할 때 확실히 얘기했어요. ‘나는 종교 지도자이지 축구와는 관계없다.’ 자기들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법적 조치 계약을 통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에 있어서 하늘의 뜻을 중심삼고 흑인세계를 묶어 가지고 널 대표해 가지고 모슬렘 세계와 연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브라질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해양권 기반에 있어 알래스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와히드 대통령과 다 엮어져 있지요? 필리핀 까지도. 미국 정부의 더블유(W) 부시 대통령하고 필리핀 대통령이 회합에 있어서 종교 의회를 돕자는 선포를 했어요. 필리핀이나 해양권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놀음을, 누구도 모르는 이걸 하니 일련의 해양권 기반을 중심삼고 알래스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일본도 북해도를 중심삼고, 소련도 캄차카 반도를 중심삼고, 미국은 알류산 열도를 중심삼고 그 해역에 대한 방어, 2백 해리 보호운동을 중심삼고 서로가 각축전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구요. 일본과 소련이 캄차카 반도로 해 가지고 독일까지 투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에 소련과 일본, 독일을 중심하고 ‘2백 해리 밖으로 철수!’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철수해라 이거예요.

독일은 ‘미국을 위한 수역이 아니지 않느냐? 세계를 위한 수역이다.’ 하고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싸움을 싫어하는 미국 국민들을 중심삼고 일단 해상권을... 옛날에는 태평양이 일본 일대였지만, 소련과 일본과 독일을 중심하고 중국까지 가담한다구요. 아시아 전체 태평양 연안을 중심삼고 미국을 추방하는 것이, 북해권에 있어서 이런 연합을 해 가지고, 전쟁만 하면 중국 자체가 인도 나라까지 연합해 가지고 하나될 수 있게 되면 태평양 연안의 강대 군사방어선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구요.

그런 것을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손을 대야 되는 데, 미국도 모르고 다 몰라요. 일본도 모르고 있어요. 돌발적인 사건만 벌어지면 말이에요, 소련 배하고 일본 배하고 독일 배가 ‘미국 수역을 맨 처음에는 한 5마일 침범하자.’ 해 가지고 보니까 고기가 많거든. 그

러니 ‘10마일 침범하자.’ 해 가지고 전쟁이 벌어진다구요. 그런 위험 지구예요.

그런 걸 알고 선생님이 남극에 기반이 없는 미국을 위한 기반을 닦아 주는 데 있어서 다섯 척의 미국 배를 중심삼고 북해의 우리 기반을 연결시켜 가지고, 앞으로 은행을 동원하여 막대한 은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남극에 시설을 해 가지고 이 다섯 척이 크릴 사업을 하게 되면 세계적이 된다고요. 돈 수십억 달러를 움직여 가지고 우리 큰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배 만드는 것도 자기가 현진이 하자는 대로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 부자지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놓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현진이가 배 타게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게? 그렇게 됐다는 걸 아냐? 다시 내가 돌려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2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공장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걸 자기들이 해야 한다구. 수산세계의 전권을 책임진 자가 선생님을 도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구. 여기도 그래. 자기들의 책임이라구. 내 말을 잘 기억하라구. 알겠나? 「예.」 응? 「예.」

이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산사업을 해야 돼요. 일본은 이미 연결되어 있고, 독일에 대한 것은 남극으로부터 북해로부터 전체에서 군대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미국이 2백 해리를 중심삼고 폐지해 버린 그 배를 내가 전부 인수해 가지고 이양하려고 했는데, 배 자체가 미국 수역에서 만든 것이 아니면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모험적인 그 계획까지 했던 거라고요. 그런 것을 다 모르지요? 그러니 그렇게 알고... 뭐 많은 손해 필요 없어요. 이 실버 새먼 시즌에 길을 열어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요. 알겠어요? 「예.」

알래스카 사업을 포기하면 수십년의 실적이 날아가 버린다

*이노우에, 알겠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하이.」 사토와 실버 새면을 구입하는 것을 중심삼고 의논해 봐! 공장은 확장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손해나는 것은 알고 있으니 왕래하는 그 공장을 흘려 버리면 안 된다구요. 실버 새면 잡는 13곳을 전부 다 사려고 선생님이 계획하고 왔다구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소련 방비예요. 일본과 독일이라든가 말이에요. 그런 위험천만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구요. 소련, 일본, 중국, 미국을 위하여 선두에서 해양의 평화권을 만들려고 하와이를 중심삼고 안테나를 높여서 신호하고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 「하이.」

너도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한 것을 가계야마, 그리고 한국을 중심삼고 윤 상하고 최 상, 4명을 중심삼고... 이것을 중심삼고 소련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이 연합해서 200마일 포기작전을 소송하면 미국과 전쟁이 벌어진다구요. 그것을 중간에서 빨리 기지로 만들어서 미국도 믿고, 소련도 믿고, 일본도 믿고, 중국까지 믿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중국 자체가 파나마를 점령해서 방위하는 것도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남미계획의 뒤를 따라서 그것을 상속하려고 한다구요. 그 삼각관계에서 박구배가 중국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 방비하고 있는 거라구요. 금지하고 있는 거라구요. 그러면서 어떻게 큰 역할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중심삼고 각국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구요. 알겠어? 「하이.」 그런 정책을 위해서 여기를 지켜 나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뭐야? 고기 잡는 사람들도 이쪽의 레버턴 문 회사를 모두 다 믿고 있지? 그 단체는 모두 다 포기해도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지? 이노우에! 그렇게 생각해 왔지? 지금 당장에 포기하면 어떻게 해? 수십년의 실적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린다구. 알겠어? 「하이.」 그거 최 상과 의논해 봐! 최, 사토! 「하이.」 박 상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시 할 것이니까 그 방향으로 수습해! 알겠어? 모두 다 책임자들이 많아서 과거를 전부 다 거부하는 것보다 그 역사를 따라서 전통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거 하면 큰일이야.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박상권, 알겠나? 「예.」 수십년 동안 여기를 내가 여행하더라도 돈을 지불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러려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신세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비한 방어선으로 수산사업 기지를 만들었다

자기들이 와서 잘한다는 사실이 미래에 있어서 역사를 두고 볼 때에 잘했다는 보증적인 조건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입장에서 손해를 보면서 미래의 방어선을 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원수예요, 원수. 전부 다 원수인데— 원수와 화해를 붙일 수 있는, 통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중심삼고 평화세계의 하나의 기지로서 남기기 위한 일을 해 오고 있어요. 해상산업에 있어 중요한 기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도 손해 보면서 하는 거라구요.

이번에 남극도 손해 보고, 파라과이의 농장, 브라질도 전부 실패지요? 그거 알아요? 그것 알아? 「예.」 박상권! 「예.」 그래도 철수를 못 해. 이번에 양준수니 무엇이니 김운상이니 여기 와 엮드려 있어, 이놈의 자식들. 책임자로서 도망 다니는 녀석들은 필요 없다고 쫓아 버렸다구요.

가미야마를 중심삼고 레다 농장도 포기하려고, 3년 이상 됐으니, 3년 동안 하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하기는 어떻

게 해? 파라과이 강과 아마존 강의 182개소에 50마일을 중심삼고 기지를 만들려고 해서 말뚝을 박아 놓았는데, 그걸 자기들이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파라과이강하고 아마존강 북쪽에 있어서 그걸 끊어 가지고 통할 수 있는 해협을 만들 것까지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런 놀음을 한 게 아니라구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과학 세계라든가 학자세계를 50년 전부터 붙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어요? 그것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어저께로구만. 상하좌우전후관계에 있어서 3대권을 중심하고 비로소 구형이 생겨요. 상하좌우전후에 있어서 전후가 없으면 구형이 안 돼요. 하나님과 아담 해와는 평면적이지 구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전후 될 수 있는 그런 구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3대라는 걸 어저께 처음 얘기했다구요. 효율이, 그것 알아? 「예.」 그거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맞습니다.」 세상에! 수십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을 앞장세우면 다 빼앗겨 버려요. 효율이도 알겠나? 「예.」

그거 중간에 있어서 북해를 버리지 않아요. 손해 보더라도, 내가 펀돈을 절약해서라도 이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현금한 것을 선생님을 위해서 쓰나? 전부 공적으로 투입하지? 「예.」 그것 알아? 「예.」 세상에서 선생님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돈을 마음대로 쓰더구만,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면서도 속아 주고 있는 거라구요.

북한을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1억 달러면 1억 달러 지불할 걸 다 지불했다구요. 가미야마보고, 후루다보고 증명서, 영수증을 받아 놓으라고 했는데, 공산주의를 알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는데 못 해 가지고 뺑하고 날려 버리고는 뭐 얼마 더 지불해야 한다고 그래요. 집어치워, 이놈의 자식들!

믿고 맡겼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선생님이 허재비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딱 머리에 기억해 가지고 있다구요. 사무실도 없고 비서도 없고 장부도 없고 전화도 없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끌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잡아치우고 싶어도 못 치웠어요. 여기 와서도 내가 사무감사를 안 한다구요. 자기들 공장의 사무감사를 안 해요, 맡겼으니까. 효율이도 그렇잖아? 내가 하와이를 맡겨서 사무감사를 한 번 해? 「안 하십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보다 낫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함부로 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권이, 알겠나? 「예.」 자기들에게 권고하는 것이지 책망이 아니야. 앞으로 전망을 중심삼고 넓혀 가지고 할 때 왜 이렇게 가느냐 하는 걸 알려주는 거라구. 이제는 그런 전망을 두고 ‘아, 그러한 2백 해리를 방어하기 위한 입장에서 우리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가는구나.’ 하고 알아야. 어리석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알아요. 미국도 손해를 알고, 소련도 알고,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독일까지 알아요.

그러면서 붙들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전쟁이... 앞으로 바다를 중심한 전쟁이에요. 도버해협을 중심삼고 독일과 영국이 1차대전, 2차대전 때 전쟁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태평양을 중심삼아 가지고 지금 전쟁시대가... 영국의 2차대전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거기에 가담해 가지고 태평양전쟁에 미국을 가담하게 했기 때문에 이겼지, 미국이 가담 안 했으면 영국이 승리 못 한 거라구요. 하늘의 전략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만큼 기반이 된 거라구요.

그 승리한 기반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방어하려면 말하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알기나 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

에 혼동회를 중심삼고 이걸 알았으면 다시 계대를 이어 방어선을 더 높이 쌓고 다 이럴 수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 마음대로, 선생님이 팔십이 넘었으니 오래 안 가서 죽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빨리 기반을 상속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박보희 얘기도 했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 되어 가지고 인수하게 된다면 이사회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공동결의 밑에서 본부에 보고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체제가 달라진다는 통고를 하고 있잖아요? 효율이도 그걸 알아야 돼. 알겠어? 「예.」

사무실이 없더라도 한국에 사무실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남미면 남미 책임자, 해상이면 해상 책임자를 정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받아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국가에 보장받지 않으면 도적놈들, 시 아이 에이(CIA; 미중앙정보국) 요원들이 와 가지고 도청해 우리 비밀을 캐서 때려잡으려고 전쟁을 계획하는 꾀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 대통령을 중심삼은 현 정부에 광정환한테 찾아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서 손 벌리고 도와 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자기들은 자기 갈 길을 가야지요. 자기들이 와서 도와 달라고 하게 돼 있지, 우리가 도와 달라고 하는 선수를 쓰지 말라고 내가 엄명을 한 거라고요.

자기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광정환하고 의논하면서 해야지 도수를 넘으면 안 돼. 광정환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 보고하고 전후를 가려 가지고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북한이 하자고 한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원한다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중심삼고 모색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면서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문 총재의 관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알겠나? 박상권, 알지? 「예.」

알래스카의 동향에 따라 미국 수산사업이 왔다 갔다 한다

효율이! 「예.」 자기하고 의논할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조정하고 다 그래야 돼. 자기를 데리고 다니고 기도도 시키고, 어디 가든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선생님 말을 대신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임자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를 지금까지 길러 왔고, 덴버리부터 선생님을 지키는 데 네임 벨류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흘러갈 수 있는 사람보다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기반을 중심 삼아 가지고 앞으로 상속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를 데리고 다닌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 알겠어? 「예.」 별의별 원수들이 와 가지고 효율이를 꼬셔서 자기 편 만들려는 파당패가 있다는데, 그런 사람 주의하라구. 응! 「예.」

그러면 나는 박상권이 그렇게 할 것으로 알겠어.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식당을 만드는 데 많은 사람이 와 있을 필요 없어. 시애틀에 있는 스루미 공장도 정지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여기서 고기를 대줘야 돼. 코디악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임하는 거야. 이게 없어졌다 하면 그것도 문 닫아야 돼.

「아버님, 없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911테러 이후에 상당히 어려워서 잠시...」 보라구. 1년만 해도 어부들이 딴 데 간다구. 종업원들도 다시 불러올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대로 다 박자를 맞춰 주냐? 「손해 본다는 얘기는 돈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지금 회사가 그렇게 자꾸 함으로써 신용이 떨어져 가지고 미국 전체 회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보라구. 선생님이 지금까지 몇 년이야? 18년 동안 그 놀음을 해 나

왔어. 「그건 아버님께서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요, 회사에서…」 큰 수산사업을 하는 데 비하면 여기가 얼마나 들어가? 벌어들이다구. 「그게 지금 뭐 백만 불, 2백 만 불은 쉽게 손해납니다。」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작게 하라구, 작게. 「예, 작게 하겠습니다。」 시작하라구. 그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알래스카를 중시하고 금후에 계획하던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아. 알아야 할 것이, 미국에 있어서 공군기지까지도 확대시키잖아? 앞으로 소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곳이야, 여기가. 사업하려면 몇천만 달러 하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좋은 다이아몬드 광이든가 금광이든가 있으면 그거 하나 팔아서, 자기 재산 밀천까지 털어 가지고 주인 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이 문제 아니야? 안 그래?

누구는 다 망해서 도망갔지만 말이야,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갔지만 우리는 수십년 동안 손해를 보면서도 한다 하게 되면 그걸 모르나? 은행이 모르나? 여기 사람들이 모르나, 어부들이 모르나? 가겠다고 그만 두면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구. 그게 우리 힘이야.

자기도 그렇지 않야? 해상사업을 중시삼고 전 해역을 중시삼고, 대서양을 중시삼은 글로스터로부터 저 남쪽에서 북양을 중시삼고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코디악까지 보면 이게 태평양, 대서양의 중심 닻이예요, 닻.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말이에요. 여기의 동향에 따라 가지고 미국 수산사업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해요.

낚시와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어

우리는 많은 고기를 갖다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낚시 고기를 중시삼고 비싸게 판매하는 거예요. 앞으로 워싱턴 타임스하고 여기서 해야 할 것은, 낚시질한, 스포츠로 잡은 고기도 살 수 있게끔, 팔

수 있게끔 하는 비즈니스를 개발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낚시하는 사람들의 생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기 코디악을 중심삼고 낚시하는 것을 놓고 여기 수산청으로부터 코디악 도시가 ‘아, 무니 패들이, 낚시 패들이 와야 되겠다. 킹 새먼이니 실버 새먼이니 할리벗이니 대구니 전부 다 와 가지고 취미산업으로부터 앞으로 발전하겠다.’ 해야 돼요. 관광사업이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관광사업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알겠어?

그런데 여기 애란이, 마이크가 선문대학의 영어 선생으로 간다고? 그거 왜 놓쳐 버렸어? 「그 사람은 원래 여기서 안 했습니다.» 응? 「원래부터 뭘 안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여기서 수역을 중심삼고 필리스와 의논해서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본토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기지를 만들고 배 두 척씩 해서 낚시 지도라도 크리스를 중심삼고 협조하게 되면 동양 서양, 태평양 대서양에 배치할 수 있는 거라구.

그 사람이 훈련이 얼마나 됐게? 그 알렌이라는 사람을 선생님이 기른 것이, 그 사람은 축복을 해 줬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지 어렵도 없어요. 얼마 안 가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팔푼이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는 해상권에 있어서 머리가 좋아 가지고 배도 6천 톤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딴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나쁘지 않다고요.

선생님이 ‘뉴 호프(New Hope)’를 탈 때에 선생님 말을 절대 안 들었어요. 선생님도 자기에게 배우라고 한 거예요. 튜너를 잡을 때 여기에 배를 세우자고 하면 ‘선생님, 고기 없습니다.’ 하고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몇 번씩 구사례를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배운 해양 법 가지고 선생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고생하다가 배 하나 파손됐기 때문에 지금 탈락자가 돼 있어요.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배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를 출항시키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자신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거 실수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수십년 동안 했으니 이 지역을 전부 다 아는 대신자라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구요. 언제나 디어 헌팅(deer hunting; 사슴 사냥)이니 브라운 베어(brown bear; 갈색곰) 헌팅이니 그것에 대해서 알렌이 전부 다 소개하고 관광까지도 시작해 가지고 일본하고 연락하는 걸 몽땅 털어서 쫓아 버렸구만.

지금까지 손해 보면서 개척 개발해 나왔지만 자립해야 돼

내가 전환시기 때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효율이, 똑똑히 알려구. 「예.」 선생님이 뭐 돈 벌기 위해서 수산산업을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미국에 지금도 천만 달러 이상을 매달 지불하고 있어요. 장사예요, 그게? 남극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돈 한푼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나는 걸 알아요. 그걸 누구도, 어떤 국가도 못 하니까 대서양 태평양 전부 다 보따리 싸고 돌아갔어요. 내가 이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산업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립하려니까 앞으로 그래요. 알래스카에 여러분을 모아다가 남극의 배 선장, 주인 대신 병사로 파송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야 뭘 할지 모르지.

지금까지 선생님이 개척 개발해 나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것이 그냥 됐나? 남이 모르는 놀음을 해 가지고 세계 전략가들을 교육한 사람이에요. 군사가들을 교육한 사람이에요. 정치가들을 교육한 사

람이에요. 유엔까지 와서 닳을 내려 싸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유엔에 대해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까지도 최후의 전략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국방을 위해서는 손해를 극복하지 않으면 생존해서 존속하기가 어려운 거라구요. 망해요.

오늘이 26일이에요. 우리가 며칠날 떠났나? 「24일 날 오셨습니까.」 떠나기를 며칠날 떠났어? 24일 떠났지? 「예.」 24일이었지만 여기는 23일이었지? 「떠나는 날 시간상 여기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일이야. 24일 같은 날 도착한 거라구.

박상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구.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라구. 알겠지? 「예.」 손해나더라도 3, 4년만 더 끌고 가라구.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님.」 글썄, 하는데 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손해나는 걸 내가 알아. 자기가 손해나게 되면... 앞으로 내가 돈이 필요 없어. 자기가 돈 얼마나 벌어들 거야? 선생님이 금년 12월까지 4억 달러가 필요해. 돈 한푼 없어. 효율이, 그거 알아? 「예.」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명단을 꾸며 가지고 3주일 전부터 경고해 가지고, 안 되면 그 대책을 취해서 별의별 일을 다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트 가든 땅 파는 것도 빨리 돈이 안 되면 포기해 버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달 더 걸리기는 합시다만...」 몇 달 걸리면 시기가 지나가. 그놈의 자식들은 자기들 잇속을 보고 그러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은 꿈에도 없잖아? 이놈의 자식들!

미국에 손을 대야 할 때가 되어 온다

다음에 대통령을 내가 미국에서 영웅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깊숙이, 이제는 내가 가정당을 만들고 정치세계의 바람을 유엔까지 하니만큼 미국에 손을 대야 할 때가 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지 부시

가 남미에 가 가지고 아르헨티나 우리 신문사 행사를 할 때 5미터밖에 안 떨어졌어요. 부시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때까지, 선생님이 명령해 가지고 신문사에서 발표할 때 5미터 앞에 있었어도 악수도 안 했어요. 호텔에서 옆에 자면서도 만나지 않았어요. 왜? 만나야 소문이 나고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은 담을 넘어 가지고 만나겠다고 야단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나를 존경해요. 레버린 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치세계에 보던 것과 다른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빚진 것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생각한다고요. 이번에도 주동문한테 개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봤어? 「예, 봤습니다.」 고맙지. 고마울 것 아니에요? 돈 몇천만 달러 모금할 것을 내가 해 줄 터이니 내 말 들으라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세월 보내고 낚시질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효율이는 한국에 대해서, 옛날에 땅 산 것 팔지 못한 것을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 180명이 있으니 일본 식구, 미국 식구까지 세 사람이, 외국 사람이 공동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해 가지고 명의이전을 하라고 다 했다고. 그러면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못 해. 두 사람 이상으로 하라고. 알겠어? 「예.」 빨리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빨리 수습해 놔요.

내가 미국에 가서는 한국에 대해서 손댈 수 없는 것이 뜻이에요. 미국에 대해 전적으로 해야지, 한국에 꼬리를 달면 그 꼬리 때문에 한국에 문제가 벌어져요. 문제가 벌어지면 미국에 와 있으면서 한국 사건이 미국 사건과 직결되어 가지고 양국의 방어선에 포위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어디나 사무감사도 안 하고 보고도 안 받는데 뭐라고 그러겠나? 미국에 가서도 테이블이 있나, 비서가 있나, 장부가 있나? 뭐라고

그래요? 미국에 가서 사업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시 아이 에이(CIA; 미국중앙정보국)가 나한테 걸려 넘어간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런 것이 없이 주인이라고 했다가는 미국에서는 망신이 돼요.

가미야마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미야마가 잘못 해 가지고 감옥까지 간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라구요. 여기도 박구배가 감옥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다 풀어 준 거라구요. 이것 다 날아갔다고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뜻의 침단에 서서 공격받았지만 남아지게 돼 있어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선생님이 없었으면 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랐습니다.」 아, 정말이지. 이놈의 자식들! 그걸 혼자 안고추고 다 그러 면서 나왔어요. 그게 도리어 화가 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언론계도 (피스컵 축구대회) 10분지 1밖에 안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상암(월드 컵 축구경기장) 같은 데는 5천7백 명이 들어올 거라고, 10분지 1도 안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만원이야? 그거 어떻게 됐느냐?

축구협회 정몽준도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려다가 앉아 가지고 다 듣고 갔어요. 남미의 우리 프로팀 두 팀을 중심삼고 국가에 문제됐다는, 3년 동안에 그렇게 올라갔다는 그 말을 듣고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흥태보고 비밀리에 만나자고 약속까지 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무식해 가지고... 통일교회가 자기들의 장난거리로 알았어요. 개회 식 같은 것도 자기가 그런 걸 할 수 있어? 문화면에서는 따라지 패들이 말이에요. 그건 이미 국경 너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다구요.

금강산 개발이니 무엇이니 김일성이 직접 훈시한 사업으로 연결된 것인데, 현대가 빼앗았다고 해서 재판 같은 것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내가 양보한 거라구요. 지금 와서 저렇게 되니 통

일교회가 놀랍다고 정부 자체도 그런 거예요. 김대중이 그런 면에서는 나한테 머리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박 무엇이? 박지원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 통일교회를 없애라고 지령을 받은 사람이예요. 그래 가지고 세계일보 사장 이름이 뭐이던가? 이 무엇? 하와이에 있던 사람 몰라? 「이상희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예요. 기독교에서 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광정환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어서 기독교 화합운동을 중심하고 하려고 했어요. 김대중이 조금만 했으면 말이에요, 기독교를 중심삼고 이 사람을 내세워서 세계일보 장소에 갖다 끌어다가 교육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망쳐 버렸어요. 선생님이 뜻이 없어서 그렇게 다 사용 못 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써먹어 가지고 차 버리지 않아요. 나라가 차 버리지만 나는 차 버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의 안팎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았으면 용평에 가 가지고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그 사람들을 친구 해 가지고 외적인 기독교인 명사들을 모아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열라고 해서 용평으로 가게 되어 있다구요. 효율이, 그거 알지? 「예.」

그건 뭐 한국 사람이면 누구든 알아요. 통일교회를 가지고 정부의 희생양으로 잡아치우려고 했는데, 죄 없는 데 대해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내려졌다 이거예요. 이놈의 정부가 광정환하고 둘을 잡아치우려고 했어요. 언론기관을 없애고 통일교회 책임자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통일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랬다구요. 그것 알아요? 그 삼각지대에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 다 뜻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나는 고생하고 뜻의 첨단에서 가지고 공격받았지만, 공격받는 레버런 문은 남아지고 공격하던 사람들은 다 그늘 아래 들어가 가지고 썩어서 거름더미가 되고 말아요.

통일교회 축복이 무섭다

오늘 기후가 어드래? 「오늘 날씨 좋습니다. 어제보다 좋습니다.」 어제보다 좋아? 「예. 10노트 4피트, 비는 약간 내리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배 위에서 그냥 자도 괜찮겠네. 「예. 오늘 아버님, 나가십니까?」 나가자고? 「예.」 그래,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어저께 사혈하던 의사 어디 갔어? 「지금 올라가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할 거라구요. 난 오후에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들도 어제 저녁에 그냥 많이 빼냈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할 때는 사정을 봐주고 하더니 나는 아예 있는 힘을 다해서 무자비하게 하더라구요. 아프고 다 그래 가지고 어머니가 참기 힘들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태권도 5단이나 되고 그러니까 힘도 좋습니다.」 그래.

그 사람 얘기해 보니까 참 자신을 갖고 있더구만. 의사는 그래야 돼. 자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청평에 와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일본에 가서 면허도 따고 다 그런 모양이지? 「일본 면허가 쉽게 따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일본에 가서 아마 무얼 좀 인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면허도 한국에서 또 따야 된다고요.

그래도 가요를 색시로 얻은 것을 보고 참... 자기가 그렇게 혼자 당당한 한의사로서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이런 경험을 하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통일교회 축복이 무섭기는 무서워요. 선생님이 소개해 주니까 싫다고 했지요. 한 3개월 기간 뒀다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았어?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에 물어보니까...

가요가 상당히 여자로서 당당한 여자고, 통일교회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앞장서 가지고 신세 안 지고 신세를 끼치는 노릇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는 돌팔이 의사로 돌아다니니 생활문제도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내가 추천해 준 거라구요. 요즘에 딸을 낳고 다 그랬는데... 서른 여덟이라고 그러지, 가요가? 「예, 서른 여덟입니다.」 ‘야, 이 녀석아, 서둘러야 아들이라도 하나 낳을 텐데 서둘러라.’ 그랬는데, 자신 있는 얼굴을 하면서 ‘걱정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 아침 먹고! 미안해, 박상권. 「아닙니다, 아버님.」 잘 하라고 그랬어. 「예.」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꿈이 뭇인지 다 알려줘야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 줬다구. (경배) 자, 식사 준비하라고 그래. *

창조이상 주관권 대전환과 산수원

(경배의식, 가정맹세, 보고기도) 다음은 뭐야? 「1985년 8월 16일 성수의식 말씀입니다.」 5월 4일서부터 그때 말씀한 걸 한번 하자. 7월 달의 마지막이 되어 오는데 생각해야 되겠다구. (2003년 5월 4일 말씀 훈독)

천일국을 중심삼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5월 10일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날 5월 4일은 음력으로 4월 4일하고 맞는대구요. 8수를 중심삼고 그 말을 한 거라구요. 10도 음력과 맞고 양력과 맞는 거예요. 그걸 읽어요. (2003년 5월 10일 말씀 훈독)

『……그러나 우리는 천일국 3년을 중심삼고 5월 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넘어오니만큼 이 모든 조건적인 기준에 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봄 절기를 맞지 못했어요. 금년 4월 달의 봄과 이 모든 전부는 역사시대에 하나님이 춘하추동의 기간을 이을 수 있는

2003년 7월 27일(日), 코디약.

* 이 말씀은 주일 경배식 및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나라의 봄이 없었고 여름이 없었고 가을이 없었고 겨울이 없었던 거예요. 수확해 가지고 잔치하고 축하할 수 있는 때가 없었던 것인데, 이제부터 통일기들은 천일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삼고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기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혼인신고 한 그날은 뭐냐? 지금까지 축복가정들 전부 출생신고를 못 했다고요.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되어 가지고 나라, 천일국을 찾아 세웠기 때문에 비로소 천주부모와 천지부모, 하나님과 땅 위의 참부모가 나라를 갖고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축복받은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결혼식에 동참했고, 동참함과 동시에 나라를 갖게 됐고, 나라와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의 입장에 있음으로 자녀가 입적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억의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뭐냐? 해와가 타락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이 모든 전부, 장자 차자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을 텐데 핏줄이 달라졌어요. 사탄세계에 넘어갔던 것을 탕감해서 복귀한 부모님을 따라 혼인신고를 한 후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서는 안 돼요. 나라를 찾은 그 위에 부모님과 여러분이 혼인식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중심삼은 60세, 6수를 넘어서 7수를 중심삼은 그날을 중심삼고 부모님이 혼인신고 하는 것은 지상세계나 천상세계에 천주부모와 천지부모, 하나님과 참부모 소유의 나라를 중심삼고 혼인신고 출발해 가지고 혼인신고 못 했던 부모님의 자녀들이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이상 주관권 대전환식과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그 출생신고 하는 자리가 타락하던 아담가정의 자리가 아니라구요. 천국문을 열어 가지고 지옥과 낙원과 천국을 연 여기에서 부모님이 천일국을 중심삼고 혼인신고를 하고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니, 부모님의 자녀들과 여러분도 가인 아벨의 자리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축복을 같이 받아 가지고 지상과 천상이 거꾸로 됐던 것이 비로소 지상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생님의 뒤를 따라오던 것에서 주관권 대전환시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에 서는 거예요.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아담 해와 가정의 자리가 아니예요. 결혼식을 잘못해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축복함으로써 탕감복귀해 가지고 천일국이 나오므로 천일국을 중심삼고 부모님의 혼인신고, 하나님의 혼인신고, 그 아들딸도 혼인신고 하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모님이 결혼식을 하는 걸 봤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결혼식 할 수 있는 기반도 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들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상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천일국의 하나님과 천지부모의 결혼식과 더불어 선생님의 아들딸이 입적한 것과 같이 여러분 축복가정이 입적한 그 뒤를 따라서 가인 아벨 가정 기준이... 영계에서는 형님 되는 천사장의 몸뚱이는 축복이 없어요. 비로소 지상의 부모님의 아들딸이 축복받은 그 뒤에 들어와 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라구요. 천사세계에 해당하는 가정 형태가 없었던 것인데 부모님이 승리한 것을 16세 이후의 몸뚱이를 잘라 버리고 접붙여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해와가 시집갔다가 다시 새신랑을 찾아 결혼한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낳은 아들딸을 전부 죽여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은 비로소 그 낳은 아들딸, 가인세계의 아들이나 아벨 세계의 아들이나 자기의 아들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부모의 아들딸로서, 이것이 거꾸로 된 걸 바로잡아 접붙여 가지고 비로소 해방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옥, 낙원 이렇게 된 것이 종적인 면에서 지옥이 없어지고 낙원세계의 소생 천국, 장성 천국, 완성 천국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해 가지고 천일국을 한꺼번에 꼭 채우는 거예요. 수천년 갈라졌던 걸, 영계가 비어 있던 걸 비로소 채워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의 1대로부터 2대, 3대, 4대 조상 대를 편성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심삼고 1대라면 2대로부터 아담을 중심삼고 수많은 역사적인 대를 채워 들어가서 천국을 채울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이상 대전환시기예요.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가지고 본연의 기준을 중심삼고 선생님으로부터 1대, 2대, 3대가 벌어져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위기대 입적식을 중심삼아 가지고 앞으로 대이동이 벌어져요.

대이동과 입적의 자격자

세계에 모든 축복가정들이 널려 있지만 이제 1대, 2대, 3대, 5대, 이렇게 새로운 조상 편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뜻을 중심삼고 축복가정을 얼마나 많이 하늘 앞에 세웠느냐 하는 기준을 중심삼고 대가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축복 일치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천지부모의 결혼식과 더불어 천지부모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복귀된 모든 축복가정들을, 천사세계가 장자가 되었던 것을 차자의 입장에 세워 가

지고 본연의 자리에 천주부모와 천지부모, —천주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천지부모는 참부모를 말해요.— 그 일체적 사랑을 중심삼고 천일국 나라 위에 성혼식을 하고 선생님의 자녀들이 입적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입적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장자 입장에 있던 것을 동생의 자리에 세워서 사탄의 핏줄을 180도 전환해 가지고, 비로소 천주부모의 혈통적 기준의 축복받은 선생님의 아들딸과 여러분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을 중심삼고 천사장 가정이 하나되어 협조하던 모든 것을 다시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번 대전환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흥진군 중심한 선생님 아들딸을 중심삼은 축복가정들과 5대 성인 축복가정들을 데리고 전체 지상에 와 가지고 천지부모를 모시고 형님, 누나의 가정을 모시고 동생의 자리에 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1대, 2대, 3대... 지금까지 하늘이 비었던 것을 천국에 국가를 넘고 세계를 넘어 가지고 대이동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정성을 많이 들여 가지고 축복가정을 돌려드렸느냐 하는 평균적인 기준에서 그 기준을 중심삼고, 1대, 2대, 12지파, 72가정, 124가정, 430가정은 지금까지 일족을 중심삼고 복귀해서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경쟁시대에 들어왔다구요. 대전환시대예요.

창조이상 대전환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삼일체일념일핵이 돼야 돼요. 핵이 생기는 거예요. 핵, 해 봐요. 「핵!」 핵! 뼈가 생겨요, 뼈가. 뼈와 살이 하나 못 된 것에 뼈가 생겨 가지고 가정적 뼈인 천지부모를 중심삼고, 선생님 가정을 중심삼고 여러분 가정이 살과 같이 하나되어 가지고 타락이 없었던 핏줄이 다시 찾아져 가지고 본연의 원칙을 통해 하늘나라에 1대, 2대, 이렇게 정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조국이 없어요. 대이동 안 하면 탈락돼요. 일본 사람이니 무엇

이니, 미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니 없구요. 세계적으로 통일교회 식구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했고 얼마만큼 효도했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앞으로에 있어서 대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한 70명이 있으면 70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역의 자리가 바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가정이 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선생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실수한 수많은 모든 가정들을 재현시켜 가지고 같은 가치, 같은 축복 가치의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이제 뭐냐 하면 자기 일족을 중심삼고 누가 많이 축복가정을 이루어 하늘 앞에 거두어들이느냐 이거예요.

이노우에면 이노우에 일족을 중심삼고 누가 국가적 메시아가 되어 가지고 나라를 중심삼고 나라에 갖다 접붙이느냐 이거예요. 종족은 민족, 열두 지파가 합한 거기에 접붙이고, 열두 지파는 한 나라에 접붙이고, 한 나라는 비로소 성인세계의 낙원세계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문제

그렇기 때문에 성자 가정... 가정에는 효자, 나라에는 충신, 세계에는 성인, 천주에는 성자 가정이에요. 가정 효자, 가정 충신, 가정 성인, 가정 성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을 비로소 그러한 승리의 세계적 가정 대표 자리에서 상속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는 상속 못 받아요.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상의 자리를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라에 접붙인 것이 몇째 되었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가 이제 세계의 열두 나라에 접붙여 올라가서 세 나라에 접붙여 올라가는 그 기준을 중심삼고 대수가 천태만상으로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이 몽땅 비었던 것에서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1대, 2대, 3대를 중심삼아 가지고 천상세계가 지상에 재림한다구요. 그래, 금년 이달 13일에 탕감시대의 철회를 선포했습니다. 효율이, 그랬지? 「예.」 그걸 철회했기 때문에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축복가정을 얼마만큼 확대했느냐 하는 그 수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몇천 대를 뛰어넘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지만 여기서부터 수천 대가 새로이 제정되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일족을 중심삼고 자기 형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를 중심삼고 3대를 빨리 해 가지고 지파에서 민족, 민족에서 국가, 국가에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일본이면 일본 민족, 일본 국가는 세계 국가 앞에 접붙여야 돼요. 세계 국가는 그다음에는 열두 지파를 중심삼고 네 나라를 중심삼아 가지고 거기서 해 가지고 거꾸로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었던 천국이 이제 완전히 잘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상천상천국 해방석방시대로 넘어가느니라! 아멘이예요.

복귀부활이라고 그랬지요? 갱생부활, 그다음에는 해방부활, 석방부활입니다. 그때서부터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의 지상천국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예요. 오케이(OK)는 오픈 킹덤(open kingdom), 그다음에 억만세 태평성대의 무한한 세계로 전진한다! 아멘!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똑히 알라구요.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시간이요, 최고의 마라톤 대회 경쟁의 날과 마찬가지로요. 거기에서 챔피언을 뽑는 거예요. 세계문화체육대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피스킹컵(Peace King Cup) 축구경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일개 국 경쟁시대가 아니예요. 주 경쟁시대가 아니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섯 대륙이면 서양 동양으로 세 팀씩을 중심삼아 가지고 1등, 2등, 3등을 뽑는 거예요. 클럽을 중심삼아 가지고 동근 볼을 중심삼고 원일연합까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전력을 다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하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충신이 되느냐, 어떻게 효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축복가정을 형제로부터 자기 일족에서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거기에 세계의 일족들과 경쟁해서 몇 등이 되느냐 하는 것이 천상세계에 새로운 대를 결정하는 기원이 되느니라! 아멘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송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같은 자리에 들어왔어요. 나라를 넘고 세계가 똑같아요. 참부모의 성혼식과 더불어 선생님의 아들딸도 성혼했고 또 그다음에 입적할 수 있고, 여러분도 동생의 자리에 있어서 참부모의 성혼식 날을 상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혼한 자리에 있어서, 그다음에는 선생님의 직계자녀와 형제지가정 기준을 연결시켜 절대가정 통일권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절대 핏줄이 달라진 것이 절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1대, 2대, 이걸 결정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놀라운 대 경쟁시대예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유엔 공약만 되면 세계축복은 한꺼번에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 아담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 일족, 예수님을 중심삼고 이스라엘 나라 선민을 중심삼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찾아야 돼요. 유대교와 이스라엘 종교, 통일교회는 자기 일족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권을 상속해야 돼요.

제1이스라엘권 뭐인가? 평화통일 갱생운동은 하나님의 조국창건의 이상이다! 예수님은 나라를 하나 만들고 로마를 흡수해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는 국가 기준이 아니라 천주 기준에 있어서 비로소 영계 육계를 중심삼고 타락한 것을 통일해 가지고 미국을 중심삼고, 목사들을 중심삼고 교회와 나라가 하나되어 세계 유엔 공약시대에 같은 기준으로 넘어가요.

유엔만 공약을 하는 날에는 축복이라는 것은 7년도 안 가요. 7개월, 7일 동안에 다 해 버린다는 거지요. 한꺼번에 등록해 버려요.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예속시키게 될 때는 한꺼번에, 진 나라는 이긴 나라 앞에 이동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식민지와 마찬가지로요.

사탄이 하늘을 망쳐 나왔던 것과 반대로 하늘이 수습해 나가는 이러한 총 창조이상 대전환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물의 광물세계로부터 식물세계로부터 동물세계로부터 인간세계, 하늘까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어야지, 일체 사탄세계는 소유가 없어요.

아담 해와가 축복받아 세계적인 국가 대표, 천주적인 대표 가정을 중심삼고 아담가정에 상속해야 되었는데, 오늘날 통일교회가 영계 육계를 통일해 가지고 세계의 문턱을 넘어 가지고 상속하는 것이 딱 그때와 마찬가지로요. 가정으로 잃어버렸던 것, 아담 해와가 핏줄을 더럽힌 실수는 1대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재림주는 아담 해와 1대에 실수한 모든 것을 1대에 다 청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믿었다면 7년 이내에 끝났을 것인데,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복지를 향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거와 마찬가지로 해방 후 43년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통일교회는 광야 43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 가지고 민족이 국가를 찾아 가지고 국가 위에 메시아를 모실 수 있을 것인데, 모세가 구리 뱀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용서하던 거와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가지고 용서해 가지고 영적 세계만 있고 육적 세계를 잃어버렸던 걸 재림주가 와 가지고 1차 2차, 제1 제2이스라엘을 탕감복귀하고 제3이스라엘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탕감해야 돼요. 그것이 뭐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와 극복해야 할 것

이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리원칙을 알고 하늘땅의 모든 비밀을, 사탄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가려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 주는 것입니다. 문 총재를 중심삼고 경계선에 있어서 개인 소유권을, 가정 소유권, 민족 소유권, 국가 소유권, 세계 소유권, 그다음에는 천국 소유권, 외적 무대 심정세계에 있어서 개인 심정세계의 주인, 종족 심정의 주인, 민족국가세계 심정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심정을 유린하고 핏줄을 유린했기 때문에 다 점령 탕감해서 굴복시킨 그 기반 위에 있어서 타락의 결과로 만물이 사탄 물건이 됐던 것을 비로소 핏줄을 정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함으로 말미암아 핏줄이 전환될 수 있는 자리에 서 가지고, 비로소 예수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되어 로마를 정복해야 했던 기준보다 재림주는 한 단계 높은, 더 높은 기준에서 지상천상천국, 미국 제2이스라엘을 중심삼고 기독교문화권과 종교 문화권이 합하여 세상을 하나 만들어 천상세계 해방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니 유엔을 공략하는 거예요.

유엔은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2차대전 후에. 유엔을 만드는 것을 미국이 주도할 텐데 공산당을 만들고 타락한 세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몸뚱이가 마음을 점령하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마음세계의 비밀과 몸뚱이가 타락한 것을 앎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 타락함으로 소유권이 문제인데, 무슨 소유권이냐? 물질적 소유권이 문제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문제, 그다음에 쉬는 문제, 잘살겠다는 것이 문제예요. 쉬겠다는 거

예요. 안식하겠단, 쉬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정욕이에요. 사랑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철추로 다 때려부수어 가지고 나라 전부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는 전환할 수 없어요.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를 탕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축복 안 할 수 없고 사탄도 축복 안 할 수 없고 인류도 모시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청산해 가지고 새로이 세계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 중요한 시대가 5월 달이에요. 금년 5월 비로소 하나님이 봄을 맞은 것입니다. 봄에 꽃피고 하던 것은 사탄세계에서 있었던 거예요. 역사시대에 창조이상 주체권을 전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로소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선생님을 중심삼고 4월 달을 중심한 봄을 맞은 것입니다. 4월 4일이에요. 음력으로 4월 4일이에요.

원래는 서양 역(曆)이라는 것은... 음력이라는 것은 수천년 수만년 됐지만 서양 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땅을 중심삼고 달이 태양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이 음력인데, 음력을 중심삼아 가지고 지상에 완결 짓는 거예요. 그것이 천일국 3년 5월 4일, 음력 4월과 양력 5월이 하나되는 거예요. 봄 절기에서 오뉴월의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탕감하고 전환하기 때문에 봄을 맞이해 가지고 비로소 소유권이... 여름에 심은 모든 전부가 자라 가지고 가을 절기를 중심삼고 거두어져 겨울 절기에 들어가 가지고, 천하의 주인 된 천주천지부모를 모시고 하늘땅을 개국할 수 있는 축하의 날을 중심한 최후의 고개가 유엔 공약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야 깨끗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복귀된 아담가정을 중심삼고 재편성돼야 할 타락 세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무슨 기술, 자기의 무슨 소유권,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것, 타락한 이후 세계에 필요했던 것이지, 하늘나라 세계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부정해야 돼요. 위가 하늘이 될 것인데 아래가 하늘이 됐으니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날을 중심삼고 여기 와서 비로소 교체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체돼요.

이것이 개인 교체, 가정 교체, 종족 교체, 민족 교체, 국가 교체, 세계 교체를 해 가지고 아담가정의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민족 완성... 수직이 되던 것이 비로소 역사를 거쳐 거꾸로 여기에 와 가지고 세계 전체가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교체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지금까지 채우지 못했던 모든 부정적인 역대 조상의 대를 찾아 세워 가지고 재편성하는 거라구요.

아담가정 대신 아담 해와의 가정을 중심삼고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성된 세계에 있어서 선생님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종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1대, 2대, 3대 지상천국 이상세계로 전개되는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여기서 연결하니 교체되어 가지고 끝날에 여기에 와서 하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부모님 가정을 중심삼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축복 받은 땅 위의 이것이 동생의 자리에 서 가지고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걸 선생님의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이예요, 세계적. 해방 지상천국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효율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모르면 안 돼. 박상권,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멍해 가지고 세상의 놀고 먹던 녀석들은 바람이 불면 나뭇잎같이 떨어져서 거름더미로 깊은 데 모여 썩어요. 알곡이 되지 못한 쪽정자들은 전부 다 한 군데 모여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자(富者)가 어디 있어요? 부자, 해 봐요. 「부자!」 부자라는 것이 부재예요,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부자지요? 그래,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부자입니다.」 그것도 부자(父子) 아니

예요? 부자가 부자 되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완전히 부정해야 돼요. 사탄이 설자리가 없지요. 다 탕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시대 승리부터 8단계 승리, 세계적인 승리 판도, 수직의 자리에서 유엔 공약을 해 가지고 핏줄이 본연의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래를 접붙여서 동생을 삼아 가지고 천상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축복가정들 가운데 먼저 축복받은 가정들은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지옥에서나 어디나 천대하면 안 된다고요. 원리를 알아야 그런 사상이 뿌리가 되어 가지고 땅에 박힐 수 있어요.

더 얘기하면 좋겠지만, 혼동회 시간이니까 그걸 계속해요. 앞으로 선생님이 최후에 정비할 수 있는 모든 숫자, 수리적으로 가르쳐 줘야 할 텐데, 배울 것이 많아요.

자기 국가 관념이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의 일족을 이노우에면 이노우에가 빨리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 가지고…. 일본 나라도 열두 지파예요, 열두 지파. 열두 지파 앞에 해 가지고 나라를 중심삼고, 나라는 비로소 동서남북 4개 국을 중심삼고 3수를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사위기대 완성 입적권 세 나라를 중심삼고 최후로 돌아가는 통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적은 부모를 중심삼고 1대만이에요. 1대 가정만이지 2대, 3대가 없어요. 알겠어요? 있나, 없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자기 형제들을 축복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3대 이래 가지고 조상 조상을 축복해야 돼요.

청평에서 조상 해원과 더불어 축복해 주지요? 이걸 더디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자기 몸뚱이 뼈를 깎아서 팔아서라도 그 축복받을 수 있는 놀음을 안 하게 되면 나가지 못해요. 다 담이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았다가는 큰일난다고요. 알겠나?

선생님은 깨끗이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왔느냐? 부모님과 같이 축복받은 것은 뭐냐 하면, 복귀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타락한 아담 해와가 갈라져 가지고 나라 기준을 중심삼고 왕권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수백억의 축복 기반을 중심삼은 왕권과 천지부모 해방권을 중심삼고... 왕권은 종적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1대, 2대, 이렇게 서야 될 것 아니에요?

나라를 중심하고 '난 일본 사람이다.'라는 관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걸려요. 미국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났다는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자연과 마찬가지로. 흙, 물, 공기, 태양 빛, 해 봐요. 「흙, 물, 공기, 태양 빛!」

물과 공기, 태양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물에서 태어났어요. 양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 가운데 있어서 사람이 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물 시대를 거쳐서 코 시대, 공기시대예요. 어머니로부터 물을 먹고 물 속에서 물 작용으로 컸지만, 이 다음에는 뭘 먹느냐 하면 입으로 먹어 가지고 영양소를 보급 받아야 돼요. 영양소와 물과 공기를 먹어야 돼요.

사람의 몸뚱이가 4분지 3이 물이라고 하지요? 공기만 가지고 안 된다구요. 그래, 생활에 있어서 밥을 더 많이 먹어요, 물을 더 많이 먹어요? 「물을 더 많이 먹습니다.» 물을 더 많이 먹어요. 3배 비준의 물을 더 먹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태어나 공기를 마시는데, 공기 가운데는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그다음에는 푸른 지대의 그걸 먹어 가지고 질소를 내고, 식물은 질소를 먹고 산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아야 돼요.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공기시대에서 태양시대예요. 물, 공기, 태양입

니다. 알겠어요? 태양시대를 중심삼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 키스를 왜 해야 되느냐? 처녀 총각이 키스만 시작하게 된다면 발동하기 시작해요. 왜 키스를 해야 되느냐? 물, 그다음에 무엇을 먹어야 되겠느냐? 사랑의 세계, 사랑의 공기를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면 안 된다구요. 두 세계를 거쳐야 영인체가 생기는 거예요. 물 세계에서 영인체가 안 생겨나요. 그것이 원리 말씀에 다 있지요? 그래서 물에서 나와 가지고 공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육적 기준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을 지어 놓고는 나중에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는 태양이 필요하지요?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요. 태양이 없으면 고기도 죽고, 푸른 지대의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태양이 근본이에요.

물 가운데서 코, 눈이 전부 다 움직이면 큰일이에요. 발은 크려니까 움직여요. 운동해야 크지요. 북중시대 물 시대, 그다음에 공기시대, 그다음에는 사랑시대입니다.

부부 상대권이 있어야 돼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모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으로 돌아갈 도리가 없어요. 태양권 내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물에서 생겨났고, 그다음에 푸른 지대를 만들기 위해 영양소를 중심삼고 클 수 있게끔 전부 다 투입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지구 대신이요, 나라는 존재는 세계의 공기가 내 것이에요. 세계 하늘땅이 내 것으로 태어났고, 물도 내 것이고, 공기도 나를 위하여, 사랑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공산당이 그걸 알아요? 「모릅니다.」

물 가운데 아기가 들어가서 잘 수 있나? 양수가 안 돼요. 여러분, 소금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양수! 양수 가운데... 이 송현! 「예.」 아기가 양수 가운데 떠 있지? 「예.」 소금물이에요. 바닷물

과 담수 가운데서... 담수는 만물의 영양소를 먹는 거예요. 물과 소금 물을 합해 가지고 양수를 만들고, 그와 같은 대등한 환경에서 자라야 상처가 안 돼요.

만유의 주인으로서 물, 공기, 태양을 사랑하고 흡수해야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만우주의 주인인데, 이걸 공산당은 몰라요. 단계적으로 물은 공기를 위하고, 공기는 사랑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물·공기·사랑, 태양푸른지대(山)·수(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부가 푸르러요. 바다도 푸르고, 풀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러요. 색도 삼원소지요? 3수를 벗어나지 못해요. 전부 다 3단계예요.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아하, 사람이 만유의 주인 되는 하나님 대신 존재구나!’ 알아요. 물을 사랑해야 되고, 공기를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태양을 사랑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절대사랑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절대 믿고, 공기를 절대 믿고, 물을 절대 믿고, 만물을 절대 믿고 먹어야 돼요. 믿고 먹고 사랑하고 먹어야지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먹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지은 물을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공기를 사랑해야 돼요. 산수(山水)를 사랑해야 됩니다. 푸른 지대를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고 위해서 길러 주고 먹게 되어 있어요. 길러 주었으면 거기에서 주인과 아들이 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두 세계에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의 목적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우주 존재세계의 단계적 계열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물이 왜 생겨났느냐 하면 나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가 왜 생겨났느냐 하면 나 때문입니다. 절대 필요하지요? 물이 절대 필요하고, 공

기가 절대 필요하지요? 여기에서 물과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코로 공기를 먹고 물 대신... 그걸 버릴 수 없어요. 영양소가 물에서 생겨요. 비가 와 가지고 푸른 지대를 만들지요? 물과 공기 둘이 합하고,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물과 푸른 지대의 소유권과 더불어 사랑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요. 눈, 코, 입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근본이니 이것도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투입해야 돼요.

투입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하지, 자기 개념이 있어 가지고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두 세계를 거쳐야 됩니다. 태어나 가지고 물도 먹어야 되고, 영양소도 취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살면서 사랑의 세계는 물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상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푸른 지대가 나 혼자 개체로 돼 있지만 눈 시대에서는 상대가 필요해요. 상대가 안 되면 주인이 못 돼요.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요, 격위에서는 남성적 주체가 돼 있으니 하나님을 닮은 자리에 못 나가기 때문에 주인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서 떠나 버린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편네, 푸른 지대, 물 전부 그 하나를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도, 물도, 사랑도 위하지 않고는 떠나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물도 사람을 위하고, 푸른 지대도 사람을 위하고, 그다음에 사랑도 주체 대상의 사람, 남자면 남자가 전체를 대신해서 줘야 돼요. 하나님은 전체의 중심이요, 전체를 대신해서 영원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주는 사랑의 세계는 가정에 평화요, 민족 국가에 평화요, 세계에 평화요, 하늘땅에 평화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오픈 킹덤(open kingdom), 오케이(OK)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무슨 세대? 천세 만세 뭐라고 부르나? 억만세를 뭐라고 해? 선한 세계는 변하지 않아요. 태평성대를 중심삼고 변하지 않고 천국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이송현도 그것 알겠어? 「예.」 물을 사랑해야 되고, 공기를 사랑해야 되고, 태양을 사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 가게 되면, 하늘의 세계에는 사랑으로 화한 인격들이 집합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을 대신한 푸른 지대가 있고 사랑을 대신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먹고, 눈으로 시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뼈와 같은 기준의 영생하는 영인체다 이거예요.

그래, 우주는 나 때문에! 하나님도 나 때문에 태어났고, 물도 나 때문에 태어났고, 자연의 푸른 지대도 나 때문에 태어났고, 동물도 나 때문에 태어났고, 나라와 하늘나라도 나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허락하신 주인이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 아버지이니 아버지 외에 감사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감사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 남편을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내를 대해서 감사하고, 형님 동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알겠나? 우주의 근본이에요. 이탈이 없어요. 그러나 희랍철학은 자연은 투쟁이라고,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위하고 길러 주는 데는, 그도 개성진리체가 되어 있으면 위한 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심존재는 책임지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돼

부모님이 생명을 넘고 사랑을 중심삼고 주었으면 자기도 생명과 사랑을 넘어 가지고, 혈통을 넘어, 혈통만이 아니라 민족 국가를 다 넘어

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효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고 천주를 대표해서 가정에서는 효자요, 그다음에는 역사를 대신해서 성인이요, 예수님 대신해서 성자요, 참부모 대신해서 하늘의 부모권·장자권·왕권을 수립해서 사탄세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주적인 천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존재는 전체를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는 보호해야 되고, 육성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되어 있다구요.

요즘에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내 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전체 물은 공동적인 소유예요. 공기도 그렇고. 샘물을 돈 주고 사먹는데, 요즘에는 기름 값보다 물 값이 더 비싸다고 하잖아요? 본연의 길을 찾아가려니 그래요. 공기가 얼마나 귀해요! 돈 주고 못 사요. 물도 참다운 물은 돈 주고도 못 사요. 태양 빛이 흐리지요? 하늘의 별들, 태양도 안 개 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시대가 온다구요. 이런 걸 알게 될 때, 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판타날에 갔는데, 거기는 물 천지예요. 그다음에는 고기 천지예요. 그다음에는 동물 천지예요. 물이 있고 고기들, 짐승이 많고, 새들도 많아요. 거기에 먹을 바탕이 많으니까 짐승도 없는 짐승이 없어요.

그래, 물을 사랑하고, 푸른 지대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 왔으니 나는 너를 위해서 돌려주기보다 보태서 줄 것이 사랑밖에 없다 이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비 오면 너는 싫지만 밤이 지나 내일이 되게 된다면 햇빛이 난다. 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넌 싫지만 약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축여 줌으로 말미암아 내일 아침에는 활짝

큰다.’ 이거예요.

만사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의 존재로 인정한 사람이 무슨 뭐 상대세계를 파괴하고, 푸른 지대를 파괴하고, 물 세계를 파괴 하겠어요?

선생님은 그래요. 낚시를 하더라도 고기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무들을 자르는데 이 나무를 누가 심느냐 이거예요. 통일교회가 심어야 돼요. 푸른 지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수원(水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기가 탁해져요.

푸른 지대에는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열매를 따먹고 이래 가지고 말이에요. 동물들이 똥을 싸고 분비물을 뿌려 줌으로 말미암아 골짜기 산천은 잘 자라는 거예요.

물, 공기, 태양은 나를 위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아들딸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들딸의 오줌똥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송현이도 딸을 보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지? 「예.」 그런 거야. 우주 전체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게 될 때 물을 사랑해야 돼요. ‘너 어디서 왔느냐?’ 할 때 거기에 천하를 풀어야 돼요. ‘고기야, 어떻게 생겼느냐?’ 할 때 천하를 위해서... 그다음에 ‘아야, 푸른 지대의 산소 너는 무얼 위해서 생겼느냐?’ 할 때는 동물과 고기와 인생을 위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심삼고 창조해서 나중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절대 뭐예요? 수놈 암놈이에요. 절대 인간인데, 인간은 남자 여자지요? 절대 핵이에요, 핵. 창조이상의 핵이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다구요.

물을 사랑하고, 고기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이니 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은 먹이사슬에 필요한 것이니, 이것이 결핍되거나 아담 해와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핍된 것을 나는 메워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타날을 중심삼고 곤충 박물관, 동물 박물관, 식물 박물관, 어족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은 것 어느 한 가지도 종의 멸종이 없는 본연의 기준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겠다 해서 원초성지, 그다음에 효율이, 뭐라구? 「근원성지!」 그다음에 뭐라구? 「승리성지입니다.」 승리성지!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상이 안 되어 있지요? 결론을 내게 되면 ‘아! 나를 위해서 물을 창조했구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도 나를 위해서, 수목도 나를 위해서, 푸른 지대도 나를 위해서, 동물도 나를 위해서, 가정 전체 나라도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모든 물건을 날라 먹이는 부자 아니에요? 요즘에는 세계 어떤 나라에 가서도 전화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시대에 들어왔지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일일생활권 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권을 소화할 수 있는, 위하는 사랑을 중심삼고 나 때문에 태어났으니 내가 위해 주는 그 세계에서 비로소 평화의 세계는 오느니라! 아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박상권! 「그렇습니다.」 북한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밀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이치를 풀어서 가르쳐 줘야 한다구. 사람을 동물같이 취급해?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됐어? 천 명, 만 명을 죽여도 죄의식을, 죄의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이 사람이예요? 돼지만도 못하지요.

물, 공기, 태양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생겨났다

그래, 사랑하면 말이에요, 그 동물이 나중에 죽게 될 때는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집에서 안 죽어요. 주인 앞에 신경 안 쓰게 하기 위해서 동산 깊은 데 나가서 자기가 모래면 모래를 뒤집어쓰고 숨만 남겨 놓고 거기서 묻히고, 그다음에는 낙엽을 뒤집어쓰고 묻혀 죽어 가는 거예요. 거름 중의 거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새와 곤충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개도 많이 길러 봤지만 개를 팔든가 잡아먹지 않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절대 그걸 금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머니라든가 어머니는 다 팔아먹고 이랬지만 말이에요. 또 그때는 왜정 때이기 때문에 콩깍묵, 비료 하던 것도 먹을 때이니 뭐 개도 팔고 닭도 팔고 다 이래 가지고,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랬어요.

그래, 개가 13년, 14년 이렇게 되게 되면 집에서 떠나가요. 하루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던 것이 죽게 되면 하루에 두 끼 와서 먹어요. 먹고는 그다음에는 저녁은 안 먹고 저 먼 데로 나가요. 그래도 주인 동네를 바라보면서 자고, 그다음에는 하루에 있어서 삼시를 안 먹게 되면 말이에요,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주인이 모르는 자리에 가서 죽어가더라구요. 야!

열대지방에 가게 되면... (녹음이 잠시 중단됨)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한의사니 잘 알겠구만. 뭐라고 그래요? 무슨 토? 「신토불이!」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맞아요. 자, 이런 걸 알겠어요?

물이 생겨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던 그 물과 푸른 지대와 공기와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시대에 물로 영양을 받고, 육지의 모든 푸른 지대, 그다음

에는 사랑의 시대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천국 가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공식이에요.

그런 걸 알고 살아가게 될 때, 동네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귀여워하고 동물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자의 아들딸들은 어떻게 되느냐? 동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걸 원수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원수시하게 된다면 타락한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재창조 못 한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치가 간단해요.

그런 걸 알겠어요? 여기에 새로운 사람 몇 사람이 왔구만. 누가 왔어? 어디야? 어디서 왔나? 「아니, 일본 사람 같은데요. (어머님)」 일본? 서양 같은데? 「서양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예요.» 있는 사람이야? 「예.» 응.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물은 누구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나님 때문에! 풀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사랑의 상대이니 사랑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번식! 사랑을 중심삼고 상대 입장에 있어서 수놈 암놈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는 핏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를 투입한 걸 알아야 돼요. 전체를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물과 공기와 이 푸른 지대의 산천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산수원(山水苑)이라는 말을 지었지요? 산수원 하면 다 들어가요. 산하고 강하고 평야, 푸른 지대가 들어가요. 거기에 있는 동물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동물을 사랑하고 위해 주면 동물도 위해 주게 돼 있어

여기 새면(salmon; 연어) 같은 것은 얼마나 멋져요? 2년 만에 핑크

(pink) 새면이 오고, 실버(silver) 새면이 4년 만에, 킹(king) 새면이 6년 만에 와요. 그렇게 오지요? 틀림없이 떠나간 고향을 찾아와요. 본향 땅, 고국산천이 그리다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다 그리지요? 새들도 그래요. 자기가 새끼친 것이 피해를 안 입고 하나도 죽지 않고 자라서 세 배를 쳐 나갔으면 그곳에 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동네 가까이에 있는 호랑이, 사자도 저 높은 데서 지켜 주지 잡아먹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에 호랑이 같은 것이 있으면 ‘소고기도 필요하겠구만.’ ‘돼지고기도 필요하겠구만.’ 해 가지고 춘하추동 한 달을 중심삼아 가지고 먹여 주면, 매해 3년만 그렇게 한다면 사람을 안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고 3분지 1은 남겨 놓아라 이거예요. 소생장성완성,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동물들을 길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한 3분지 1은 헛간을 지어 가지고 문을 열어 놓고 가마니에도 구멍을 뚫어 놓고 와서 파먹게끔 해 주면 그 동네의 짐승, 새들이 전부 다 집을 둘러싸 가지고 새벽에는 겨울이라도, 눈이 오더라도 자기 집을 지켜 주는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잣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쥐도 생겨나고 뱀새끼도 생겨난다 이거예요. 뱀새끼도 쥐를 잡아먹어야 되고, 족제비도 쥐를 잡아먹어야 되고 뱀을 잡아먹어야 되고 그래서 다 모여요. 고양이새끼를 잡아먹는 게 여우이고, 여우새끼를 잡아먹는 게 늑대이고, 늑대를 잡아먹는 것이 호랑이고, 호랑이를 잡아먹는 것이 사자라구요.

그래, 먹이사슬이 개별적으로 떠나서는 없어요. 연대관계가 돼 있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원소를 흡수했던 걸 해탈함으로 말미암아 만물 앞에 자기

가 배달하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피가 물이 되고, 살이 흙이 되고 뼈가 흙이 되어 가지고 자연세계에서 흡수했던 걸 소모시킨 것을 충당하는 거예요. 나라는 생명의 주인을 중심삼은 그 분해된 원소들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의 피가 물이 되어 가지고, 살이 썩어 가지고, 뼈가 녹아 가지고 흙과 같이 됐다.’ 하면서 그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못 가요. 사람이 죽어서 썩는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많이 열매를 거두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모든 것이 그 천지의 도리에 맞게끔 되어 있지, 거기에 어긋나면 다 깨져요. 파괴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연의 주인이 되려면 자연을 위해 주고 투입해야

물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태어날 때 하나님도 물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푸른 지대로부터 곤충을 사랑할 수 있어 가지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지어 가지고 사랑해 나왔다는 거예요. 상대가 생겨야 비로소 혈대를 통해서 가정이 생겨나고 나라가 생겨나요.

생식기관은 나라를 창조할 수 있는 기관이요, 가정을 창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혼자 생식기관은 있으나마나라구요. 여자 남자 둘이 하나되어 가지고 가정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요, 남성적 주체로서 창조한 과정을 내가 되풀이해 들어가는 거예요. 되풀이해 가지고 새끼들은 커 가는 거예요. 작은 나라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방대한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위해 주고,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놀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방대한 세계

의 상속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코디악에 와서 뭘 해요? 코디악 여기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산뜻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보게 되면 춘하추동이 다 있지요? 밤에는 이불을 덮고 자야지요? 낮에는 홑이불을 덮고 자야지요? 춘하추동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루에 봄 절기, 여름 절기, 가을 절기, 겨울 절기가 다 되어 가지고 수양을 중심삼고 자연을 사랑하고, 물을 먹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상대적 박자가 맞을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건강 유지에는 지극히 좋은 곳입니다. 겨울에는 사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름에는 배를 타고 여행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산수원(山水苑)! 산에만 가고 강에만 가서는 안 돼요. 들에 가야 돼요, 들에.

남미 같은 곳은 푸른 지대예요. 수평선이 아니라 지평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있어서 높은 산, 강도 졸졸 흐르는 계곡의 강, 큰 대강, 큰 바다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강이 있다구요. 소생장성·완성, 3단계를 거쳐 나가 연결되어야 하니까 산수원이에요. 산과 강과 들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요? 호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원이 필요하고 산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꽃과 들을 중심삼고 정원을 만들어야 돼요. 백두산 대신, 세계의 큰 산 대신, 그다음에 강을 중심삼고 무슨 강, 무슨 강, 무슨 강 4대 강을 나누어서 사랑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들을 중심삼고 사랑하겠다 해야 됩니다. 전라도가 평야지대고 경상도는 산이에요. 경상도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박' 자가 '박달나무 박(朴)'이에요. 그런 걸 다 보면 상대적 조건이 된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박상권! 「맞습니다.」 북한에 가서 가르쳐 줘야 돼. 자기가 피땀을 흘려 가지고 자기 집도 하나 없는 거지들 집에 가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말아야. 아버지부터 시작

해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존재가 나 잘되기를 바라서 위하고 있다

선생님이 안 해 본 것이 어디 있나? 그런 걸 친히 알기 위해서 벼락이 치고 태풍이 불 때 낚시질을 해요. 고기들도 기후가 나쁘면 못 사는데, 고기가 안 물거든. ‘못 살아서 죽게 된 것은 내 밑감을 따먹고, 하루 더 살고 싶거든 와서 따먹어라.’ 그런 생각을 하며 낚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가 와서 물어요. ‘야,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럴까? 내가 잘 왔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고기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험산준령이라도 백두산하고 북한 땅은 못 가지만 말이에요, 남한의 땅은 안 가 본 데가 없어요. 눈 속을, 들 속을, 수풀 속을 다 다녔어요. 알겠어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서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 올라가면 기분 좋지요? 넓은 강을 봐도 기분 좋지요? 넓은 들의 오색가지 동물... 밤이면 텍사스에 있는 우리 농장 샀던 데 가게 된다면, 여우 소리부터 닭소리부터 비둘기 소리로부터 칠면조 소리로부터 늑대 소리로부터 사자 소리까지, 멧돼지 소리까지도 들려요. 알겠나, 모르겠나? 「알겠습니다.」

그런 연대적인 모든 관계에서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도 자기가 제일 가까운 데서 사랑하던 것을 나에게, 체험해 가지고 아담에게 아 들딸서부터 전부 다 준 거라구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실체적으로 분가해 가지고 나온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투입할 만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한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우리에게

게 넘겨주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생명의 원천이 되었던 것을 보이는 실상의 실체, 실상세계에 전개한 것이 피조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거기의 중심이 인간이니 인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 갈 길은 가는 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모든 것이 맞춰진 중요한 이 해에 유엔 공약까지 실현한다

그러면 그것 마저 읽자. 5월 달이 중요한 거예요. 5월 달에 비로소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2003년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 3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봄 절기를 비로소 출발하고 여름 절기를 중심삼고, 양력과 음력이 같은 날을 중심삼고 다 맞추었어요. 5월 달 10수도 양력과 음력이 맞아요. 6월 22일은 하지가 돼요. 돌아가는 모든 것이 맞춰진 이 기간이 귀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에 있어서 유엔 공약까지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서 이번 피스컵(Peace Cup)이 유명하더구만. 어저께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자막을 해서 쪽 나오잖아요? 「피스컵에서 배워라」 그런 글이 나왔어요. 한국의 케이(K)리그가 인기가 없고 그랬는데 피스컵 그 짧은 것 한번 하는 것 보고 왜 못 배우느냐?」 그래, 피스컵 주인이 누구야? 「아버님입니다.» 하나님이지. 피스 킹 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킹(king)’을 떼 버렸어요. 킹킹 컵! 가인 아벨까지 붙여서 만들려고 그랬다구요. 자!

『광물세계도 주체와 대상, 식물세계도 주체와 대상, 동물세계도 주체와 대상...』

5월 10일 날 한 말이지? 「예.» 그래, 5월 10일은 안팎이 맞아요.

『.....세상의 요사스런 모든 것을 유엔에서 결정하는 법대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요. 개인이라든가 국가시대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도 그런 걸 알고도 손 안 대 가지고 행동 안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세계 문제를 염려하고 유엔 문제를 염려하고 하늘땅의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자!

『……이날을 기하여 정오정착의 해방, 지상 천상 만국의 해방, 만세의 해방, 만 주인의 해방을 선포하오니 그대로 만국을 치리하여 주시옵기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천상 부모 앞에서 보고하면서 선포하오니, 그대로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오면서 보고하나다! 아멘! 아멘! 아멘!』

이 21일 기간의 이 내용을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완전히 암송하고 체화될 수 있게끔 훈련해야 돼요. 5월 달 전체, 5월 27일까지. 자!

『……지금 문 총재가 하는 것은 조상이 아니에요? 혈족입니다.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시엘이면 누시엘, 공자면 공자로서 책임 추궁을 받는 거예요. 4대 성인들도 영계에서 지상에 교과를 만들듯이 하나 만들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연합해 가지고 전부 다 통일시킬 수 있는 인맥을 선생님이 배치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들 앞에 배치하라고 하면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영계의 믿고 간 선한 영인들, 영계에 간 기독교인들…』

이번에 흥진 군을 중심삼고 배치를 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영계의 실상을 보고하라고 했으니 세밀한 보고가 올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열매맺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소하면 생소할수록 새 것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으로서 깔고 앉고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훈독 마치고 김효을 보좌관 기도)

일본의 유정옥을 좀 부르라구. 거기에 가서 불러야 되나? 핸드폰 안

갖고 있어? 임자는 이름이 뭐던가? 「주형희입니다.」 형기, 주형기!

「예.」 (일본 유정옥 총회장과 전화 통화 시도함)

여기서도 일본 식구들을 동원하고 식구들을 동원해 가지고 학생과 같이 일일보고를 받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학교예요, 사랑의 학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학교가 가정이에요. 가정들을 접 붙여야 된다고요. 축복을 빨리 다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집시의 조상이 되라고 하던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런 때예요. 세계의 국경을 무시해 가지고 어디든지 간다는 마음, 하늘땅도 경영하고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유 해방권을 가지고 하나님 천주부모와 천지부모의 심정권에 들어가 절대신 양절대사랑절대복종 하게 될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 티켓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 절대신양절대사랑절대복종 해야 돼요.

여기 공장이면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은 이노우에가 가졌지? 누가 하겠나? 「공장은 지금 뉴욕에 있는 사장을 여기 공동사장으로 했고, 이 사람은 지금 부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미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다니?

브리지포트 대학과 유 티 에스, 코디악의 공장에 지원해 줘야

(휴대폰으로 유정옥 총회장과 통화하심) 정옥이야? 좀 크게 얘기하라구. 그래, 9월 달 계획하는 것이 어떻게 진척을 보고 있나? 무슨 말인지 들려? 글썄, 그 가망성이 어드래?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브리지포트 대학이라든가 유 티 에스(UTS; 미국통일신학대학원)에 3백만 달러를 지불하기 바라고 있는데, 그것 생각해 봤어? 브리지포트! 그걸 지금까지 몰랐나? 벌써 3년 전부터 계획한 거야.

그럼, 다섯을 해 가지고 거기서... 브리지포트에 세 개 쫓나? 다섯 개 쫓 가지고 브리지포트 세 개... 유 티 에스 세 개 따로 있고, 그 나머지 총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최후에 나보고 부탁한 것이 3년 됐어. 제발 350을 대면 자기들이 후원 안 해도 자립하겠다고 간청을 해서 지금까지 밀고 나왔다고. 이제 내가 미국을 떠나고 다 그럴 때에 있으니 그것까지도 손을 떼고 가야 할 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도와줘야 돼. 그래야 해외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그리고 여기 코디악의 공장이고 뭐고 다 폐쇄해 버렸어. 그걸 아나, 모르나? 코디악의 공장이 지금 쉬고 있고 문 닫은 것을 아나, 모르나? 그거 알아야 돼. 일본 책임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것 다섯을 미국에 될 수 있으면 보내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8월 15일에 가서 서울 선언을 할 때 한국에 들른다면 그것을 다 지불하고 바로 잡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유 티 에스에 보내면 유 티 에스도 그렇고, 여기 공장도 지불할 수 있잖아? 합해서 다섯 개 보내면 말이야, 내가 봐 가면서 조정하려고 생각해. 달라는 걸 다 주면 되나? 조정하더라도 갖출 수 있는 걸 갖추어 가지고 조정해야지, 그것도 안 갖춰 가지고 조정할 수 없어. 여기 코디악을 도와줬더라도 사무감사를 하든가 뭘 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도와주든가 해야 되겠다고. 알겠나, 무슨 말인지?

유 시 아이(UCI)에 보내면 말이야, 브리지포트도 다 지불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내가 마음대로 해 가지고 유 시 아이에 보내더라도 선생님이 지시한 거라고 하면 될 거라고. 알겠나, 무슨 말인지?

하늘땅의 완충지대와 같은 코디악에서 중요한 발표를 많이 했다

그리고 4일 날 칠팔절 기념식 할 때 자기 오라는 연락 받았나? 안

했나? 「황 회장한테 연락했습니다. 거기서 연락하라고요. (김효율)」 일본은? 「일본은 세계본부에서 연락을 합니다.」 칠팔절 4일 날 일본에서 대표 몇 가정을 부처끼리 데려오라고 그랬어. 칠팔절 4일 날이야, 칠팔절.

그 대회가 중요한 대회니만큼... 여기 코디악은 뜻이 있어. 코디악은 소련과 미국의 완충지대고, 영계를 중심삼고 세계적 완충지대예요. 한국의 완충지대와 달리 하늘땅의 완충지대와 같은 지역이 여기가 되어 있어.

그래서 중요한 발표를 코디악에서 했다고. 들어 보라구, 다들. 중요한 발표를 여기 코디악에서 많이 한 걸 알아? 완충지대야. 해방적인 중요한 말이라든가 팔정식, 천부주의라든가 중요한 것을 발표하고, 이번에도 코디악 선언을,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 (Lasting Love Conference; 영원한 사랑 대회)’를 코디악에서 할 것을 서울로 옮긴다고 선언하지 않았어? 완충지대에서 교육해 가지고 앞으로 평화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구. 앞으로 한국의 완충지대를 중심삼고 교육할 수 있는, 앞으로 유엔이면 아벨유엔 발표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해서 일본이 해외국가로서 모든 전력을 다해서 투입해야 돼. 12월 달까지 금년 계획하는 전부를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다시 비축자금을 모아 가지고 이러한 아벨유엔권 내에 써야 할 해외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돼. 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 할 것을 사랑하고 나서, 죽는 것을 축복받는 것으로 알고, 희생이 아닌 축복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때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동정해서는 안 돼. 기쁨으로 모두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을 4천3백에서 4만3천 명까지 동원하려

고 그래, 세계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해야 돼. 전도는 간단하잖아? 자기의 형제 축복, 부모 축복, 3대를 축복해 주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3대, 3대, 3대... 조상까지 해원성사 해 가지고 해원한 조상들 축복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그것이 안 되면 지상 재림을 못 해.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일본에 연락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까지 연락을... 이번에 칠팔절인가? 「예.」 8월 4일 날을 중심삼고 모여 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 대표들은 중요한 교시를, 실천 방향을 교시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육대주 대표자들이 올 거라고.

그렇게 알고, 올 때는 부처끼리 와야 돼, 부처끼리. 알겠나? 세 가정, 네 가정이야. 최소라고. 그렇지 않으면 40가정, 400가정 수를 중심삼고 얼마든지 괜찮지만, 그렇게 많이는 지금 바쁘니 동원되게 안 되어 있잖아? 자기를 중심삼고 세 가정만 되면 네 가정이 되는 것 아니야? 그래, 선생님을 중심삼고 가정적 사위기대를 중심삼은 중심이 다섯이 딱 되는 거야. 13수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리가 그래. 그렇게 알라고.

그러면 미국에 대한 내 책임도 교육기관하고 여기 사업하던 모든 것도 정리하고, 이제는 했는지 못 했는지 알려고 내가 사무감사를 시키려고 그런다고. 감사하려면 예고하고 요구하던 모든 것을 지불하고 다 그래 가지고 내가 조정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다고. 알겠지?

특별헌금을 하게 해서라도 메워야 되겠다

그러면 4일 날 올 때에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그걸 채울 수 있으면 더욱 좋고, 하여튼 8월 15일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기가 9월 달도 지금 뭐 12월까지 하려면 문제없게 다 깨끗이 정리해야 돼. 어머니라는

것은 아기들을 위해서 피, 살과 뼈, 기름을 짜 가지고 다 투입해 가지고 어머니의 책임을 해야 산고를 하다가 사고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벌어진다구. 알겠지? 그래서 코디악에서 연결하니 유 시 아이로 해서 보내게 되면 일본 정부도 그 보고 받으려니까 문제가 안 될 거라구.

오늘이 며칠인가? 27일! 거기는 28일이지? 28일 아니야? 그래, 열 두 시이니까 지나잖아. 지나니까 28일이지. 28일이 사 칠이 이십 팔 ($4 \times 7 = 28$), 중요한 것 아니야? 8수와 연결될 수 있는, 안식도 연결되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 연락한다구. 알겠나?

그래, 그렇게 알고, 식구들 앞에 여자들을 선생님이 있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말이야, 한 120명 특별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 가지고 그런 대책도 강구하는 게 좋을 거라구. 특별 공신 여자들을 중심삼고 이번에 특별헌금이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 보충할 수 있게끔 동원해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서 실버 새면 잡을 시즌이 오거든. 한 3, 4일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좀 훈시도 하려고 그래.

아니, 4일 날 말고... 4일 날은 복잡하잖아? 그 뒤로 하든가 그다음에 한 4일을 중심삼아 가지고 끝난 다음에 한 8일쯤 해서 8일, 9일, 10일, 11일까지가 좋아. 이것이 중요한 기간이에요.

한국에서는 앞으로에 있어서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나라가 거기에 참석해서 선언하는데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구. 만세를 부르게 되면 자기 책임도 못하고 어떻게 만세를 부르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여 지금 계획대로 안 되게 되면 여자들이 특별헌금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라도 메우고 올 계획을 해야 된다구. 알겠나?

그다음에 8일이라든가 4일이라든가 5일, 6일, 7일, 10일 이내에 여기에 초청해 가지고 실버 새면 옛날에 잡던 것을 해야 돼. 120명에게

특별히 내가 얘기 좀 해 주려고 생각해. 오기가 힘들면 앵커리지에서 할지도 몰라. 코디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낫지. 그럼,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특별 방문하게 해 가지고 선생님이 시급히 조달하는 걸 충당할 수 있게끔 하게 된다면 초청해 주겠다는 걸 지시한다구. 알겠나?

그러면 더더욱이나 마지막 때이니까 불러 가지고 얼굴도 보고 다 그렇게 할 거라구. 자, 알겠지? 응, 그러면 열심히들 하라구.

이 해는 마지막 하늘땅이 뒤집어지는 해야. 창조이상 대전환시기 아니야? 유엔까지 공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많은 재력이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정당을 만든 거와 같이 미국도 빨리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구. 가정당이 협조해야 돼. 그런 걸 설명해 가지고 책임 완수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다구. 그러면 다들 열심히 노력하라구. 알겠나?

한 나라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없어. 아버지는 한 사람이야. 신부라는 것은 한 사람이니 한 나라이지. 아버지가 사는 곳은 나라야, 나라. 그걸 중심삼고 세계로부터 여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국 여자가 선두에 서고, 그다음에 일본 여자, 그다음에 미국 여자를 동원해 가지고 세계에 배치할 때가 온다구.

여자들이 맨 만언니, 만누나가 한국이고, 그다음에 일본 여자가 둘째 번이야. 둘째 번이 중요한 거야. 탕감이라구. 셋째 번은 천사장인데 셋째가 되어 가지고 돌아서는 거지. 그런 시대에 들어간다구.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세계를 중심삼고 활동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가용 비행기 몇 대가 있어 가지고 국가의 수상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어 들어온다구. 경비가 많이 필요해. 알겠어?

그래, 3국이 하나되어 가지고 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걸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가 오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국가가 책임 완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입장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

다구. 알겠지? 열심히 하라고 권고하고, 최후에. 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라구. (전화통화 마치심)

코디악 공장을 다시 가동하라

자기들이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고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 가지고 선생님이 무리를 하게 만들어요.

강조하지만 말이야, 이노우에! 「예,」 이노우에가 여기 사토 위에 서 가지고 코치하라구. 알겠나?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노우에? 공장을 다시 돌려야 된다 그 말이야. 실버 새 먼 시즌 이 기간이라도, 한때라도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는 뭐 시간 있으면 우리가 명태도 잡을 수 있고, 청어도 잡을 수 있고, 플라운더(flounder; 가자미)도 잡을 수 있고, 후루쿠도 잡을 수 있고, 또 여기 새우도 잡을 수 있는 거라고요. 배 한 척, 두 척으로 새우를 잡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이노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걸 지금 지시하는 거야. 박상권, 알겠나? 「예,」 박상권 위에서 지시하는 거야. 계대적인 책임을, 연대적인 책임을 자기에게 주기 위한 거야. 배도 자기가 해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골칫거리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진지 알아?

알류산 열도(Aleutian Islands)에서 미국과 온대권 한대권을 종합하는 고기가 다 잡혀요. 그다음에는 남극을 점령해야 돼요. 여기에 주도권을 잡고 남극을 중심삼고 미국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했는데, 그 누구도 몰라요, 선생님이 얼마나 고충 받았는지.

박구배, 박 가들을 내세우고 내가 지금 단련 받고 있어. 알겠어? 박중현도 초종교 책임자로 임명한 것 아냐? 「예,」 응, 박 가들! 박 씨를

탕감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커져. 박 씨들은 다 그래.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고. 박보희도 제멋대로 해 가지고 문제되고, 박중현도 제멋대로 해 가지고 기합 받고, 지금 자기도 그래. 선생님하고 허락 없이 해 가지고 문제되고 말이야.

박 씨들이 왜 그래요? 박상권도 문제가 되어 있고, 박동하도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미에 보냈으면 배 해 가지고 같이 다녀야 할 텐데 떨어져 가지고, 자기 여편네하고 자기 아들딸은 통일교회 이스트 가든하고 청평에 갖다 맡기고 자기는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지금 효율이, 어디로 배치했나, 박동하? 「여수 쪽으로 배 담당하고…」 여수에 가서 배 운전하면서 안내하고 다 이러라고 했다고. 남미도, 우루과이도 책임지러 가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뭐인가? 고기 큰 고기가 무슨 고기? 「남미 쪽예요?」 응. 8월 달이 되고 9월 달이 되면 무얼 잡나? 그거 책임지라고 했는데 내버려 가지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을 중심삼고 배 한 척이라도 운전하면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중심삼고 청년들을 데리고 교육하면서 훈련시켜야 된다고.

열두 항구를 중심삼고 스물 네 사람을 길러야 돼요. 그것 알아? 효율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글썄, 그러니까 배치할 수 있는 데를 전부 다 돌아다니라는 거지. 윤태근까지 하면 배치할 수 있게끔 황 협회장과 의논하면서 하고, 김광인한테 배 빨리 만들라고 하라구. 지금 만들고 있지? 그거 체크하라구. 「했습니다.」 했으면 빨리 할 수 있게 재촉도 해야지.

선생님이 지시했으면 자기들이 지시한 것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해서 보고 빨리 빨리 해야 선생님도 끊고 딴 일을 할 것 아니야? 경비 문제 라든가 그런 문제를 자기들이 한푼이라도 도와줄 수는 없잖아? 선생님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일을 언제나 할 수 없어요.

일본 부인들을 동원해 세계의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이제부터는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유엔 공약을 한 다음에는 세 나라가... 선생님이 세계적 활동을 하는 것은 일본, 미국, 한국이 아니에요. 세계 국가에 공공건물을 지어야 돼요. 대사관을 지어야 되고, 그 나라의 청사를 지어야 되고,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요. 일본 혼자 할 수 없으면 미국을 내세워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교육할 수 있기 위해서 4만 3천 명까지도, 4만 명까지도 사십 전후의 일본 여자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세계를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해야 돼요. 2세를 선생님이 다시 손대지 않고는 전통을 세울 수 없어요. 알겠어요? 박상권도 알겠나? 그럴 때는 북한도 들를 거라고요. 내가 들어가게 될 때는 들어오지 못하게 안 할 거예요. 중국도 소련도 어디나 갈 수 있다고요.

그 문을 열라 이거예요. 그걸 열어야 돼요. 유엔에서 그것을 하려면 삼팔선 지역을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아도 나는 남한 지역만이라도 할 거라고요. 명년 4월 11일 전까지는 아벨유엔을 발표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육해서 국가가 환영할 수 있는 걸 새로이 키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효율이, 알겠어? 「예.」 대통령이면 대통령 된 사람도 여러 사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교육해 가지고 아벨유엔에 가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유엔 공약에 대해 꼭 목사한테 확실히 얘기를 다 들었지요? 「예.」 이번에 순회하는 191개 국 교회로 떠날 때 뭐냐? 지금 현재 가인유엔에 종교권을 세우는 것보다도, 종교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인유엔 대사권까지도 종교권을 안팎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게 될 때는 아벨유엔을 세워 가지고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벨유엔을 세운다고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연합을 방어하라는 거예요. 종교연합을 대표한 아벨유엔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1, 제2, 제3이스라엘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코리아 선언’이지요? ‘서울 선언’이지요? 평화지역으로서 완충 지대를 교육 기지로 만들어야 돼요. 소련과 미국 국경선에 따라 날이 달라지지요? 날짜변경선이 있잖아요, 여기 소련과 미국 대륙과? 그렇지요? 안 그래요? 그게 완충지대와 맞먹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행사도 공개하고 경계선을 철폐해야

일본 말로 말하면 알래스카가 ‘와카리마시다카(알았습니까)’예요. 일본이 책임져야 돼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토치카니 뭉니 다 있지요?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코디악을, 알래스카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이래 놓으면 무한한 자원과 소련까지 견제할 수 있는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화태(사할린) 지방의 경계, 하루 차이가 되는 경계선을 중심삼고 여기를 점령하던 계획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본 사람 43명을 해양을 중심삼고 7년 동안 해 가지고 세계에 배치한 것을 알아요? 박상권! 「예.」 일본 여자들이예요. 43개 국에 파송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준비예요.

알래스카 코스트 가드(coast guard; 해안경비대)를 중심삼고... 코스트 가드가 고마운 것이 말이에요, 세계 국가의 통일교회의 바다에 관계돼 배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 코스트 가드 자체가 교육해 줬어요. 그것 아냐? 「그랬습니다.」 지금도 해야 되겠다구, 금년에도.

소형 배 허가를, 2백 톤급 트롤선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허가증을 줬는데, 그 허가증은 미국 대사관을 중심삼고 그 수역에 가서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자격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박상권! 「

예.] 그것 다 알고 다시 교섭해요. 코스트 가드하고 친한가, 어떤가?

이제 나라를 끼고 돌아가야 돼요. 이번 행사들도 통일교회 자체가 하던 것을 경배식도 수천 명이 모여 가지고, 뭐 평화대사든 가정당 요원이든 이번에 다 같이 공개시키고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서 모일 때 다 그렇게 가정당도 다 모였었지? 효율이! 「예. 그랬습니다.」 공개해야 돼요. 경계선을 철폐해 버려야 된다고요. 옛날 같은 관념을 갖지 말라고요.

3년 이내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어

여기 선생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 손 들어 봐요. 몇 사람이야?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50퍼센트 이상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손 들어 봐요! 한국말을 모르면 안 돼요. 조국어라고요. 영계에 가더라도 한국말을 모른다고 하면 조상들한테 참소받아요. 선생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말이 안 통하면 완전하게 모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면 효자 효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자기들이 가야 될 최고의 절정권에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이라고요. 알겠어요? 「하이.」

여러분은 젊다고요. 선생님과 비교하면 말이에요. 팔십 넘은 할아버지가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외국어를 말이에요. 일본 말은 16세 때부터 해서 1년 반 만에 6학년의 국어독본을 전부 다 외워 버렸어요. 16세의 아이가 3학년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일본 말을 하는 것을 선생님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히라가나를 하룻밤에 전부 다 외워 버렸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의 독본을 전부 다 외워 버린 거예요. 그만큼 심각해지면 전부 다 통하지요? 그래서 1년 반 후에는 아무도 못 따라오게 되었다고요.

졸업 때는 뭐 교장으로부터 선생들을 중심삼고 일본 사람들인 그 군

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모인 데서 선생님이 일본 말로 일본이 다하지 못한 정책의 실패를 당당하게 공격해서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면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젊었을 때는 1년 반, 3년 이내에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구요. 선생님은 그렇다구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를 몰라 가지고는 부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의 손자 같은 나이에 1년에 그 나라의 말을 외워 가지고 당당하게 말해요. 두 살이나 세 살짜리의 아이도 당당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한국말을 못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돼지한테 가르쳐 줘도 말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이 그립고, 졸릴 때 잠 자고 싶고,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이상으로 결심하게 되면 1년에 절정권을 넘어가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알겠어, 젊은 여자들? 알겠어, 모르겠어? 확실하게 대답하라구! 「알겠습니다.」

조국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세워질 때 패스포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차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교차결혼. 일본 사람들만으로 써는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한국 남자와 여자를 통한 그 기준으로부터 세계적인 이상가정의 아들딸을 낳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 세계를 지도하게 돼요. 일본 사람들끼리는 한국에서는 안 통합니다. 원수 국가라구요. 일본 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원수 국가예요. 그것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합해서 미국 사람과 결혼시키는데, 혈통을 묶는 이것은 기분 나쁜 방책이라구요. 그거 알겠어?

너는 일본 여자야, 한국 여자야? 「일본입니다.」 남자는 어디야? 「한국입니다.」 그럴 때는 한국 여자라고 해야 된다고. 일본 말은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말라구! 먼저 한국말을 가르친 다음에 일본 말을 가르치는 거야. 알겠어?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주 무슨 기? 「주형희입니다.」 주형희도 그래. 아기들이 있으면 한국

말을 배우고 난 후에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워야 돼. 너도 일본 말을 하나, 한국말을 하나? 「한국말하고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안 된 다구, 한국말을 써야지.

영어를 일본 말로 하면 에이고인데, 한국말로 상가집에서 ‘에이고, 에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 지? ‘아이고’라고 해요, ‘에이고’라고 해요? 어떤 거예요? 사흘 동안에는 ‘아이고! 가슴 막힙니다.’ 하고, 떠난 다음에는 ‘에이고! 영원히 가 버렸구만!’ 그래요.

*자, 오늘도 새롭다고 생각하고…. 동양은 28일이지요? 그렇지요? 28일로 되어 있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여기 식사 준비하라 구. 내려가서 먹으라구. (경배)

가정맹세문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 내용에 일체화되어야

맹세문 할 때 좀 또박또박 해요. 천천히 하고 딱딱 잘라야 되는 거야. 알겠나? 지도하는 사람 말을 따라가야지 제멋대로 하면 안 된다구. 책임자가 할 때 그 사람 말을 따라 가지고 ‘일, 이, 삼, 사’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앞에 말이 나오면 그게 걸리는 거라구. 주체 대상 관계에 일치가 되어야지 대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구. 그거 교육해야 돼.

기분 나쁘게….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제멋대로예요. 일체 되 게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맹세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일체화되어야지요. 영계에서도 맹세문을 외운다구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홍진 군과 5대 성인들이 맹세문을 같이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장난인 줄 알고 있어. 인사했나? 「예, 했습니다.」 한 번 더 해 봐. 좀 크게! 「차렷!」 차렷! 「천주 천지 참부모님께 경배!」 똑똑히 해.

천주 천지 참부모님께 경배! 딱 부러지게 하라구. 조그마한 사람이 큰 사람들 앞에 말이라도 크게 얘기해야지, 조그마한 사람 자기 기준에 맞추어 하면 이쪽은 들리지도 않아.

주형기? 「형희입니다.」 주형기야? 무슨 ‘형’ 자야? 「형통할 형(亨)’에 ‘빛날 희(熙)’ 자입니다.」 ‘빛날 희’ 자야? 남자로구만. 희생할 수 있는 남자야. 코디악에 주형희니까 여기 와서 고생하누만. 배 매일같이 고기잡이 보고 받아? 「예.」 요즘은 나가자 하면 나타나지 않고 다 그래. 구경하는 사람이야, 뭐야? 배 선두에 새벽같이 나가 고기 잡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 지도하겠다고, 어부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구. 「알겠습니다.」

공인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공장도 있지만, 선생님 따로 공장 따로 했지? 흥할 게 뭐야? 선생님같이 열심히 해 보라구. 왜 적자가 나? 배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썩어 뒤 가지고... 가정에 배치해 가지고 그걸 팔아서 기금을 만들어 교회도 돕고 생활도 윤택해지라고 그랬는데, 배 지금 몇 대 있어? 「18대 있습니다.」 그렇지! 18대인데 그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만 달러 이상 된다구.

새로운 배는 몇 척이 있나? 사토! 「두 대 있습니다.」 여기 섬나라를 중심삼아 가지고 배를 배치하고, 인디언 나라도 배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어요. 두 척씩 여기서 훈련시켜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말을 했지만 그것 전부 다 땅에 떨어진 거라구요.

*고바야시 상(さん)도 코디악에서 무슨 책임을 맡고 있어? 「트루 월드 그룹의...」 트루 월드 그룹이지? 「하이.」 그러면 어제의 그 공장도 관계가 있지? 「하이.」 응?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공인한 것을 마음대로 포기하면 안 돼! 죽도록 충성하면 영계가 기념비를 세워서 네 이름

을 천주에 남기게 된다고.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박상권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이 남겼던 사실들을 자기가 손대기 위해서는 일기를 기록하면서 나가야 돼.

*일기를 쓰면서 말이야. 이노우에,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너는 수산대학을 졸업했지? 「하이.」 미국에 일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대. 전문적으로 배를 다루는 방법이나 그물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을 것인데, 그렇게 공부한 것을 발휘해 본 적이 없어. 발휘해 본 적이 없대, 여기서. 「없습니다.」

일본에서 규슈대학이지? 「하이.」 국립대학에서 무슨 학위를 받았어? 「수산자원학입니다.」 전부 다 배웠대. 요전에 남미를 쪽 책임을 지고 혼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공부한 전문적인 기준에 있어서 비교 대조하면서 현지를 답사해서 딱 기록하고 있어. 일기로부터 도면까지 그려서 말이야. 그것은 그런 공부를 한 실력이 있기 때문이라구. 그것을 아직 발휘하지 못했어.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박상권도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책임자로 세워 가지고 써먹기 위한 거라구. 자기도 전문분야는 모르잖아? *네가 일본 사람으로서 수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된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대. 전문적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다구. 시로토(素人; 비전문가)는 구로토(玄人; 전문가)가 될 수 없어.

언어를 잡아 판매하면 세계적 기반을 닦아 발전할 수 있어

사토, 알겠어? 네 선배로 모시겠다는 생각이 필요해. 지도방법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야. 코스트 가드(coast guard; 해안 경비대)와 네가 쪽 관계를 맺고 교육했지? 배 기술을 교육할 때 네가

관계를 맺었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계로부터 모인 청년들과 코스트 가드들에게도 배 기술 같은 것을 교육했지? 이노우에! 「하이。」 그거 몰라? 「알고 있습니다。」 네가 관계를 맺고 했지, 박구배하고? 「하이。」 일본 사람을 대표해서 말이야. 박 상(상)하고 사토와 마찬가지로 그 환경을 되살려서 교육해야 돼! 세계적인지? 「알겠습니다。」 세계적인데. 그러면 너도 유명해진다구. 여기까지 일본 여자들 43명을 데리고 와서 고생했지? 「예。」 네가 했지? 「예, 제가 했습니다。」

네가 충성한 것을 이용하지 않고 해산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구. 수산 선교사들로 43개 국에 보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배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알겠어? 「하이。」 나중에 킹 새먼이나 실버 새먼을 잡으면 판매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면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서 발전한다구. 킹 새먼이나 실버 새먼은 유명한 고기라구. 알래스카에서 유명하지? 「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 적이 없잖아? 요전에 하라고 했지? 고기를 잡으면 못 팔지? 「하이。」 냉동해서 보내라고 선생님이 몇 번이나 얘기했지? 듣기만 하고 선생님의 명령을 흘려 버리면 안 된다구.

선생님 이상으로 몇 년 동안 낚시하는 이상으로 열심히 했으면 요전에 적자가 나서 선생님한테 훈련을 받는 일은 없었을 거라구. 어떻게 생각해? 「예, 그렇습니다。」 응?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구. 뭐 추운 곳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바쁘지? 「하이。」 코디악이 좋아서 언제든지 들르는 것이 아니라구.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해양권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라구. 4명이나 침몰해서 죽었다구. 그렇지? 「하이。」 네 책임도 있다구. 「하이。」 새롭게 결심해서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어야 되겠다구. 알겠어? 「알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끼리 누가 앞설 것인가를 날마다 경쟁하면서 말이야.

여기서 킹 새먼, 실버 새먼, 그리고 가장 많은 고기가 뭐야? 「플라

운드입니다。」 그리고? 「대구입니다。」 그리고? 「명태입니다。」 응? 「명태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낚았던 잘 무는 것이 무슨 고기야? 「블랙 피시입니다。」 블랙 피시, 그거 유명한 고기라구. 제주도에 그런 고기 한 마리가 있으면 돼지 한 마리와 같은 가격이라구. 「하이。」 네가 알아봤지? 「예。」 똑같다고 네가 대답한 적이 있잖아? 응? 「하이。」 그 고기의 맛이 넘버원이라구.

킹 새먼은 날마다 먹으면 대변에 설사해요. 이것은 몸에 탈이 생기지만, 블랙 피시는 계속 먹어도 그런 현상이 없어요. 먹어 보라구! 「하이。」 매달 배로도 잡는 데 문제없지? 「예,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가지고 가면 사시미로 일등품이라구요. 일본, 한국, 중국에까지 팔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판매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판매를 못 하면 외국을 중심삼고 개척해서 판매해야 되는 것이 코디악의 책임이라는 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님이 얘기했다구요.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못 하면 모두 다 뉴욕으로 돌아가라구!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수산사업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일을 해야

박상권도 잘 알라구. 「예。」 자기가 왔으면 수산사업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높음을 해야 할 텐데, 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수산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고. 수산사업 전체를 책임져 가지고 하고 있잖아?

금년에 총판매한 것이 얼마나 되나?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말씀 안 드려도 괜찮아.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총액이 그동안에 2천1백만 달러어치 사 가지고…」 아니, 전국적으로. 「아! 우리 전국은 3억 달러 정도 됩니다。」 5억만 돼 봐. 5억에 20 퍼센트 이익 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단구.

그래, 브리지포트도 매월 도우라고 선생님이 지시한 것 아니야? 자
기들이 벌여 가지고 뭘 했나?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요, 그동안에 와
가지고서… 이노우에를 달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주
옥 책임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왔을 때 350만 달러 빚을
당장 안 갚으면 이 회사 끝날 지경이었습니다. 빚진 것 350만을 빚
언어다가 우리가 생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거 집어넣어야지. 보라
구.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야.

「150만 150만 달러 해서 300만, 620만 달러를 우리가 은행 빚으
로 순전히 갚다 집어넣었습니다。」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구. 자기가 책
임졌으면 그걸 책임져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79년부터 작년까지 3
천7백64만 달러 손해를 봤습니다。」 그건 누가 봤나? 자기가 돈 댔어?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350만 달러…」 350만 달러가 아니라 3천5
백 달러라도 해야 할 텐데 350이 문제야? 선생님이 그렇게 바보야?
자기가 그렇게 많은 책임을 졌으면 3천만 달러보다 더 많이 희생하더
라도 여기 알래스카를 개척할 생각을 해야 한다구.

「개척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얼마
댄 것이 크다고 생각해? 입을 열고 할 수 없다구. 일본 사람들이 문제
라구. 자기 수하도 일본 사람이 많아, 미국 사람이 많아? 「일본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 일본 사람 아니야? 일본 사람이 책임진 거야. 일본 사
람이 책임졌다구. 여자들이 7년 동안 손이 열고 발이 열고 별의별 일
을 다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
을 내가 후퇴할 수 없다고 하고 지금까지 중요시하고 있는 거라구요.

제품을 개발해서 팔아야

선생님이 그런 것을 알면서 뭐 몇백만 달러 했다고 큰소리야? 「그러
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게 방법보다도…」 축소하라구, 축소. 「축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코디악의 고기들이 보통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25프로가 비쌉니다.» 비싸면 고기를 팔지 말고 제품을 팔라구. 제품을 만들라구, 제품. 「그러려면, 제품을 만들려면 그만큼 공장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장에 투자해야지. 몇백 은행에 빚져 가지고 이자 물어 나가면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게 해야지, 은행이자 한푼도 안 물어 가지고 그걸 누가 밀어 주나 말이야.

「여기 공장에 투자해 가지고는 지금…」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박구배를 중심삼고… 박구배도 여기 와서 불쌍하게 지냈다고.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동정한 줄 알아? 여기 공장이 있으면 모가지들 자르려고 오고 가는 것을 못 가게 했다는 그 사실을 알아? 손해 보게 되어 있어. 선생님이 바보가 아니야. 희망을 두고 몇천만 달러씩 여기에 투입했다구. 여기에 투입한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투입했으면 얼마나 잘 되겠나?

미국의 수산사업에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어요? 자기에게 맡겼는데, 전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부에 있어 가지고 이걸 그냥 유지해 가지고 최소로 한다고 하다가 문닫아서 여기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나면 뭐가 돼요?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내가 빚을 내서 또 대주더라도 할 텐데, 자기 몇 푼 갖다 댄 걸 자랑할 생각을 하지 말라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앞으로 여기 알류산 열도를 일본 사람을 중심삼고 새로운 주인 만들기 위한 계획까지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라고 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하와이 열도를 중심삼아 가지고 일본 사람을 중심삼고… 하와이 정치계의 지도하는 모든 남자들의 부인은 80퍼센트가 일본 여자라는 걸 알아요?

왜 하와이를 중심삼고 세계적 기반을 닦으려고 해요? 알래스카를 중심삼은 알류산 열도, 소련을 중심삼은 이 해역이 앞으로에 있어서 2백

해리를 중심삼고 전쟁이 날 곳이라구요. 내가 하려고 하면 3개 국을 당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가 중심이라구요, 여기가. 여기 보트 만드는 걸 만들고, 알류산 열도에 조선소 수리공장 만들 계획을 했던 걸 알아요, 몰라요? 일본 회사들 가운데서 천대받으면서, 레버런 문 회사라고 핼박받으면서 그 놀음을 하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선생님 말을 알아들어?

*일본 멤버들은 미국에 투입하면 수산업에 전문적인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일본이 앞으로 해양국가로서 갈 길이 없어요. 세계적인 해양권을 한국 사람들과 함께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개척하지 못하는 곳을 한국 사람들이 개척하고 있다구요. 남극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개척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지요. 결국 수산업에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남극에서 후퇴했지요? 그렇지요? 박 상(善)을 중심삼고 앞장서고 있다구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미래의 전망을 두고 알래스카에 투자한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무슨 정신병자야? 앞으로 전망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유엔을 중심삼고 50년 전부터 할 것을 누가 믿었어요? 이제 유엔만 되면 해양권은 완전히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온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여기 알래스카 주지사를 갈고 법을 갈고 소련 법에 의해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양식해 가지고 10배 이상씩 새끼들을 방출하는 거예요. 10배만 하더라도 여기 어부들이 고생을 안 해요. 먹고살 수 있어요.

여기서 자기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얼룩덜룩 마음대로, 쿼터제로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 전부 도망가잖아요? 수산사업도 절망이에요. 그 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비용을 썼댔자 그거 안 돼요. 안 된다구요.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일본 사람을 잘 길러서 해양권 내에 내세워야 된다고요. 못 하면 한국 사람을 시켜야 돼요. 이제 한국 사람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알겠나? 윤택근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 서방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다음에는 임원규, 63세나 되는 녀석을 시키는데, 이 녀석 일본 사람한테 지는 전통을 세우려고 그래.

*너 임 상(さん)을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63세이지? 「63세입니다.」 63세의 남자인데 30세 이하의 청년들한테 지지 말라고 명령했다구.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가 전통정신을 일본 젊은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구. 포기한 것이 아니야. 코디악 그거 이제….

처음에 했던 사람이 병이 났는데, 여기에 와서 치료하라니까 ‘코디악에서 왜 치료합니까? 서울 같은 데 가서 치료해야지 왜 코디악 같은 시골에서 치료하라고 합니까?’ 하더라고요. 시골에 안 가면 그 병은 안 낫는 거라고요. 선생님이 치료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처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용하고 포기할 선생님이 아니라구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예요. 끝까지 자기들이 희생적인 전통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자기의 후손들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3대 이상 수산업에 남길 수 있는 전통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양권의 권한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전수해서 상속해 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알겠어요? 「하이.」

해양개발은 일본을 위해서 한 것이지 세계를 위해서 한 적은 없어요. 한국은 세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부 다 교육하고 있는 거라고요. 새마을운동의 오야지(おやじ)는 선생님이예요. 박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요? 역사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은 현재의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고바야시! 「하이.」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 천일국 국민이 되고 싶어? 「천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익히고,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하려고 해서 일본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지도 요원도 필요하다고. 한국에 와서 지도 요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돼! 알겠어? 「하이.」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박상권, 알겠나? 「예.」 수천만 달러야, 수천만 달러. 그런 것은 나보고 얘기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 여기 왔던 것은 다 실패했어요. 그 사람은 감옥에 처넣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이니 열 번 속고도 또 속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아 줘 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키워야지요. 아는 사람을 갖다 놓았는데 박구배가 이용 못 했어요.

의학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살길

전문적인 코디악 대학하고 수산사업의 대학을 중심삼고 거래하면서 의학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을 강구하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살길이라고요, 이제부터. 여기서 나는 어족을 중심삼고 약재를 해서 팔 계획을 했다고요.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플라운더?

* 「예, 알오티스 플라운더입니다.」 알오티스 플라운더를 개발하려고 한 거예요. 정부가 그것을 허가해 주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한 적이 없잖아?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알오티스 플라운더가 명태라든가 도미 같은 것하고 킹 크랩의 새끼 같은 것을 전부 다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서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고급요리를 만들려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런 것을 너는 전부 다 알고 있지? 「예.」 들은 적이 있지? 「하이.」 말하면 그대로 해야 돼! 「알겠습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그거 다시 해! 박상권이 교육하랴구. 선생님 대신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못 하는 것을 대신 해야 될 것 아니야? 앞으로 미국 배도 그래. 남극의 배 다섯 척은 미국 깃발을 달고 있다구요. 박구배는 뭐 파나마, 어디에다 하자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하락하지 않아요. 왜? 알래스카 여기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미국이 돈을 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와서 킹 크랩을 파우더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 때문에 선진국가가 총동원해 가지고 따라오고 있어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미국권 내에 잡아넣으면 돼요. 미국권 내에 잡아넣으면 남극이 미국 나라가 되는 걸 알아요? 보호지령이 된다고요. 누가 대통령 할 줄 알아요? 그런 생각 해 봤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몇 세기라도 해 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복지를 만드는 데에 조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희생의 길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때요?

북한도 그렇지.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다 지불했어요. 북한에 1억 달러에 대한 것 다 지불했다구요. 이놈의 자식들, 후루타한테 영수증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이 뭐 잊어버리고 있는 줄 알지만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거라구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자기도 역사를 위해, 후대를 위해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돈 벌어 가지고 딴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기관, 교회에 쓰는 거지요. 선생님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유엔을 중심삼고 비약할 수 있는 세계 체제를 만들 계획

브리지포트가 내가 뭐 필요해요? 유 티 에스가 뭐가 필요해? 미국이

라는 나라를 중심삼고 전 세계를 지도하려니 말씀은 그 문화를 중심삼은 배경 언어를 모르면 세계 대사관, 미국 대사관과 외부 기반에 접붙일 수 없어요. 세계를 전부 다 하나 만든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무릅쓰고 하는데, 선생님이 바보천치가 아니에요.

돈 수십억 달러를 날려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통일교회가 날려 버렸다고 해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별면 되는 거라구요. 내가 있는 한 투입한 이상 해 가지고 영계에 가기 전에 그 이상까지 해 놓고 가려고 생각하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책임 강화가 지금 필요한 때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전화하는 것 들었지요? 「예.」 브리지포트대학에 수리하는 것을 깨끗이 하라고 내가 지시했어요. 수산사업 해 가지고 이익 된 것으로 지불하라고 했어요. 다 그 얘기 했다고요, 유 티 에스틀 도우라고.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뒤떨어져 가지고 시키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책임지고 나가면서 그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예요. 후계자로 왔으면 선임자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먹어요. 기지를 팔아먹어요. 그건 망해요. 그걸 기억해야 되겠다고요.

이제는 수산사업 기지를 내가 한번 순회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다 끝날 때는 말이에요. 유엔을 중심삼고 하게 된다면 새로이 도약이 아니라 비약할 수 있는 세계 체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를 하는데 대학 교수가 열 사람에 한 사람이에요. 각 나라 대학교를 중심삼고 학생들까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조직해 가지고 교육하는 건 문제없다고요. 180명을 열 명씩 하더라도 18개 학교에 대번에 교수 활동기지를 만들 수 있어요. 5개 국을 중심삼고 그걸 하게 되면 세계 연합체제를 중심삼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코디악에 그 훈련 장소를 만들려고 해요. 소련 사람, 중국 사

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만 훈련하게 되면 세계의 교육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지을 땅?

*사토한테 요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5백 명 이상을 수련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고 했다고요. 나무 같은 것을 전부 다 잘라서 울타리로 해도 좋은데, 안 되면 주위의 땅을 사서 넓히도록 해서 수련소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되잖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구.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훈련소, 명승지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남아요. 후손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살 수 있는 안식지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엇을 하든지 선조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 선생님의 전통적인 정신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겠다구!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알겠나? 이런 긴 시간을 두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지요?

*일본 멤버들, 알겠어? 「하이。」 일체가 되어서 하라구! 지금 선생님은 새로 도와줄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자신들이 노력해야 돼요. 지금 남미도 그렇다고요. 가족을 희생하더라도 건설하라고 해서 가미야마를 중심삼고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파라과이에서 유명해요. 미국도 그렇다고요.

미국은 망해요.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포기상태가 되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전통을 세워서 새롭게 세우는 것이 유엔이라든가... 종교의 승리권 위에 미국을 끌어올리려고 선생님이 50년 가까이 고생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하이。」 응, 일본 사람들? 「예。」 열심히 하라구!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자, 식사 준비하라구. *

천일국 완성의 길

어제 다음! 「5월 4일, 5월 10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5월 2일 말씀을 할까요, 협회창립 50주년 말씀?» 응, 그래. 그것도 읽어라.
(2003년 5월 2일 말씀 '재창조의 주인' 훈독)

통반격파는 축복이요, 축복은 일족을 해방하는 일

『.....가정당이 뭐라구요? 가정당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하늘땅을 다 해방하고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혼인신고를 했으니...』

축복! 축복, 해 봐요. 「축복!」 통반격파! 「통반격파!」 통반격파는 축복이요, 축복은 일족을 해방하는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형제를 축복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라구요. 집에서 형님 부터 해야 돼요. 동생들이 많더라도 형님만 하게 되면, 형님과 동생만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통일교회의 골수적 전통을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시

2003년 7월 28일(月), 코디약.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대에 접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널려 가지고 얘기했던 걸 한데 모아 가지고 한 거라구요. 5월 달은 봄에서 여름을 맞는 거라구요. 하나님은 봄을 맞이해 가지고 금년 여름을 맞고 가을을 맞고 겨울을 맞아요. 추수하는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추수요, 겨울에는 추수한 물건을 중심삼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더 잘 하기 위한 잔치하는 날들로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지냈던 것을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일국 주인이 됐으니 하나님과 참부모를 해방해야

『가정당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땅을 다…』

공화당, 민주당이 필요 없다구요, 미국에도. 가정을 다 파괴해 놓고, 다 프리 섹스 판을 만들어 놓고, 호모 섹슈얼…: 이거 나라가 망한다구요, 망해. 그 나라에 붙어사는 기생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접붙여 가지고 새로운 본연의 참감람나무가 돼야 돼요. 와일드 올리브 트리(wild olive tree; 돌감람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구요. 트루 올리브 트리(true olive tree; 참감람나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총결론이에요, 총결론. 효율이! 「예.」 그게 총결론의 말, 내용이 돼, 안 돼? 「예, 됩니다.」 지금까지 함부로 살았어요. 통일교회의 원리 따로, 그다음에 각 나라의 생활 따로, 가정들도 자기 목적이 자기들 잘사는 것이었고 나라니 무엇이니 관념이 없었다구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탕감해 나왔기 때문에 따라오면 됐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동위권, 동참권 내에 같이 살면서 상속 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천일국 뭐라구요? 「주인!」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도 해방하고 참부모도 해방해 줘야 돼요. 안 그래요? 참부모가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천지참부모 참사랑 평화통일 가정왕 즉위식이예요. 가정의 왕이 없었다구요. 가정왕, 종족왕, 민족왕, 국가왕, 세계왕 다 잃어버렸던 것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씨가 해 가지고, 열두 성씨가 합해 가지고 종족이 되어 열두 나라,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거기 190에서 120가정, 72가정에서 36가정, 36가정에서 열두 가정, 열두 가정에서 3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로 결탁해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지는 날에는 유리고객 하는 거예요. 확실히 가르쳐 줘요.

50주년 협회 창립 기념일 날 선생님 몸이 편안하지 않았는데, 그날 보냈던 하늘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령이 있어 가지고 2일 날 한 것이 5월 달 전체, 4일 날부터 10일부터 27일까지 하는 모든 것의 뿌리를 밝힌 거라구요.

21일간은 언제나 이걸 중심삼고 지키던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뺨골에 사무치게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21일간을 지냈어요. 4수를 중심삼고 21일 기간을 중심삼고 선생님 84세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효율이, 알겠나? 「예..」 자!

일심·일체·일념·일핵·일화 통일세계

『.....그렇게 살 수 있는 결심을 해 가지고 자나깨나 오매불망 일심·일체·일념·일화의 생활을 하는...』

일화? 일핵이에요, 핵. 일심·일체·일념·일핵이에요. 일핵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정착해 가지고 일화 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핵이라는 말은 없었지요? 하나님도 핵이요, 아담 해와도 핵이요, 모든 만민도 핵이요, 만우주도 핵, 위하는 참사랑을 중심삼아 가지고 정

착해 가지고 화합이 벌어져요, 화합. 높고 낮음이 없고 그다음에 평준화되니까 통일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매불망 일심일체일념·일핵일화의 생활을 하는 천국 백성이…』

보이게끔 옮기게 된 것이 가정 핵이 되는 거예요. 「확입니까, 핵입니까?」 핵, 코어(core)! 「그러면 핵입니다.」 핵이 아니라 핵, 코어!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코어가 참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굴복하고, 참부모도 굴복하고, 모든 만민도, 만우주가 거기를 중심삼고 움직인다 그 말이라구요. 그 핵이 가정의 실체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그다음에 뭐예요? 절대인간이에요, 절대인간.

인간은 말이에요, 아담 해와 주체와 대상이 절대복종을 중심삼고 절대 성(性)이에요, 성. 절대 성, 남자 여자 성(性)을 중심삼아 가지고—인간 하게 되면 남자 여자를 말해요.— 거기서부터 절대인간, 그다음에 핵, 그다음에는 화합, 통일이에요.

내적인 보이지 않는 플러스가 보이는 실체로서 열매맺히는 거예요. 가정 핵이라구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만국 전체, 선조와 조상 할 것 없이 인간, 그다음에 핵을 중심삼고 통일되어 가지고 핵이 있더라도 자기들만 해서는 안 돼요. 일화예요. 전체가 화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세계가 오는 거라구요. 그걸 알겠어요?

그래, 절대 성이에요. 절대 성은 남자 여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절대 성·절대인간! 실체를 가진 인간! 인간 가운데 남자 여자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이에요. 성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핵에 하나로 안착을 해요. 안착해 가지고 일화, —화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이제부터 이걸 환하게 알아야 돼요. 자!

『천국의, 하늘나라의 황족이 되기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

해 주기를 바라면서 폐회하겠습니다.」 「말씀은 끝났습니다.」

5월 초이튿날 해 가지고 4일부터 그 기반 밑에서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이, 알겠나? 「예.」 5월을 중심삼고 21일간 이걸 싫더라도 외우고 외우고 외우고 이래 가지고 됐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를 중심삼고 사회에 나가 활동해야 돼요.

이게 남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전수해 주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하늘로부터 전수해 주는 거예요. 모든 천지의 비밀로부터 핵을 알게 해 가지고 역사성을 중심삼고 개인 핵,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핵을 중심삼고 잃어버린 참사랑인 위하는 사랑을 중심삼고 일화가 되어 가지고 통일세계가 되어야 돼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하나가 돼요, 일화. 그 위에 통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화!

갈 길은 통일교회밖에 없으니 말씀을 중심삼고 넘어오게 돼 있어

자, 그다음은? 「다음은 5월 17일 말씀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5월 10일 것은 읽었나? 「어제 5월 4일하고 5월 10일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어? 그럼, 어제 선생님 말씀을 다시 하나 읽지. 5월 10일 말씀하고 워싱턴까지 하자구. 지금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전부 다 나온다구요.

한국 대표, 일본 대표, 미국 대표를 특별히 불러 가지고 광정환을 중심삼고 워싱턴 중심삼은 대회니 무엇이니 전부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1이스라엘, 제2이스라엘, 제3이스라엘을 중심삼고 '워싱턴 선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참시켜야 돼요. 둘째 번이 중심이니 동참시키는 거라구요. 그랬지, 효율이? 그랬나, 안 그랬나?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5월 10일 말씀 훈독)

『비로소 3대상 즉위식을 해 가지고 정오정착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그래, 정오정착이라는 말은 가정(사위기대) 입적식 때에 한 말이지요? 돌아가기 위한 거라구요. 입적식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실체를 중심삼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춘하추동을, 하나님이 봄을 잃어버렸고 여름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는 때예요. 역사적으로 천일국 3년에 이걸 다 끊어 버리고 넘어가는 때예요. 자!

『이제부터 43일 후면 하지가 됩니다. 6월 20일까지 기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일가에서 정비할 것은 또 정비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이 현진이 생일입니다.』

5월 10일은 말이에요, 양력으로 5월 10일도 되고 음력으로도 4월 10일이에요. 두 달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맞춰진 거예요. 자!

『그렇게 날짜와 시간이 다 맞다구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치료해 왔던 모든 것이 끝나고 눈까지도 새로이 벗고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시대로 돌아가는 중간 단계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치료하면서 영계가 대혼란된 이런 복잡하게 돼 있는 이걸 정리해 가지고 넘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들 모르지요. 연실이도 지쳐 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았어? 그것 알아, 엄마? 자!

『정오정착, 한국에 단오라는 것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이 제일 짧다는 거예요. 5월 5일 그날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산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자기들이 싸워 가지고 오히려 모셔야 할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우리 통일교회…』

한쪽은 통일이 되어 몸 마음이 하나되고, 한쪽은 자꾸 싸워 가지고 하나될 수 있게끔, 우리 말씀을 중심삼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싸워 가지고는 그냥 못 돼요. 몸과 마음이 싸우는 극도에서 가정과 가정, 일

족을 중심삼고, 세계와 세계가 대혼란시대가 돼요.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이 좋으니까 그 뜻이 하나밖에 없고 갈 길은 그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닦았기 때문에 작은 길에서 오던 모든 사람이, 큰 강과 같이 지류가 합해 가지고 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가는 것같이 되게끔 되어 있다구요. 자!

사탄 혈족을 부정하고 축복받고 일화 통일세계에서 상속 받아야

『……지금까지 출생신고도 못 하고 혼인신고도 못 했지만 이제부터 출생신고도 하고 혼인신고도 해서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몽땅 넘겨받게 되는 때가 됩니다. 그렇게 넘겨받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게 넘겨받는 데 있어서 소유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재창조되어서…』

소유권이 있으면 사탄의 물건, 소유가 되니 틈바구니가 생겨 가지고 사탄의 물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요. 완전히 상하로 바뀌쳐야 돼요. 익스체인지(exchange; 바꾸다)해야 되는 거예요. 위가 아래로 가고 아래가 위로 가게끔 교차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 세상에 사탄이 위에 갔던 것을 완전히 끊어 버려야 됩니다. 사탄이 위에 가고 하늘나라가 아래에 갔던 것을 여기서 완전히 끊어 버리고 여기서부터 개인시대, 가정시대… 중앙을 중심삼고 개인에서 끊어 버리고 가정에서 끊어 버리고 점점 커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종족에서 끊어 버리고 세계에서 끊어 버리는데 세계를 중심삼고 수직에서부터 끊어 버려요. 끊어 버려 가지고 이걸 주욱 갖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여기서 개인시대·가정시대·종족시대·민족시대… 나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비로소 다 끊어 정리해 가지고 재창조, 지상·천상천국의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구요.

부모님이 그런 탕감을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몰랐지만 말이예요. 그러니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그다음에 뭐라고요? 효율이! 「절대 성을 통한 절대인간…」 절대 성 하게 되면, 성(性)은 남자 여자 그걸 말해요. 인간 하게 되면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연의 세계를 두고 말할 때 절대 성이라고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가정 정착 절대핵을 중심삼고 일화, 화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주의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일본에 가서 산다고 하지만, 일본이 지진이 나서 전부 뒤집어질지 몰라요.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은 민족 분열이 벌어져 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체 멸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과 땅을 중심삼고 한국의 선생님이 간 곳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국광복이에요, 조국광복.

선생님의 명령을 중심삼고 아기로부터 청소년으로부터 결혼시대를 거쳐 죽어 가지고 영계까지 가는 영원한 그런 길을 지상에서 열매맺어 따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참부모를 모시고 참부모의 혈족을 통해 가지고 관계 안 된 사탄의 모든 혈족을 전부 다 부정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 소유권은 없어요. 축복받고 나서야 일화의 세계, 통일된 세계에 가서 상속을 받아요. 동고동락 상속이 벌어질 텐데, 지금 일본 나라는 도둑놈이요, 미국 나라도 도둑놈이요, 지금 세계 각 나라는 타락한 사탄이 우거할 수 있는 터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탕감해서 뒤집어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총생축헌납의 의미와 의의

그래, 총생축헌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연보(捐補)가 아니에

요. 구약시대는 만물을 갈라서 했고, 신약시대는 아들을 갈라서 했고, 성약시대는 부모까지 갈라서 한 거라구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한 제단 위에 만물도 하나님 것이요, 아들도 하나님 것이요, 가정도 하나님 것이요, 나라도 하나님 것으로 전부 다 바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체는 못 바쳐요. 참부모 될 수 있는, 근원 되는 참부모 될 수 있는 분이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칠 때라도 가정을 중심해서 선생님의 아들딸 가운데 영계에 간 혜진이, 희진이, 영진이, 흥진이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 육계, 그다음에는 나머지 가정들과 하나 되어 가지고 바쳐야 돼요. 바친다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음대로 갖다 못 줘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 없으면 교회장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 앞에 헌금도 해야 된다고요.

헌금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바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만물을 쪼개서 사탄과 나누었고, 신약시대는 아들을 갈라서 영계와 육계가 갈라졌고, 참부모는 지금 세계에 있어서 유엔 공략이라는 문제가 벌어진 것인데, 이것도 갈라놓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하나의 천국을 잃어버렸으니 이걸 중심삼은 제단 위에 몽땅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야 돼요. 사탄이 묻은 것이 없이 몽땅 바쳐 버려야 됩니다. 옛그제 말한 것과 같이 땅도 하나님 것이요, 물도 하나님 것이요, 공기도 하나님 것이요, 사랑도 하나님 것이요, 천주도 하나님 것이 돼야 돼요. 물시대, 공기시대, 빛시대, 영적 절대사랑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 해서 저금통장을 숨기면 큰일나요.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 부부가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바쳐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집을 팔고 토지를 판 것의 절반을 감춰 가지고 이러다 즉석에서 돌이 급살맞아 가지고 장사 치른 얘기를 알아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효율이, 아나니아 부부 알아? 「예.」 성경에 있다구. 마찬가지로요. 자기 소유를 남겼다가는 사탄이 나일론 실로 뺏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요. 온 몸이 걸려 있어요. 손이 걸리고 발이 걸리고 목이 걸리고 다 걸려 있다구요. 목, 손, 발이 걸린 거예요.

구약시대는 물질시대, 그다음에 몸뚱이 시대, 그다음에 머리시대예요. 이런 것을 사탄이 마지막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이여, 주권을 바꿔라. 아들이고 무엇이고, 어머니 아버지 다 부정한다.’ 이거예요. 거꾸로 주인이 없는 시대에 오니까 주인 해먹겠다고 하는 거라구요. 그걸 선생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유엔까지. 전부 정리하는 이 놀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탈락하는 거지요. 자!

부부가 성을 중심삼고 하나돼 가정정착 해서 일화 통일세계가 돼

『이제부터 출생신고도 하고 혼인신고도 해서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몽땅 넘겨받는 때가 됩니다. 그렇게 넘겨받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떠날 때 모든 가진 열세 가지 물건을 다 나눠 주고, 한국에 가서 예치금이 한 8천만 달러 있던 걸 전부 나눠 준 거예요. 만물도 구약시대처럼 가르지 않고 아들딸도 가르지 않고 전부 다 부모, 나라고 전부 청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새로이 주인이 돼야 돼요. 새로이 천일국을 중심삼은 주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시작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절대 뭐라구요? 성! 남자 여자 성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딸을 번식하고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니, 남자 여자 성이에요, 성. 그 ‘성(性)’ 자는 무슨 성이에요? ‘마음 심(心, 忄)’ 변에 ‘날 생(生)’ 자를 말하지요? 하나님이 태어난다

는 거예요. 코어(core), 핵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 해도 남자 여자를 말하지요?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성을 대신해서 핵이 된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부부가 성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가지고 가정정착 해서 일화 통일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적인 세계에 바라던 플러스가 비로소 마이너스 실체를 중심삼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십자가 되는 거예요. 횡이 되어 가지고 아들딸이 벌어져요. 성이 정착해 아들딸을 안 낳으면 이것이 구형이 안 돼요.

이번에 깨끗이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거라구요. 알겠나, 효율이? 「예.」 이곳이 완충지대예요. 한국의 남북의 경계선 150마일, 여기는 소련 유물론과 유심세계의 완충지대와 마찬가지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인가?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Lasting Love Conference; 영원한 사랑 대회)」를 여기서 할 것을 옮겨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사탄세계에 다 헤쳐져 있는 거예요. 한국과 세계 경계선을 넘고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 완충지대를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태평양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효율이, 알겠어? 「예.」 미국과 해외국가를 하나 만들고, 이래 가지고 한국과 하나되어 가지고 제1, 제2, 제3이스라엘 가정 기반을 중심삼고 총탕감하려니, 여기 코디악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갈 적에도 들렸고 올 적에도 들르는 거예요. 자!

형제 부모 일족을 싹쓸이 축복해 줘야

『광물세계도 주체와 대상, 식물세계도 주체와 대상...』 성이에요, 성.

『.....이제부터 세계를 수습하기 힘들게 되는 것은 세계적인 시대에서 국가적인 시대, 국가적인 시대에서 민족적인 시대, 민족적인 시대에

서 종족적인 시대로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국가 원수가 아니에요. 개인 원수, 종족 원수, 민족 원수, 국가 원수가 전부 한 나라에 뭉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개인복귀, 가정복귀, 종족복귀, 민족복귀, 국가복귀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따라 넘어온다는 거예요. 분산되는 대로 서로 따라나온다는 거예요.

철분과 같은 상대가 되어 있으니 지남석이 나오면 달라붙는 거와 마찬가지로, 흩어져야 붙어요. 그렇지 않고 모래알 짜박지, 철 짜박지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루와 같이 되어야 돼요, 가루와 같이. 자!

『……이 시대에 세계의 주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주인을 세워서 정오정착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게 통반격파예요. 형제를 축복시키고, 부모를 강제로라도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싹쓸이해야 돼요. 그러면 선거나 무엇이냐 그런 제도가 없어진다구요. 그거 효율이 믿어? 「예.」 틀림없는 길이니깐 이걸 안 갈 수 없어요. 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종교 싸움과 인종 싸움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에요.』

한 방에서, 아래쪽에서 자고 위쪽에서 자는 거기서 살인이 벌어져요. 복수전 아니에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유엔을 중심삼고 하나 안 되면 인류가 대혼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지옥의 제물이 되면 되겠어요? 가인 아벨 접붙여 주면 돼요. 돌감람나무를 잘라 버리고 접붙여 주면 되는 거라구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 21일 날 이걸 전부 다 따루어야(외위야) 돼요. 21번만 읽게 되면 다 따루지요. 자!

『……어떻게든 금년 말에는 아벨적인 유엔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구요. 이번 9월에 필리핀의 국회의장을 중심삼고 유엔 총회에 새로운 결의안을 제시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책임 못 했기 때문에 일본 대신 세 딸을 세웠지요? 그게 어디인가? 대만, 필리핀, 캐나다예요. 가운데 필리핀이 걸려들었어요. 참 묘해요. 그렇지요? 왕권도 부시 가정과 비슷하더구만. 자!

『그것이 통과되는 날에는 일시에 복귀천국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담 너머에 있는 돌감람나무도 이쪽으로 넘겨서 잘라 가지고 참감람나무의 순을 접붙이면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고요. 그렇게 접붙이고 3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렇게 열리는 열매를 보게 될 때 주변 국가의 사람들도 담을 넘어와 가지고 눈접을 붙이려고 가지를 도둑질하는 경쟁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3대를 연결해서 축복할 수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커 나간다고요.』

여러분 가정도 ‘사탄과 천지 전부 다 우리 가정을 중심삼고 굴복하고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자!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못 가집니다. 오직 하나님과 참부모밖에 몰라야 된다고요. 이제부터 철저한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생활해 나왔습니다. 수천년간 별려놓은 것을 선생님 일대에 축소시켜 가지고 탕감해 놓은 것을 여러분도 한 발자국 따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선문대학에서 천상 지상 무슨 식을 했나, 불태우는 것? 「성화식을 했습니다.」 성화식을 했다고요. 구약시대의 것도 하나님의 소유요, 신약시대의 것도 하나님의 소유요, 성약시대의 것도 하나님의 소유요, 제4차 아담권세계도 하나님의 소유이니 제4차 아담권은 전체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화식을 할 때 일본 같은 데는 기적 같은 사실들이 나타나고

다 그랬지요? 이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 놀음을 하는 거라구요. 그냥 그대로 뭐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방어선을 놓고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되겠다구요. 자!

법적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리가 문제없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천주의 8단계 십자가 시대를 넘어서려면 자기라는 이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성까지도 한국 사람이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만물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원초적인 만물에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습니까?』

그래, 원초성지·근원성지, 그다음에 뭐라구요? 「승리성지입니다.」 원초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원초와 근원을 중심삼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 전과 창세한 후에 하나님의 소유권시대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오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초성지, 그다음에 뭐라구요? 근원성지입니다. 근원이 먼저예요, 원초가 먼저예요? 창조 전 이상, 창조 이후의 이것을 전부 다 하나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걸 말해요. 수중 궁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육지 궁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포를 하고….

우리 청평에 궁전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효율이! 「예.」 해와 나라가 장자권을 쳤던 것을 거꾸로 싸우지 않고 자연 굴복시킬 수 있는 해양권 주인시대, 육지권 주인시대, 그다음에 제4차 아담 천상·지상세계의 해방적 축복 중심가정, 천일국 주인의 자리에서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전부 다 그 일련의 이때를 맞춰 가지고 사탄이 들어올 수 없게끔 방어선을 치는 놀음을 한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 통일교회에서 물으면 효율이한테 물어본다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르

쳐 준 것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전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구요? 전후시대! 상하좌우전후, 3대예요, 3대. 아담 해와의 3대를 못 가졌어요. 하나님하고 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좌우밖에 없어요. 전후가 있어야 구형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예요.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이예요, 지옥. 36가정도 여기서 용서해 주고 가정들이 파탄된 걸 다시 축복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일족 조상들을 중심삼고 몇 대 조상, 후손을 영계 축복을 해 가지고, 해원성사해 가지고 축복해 가지고 ‘몇 대 조 후손을 국가 메시아로서 책정하나다.’ 해야 거꾸로 할아버지 대신 손자가 되고, 아버지 대신 아들이 되고, 형님 대신 동생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오 자리, 영점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정오정착. 알겠나, 효율이? 「예.」

그때가 왔으니 성인과 성자 축복, 하늘땅을 전부 다 뒤집어 박으니 만큼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실수한 것까지 선생님이 책임지고 해방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리가 문제없다는 거예요.

탕감복귀는 아들딸이 조상을 구원해야 되지만, 지금 본연의 세계는 조상이 아들딸을 구원하는 시대에 들어오니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죄지은 사람을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백만 큼 죄를 지었으면 축복받은 가정들이 1퍼센트씩 백 집이 합해 가지고 고생해서 탕감조건을 세워 가지고 끌어올려 줍니다.

그 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 아들딸 고역이예요. 아들딸이 사탄세계에 나가 일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바치고, 그다음에 가정을 중심삼고 일화 되지 못한, 하나 못 된 것을 심정권을 중심삼고 일치되는 거예요. 심정권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종에서부터 서자로부터 양자로부터 직계자녀까지, 그다음에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까지 모실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천상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흥진 군이 축복할 때 교육 하잖아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직결되는가를 다 앞으로 말미암아 무슨 어려움이라도 다 앞서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귀되는 거예요. 그것 알겠어요? 「예.」

조상축복을 하면 하나님과 참부모가 관여하지 않아도 복귀돼

탕감복귀시대는 아들이 부모를 복귀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되어야만 어머니를 복귀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되어야만 자기 아버지를 복귀하는데, 성약시대 이때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참부모가 나라와 유엔 위에 있으니 천국을 중심삼고 낙원과 지옥을 일체화시켰기 때문에 천국이념을 중심삼아 가지고 조상들이 자기 후손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못된 모든 걸 용서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백 퍼센트 죄가 있으면 백 퍼센트 조상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더라도 사탄이 자기 선조가 잘못된 것에 대해 연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붙어 가지고 탕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주체적 조상의 핏줄에 연결된 후손들을 중심삼고 달라붙어 가지고 1퍼센트씩 해 가지고 끌어올리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개인시대·가정시대·종족시대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없어지는 거라구요.

지금 탕감시대에는 아들딸이에요. 아들딸이 부모와 나라를 찾았지만, 이제는 나라와 세계에 부모가 있어 가지고 아들딸을 전부 다 교육해 가지고 들이 죄기는 거예요. 후려갈겨 가지고 절대복종시켜 가지고 끌어올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상들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노우에 하게 되면 이노우에 한 사람이 수많은 조상들의 핏줄이 연

결되어 얼룩덜룩하다구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닳은 사람들이 이노우에를 구해 주기 위해서는, 실수해서 백의 조건에 걸렸으면 그 조상에 인연이 됐던 그 얼룩덜룩한 조상들의 피를 연결시킨 그들이 와 가지고 협조해 가지고 1퍼센트씩 해서 백 퍼센트 해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절대성 가정, 절대일화, 절대통일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건 참부모하고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알겠어요? 다 그럴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상들이, 영계의 조상들이 와 가지고 지상 처리를 합니다. 영계의 조상들이 천사장 자리이니 천사장이 잘못된 것을 가정을 중심삼고, 천사장 세계와 마찬가지로 조상이 축복해 가지고 지상에 와서 가정들을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성인 현철과 살인마들을 개인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살인마의 가정과 축복받은 천상세계의 왕좌의 가정이 가정적으로 책임지고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겠나, 쉽겠나? 효율이!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뭘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면 효율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피만이 아니에요. 얼룩덜룩하게 모든 원수들이 고비 길에서 딱 지키고 있어 가지고 붙어 있는 걸 전부 다 축복해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해원성사 축복했기 때문에 영계는 통일됐으니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축복받고 잘못된 가정들, 조상이 천사장의 입장에서 땅 위의 아담가정이 잘못된 것을 전체 합해 가지고 탕감해 끌어올리기 때문에 쉽다 이거예요. 내버려둬도 복귀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참부모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라구요. 그래, 조상을 위해야 돼요, 조상.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것은 수천 대 조상의 핏줄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조상을 축복 안 해 줄 수 없어요. 형제로부터 조상을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범적 죄는 알아도 연대적 죄를 모르니까 연대적 죄까지도 조상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하게 할 수 있는 사탄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는 연대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영계에 간 천사장 가정 입장, 형님 가정의 입장에서 지상에 와 가지고 가인 아벨 가정을 통일시키고 아벨가정을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조상들이 책임지는 시대가 와

그래, 천주부모와 천지부모, 그다음에는 남편을 중심삼고 어머니를 중심삼고 형님을 중심삼고 동생 가정으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효율이,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자범적 죄와 연대적 죄로 영원히 갈라질 수 있었던 사탄세계의 국경을 철폐시켜 가지고, 탕감복귀시대는 아들이 부모를 복귀했지만 부모가 복귀되어 가지고 아들딸을 복귀하는 것은 문제없다 이거예요. 후려갈길 수 있어요.

사탄이 죽이던 것과 같이 사지에 들어가서 조상들이 연대해서 ‘이 자식! 하나님,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경찰이 책임지고 무슨 군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일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연대적 관계이지요, 일가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시대가 아니 올 수 없다, 영계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해요? 응, 효율이! 「예.」 박상권도 알겠나? 「예.」 큰일났구만, 박상권! 알기만 하면 실천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 말뚝을 땅땅땅 박고 난 다음에는 후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선언을 많이 했지요? 여기에 와서도 선언이에요. 5

월 달 선언이 엄청난 거예요. 천일국 3년을 중심삼아 가지고 5월 달, 4월 달을 넘어서 봄을 중심삼고, 공산주의와 민주세계의 겨울에서 이제 봄 절기 중화시대로 못 넘어왔던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아치워 가지고 하늘은 하늘 것으로, 세상은 세상 것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탕감 해원성사해 가지고 지옥이 없는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지옥에서 낙원을 거쳐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정할 수 없대구요. 이론적이예요.

탕감복귀 원칙에 일치됐으니만큼 사탄도, 하늘도, 영계도, 성인 현철 조상도 이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총주력을 하고 있으니, 그 주력할 수 있는 상대적 지상이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따라가야 천국 간다는 이론은 최후의 심판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이거예요. 부정할 도리가 없대구요. 알겠지요? 「예.」

어머니도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놓고 앞뒤로 뒤 넘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영계가 아직 까지 통일 못 되었고 지상이 통일 못 되었으니 참부모가 그걸 책임져 가지고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양 빛은 흑점이 많이 생기면 안 된대구요. 영계에 가게 되면 태양과 같은 것이 있대구요. 사랑의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을 이루자

자, 원주, 다음 읽으라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알아야 돼요. 워싱턴을 방문한 그때가 5월 16일이지요? 「17일입니다.」 16일인가 17일에 간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를 5월 17일에 창설했다구요.

그럴 때인데 워싱턴 타임스 주 사장이 말이에요, 광정환으로부터 일본 책임자, 한국 책임자, 미국 책임자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세상에!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지금 워싱턴 타임스의 특파원, 유 피 아이(UPI) 통신사 특파원을 교육하기 위한 기간이지요? 그걸 결속시켜야 할 때인데 그랬다구요. 선생님이 안 갔으면 큰일난 거예요. 제2이스라엘권 선언을 할 수 없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1차, 2차 했으니 제3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라구요. 그것이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이라구요. 박상권, 알겠어? 「예.」 (훈독 중에 녹음이 중단됨)

우리 가정, 내 가정! 천일국 주인 내 가정! 「천일국 주인 내 가정!」 우리 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여자 남자 두 나라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남자의 가정, 여자의 가정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위(他爲), 위해서 위타적인 길을 가라고 했지만 타아(他我的)인 길을 가라고 했지요? 효율이, 기억해? 「예.」 선생님 말이 그냥 떠도는 뜬구름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구요.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자각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21일 동안 이 5월 달을 중심삼고 전부 다 정비해 놓아야 된다고요.

그 놀음을 효율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시고 계십니다.」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제1, 제2, 제3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7월까지, 6수 해서 7수를 못 넘었어요. 8수를 못 넘었어요. 9수까지 넘어가야 돼요, 9월 달, 10월까지. 6, 7, 8, 9월, 4개월 동안이에요. 6수를 잃어버려 가지고 안식일 7수, 재출발 8수, 사탄 주관수가 9수예요. 삼 삼은 구($3 \times 3 = 9$)!

소생·장성·완성 3단계가 삼 삼은 구($3 \times 3 = 9$)지요? 그래, 귀일수를 중심삼고... 9수를 사탄이 지배했어요. 투전판에서 9수가 왕초 놀음을 했어요. 그래서 칠일절, 칠팔절, 칠구절, 칠십절을 정한 것을 알아요? 칠일절, 칠팔절, 칠구절, 칠십절이에요.

7월 10일을 중심삼고, 그다음에는 7월 10일을 넘어서면서 뭐냐 하면 7월 13일을 중심삼아 가지고는, 3일 후를 중심삼아 가지고는 ‘천지탕감복귀시대 철회’를 발표했어요.

‘메시아를 중심삼고 종교권이 책임 못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 바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청산한 조건을 가지고 당신 앞에 헌납하오니 받아 가지고 실권적 책임자가 되시옵소서. 한을 품었던 원한의 세계에 그림자 없이 깨끗이 정리하소서.’ 그런 출발을 선언했다구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이제 그걸 교육해야지요. 내가 없으면 효율이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다 이 정리한 것을. 선생님이 먼저 가게 된다면, 내일이라도 간다면 이걸 중심삼고 교육하고 지시해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어머니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유언이에요, 유언. 통일가의 유언이에요. 통일국의 유언이라구요. 그렇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복귀·갱생·해방·석방부활이 돼야 자유·평등·평화·행복천국이 돼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부모님이 승리한 모든 전부를 핏줄을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수 받아야 됩니다. 아들딸은 부모를 닮지요? 그것이 가능한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것이냐? 영계의 결의문을 중심삼고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요.』

결의문이 뭘지 알아야 돼요. 4대 종교와 공산세계의 결의문이 다 끝났지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지상에서 그것 하면 다 평화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결의문 하게 되면 뭐인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1 제2 제3이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자기들은 제2구세주로서 천상세계 지상세계 해방권의 성인들을 통

해 가지고 동참동거권을 세워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부모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이상의 나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결의문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다 끝났지요.

그래, 천주 천지 참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가정당이 나와요. 그날이 3월 10일이지요? 「예.」 그게 다 일련의 공식 적이라구요. 그걸 훤히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와서 수고한 최후의 유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인 것을 알고 밤이나 낮이나 고맙게 생각하고 ‘나도 그 일을 위해서 틀림없이 갑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객사의 몸이 되더라도, 구약성경에서 사자 굴에 들어가 가지고 하던 그 이상의 길을 가더라도 나는 이 천리원칙에 일치된 왕자 왕녀의 길을 갑니다. 참부모와 하나님이 가던 것과 같이 틀림없이 난 갑니다.’ 이런 결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죽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요? 반대예요. 역리적 사실이 순리적 길로 재까닥 들이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했던 철로에 있어서 기관차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곳이든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궤도의 해방권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평등·평화·행복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귀 해방, 그다음에 뭐예요? 갱생 해방, 그다음에 뭐예요? 해방부활이에요. 복귀부활, 갱생부활, 해방부활·석방부활이 되어야만 자유평등·평화·행복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깨끗이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해도 ‘자유·평등·평화’라고 그러지요? 자유·평등·평화예요. 평등이 있어 가지고 평화가 되어 가지고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가지예요. 자유·평등·평화·행복의 천국으로 들어간다! 해방의 왕자가 되어 천상세계에 가 보니, 고향 찾아오니 친족 일족이 나와서 ‘내가 지상에서 선물로 가져온 새로운 축복가정들을 당신

과 더불어 그 계대를 잇겠사오니 환영해 맞아 주소.’ 하면서 수천 수만의 자기 일족들을 나라 대신 바쳐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널리리 동동 직접 책임을, 연대적 책임을 지고 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방관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통일교회가 함부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고요. 자, 계속하라구.

절대 성의 순정·순결·순애, 효자·충신·성인·성자가정이 돼야

『본래는 일심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일심, 몸도 하나되고 마음도 하나되어야 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심·일체·일념이 갈라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싸우고 생각이 갈라졌습니다.』

일심·일체·일념·일핵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화 통일세계예요. 하나님의 주류 속성 가운데 절대사랑·유일사랑·불변 사랑·영원한 사랑, 그다음에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핵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화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핵적인 사랑을 시작점으로 영원히 그 핵을 중심삼고 하나됐다 그 말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실체로 전개하기 위해서 일심·일체·일념, 그다음에 뭐예요? 「일핵!」 일핵이에요. 일핵, 그다음에 일화 통일이에요. 그것이 플러스예요. 보이지 않는 거기서부터, 정(正)에서부터 분(分)이 되어 가지고, 아담 해와로 갈라져 가지고 횡적인 터전 위에 절대신앙·절대 사랑·절대복종, 그다음에 절대 성이에요. 남자 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인간’ 해도 괜찮아요.

성을 중심삼고 일화, 화합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중심삼고 하나된 자리에 있어서 성도 생겨 가지고 하나된 자리에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인간, 그렇게 보면 다 깨끗하지요?

핵을 중심삼고 나왔던 것이 거기서 소생·장성·완성 성을 중심삼고

인간 가정정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계 육계가 실체권을 중심 삼고 하나되어 사랑관계의 자리에서 성의 기관을 통해 아들딸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족속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고, 하늘나라의 천국이 생겨납니다. 영원한 승리 아멘! 해 봐요. 「승리 아멘!」 승리 아멘이라구요.

그게 귀한 거예요. 이 쌍것들!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늘의 나라를 해산해야 되고, 하늘 민족을 해산해야 되고, 하늘 가정을 해산해야 되고, 하늘의 아들딸을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 절대 성이 되어야 됩니다.

순정, 순결, 뭐라고 그랬어요? 순애! 그다음에는? 「순혈!」 순혈, 그다음에 뭐예요? 순애지요. 그다음에는 효자로 들어가서 가정이 되어가지고, 효자 가정, 충신 가정, 성인 가정, 성자 가정, 하나님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핏줄 위에 하나님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노멘이 아니에요. 영원히 아멘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걸리면 다 문제가 벌어져요. 거기에 걸려 가지고 저 영계의 천국 문 앞에서 답보, 되돌아가서 조상의 신세를 져야 돼요. 채찍질하고 밟고 별의별 짓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원수를 중심삼고 사탄세계에 이래 가지고 매 맞고 다니던 것을, 백 개 맞았다면 한 개라도 탕감해 가지고 밟고 차고 다 이래 가지고 절대복종하게 만들어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7년 내지 70년 내에 정비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7년노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7년노정을 가야 된다고요, 영계까지 걸려 있으니.

7년노정에 집시의 놀음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까지 오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70일이 걸려요. 7개월, 7년이 걸리더라도, 걸어서라도 와야 된다고요. 집시! 돌고 돌면서라도 와야 하는데 누가 대주지 않아요.

천일국 수도권에 와 가지고 등록하는 사람을 처리해야지, 등록도 못

하고 오는 사람을 책임지겠어요? 그러니 그 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이 되는 데는 한국에서 일본의 북해도, 가라후토(樺太; 사할린)를 중심삼고 소련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가지고 미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처리를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경계선(날짜변경선)이 있지요? 밤낮이 뒤바뀌는 거예요. 밤낮 세계가 두 세계가 되어 있지요, 서양 동양에? 적도를 중심삼고 남북이 달라요. 하나의 주인이 안 되어 있다구요. 그걸 통일시킬 수 있는 내적인 준비를 전부 해 가지고 자리잡아야 됩니다.

가정이 자리 못 잡으면 안 돼

자, 계속해요. 잘 들으라구요. 수련생 수련 몇 주일 동안 했나? 일주일이야, 이주일이야? 「36가정은 10일간 했습니다.» 아니,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에서 모여 가지고, 유 피 아이를 중심삼고 교육을 얼마 했어? 이주일 아니야? 이주일 했지? 「예.» 넘어서는 거예요. 7천년 7천년 해서 1만4천년 기간을 넘어서는 거지요.

가인 아벨이지요, 언론기관도 워싱턴 타임스하고 유 피 아이가 가인 아벨이지요? 귀일수가 되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36가정을 데려와 가지고 전부 용서해 가지고….

김영휘 협회장이 책임 못 했어요, 원필이하고. 회장 부회장 시켰어요. 세 아들 가운데 남아진 최후의 존재가 김영휘하고 원필이 아니에요? 원필은 협회장이 못 됐어요. 유 협회장, 김영휘는 협회장이 됐지만 원필이는 못 됐어요. 왜냐? 그건 여러분이 몰라요. 그런 걸 다 탕감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요즘 무슨 병? 당뇨가 있어 가지고 발을 자른다고 생각하더구만.

이제부터 17일 워싱턴 타임스 창립 기념식을 중심삼고 통일식을 해

주려고 갔더랬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나온다구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겠어요? 창조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 정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야 돼요. 먹으나 사나 가정 정착이에요. 창조 처음부터 과정은 지금까지 탕감복귀섭리의 재창조섭리도, 전부 다 아담이 실수한 이후에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심정적 기준을 다시 창조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이 깨져 가정이 자리 못 잡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절대 이혼이 없다구요. 그걸 자기들이 뜯어고쳐 가지고 만들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싫은 사람을 갖다가 다시 갖다 때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바람피운 모든 여자들이 가만있나? 물어뜯고 다 하지요. 그걸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낙원에 중간낙원 같은 데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탄도 얼씬 못 하고 하나님도 얼씬 못 하고 조상도 얼씬 안 해요. 이래 가지고 하늘의 허락하신 뜻에 일치될 수 있는 그 조건 길을 따라 가지고 나날을 중요시하고 달을 중요시하고 년을 중요시하면서, 세기를 중요시하면서 복귀 되어 나가야 된다고요.

조상들이 얼마나 밍갯나? 밍고 치고 하는 거라고요. 지옥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 복귀하기 위해 조상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한계를 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정해 놓았어요, 처리하기 위해서. 자!

만물은 하나님과 참부모의 완성을 위해 존재해

『……참 재미있는 것이 먹이사슬의 균형입니다. 맹수라는 것이 마음대로 새끼를 치지 못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새끼를 칩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2년 8개월, 3년 가까운 기간에 새끼를 치는 거예요. 토끼는

석 달에 한 번씩 새끼를 칩니다. 무수히 번식을 해서 식량을 만들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고 주인 앞에 하나님 대신 키워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창조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시대, 공기의 시대, 태양의 시대, 사후의 세계, 사랑을 중심 삼고 빛을 내므로 하늘나라에서 보게 되면 지상, 땅은 반사돼 가지고 별과 같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 서로가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 가지고 사랑의 세계에 있어서 만물이 쌍쌍제도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일체화되어 하나님과 참부모의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했으니 거기에 돌아가서 흡수되어 가지고 단계적 물의 세계, 공기의 세계, 빛의 세계의 3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는 우주가 이렇게 연대적 책임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참부모를 기리기 위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은 투쟁한다는, 적자생존이라는 말,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하는 거라구요.

희랍철학이 그것이에요. 인간 제일주의를 중심삼고, 니체 같은 사람은 힘을 중심삼아 가지고 새로운 타락세계의 문화권을 만든 거예요.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요. 자!

『아담 해와가 하나님 대신 창조를 하는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태어난 만물은 마음이 몸적 완성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투입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물은 마음 자리에 있는 모든 만물과 같이 몸똥이를 키우는 놀음을 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위해서 일족까지 길러 주면 죽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그 주인 앞에 와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잡아서 밑감을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 치지 못한 동물들을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끼 치지 않은 동물들을 제물로 받았지요? 하나님이 새끼

치지 않은 아들딸을 찾기 위해서 새끼 치지 않은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우리 인간들은 새끼 친 제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과 나라와 세계예요. 알겠나? 자!

천적을 이용한 의학

『그 일족, 일가족, 가정 가정들이 결실이지 개인이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랍사상 철학으로 보게 되면 만우주는 전부 다 투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원수가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인 자본론이라든가 변증법을 보면 투쟁해서 발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투쟁이 아닙니다. 악한 균도 그 평균 앞에 천적 몇 마리만 있더라도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 호랑이 한 쌍만 있게 되면 모든 동물이 조용해요. 산에 몇십만 마리 동물이 있더라도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천적이 그래요, 천적. 바이러스 균에도 그런 천적이 한 쌍만 있게 된다면 활동하지 못하고 일주일에서 47일이든가, 그 기간에 존속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개 앞에 천적이 호랑이예요. 개는 호랑이만 보면 오금을 못 쓰고 떨면서 개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적이 있어 가지고 균형화시켜 전부 소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사들도 그래요. 병을 고치기 위해 자르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하나 만들기 위해 만든 통일의학이라는 것은 보호의 학입니다. 병이 나기 전에 천적의 기반을 활용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술을 안 해도 근원적인 모든 것을 해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 박 여인이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천적 되는 걸 중심

삼아 가지고 흡수해 버려 물이 되게 해 가지고 본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공장을 내가 하나 샀다구요. 사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실험해 가지고 연결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자르고 깎고 베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알고 뜻 가운데서 만유의 모든 존재가 하나 하나 정리되어 나가는 천상세계에 일치될 수 있는 그 세계를 향해 가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전부 다 싸움이 터져 나오고 그 싸움터의 중심에 가서 만나 돌아가는 통일교인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싸움이 벌어지면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커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개인 자리를 벗어나고 가정 자리를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왕시대에서 종족왕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종족왕에서 민족왕, 민족왕에서 국가왕, 국가왕에서 천주왕까지 되면 해방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은 생사지권을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해방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엔 공략에 승리하기 위해 8단계를 선생님이 기관차에서 털털털한 차 칸들을 싣고 넘어가는 것과 딱 마찬가지로요. 그 8단계를 지옥에서 ‘획’ 하고 유엔에서 넘어가게 되면 사탄세계는 끊어지고 천국이 거기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견인차라는 거예요. 기관차를 견인차라고 말하지요? 알겠나, 효율이? 「예.」

그래, 이효율이야, 이효율. 김효율인가, 이효율인가? 김효율이야. 이름이 효율이라구. 그것도 이름이 효도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운명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게 됐어. 자!

스트라이프트 배스는 미국을 잡자는 스트라이프트 패스

『.....우주의 근본이 뭐냐 하면, 성상 형상의 하나님인 중화적 존재

이고 격위에서는 남성적 주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실체를 써 가지고 아버지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공산주의는 정반합(正反合)이고 우리는 정분합(正分合)이에요. 정반합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실체세계의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투쟁해 가지고 하나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랑에서, 무형에서 갈라져 가지고 아담 해와가 나와서 장성 완성을 해 가지고 사랑이 귀한 것을 알고 하나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원하게 돼 있지, 남자 여자가 무슨 약혼하고 데이트하라고 가르쳐 주냐?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되게 되어 있다구요. 자!

『……천일국 국민증이 어떻게 돼 있던가? 거기에 천일국 뭐라고 쓰여 있어요? 천주평화통일국 학습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개인시대 해방, 가정시대 해방, 자기 일족을 중심삼고 등차가 벌어집니다. 같지 않다구요.』

학습증은 선습증이에요. 먼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체로서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 가지고 천일국 국민증을 받는 거예요. 그건 중생부활, 그다음에 뭐예요? 복중부활을 뭐라고 그러냐? 「중생식·부활식·영생식, 그렇습니다.」 낳아서부터 여덟 살부터 17세까지 부활축복, 중생 소생, 부활 소생, 영생 소생, 이래 가지고 에덴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를 넘어서야 된다구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번에 여기 와서 낚시를 했는데, 스트라이프트 배스가 뭐예요? 스트라이프는 줄입니다. 줄이 있는 배스라는 거예요. 줄 없는 배스는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한 고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를 대표하여 공헌할 수 있는 산 제물로 바쳐 가지고 만물을 희생시키고 많은 새끼들을 길러서 멸종되지 않을 수 있는…』

스트라이프트 배스(striped bass; 줄무늬농어)예요, 패스예요? 배스지요? 그건 뭐야? 영어로 뭘 쓰냐, 효율이? 「영어로는 배스입니다, 비

에이 에스 에스(bass).」 스트라이프트 패스, 미국 국기가 스트라이프 트 플래그(striped flag)인데 그걸 패스해라 이거예요. 뜻이 그런 안팎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구요? 스트라이프트 배스가 아니고 스트라이프트 패스다! 미국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2이스라엘을 승리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지요.

그래, 선생님이 스트라이프트 배스를 잡기 위해서 5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은 나가서 수십 마리를 잡을 수 있으니 해방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 가지고 고기 잡기 위해 제일 노력한 것이 스트라이프트 피시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5년 동안 강으로부터 바다로 헤매다가 비로소 한 마리 잡을 때 만세를 불렀다구요. 효율이, 그때 따라다녔나? 응? 「예.」 그것 알지? 「예.」

『여기 와서 수고한 사람들은 농장도 만들고...』

여기 고기는 뭐예요? 스트라이프트 패스, 그다음에 새먼(salmon)은 켈레이션 문(salvation moon)이에요. 새먼이에요, 새먼. 새먼이 돼야 고향 찾아가 돌아간다는 뜻이 있다구요. 켈레이션 문이 새먼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새먼이 부처끼리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중심삼고 죽으면서도 자기 몸뚱이를 밑감으로 만들고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먼 패밀리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선생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다 나와요. *‘켈레이션(salvation; 구세주) 문’을 짧게 한 것이 새먼이라는 거예요, 켈레이션 문!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앞으로는 전부 신학대학을 나와야 돼

『.....영계가 천국 낙원 지옥이 됐던 것이 횡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이 수평이 되어 있듯이 여기에 이것이 상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

너희 국적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천일국! 해 봐요. 「천일국!」 거기
는 일본 개념이라든가 한국 개념, 미국 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세계
무슨 대학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
고려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전문대학으로 전학시키라고 했는데, 바른
말이에요, 그른 말이에요? 안 한 녀석들은 중요 책임 인맥으로서 세우
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 티 에스(UTS; 통일신학대학원)를 나와라 이
거예요, 전부. 신학을 모르면 안 돼요.

앞으로 신학대학을 못 나왔으면 조건을 중심삼고, 신학교에서 공로
를 중심삼고 명예박사 학위를 달아 줄지 몰라요. 알겠어요? 명예박사
가 되면 동창생 되지요? 효율이! 동문이 된다고요. 신학대학을 안 나
왔으면 명예박사학위라도 줘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 이름을
가지고 동문이 되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유 티 에스라든가 전문대학의 신학대학원을 전부 다 나와야 돼요.
중고등학교, 대학 나온 사람까지도 이래야지, 박사 코스를 마쳐야지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는 대체사장이 되는 거예요. 축사장이라는 말을
한 것을 효율이 알아?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자!

『.....여러분이 개인시대부터 천주시대까지 8단계를 거쳐 수평이
되어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효율이, 결의문 선포라든가 선언문 같은 것이 책자로 발간되어 있
지? 「예, 지난번 황 회장하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해 가지고 빼야 돼.
빼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춘하추동 한 시대예요, 넷이 갈라진 것을 하
나 기준으로 묶어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
게 되면 ‘아하! 탕감복귀는 이렇게 경계선을 분할해 가지고 땀구나. 선
언문이 절대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요.

황선조는 내가 정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의
논해요. 「예.」 그리고 그 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돼
요. 박물관을 만들어야 돼요. 전문대학이라든가 우리 청평에도 박물관

을 만들지만 그 전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박물관에 갖다 전시하겠나?

스크리라는 게 있잖아요? 새면 과(科) 하게 되면 뭐예요? 레인보 트라우트(rainbow trout; 무지개송어)가 있는데 트라우트도 말이에요, 새면 과예요, 새면. 그렇지요? 그런 과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과를 중심삼고 무슨 종류의 변종을 전부 알 수 있게끔 박물관과 도서관에 일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놀 사이, 쉴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공인할 수 있는 재료를 남기고 보고하고

박상권이는 이제부터 보고해야 돼. 북한에 가서 북한을 움직여 나온 것을 기록 없이 했는데, 앞으로 기록을 남겨 가지고 자기가 그 기록을 중심삼고 논문을 써 가지고 하늘이 공인할 수 있는 재료를 남겨야 된다고.

이번에도 23일 날 국회에서 부모의 날 기념하는 것을 보내 왔나? 양창식이 보낸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5월 2일 이후부터 그걸 내가 지시하고 있어요. 그걸 없어지지 않게끔 말이야, 효율이도 하나만이 아니고 원본을 중심삼고 셋은 반드시 출판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라는 거야.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안 그래? 그런 준비를 해야 돼.

될 수 있으면 편지나 무엇이든 자기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한상길에게 맡겼더니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어디에다 다 두었는지... 인수받았나? 비서실장이 그런 기록을 남겨 가지고 후대 후손들이 철을 해 가지고 분과적으로 구별해서 제목을 중심삼은 전체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무슨 책 몇 권 무슨 과 몇천 페이지에 있다고 이래 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혼자보다도... 자기가 그렇지. 사실 신문을 읽어 가지고 혼자 보고하지 말고 말이야, 전문분야는 자기가 모르잖아? 신문사 기자들을 중심삼고, 유 피 아이 기자들을 중심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길 까지 내가 묶어 주려고 그래.

궁금하면 재까닥 대변에 자기가 미진한 사실을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참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역사 변천과 더불어 사회와 과학의 발전적인 역사적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놓아야 이 시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 천년 후에도 어떤 때에 어떤 환경을 거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참고 문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왔다 갔어도 지금 물 건너간 소같이 형태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구요.

보라구요. 유엔 내의 비서실, 사무실이 얼마나 커지겠느냐? 대한민국 전체가 사무실이 될지 몰라요. 그 분야의 비서를 연결시켜 가지고 세계 역사적인 관계의 분과적인 연결된 사실들을 기록해야 된다고 지령도 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야 하나의 체제적인 기반을 중심삼고 그 체제적 구조 밑에서 세계가 통일되지, 체제와 구조가 달라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된다구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박상권, 참고하라구. 지나가는 물결, 지나가는 손님이 되지 말고 역사의 첫 출발을 하는 역사적인 놀음을 해야 할 텐데, 필요한 것은 싫더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구. 못 하겠으면 비서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문서를 남겨 가지고 그래야 그 재료가 박상권이 앞으로에 있어서 선언했다는 증거적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내가 지금까지 선언 안 한 것이 없어요. 예수가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선언 못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선언을 했으면 왜 죽겠나? 미국 국회, 의회에 가서 선생님이 선언을 했고 세계 학자들을 대해서도 다 선언했지요? 했나, 안 했나? 효율이! 「하셨습니다.」 남긴

것이 없어요. 지금도 이것이 선언이에요. 코디악 선언이라구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은 지상에서 완성하게 돼 있어

자, 얼마나 남았나? 많이 남았지?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한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그래, 잘 들으라구요.

『세상에 우리가 못 들어가게 물샷틈없이 막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밀창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제 세계 국가가 통일교회를 환영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3년만 되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서건 사방으로 만만세 환영해 가지고 사탄세계나 지상세계나 완전히...』

그것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통반격파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실수해서 영계에 가게 되면 선생님 앞에 못 갑니다. 딱 그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밥 먹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가정들 부처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이걸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일족을 버리고 감옥을 찾아 들어갔어요. 감옥 밀창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편안한 자리, 환영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못 하면 옥살박살 돼요. 부모가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책임져야지요.

코디악의 산골에 와 있더라도 태양 빛을 피할 수 있어요? 공기를 피할 수 있어요? 물을 피할 수 있어요? 흙을 피할 수 없어요. 오기 전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요. 연대적 관계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만큼 물시대, 공기시대, 빛시대, 태양시대 이래 가지고 영원한 무한한 타

아적(他我的), 위타적(爲他的)인 천상세계와 지상천국이 벌어지는 거라구요. 자!

『……한국 정부가, 한국 교계가, 미국과 세계가 반대해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부모가 참고 때를 기다려 자동적으로 밤이 익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참밤알이 되어야 우수수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밤알이 되어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설 수 있는 참밤알이 되고 자기 자리를 찾아 부활할 수 있는 완충기간에…』

그래야 밤나무면 밤나무 밑에 전부 다 쌓인다는 거예요. 바람이 사방으로 불어 가지고 굴러나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절기에는 소낙비가 갑자기 오고 다 그러잖아요? 그 씨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라구요. 땅에 있던 것도 움직일 수 있게끔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불어닥치고 하는 것도 번식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일이에요.

이 만우주는 그와 같은 법도적 공식에 의해 하나님이 본래 제정한 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그 법을 지키면서 적자생존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절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말씀대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절대복종 그다음에 뭐라구요, 이제? 「절대 성입니다.」 절대 성, 관호하고 인간이라구요. 알겠어요? 그래 가지고 가정이 하나되어 가지고 일화 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기준의 일심일체·일념·일행을 중심삼고 있던 것이, 영적인 존재의 내적 속성을 중심삼고 절대·유일·불변·영원한 핵을 중심삼고 그 모든 것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상대적 마이너스 실체로 정분합(正分合), 나뉘지고 합하는 가정을 중심삼고 일족이 벌

어질 수 있는 데 있어서 창조이상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이상을 지상에서 완성하게 되어 있지, 영계에서는 번식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안 생겨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끝까지 혼독)

효율이, 기도하라구. 총체적인 내용을 중심삼고 기도하라구. (김효율 보좌관 기도)

기도문, 효율이 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가고 다 모르잖아요? 그걸 알고 때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 성인과 충신으로 갈라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일곱 시 넘었지? 일곱 시 10분이구나. 식사 준비하라고 그래. (경배) *

나라 찾는 데 주력하라

얼마나 되는데? 몇 페이지나 되는 거야? 몇 장이야? 「45페이지 정도 됩니다.」 괜찮아. 그렇게 해. 「예.」 서론을 적고 대회 내용, 제1, 제2이스라엘의 선언, 그다음에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Lasting Love Conference; 영원한 사랑 대회)’에 5개 국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서울 선언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길면 짧 수 있으면 내가 짧게. 「예.」 자!

절대신앙사랑복종, 절대성(인간)에서 일화 통일세계가 나와

「오늘은 (2003년) 5월 17일 말씀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5월 4일서부터 27일까지 21일간에 되어진 모든 내용, 앞으로 21일씩 혼독회에 쓰게끔 돼 있다구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유엔 공약을 위한 준비 내용이 되는 거예요.

효율이, 브리지포트대학 총장 닐 살로닌이 참석해도 괜찮다고 그래. 「이번에요?」 응. 「예, 연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 티 에스(UTS; 통일신학대학원)도 참석시킬까? 가까우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유 티

2003년 7월 29일(火), 코디악.

* 이 말씀은 아침 혼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에스(UTS) 총장하고 브리지포트대학 총장입니다.» 그 사모들도 불러와? 「부부로 오라고 할까요?」 글썸, 자기들이 원해서 오면 오는 거야. 「부부가 와도 된다고 그러면 되겠네. (어머님)」

이번에 계획을 많이 해야 돼요. 미국을 중심삼고 이번에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2이스라엘을 중심삼고 하는 것이 낫다고요. 코디악에 모인 사람들은 언제나 복을 받네. 자! (2003년 5월 17일 말씀 훈독)

『.....중국을 요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다방면에서 준비를 해서 판다 같은 것도 자신감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하지만 외국 수출에서 팔 기반이 없는데 팔 수 있나요? 국내에서부터 팔 수 있는 기반이, 본토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그 열매를 보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판다(PANDA)에 투자할 때 그때 얼마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박상권이 잘 모르잖아요?』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석준호가 있으니, 필요한 사람을 골라 가지고 자기가 기른 사람들이 다 원리 무장이 되었으니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박상권의 책임이 크구만. 석준호하고 하나돼야 돼. 그래야 앞으로 발전한다구. 중국 말이야. 「이번에 가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교회와 연결하고 북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학생들, 이북에 있는 학생들, 이북에서 나온 학생들도 집어넣는 것이 좋아요. 「예.» 3국을 연결시키고 소련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 수입하면 그걸 확대하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 자!

『.....인간을 위해서 지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완성의 가정을 위해서 몸뚱이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딸 번식을 영계에서는 못 하는 것입니다. 못 하기 때문에 실체권을 중심삼고 인간의 생식기, 아담 해와의 사랑을 맞추는 거예요. 결혼

식 후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자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상으로 결혼식을 했던 천주 태평성대 고속도로에서 살던 천국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부 다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생식기, 우리 인간의 결론, 핵이 나오잖아요? 창조세계! 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고, 돌감람나무만 접붙이나? 잣나무도 접붙일 수 있지. 이것이 틀림없는 방법이니 모든 나무들이, 푸른 지대 전부가 하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을 이어받아 가지고 접붙여졌으니 당당하지요.』

그래, 바다의 고기들도 양식해서 접붙여 방출하는 거예요. 자!

『……탕감복귀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해도 개척한 이후에 아담 해와와 같이 원리의 길을 밟아 가고 여러분은 절대복종하고 밟아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복종 투입해서 만든 대상권은 절대신앙절대사랑 절대복종, 지상에서 실체권은 영육이 한꺼번에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놓았으니 하나님의 핏줄을 열심히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상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효율이, 복종 다음에 뭐인가? 「절대 성입니다.」 절대 성 인간! 「절대 성, 절대인간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일화 통일세계! 내적인 영계의 사실이 실체로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주의 비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이 전부 다 나오는 거라구요. 자, 계속! (끝까지 혼독 계속)

사랑의 물결 앞에는 복종의 해방권이 벌어져

한마디 얘기할 것이 무엇이나? <워싱턴 타임스>하고 유 피 아이(UPI) 통신사를 중심삼고 통일교회 전 세계의 책임자들은 이제 하늘 나라의 이사권이에요. ‘권’ 자는 ‘둘레 권(圈)’ 자예요. 이사권에 서 가지고 설정한 대사관을 중심삼고 워싱턴 타임스와 유 피 아이(UPI) 통

신사를 통하면 그 행정부처의 꼭대기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누더기 만들 수 있고, 폭군 같은 사람은 바람에 날려 버릴 수 있고 바다에 흘러 버릴 수 있어요. 사랑의 물결 앞에는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모돼 가지고 복종의 해방권이 벌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21일 기간에 간간이 말을 했기 때문에 비약되는 점이 있지만, 그때 회의한 사람은 비약이 아니고 연대적인 관계를 앞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이는 거예요. 많이 비약된 것으로 알았지만 여러분은 그걸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워싱턴에서 2주일 교육받는 책임자들과 유 피 아이(UPI) 통신사 특파원, 그다음에 워싱턴 타임스 특파원들이 이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정성들여야 된다고요. 앞으로 그것이 첨가된 서적도 많이 나올 텐데,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자기 설자리를 확정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천일국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대신, 하나님 대신, 나라 왕 대신... 타락해서 쓰러져 버리고 흘러갈 패들인데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로 비상천이 아니라, 물이 거꾸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탄세계의 타락한 세계와는 관계없다. 사탄아, 사탄세계야, 잘 있거라.' 해야 돼요.

룻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뒤를 돌아보고 뒤를 중심삼고 관계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일당백으로 하늘과 참부모가 지시하는 그 길에서 직행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을 명심하면서 세계의 메시아 대신, 하나님 대역자라는 것을 체험해야만 하늘나라의 해방된 왕자 왕녀로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

생축헌납으로 납품하였던 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그건 뭐냐? 참된 승리권 사랑의 왕권 위에서 전수해 주는 것이 모든 천지의 상속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원수들이예요. 사탄의 혈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잘 알고 거기에 일치될 수 있는, 천주천지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지상과 천상에 일치화시킬 수 있어 가지고 조수가 들어와서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해야 돼요.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는 룯의 처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정비하고, 이제 천일국에 입성해야 될 때가 되어 온다고요. 유엔 공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일주일 이내에 60억 인류를 축복할 수 있어요. 7개월 동안이면 문제도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놀음놀이가 아니예요. 그렇게 알고 단단히 결심해 나가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출발할 때 생명을 각오하고, 과정에도 언제나 생명을 각오하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핍박이 없어요. 핍박한다면 문 총재한테 했던 핍박의 그림자들이 남아서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정의 핍박을 받고 나라의 핍박을 받아서 쫓김받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하고, 일족이 잘못하고, 나라가 잘못했어요.

어디 가든지 문 총재가 세운 하늘나라의 법도가 사실인 것을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때가 왔으니 역으로 형제축복, 부모축복, 3대 3대를 올라가서 아담 해와까지 해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대 아담 해와, 2대 예수, 3대 재림주를 반대해서 지옥에 간 것까지도 해방해서 하늘에 입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해야 할 것이 현재 제3이스라엘권의 책임자들이예요.

제3이스라엘권은 제1이스라엘권 승리 기반 위에, 제2이스라엘권 승리 기반 위에, 제3이스라엘권 승리 기반 위에 서야만 제4차 아담권 전

체 해방시대에 들어가서 천일국의 주인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총결론이에요. 자, 효율이, 기도하라구. (김효율 보좌관 기도)

부자지간 합동 보고기도

「……아버지, 이 코디악은 태초적이고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선한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완충지대, 여기는 미국과 소련, 유심 유물의 완충지대, 천상에서는 신권지대를 넘을 수 있는 최후의 전선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라구, 기도 가운데.

「……영계에서도 이와 같은 완충지대가 형성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옥과 낙원을 중심삼은 완충지대를 철폐해야 돼요.

「이와 같은 완충지대가 지금도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영계에서 먼저 완충지대가 제거되고, 따라서 지상에서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완충지대를 완전히 해결하고 해방시키고 통일시켜서 한 나라 한 가정으로 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엄청난 유엔 공략의 승리의 패권을!

「……아버지여, 제1이스라엘인 예루살렘에서 세계 앞에 선언을 했사옵고, 미국의 세계적인 성직자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권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천상과 천하에 선포했던 제1예루살렘 선언과 더불어 제2의 선언을 제2이스라엘권인 기독교권 미국의 중심부 워싱턴에서 했사옵습니다. 이제 8월 15일이면 제3이스라엘국인 조국 한국 땅에서 천상과 천하에 선포할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 더욱 옷깃을 여미고 그와 같은 엄청난 섭리의 대단원 앞에…」 종교권 1세와 전체를 대표한 2세권!

「……이제 만세계 앞에, 영계에까지 참감람나무의 전통을 세워 세계를 완전히 하늘 앞에 복귀해야 할 21세기의 주역들로서 서야 할 것

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만남을 헤쳐 나가는 데 하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권에서 호흡하고 떨 수 있는 젊은 용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찾아오는 참석한 교수들과 학생이 합해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찾아오는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은 물론…」 합해 가지고 각 나라에! 「191개 국에서 찾아오는 종교권의 대표자들, 정치권의 대표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늘 앞에 완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이와 같은 섭리적인 대선언어…」 승리적인 대 선언이 하나님의 전권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제2세 해방을 이루는 조직 편성을 하겠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 기도 끝)

오늘부터 3일간은 특별정성기간으로 알고 지내라

오늘이 29일이지? 오늘부터 30, 31일까지 해서 사흘 기간은 특별정성을 들인다고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직장에 갔으면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늘땅을 대표한 피어난 꽃과 같이, 이것이 앞으로 유엔 승리의 공략과 더불어 하늘땅에 하늘천국이 실현될 수 있는 열매를 결실하게끔 정성들이는 기간으로 지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8월 초하루를 뜻 있게 맞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르구만. 다음에는 뭐야? 다음 제목이 뭐야? 「5월 22일 말씀입니다.」 5월 22일, 그건 안 읽었구나. 그거 읽어 보자. 「다음은 2003년 5월 22일, 이스트 가든 훈독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 때문나. 그렇지? 「6월에 하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거 읽어 봐요. (2003년 5월 22일 말씀 훈독)

『……3대권을 중심삼아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기! 만약 할아

버지가 있으면 자기를 중심삼고 횡적으로 3대! 선생님이 1대, 자기 2대 자기 가족 3대권을 중심삼은 사인을 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할아버지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후손의 모든 전부까지 교회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빨리 세워야 한다구요. 이것 공문을 내 가지고 전 세계 통일교회 식구들을 대전환 시기에 이래 놓아야지...』

다들 공문을 냈을 거라구요. 공문을 냈지? 「예.」

『.....사각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되기 위해 땅에서 하나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축복가정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천지부모를 모셔다가 이 땅에 부모와 하나돼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땅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축복, 축복! 통반격과 완성은 축복 완성이다! 자!

『.....같은 때 같은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축복받았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전체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해와가 타락한 것을 다시 찾아 가지고 2차적으로 하늘이 결혼해서 들어가니만큼 해와의 아들딸들도 같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고 세계적 천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르다구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주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효율이, 알지? 「예.」 자!

사랑의 실체권이 가정에서 출발해

『일삼일체일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몸이 하나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것이 환경천국이 하나되어...』

일심일체일념, 여기에 일핵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상대가 없
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인데 실제로 그냥 옮겨져서 성(性)
을 중심삼고, 인간을 중심삼아 가지고 정착해서 지상의 가정과 지상의
나라와 세계예요. 지상 나라에서 생겨난 것이 하늘나라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이상 완성, 아멘이라구요. 자!

『거기에 해야 할 것, 본래 창조 당시에 주류 속성인 절대유일.
불변영원한 기반 밑에서 이것을 바라는 상대가 없어요. 뼈와 가죽까
지 수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충격이 없어요. 아담격 주체로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담을 세워 가지고 이양해서 실체권, 높은 자리 낮은 자
리, 남자 여자, 형제자매…』

성관계, 인간 하계 되면 남자 여자, 성을 중심삼고 다른 성들이 합
해 가지고 폭발, 터지는 거예요. 번개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레하
고 번개 치는 거와 같은 이런 사랑의 실체권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
예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그랬기 때문에 사탄세계와는 관계없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가정들은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된다고요, 가정
적 별! 춘하추동의 생사지권을 영광으로써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축복가정들? 그러니 일본 나라니 한국
나라가 없다구요. 일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이에요. 참부
모의 말이 조국어예요. 참부모 문화가 자기 고향과 나라의 문화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그것이 만약에 남아질 때는 틈이 생겨서 물이 새어 들어올 것이고,
태양 빛이 들어올 것이고,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권 내에 붙들
렸기 때문에 천국 문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전부 출발해야 될 텐데 출발하지 못해 가지고 붙들린 사람
과 같이 되기 때문에, 홍해를 못 건넌 사람은 애굽 나라에서 몽둥이에
맞아죽고 비참하게 죽었을 거라구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구요. 탕감복귀예요. 자!

『극과 극으로 대치해 나왔던 것이 사랑을 중심삼고 맞춤으로 말미암아 충격적인 사랑을 해 가지고 비로소 모든 세포와 상하 부자지관계, 좌우 부부관계, 전후 형제관계, 모든 창조의 세포가 영원히 충격을 받아서 운동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왕과 왕후를 찾아 가지고 수천년 고생해서 자리잡은 것이 여러분 축복가정이예요.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천년만년 서로 존경하고 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에 선 가정인 것을 알아야 된다구요. 제멋대로 싸우고 별의별 짓을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머리 사상으로 사탄세계의 성 해방을 근절할 수 있어

『같은 운동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혈대를 중심삼고 하나님께서 영속하는 거와 같이 영속한다, 이런 개념을 딱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주류 속성의 절대유일·불변·영원한 하나님에 일치된 상대될 수 있는 아들딸이다 이거예요. 몸뚱이와 마찬가지로. 몸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러던 것이 작용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주체로 있더라도 빼와 살이 사랑을 중심삼고 화해 있다는 거예요. 중화적 존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상대가 없어요. 상대를 만들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정(正)에서 아담 해와로 분립돼 가지고 다시 폭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 격위에서는 남성적 주체로 있다는 말이 총평이예요. 모든 만유의 존재는 쌍쌍체도로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봉

헌하는 희생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결과의 세계를 볼 때, 희랍철학에서는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통일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세계를 전부 다 원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투쟁해 가지고 통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니 물본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냐 하면 성을 파괴했어요. 공산주의는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프리 섹스, 호모, 하나님 부정! 인본주의는 뭘 파괴시켰다고요? 성! 그다음에 유물론을 중심삼고는 머리를 파괴시킨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해방될 길이 없어요. 머리 사상이 없으면 안 돼요. 이론적인 체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의 성 해방을 근본적으로 잘라 버릴 수 있는 거라구요.

인본주의는 뭘 파괴해요? 「성입니다.」 유물주의는? 신을 파괴해 버린 거예요. 머리, 머리! 그래서 두익사상과 하나님의 정착의 사랑! 상헌 씨의 증언 가운데 나오지요? 영계에 들어가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인사하게 될 때 사랑으로써 예를 드린다고요. 그것을 효율이도 생각해? 「예.」 그거예요, 그거.

성 일체권에서 실제로 분리돼 하나님의 사랑에 합하는 것이 결혼

하나님도 성을 중심삼고,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을 중심삼고, 성을 중심삼고 중화적 존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의 일체권이 정에서부터 분리해서 일체권이 돼 가지고 갈라졌다가 동서남북에서 갑자기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합할 수 있는 시간이 결혼식이예요. 하나님이 충격적인 사랑을 느끼고 아담도 충격적인 사랑을 느껴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거예요. 마음의

아버지, 몸의 아버지로서 한자리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결혼식
이예요. 알겠어요?

그 결혼식을 해 가지고 인본주의 사탄사상, 무신론적 사탄사상은 머
리와 성을 파괴해 봤으니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니 무슨 주의니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가정파탄 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정화해 가지고 본연의 절대·유일·불변한 가정
이 돼야 돼요. 부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지상에서 완성해 가지고 천
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중화적 존재로서 하나돼 가지고 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되겠나?
입맞춤이예요, 무엇이예요? 생식기예요. 성에 대한 모든 것, 그런 개념
이 있으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일심일체일념일행을 중
심삼아 가지고 중심이 되어 주체가 되어서 실체대상인 아담 해와 가정
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 인간을 중심삼아 가지고 비로소 땅 위에 하늘나라의 가족, 천상
세계의 가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땅 위에 나라와 세계가 퍼지면 하늘나
라의 백성이 그냥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종교니 무엇이니 없어요.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게 돼 있지. 핏줄이 달라진 거예요, 핏
줄! 알겠나? 핏줄, 해 봐요! 「핏줄!」

*갯토(けっとう; 혈통, 결투)라고 하는 거예요, 갯토. 결투가 아니에
요. 삼각관계에 있는 사랑의 상대를 중심삼고 해결하는 그런 갯토는
아니지요? 핏줄, 그것은 참부모의 사랑과 참부모의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가 하나되어서 떨어진 그것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들딸
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딸은 3대를 연결
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담과 해와
뿐만 아니라 3세도 희생해야 되는 거라구요. 가정을 중심삼고 희생해
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반격과는

혈통적인... 그것은 형제축복, 부모축복 등 3대 축복을 단계적으로 연결해서 혈통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왕 완성, 종족왕 완성, 민족왕 완성, 천주왕 완성한 다음에 자기의 소유권이 가능한 것이지, 그 이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소유권에 속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뭐 모가지로부터 관절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자!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거 읽어 봐요.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 문제!

탕감복귀 철회시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면 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오른편 강도와 같은 우익 민주세계가 있고, 왼편 강도와 같은 좌익 공산세계가 있는데 순응하고 하나되면 자연스럽게 바라바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동시성시대로 똑같이 갈라진 셋이 하나될 수 있는 놀음을 재림주를 중심삼고 때도 그런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선언, 워싱턴 선언, 서울 선언, 제1, 제2, 제3이스라엘을 하나로 연결해서 수족을 만드는 거예요. 1세 2세, 청년을 중심삼고 학교, 교육을 중심한 기지를 중심삼아 가지고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의 입장, 형님이 동생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래서 영계의 하나님으로부터 5대 성인이 땅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7월 13일을 중심삼고 탕감복귀 철회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선생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면 돼요. 선생님이 명령하지 않고 하늘이 컨트롤하는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유엔이니 모든 전부가 자기들끼리 싸워 가지고 망해요.

우리는 올라가지만, 이라크 같은 나라도 앞으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웠더라도 4년 대통령밖에 못 해요. 왕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슬렘이 또 될 수 있고, 가인 아벨로 공산당이 될 수 있고 민주세계도 될 수 있는데, 민주세계는 믿을 수 없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 나가요. 한 방에 사는 형제들까지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싸우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랫목에 있는 형님을 윗목에 있는 동생이 죽일 수 있는 때에 들어오기 때문에 평화는 영영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유엔을 중심삼아 가지고 새로이 돌이켜 놓음으로 말미암아, 조수가 반대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가던 조수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내려가던 것이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겠나? 전부 다 이론적이에요.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자!

제4차 아담권 이양시대에는 소유권이 없어

『잃어버린 것으로 동시성시대로 똑같이 갈라진 셋이...』

동시성이예요. 똑같은 형태예요. 작은 것을 잃어버렸으면 그 위 단계에서 탕감해야 되고, 그 위 단계에서 또 잃어버리면 그 위의 단계에서 탕감해요. 예수가 가정적인 복귀를 못 해서 세계의 국가를 연결 못 했으니 국가적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재림주는 와서 하늘땅, 천상세계를 해방하고 지상세계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4차 아담권 이양시대에는 소유권이 없어요. 축복받아 가지고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안 해 가지고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은 사탄의 나일론 줄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소유권 전달할 것을 세계적으로 공문을 내 가

지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 안 되게 된다면 모든 통일교회 식구들의 소유권은 통일교회 소유권으로 이양한다 하는 선포를 해야 된다고요. 회장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장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건국이상을 위해서 이양된 땅을 이양한 여러분과 의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참부모의 명령만 있으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축복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아담 해와의 소유인 동시에 여러분의 소유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는, 자기 소유권 기준이 있으면 상속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렬이 앞으로 몇십만 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일 터널을 만들어야 되고, 알래스카를 중심삼고 미국과의 터널을 만들어서 남미를 중심삼고 남북미를 연결해서 세계 어디든지 돌아갈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헬리콥터를 중심삼아 가지고 말이에요. 배를 사용할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국을 중심삼은 항공회사를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섬과 섬을 중심삼고 일본과 중국과 소련, 태평양권 전체의 항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항공회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워싱턴 타임스의 항공회사예요. 그게 다 준비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노우에, 가계야마, 그다음에 누군가? 「최 차장하고 임원규입니다.」 임원규는 미국 지역이에요. 미국 사람들을 중심삼고 사업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 하는 거예요. 그 조건적 기준을 물려 가지고 하와이 기지 정착과 더불어 남극개발을 해야 된다 이 거예요. 알겠어요?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합해 가지고 하와이 나라를 우리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와의 나라가 섬나라 아니에요? 영국이 섬나라인데, 섬 중에 제일 큰 섬이 어디냐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예요. 그다음에 어디냐 하면 남북미, 그다음에 어디냐 하면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맨

나중이에요. 아시아의 중심인 한국이 천지부모를 모실 수 있는 조국 땅이 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도 고향 땅과 조국 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결론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하와이의 교육기관 설립과 청평의 왕궁 건설

지금 어떻게 됐나? 학교를 다 샀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셜 아일랜드) 노트(케사이 노트) 대통령을 중심삼고 거기서 몇몇 학생들을... 「예, 우선 영어권 학생부터 뽑아 오려고 합니다.」 많이 필요 없어. 몇 명? 「20명에서 25명 정도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명만 넘으면 돼.

네 나라, 다섯 나라를 엮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조건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는 장학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나라가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빚 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는 돈은 생겨난다 이거예요. 조건적 기반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국가의 대학을 만드는 대표가 마운틴 케아가 있는 하와이섬이에요. 하와이섬에 대학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소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세우는 거예요. 호텔도 세계에서 제일가는 왕 터를 잡을 수 있는 호텔이에요. 킹 카메하메하 호텔이 왕 터 아니에요? 「예.」 바다로부터, 육지로부터, 하늘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화려한 곳이에요. 원초성지·근원성지·승리성지를 담수세계에서 조수세계의 섬으로 옮겨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지 청평에 왕궁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왕 터가 육지에서 생겨나니 그것을 중심삼고 상대적 왕 터를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늘이, 영계가 어디든지 도서국가·반도국가에 재림해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알겠지? 「예.」

이번에 기도할 때도 효율이가 기도하는 도중에 빠져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신해서 부자지관계가 기도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엄숙히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처음으로 그런 기도도 했지? 효율이! 「예.」 여기서! 「예.」 1세시대가 2세시대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기도까지도. 자!

『우리 7백 명 국제기동대가 들어와서 부산 싸움, 4대 싸움을 해서 정부를 중심삼아 가지고 통일교회와 하나되어서 기독교의 반대를 때려 부숴줍니다.』

2세들이 들어와서 했다고요. 2세와 1세가 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세와 2세 합해서 건국하면 2세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섭리는 아들딸을 통해서 하니만큼 가인 아벨 만드는 것을 2세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기동대를 중심삼고 싸워 이긴 기반 위에 영·미·불 10개 국 사람들이 와서 하나되어 가지고, 그때 안기부(중앙정보부) 차장 이철희를 중심삼고… 그 사람이 일본 여자와 결혼했어요. 신부권을 대표해서 하나된 그 자체를 중심삼고 박정희 대통령과 하나된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얼마나 반대했어요?』

430가정을 축복할 때 일본과 세계를 중심삼고 43쌍을 축복했지? 「예.」 그게 다 원리적이라고요. 선생님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자!

부모님이 하는 일은 무서운 것

『유신을 반대한다고 우리가 싸워서 정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협조해 나가고 선생님이 승리의 패권을 국가에서 가져 이긴 거예요. 예수가 실패했던 기준을 비로소…』

박 대통령이 유신을 해서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협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산주의와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때를 맞는 거예요. 전통이니 노동이니 김영삼이니 필요 없다는 거지. 자!

『비로소 국가 기준에서 넘어 가지고 세계권 기독교문화권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내가 박 대통령의 경호실장 박종규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지키지 않다가 중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박 대통령이 날아가 버리고 박종규가 날아가 버리고. 다 그거 이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이 움직이는 것이 무서운 거라고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점을 찍고 나가면 그 점 때문에 사탄세계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코디악에서도 우리가 먼저 물러가야 되겠나, 사탄세계가 먼저 물러가야 되겠나? 박상권!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얘기를 안 해요. 이복에 가서도 자기가 물러나서는 안 돼요. 이미 조건을 다 세웠어요.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지불한 거예요. 지나치게 지불했다구요. 자!

『……그러니까 천지부모 천일국개문 축복성혼식입니다. 결혼을 못했거든요. 나라가 없어요. 부모가 없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문 결혼식을 해 가지고 천주천지 참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식을 그날에 부모님이 잘했나, 못했나? 안 하면 큰일이에요, 큰 일. 자!

『비로소 이것이 이렇게 선생님 개인시대 가정시대를 중심삼아 여기서부터 종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인부터 8단계, 이렇게 됨으로 3억6천만쌍 이상으로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이 선생님도 왕권을 중심삼고 가정왕으로 옮겨 올 수 있는 다리예요. 축복가정들이 그렇지요? 사탄세계에서 중간 하늘 편의 천사장을 중심삼은 축복가정과 같이 됐어요. 한 단계 높은 다리가 놓아지는 거

예요. 자!

『비로소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니 내려와서 하나를 만듬으로 평면시대예요.』

그것을 이 기간에 읽을 때 물어보면 답변해야 된다고요. 녹음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 못 하더라도 선생님의 말씀이 책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탕감을 못 하면 처벌받아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흑인이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지상에서 동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도 이라고요. 또 찾아갈 때 집을 떠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방 사람이예요. 적자 기준이 아니고 서자 기준이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생명수 이야기를 한 게 뭘지 알아요? 사랑의 천국이라고요. 영원히 교육해서 깃들어야 할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사랑이지요? 「예.」 그 이상 귀한 것이 없어요. 쫓겨나서 집도 없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없으되 인자는 쉼 자리가 없다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의 몸을 빌려서라도 복귀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기가 차지.

서자 중에 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천년 적자 길러 나온 것을 다 부정하고 쫓겨나서 그 일을 하겠다는 예수! 원래는 열두 제자 가운데 그 일을 다 해야 된다고요. 세 제자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경제를 책임졌으니 세상의 국가들을 대신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소유권을 교회 소유로 해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벌을 받아야 돼요. 탕감 못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의 집에서 들쎄는, 할아버지시대의 종조할아버지, 아버지시대의 삼촌이 객사했어요. 내가 종손의 들쎄 아들인데 내가 걸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가정에 파탄이 벌어져서 사람도 들이 맞고, 동물도 들이 맞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사탄 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상의 하나 표시대로서 우리 가정을 중심삼고 뒤넘이쳤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개문성혼식을 했으니 3억6천만쌍도 영계도 그 일족이 있으니 이것을 중심삼아서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서 승리했으니 올라가서 반대하지 않고 영계의 축복까지 해 봤으니 선생님이 땅의 근원에서 즉위식으로부터 성별성화식까지 하고 천일국개문 성혼식을 했으니 갈라진 것을 붙여야 됩니다. 붙이려니까 축복가정왕 즉위식이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왕인 동시에, 스승의 왕인 동시에, 혈족의 왕이 되어서 출발하여 새로이 축복받았으니 국가가 이 자리를 대신해서 올라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적이라구요. 영계에서 된 것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같이 결혼식을 한 거예요. 가인가정과 아벨가정이 하나된 기반 위에, 부모님이 종교와 국가 대표들이 피를 섞어 하나된 기반 위에서 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영계 육계의 통일적 기준을 중심삼고 천주천지 참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할 수 있다구요. 이론적인 모순이 없다 그 말이라구요. 잘 기억해야 된다구요. 이렇게 세밀히 코디악에 와서 설명해 주니, 참 이상하지? 자!

일심일체·일념일핵으로 하나됐으니 유엔은 문제없이 넘어가

『이렇기 때문에 5월 5일이라는 것은 선두 10수로 해서 하나님

봄을 맞이해 가지고 여름이 오기 전에 5월 4월까지, 이 기간이 선생님이 병이 나서 시련을 겪는 기간이라구요. 이래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하면 11월, 12월, 13, 14, 15, 16까지 역시 수를 맞춰 가지고 총탕감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간에 영계에 대혼란이 벌어져요. 선생님도 밤이 된다면 사탄의 전권시대가 되어서 잠자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실이랑 세 사람이 지키고 이래 가지고 지내지만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고개를 넘겨서 지금까지 5월을 넘어 6월에 들어와서 이 일이 7월까지 넘어온 거라구요.

그래서 몸도 회복되고, 눈까지도 잘 안 보이는 것을 수술한 거예요. 원래는 7월 내에, 가기 전에 수술하게 돼 있었는데 연장한 거예요. 칠일절, 칠팔절, 칠십절을 중심삼아 가지고 7월 10일까지 해서 탕감 철수를 3일 지내고 13일에 선포한 거라구요. 그랬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탕감이라는 원칙, 교회라든가 무슨 나라의 지배 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천사가 이렇게 망쳤으니 수천 수만의 천사를 동원해서 행차할 수 있는 처리 시대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일교인이 일심·일체·일념·일행으로 하나됐으니 유엔까지도 문제없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하나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문제를 방어하려니 조건적 유엔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아벨유엔을 만들 것을 결정한 거예요. 한국의 완충지대에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세계의 완충지대, 영계의 사탄과 하나님의 완충지대, 두 번째 되는 소련과 미국의 완충지대인 이 코디악에서 이런 일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나? 「예.」

남북의 완충지대, 유신 유물의 완충지대, 지옥 천국의 완충지대를 총탕감하기 위한 것은 지상의 유엔을 통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원

리관에 딱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자!

『……정오정착의 시대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때 우리 축복가정들에게는 입적축복식을 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성별되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만이 아니예요. 남은 것이 나라가 성별되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실체의 나라, 한국이 이 놀음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제 나라 찾을 수 있는 좋은 때라구요.』

가정에서 형제로부터 복귀하고, 어머니 복귀하고, 3대를 복귀하는 거예요. 이 원칙으로 그냥 그대로 조상들을 해원해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남북통일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조상의 해원과 축복을 서둘러서 해 줘야 된다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해 줘야 돼요. 교회에 이동하는 것, 전부 다 팔아서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하늘나라 왕권을 세울 수 있는 공적인 기관, 학교와 나라의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불란서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 런던의 대영 박물관 이상의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자금으로서 헌납해야 한다고요. 모든 것을 사탄 이상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성스런 일로서 다시 복귀해 드린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러니까 유엔을 점령해야 돼요. 어제 내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둘기과를 내세워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미국이 해야 될 것은, 매파가 때려서 잡았는데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예요. 이걸 먹으면 왕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비둘기 입장에서 옮겨 주어야 할 텐데, 그걸 끌고 소화할 수 있는 매파가 다 잡아 먹을 수 없어요. 종교가 포괄해서 화해 가지고 형제지애를… 매파들이 비둘기과들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평화의 문을 향해서.』

비둘기과가 모르니까 선생님하고 하나돼야 돼요. 종교가 위에 올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틀림없이 말씀하고 선포했다구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성(性)

『그러면 하늘나라의 갈라졌던 것을 하늘나라의 결의문 통고한 그 기준을 중심삼고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뜻을 이어서 하나님 속성의 절대사랑, 유일·불변한 사랑을 중심하고 창조이상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절대성 해 가지고 일심일체·일념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핵이라는 말이 없지? 「예, 없습니다.」 거기에 일핵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상대이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 효율이? 「예.」 자!

『사랑의 마음, 가정적 전통으로 연결시키는 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은 천리를 풀 수 있는 틀림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다구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성 해 봐요, 성! 「성!」 성이 뭐예요? 어떻게 써요? ‘계집 녀(女)’ 변에 ‘날 생(生)’이예요, ‘마음 심(心)’ 변에 ‘날 생(生)’이예요? 「마음 심’ 변에 ‘날 생’입니다.」 이것은 두 존재 상대세계의 중심이예요, 중심. 이것은 종적 기준에서 열매가 1대에서부터 영원한 거예요. 핏줄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나뉘진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점 얼마든지 있지? 이것은 좌악! 거기에 ‘푸를 청(靑)’ 자예요. ‘푸를 청’ 자는 3단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땅 위에 연결한 거예요. 달(月) 위에 연결한 거예요. 피조세계를 중심삼고 지상과 연결할 수 있는 통일적인 말이에요. 정(情)이라는 말이 그렇게 돼 있지요? 이것을 자르면 ‘임 주(主)’ 자예요. 3세계의 주인을 중심삼고 땅과 하나된 그런 마음의 주체 대상관계를 중

심삼고 핏줄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핏줄은 끊기지 않지요? 여기서부터 주옥이에요. 자!

『……이게 이제 참부모의 하늘나라의 소유권으로 했다가 천지의 유엔을 중심삼고 꼭대기에서 다 드렸으니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타고 마 음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만물은 하늘 나라를 위해 만든 것보다도 지상을 위해 하늘 이상 만들었으니 사탄이 더럽힌 천지를 깨끗이 해서 재상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재차 상속 받은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구요.

『……그걸 똑똑히 알고 사상적 주류를 딱 해놓고 어디 가든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물러가면 안 됩니다. 비둘기파를 만났지요? 만났을 때 빨리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조용히 비밀리에 해야 됩니다. 매파가 반대한다고 해서 세계의 모든 종교권을…: 부시 행정부가 이번 유엔을 결속하는 데 자기가 비서실까지 임명하고 책임 할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박상권, 그날 보고한 내용을 광정환을 통해서 연결했나? 박상권! 「예.」 엇그제 얘기한 10대 조건인가 미국에 통고하라는 것 통고했느냐 말이야. 이번에 북한에 갔다 올 때 유엔을 중심삼아 가지고 완충지대 문제라든가 전체 해결을 위한 배후의 10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잖아? 「예.」 그것을 연결했어? 「예, 다 했습니다.」 주 사장한테 확실히 얘기했어? 「주 사장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광정환이 주 사장한테 얘기했겠지.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연결해야 될 거라구. 자! (끝까지 혼독)

나라를 찾아 세계 앞에 접붙여 줘야

다야?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는 광 회장 보고입니다.」 보고

한 내용이 있지? 「이것은 아버님 말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됐다고. 그만해요.

이제는 선생님이 숨을 쉴 수 있는 때에 왔다고요. 선생님은 어디 가든지 걱정할 것 없고,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찾는 데 주력해야 돼요. 선생님보다도 나라를 찾아 가지고 세계 국가 앞에 접붙여 줘야 돼요. 성인들이 바라던 세계 국가 앞에 접붙여야 돼요. 그러면 종주들이 세계 국가를 중심삼아 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 제자 앞에 연결시켜야 예수 중심삼은 사위기대 국가 형태를 중심삼고 지상·천상·천국 왕권을 성립하여 만천주통일 지상천국 세계가 되느니라! 아멘! 해 봐요. 「아멘!」

내가 들어 보니까 틀림없이 다 엮어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몇 시야? 「일곱 시입니다.」 일곱 시 됐구만. 밥 먹어요. 선생님의 밥은 2층에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뭘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겠으니까 여기서는 임자네들이 먼저 먹어요.

왜 어저께 배에 다 안 나갔어요? 「어제 전부 깜박 졸아서 안 나갔습니다.」 깜박 졸았으면 전부 다 졸 게 뭐야? 선생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은 전통대로 지켜야 돼요. 선생님이 나가게 된다면, 점심밥 먹고 여기서 오라고 하면 나갔던 사람이 자기 배에 다섯 사람 있으면 다섯 사람을 옮겨 놓고 휘익 와서 선생님을 실어서 또 나가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쉬기는 뭘 쉬어? 선생님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나가기로 했다고요. 해 진 다음에 말이에요.

며칠 나갔나? 내가 두 번 나갔나? 「예. 나가시긴 세 번 나가셨는데, 밤에 두 번 나가셨습니다.」 글썽 한 번은 낮에 나가고, 세 번 나갔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내가 지금 할 일이 많다고요. 이제부터 회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지 말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자기대로 해 가지고 해양권의 관계를 끊지 말고 계속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알아야 돼요.

알겠나? 이노우에! 「예.」 가게야마! 「뉴욕에 이삿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사토, 알겠지? 이거 끝나면 식사하고 바로 바다에 간다구. 파도가 높아서 못 나간다고 하는데, 못 나갈 것 없다구. 선생님은 35노트 때도 뭐야? 마크 베이에 갔지? 대단하다구. 바다에 나가는데 20노트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구. 알겠어? 사토! 「하이, 알겠습니다.」 단 사토(砂糖; 사탕)야, 쓴 사토야? (웃음) 이노우에! 이노우에는 뭐야? 사람이 판 이도(井戸; 우물)야, 자연적인 이도야? 「자연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이름이라구. 알겠어? 「하이.」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자! (경배)

3일 동안은 있는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라구요. 8월 초하루 재출발, 재출발, 재출발! 제3이스라엘권에서 2세들이 합해 가지고 서울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2주일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기간을 맞기 위한 준비로 3일 기간을 있는 정성을 다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생각 하지 마요. 자기 고향이니 무엇이니 생각하지 말고, 뜻을 중심삼고 21일간 되어진 사실을 다시 책으로 읽으면서라도 생각하고 정성들이라구요. 알겠지요? 「예.」 *

정성·동성 일화, 애성 안착 통일세계

다음은 뭐야?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 선포」 말씀입니다.」 응, 그래.
(《통일교회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Ⅱ》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 선포’ 훈독)

영계의 영인들을 지상에 재림시켜 일하는 때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입장에 있더라도 세계 최고의 성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그와 심적인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은 어디든지 중형무진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영적으로 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접어 놓으라구. 이번에 모이면 그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구만. 효율이, 기억하라구. 「예.」 두익사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선생님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간단히... 선생님이 모든 종합적인 총론 결론을 낸 것이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2세들은 다 선생님 편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

2003년 7월 30일(水), 코디악.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요. 영계에서 2세들을 중심삼고 통합하고 3세를 통합하니만큼 점점 점점 더 발전하게 돼 있지.

저렇게 세밀히 다 가르쳐 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뺑 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 누더기를 그냥 쓰고, 하나님주의가 뭐인지, 두익사상이 뭐인지, 좌익이 뭐인지, 우익이 뭐인지, 바라바주의가 뭐인지, 예수주의가 뭐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통일교회 움직임을 두고, 전 세계의 각 나라 애국자들은 전부 다 이 땅 위의 통일교회 기반을 중심삼고 배후에 울타리를 쳐 가지고 재림해서 정주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대로 말하면, 그 나라의 민족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사람들이 죽어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확대공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비나이다.’ 그랬는데, 지상을 중심삼고 재림시켜 가지고 일할 때라구요.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것보다도 하늘이 동원되어 가지고 지상을 완성시키기 위한 놀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뜻을 알아야 돼요. 영계에 있는 영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주체가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유엔 공약을 하는데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전체를 동원하고 앞장세워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13일을 중심삼고 섭리적 탕감복귀시대 철수를 발표했어요. 영계를 동원해서 지상에 와서, 하나님과 흥진 군을 중심삼아 가지고 5대 성인이 결의문을 선포해 가지고 공산권, 그다음에 모든 지옥을 해방해서 지상에 와 가지고 몰아치는 거라구요.

그러니 언제 세계가 뒤집어질지 몰라요. 하룻밤에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과 같은 사람에게 오면 틀림없이 하는데 4년도 길지. 4개월 이내에 다 집어넣고, 유엔 총회 의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유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왔다고요.

저기압이 생기면 공기는 고기압에서 오는 거예요.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사랑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운동이라는 것은, 그 현상이라는 것은 수평이 돼 가지고 이상권의 정착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북한에도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를 가르쳐 줘라

『……전체를 대표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총진군 명령을 내리면 그 영들이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나? 영적인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물존주의(物尊主義)의 인본주의, 이런 모든 주의는 끝장나고 후세는 전부 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존주의? 물본주의가 아니고? 「예, 물존주의입니다.」 그것은 실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관계에서 물존주의예요. 주체 대상, 가인 아벨이 돼 있거든. 그런 의미라고요.

『……여기 데니스면 데니스가 몇 개 인종과 세계 몇 나라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라. 인종을 초월해라. 교파를 초월해라. 주의를 초월해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협조하고 백인 영들이 협조하고 흑인 영들이 협조하고 한국 영들이 협조하니, 모든 국가를 넘어서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박상권은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의 내용을 따 가지고 이것 읽으라고 소책자를 이북에 가서 뿌려 주라는 거야. ‘손해 될 것이 뭐 있느냐? 너희들 갈 길이 막히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이야. 그걸 해야 된다고. 그냥 앉아서 세월 보내지 말고. 「예.」 어차피 그들이 알게 돼 있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자!

『……내가 아프리카에 간다고 할 때는 아프리카의 영인들이 집합합

니다. 이렇게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40개 국을 순회하면서 성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점을 중심삼고 한국과의 기지를 상대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 나라의 선한 영들이 집결하여 상대적으로 재림하게 하여 우리 사람이 가면 협조하게 하는 상대권 균형세계의 판도를 사방으로 만들기 위한 역사를 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1965년입니다. 지금이 1987년이니까 22년 전입니다.』

120개 성지를 만들었는데 미국에 몇 개 만들었는지 아냐? 62개를 만들었어요. 절반 이상이니 미국이 주도적이예요. 성지로 만든 장소를 다 잊어버렸어요.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표시한 것이 나무라든가 돌이 아니만큼 지금은 일치가 안 돼요. 시리아에서는 재밤(한밤중)에 가서 성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관에 표시를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 모르지만, 영인들은 알기 때문에 앞으로 모여 가지고 결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꿈같은 얘가지.

성지에다 한국의 흙과 돌을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러니 짐 보따리에다 무거운 것, 흙하고 돌을 가지고 다니니 언제나 조사당했지. 뭘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통일교회 역사를 알면 할 일이 많아요. 선생님이 일생 동안 쉬지 않고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지금 수박 겉 핥기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모르는 거라구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실될 수 없어

『.....지금까지 왔다 간 선하게 살던 양심적인 영들이 지상에 내려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일족이 인연돼야 돼요. 그래서 홈 처치 시스템(Home Church System; 가정교회 조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어떤 영(靈)도 자기와 관계된 것, 전문분야, 경제면 경제분야의 학자를 중심으로 세계 각 나라, 120개 국가 이상의 영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영계의 조상들이 재림역사 못 하는 것은 그 후손들, 그 일족들이 책임 못 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다구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해서 해야 돼요. 한 번 대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대회를 계속적으로 해서 수많은 대회가 살아서 움직여야 될 텐데, 한 번 하고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대회 한 실체적 기반 위에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결해 나왔는데, 한때만 딱 해 가지고 그만두니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구요. 그러니 말씀도 모르고 옛날 그 자체 가지고 선생님을 따라가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그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잎이 자라서 꽃 피고 열매맺어서 결실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을 모르고 꽃 피면 열매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구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중심삼고 절대 인간이에요. 아담 해와의 창조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투입한 거예요. 절대 개성진리체인 남자 여자, 절대 인간의 사랑을 중심삼고 애성(愛性), 사랑의 성 기반을 중심삼고 안착해서 일화 통일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 되지, 그냥 그대로 주먹구구 생각으로 돼요?

통일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본연의 사위기대니 무엇이니, 발전적 사위기대니 그 모든 전부가 단계적 기준이 연결될 것을 연결시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상체계가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자!

균형과 수평이 안 돼 가지고는 존재물이 안착할 수 없어

『.....영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몸 밖에 있어요, 몸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영계를 지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영계를 품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도 앞서 있어요. 하나님도 참사랑을 중심삼고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타락이 없었으면 나침반과 같이 되어 있어서 360도 방향을 다 알고 가려 갈 것인데, 그 나침반이 고장나 버렸어요. 나침반이 고장나 버렸어요. 자!

『……법정투쟁을 하고 덴버리(Danbury) 감옥에 가서도 ‘이놈의 덴버리, 내가 당하더라도 전파해서 하늘나라를 소개해야지.’ 한 거예요. 내가 한 일, 미국은 이제 내 궁둥이를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덴버리에서 개천문일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엄마! 「예.」 엄마도 공신이야. 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몇 달만 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떠들썩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국가 앞에 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지만 여러분은 젊은 사람을 포섭하라구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나간 사람들의 입장 이상 노력하라는 거예요. 움직여라 이거예요. 열심히 싸워야 되겠습니다.』

매일 바람이 부는 것이 균형을 취하기 위한 거예요. 물도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흐르는 거예요. 사람도 균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수평이 안 되어 가지고는 모든 존재물이 안착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에 대한 설명

자, 계속하라구.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 선포가 끝났습니다.」 물어

볼 것이 없나? 「아버님 말씀에 최근에는 지상이 주체적 입장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가정맹세 5절에서는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 세계’라고 합니다. (김효율 보좌관)」 그건 영계에 가서 그렇다는 거야. 지금 결의문 채택한 것, 지상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갈 때 저나라에서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걸 두고 한 말이야.

「오늘 말씀에도 지상이 주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상! 열매는 지상에서 따게 돼 있지 영계에서 못 따. 번식은 영계에서 못 해요. 「그러면 가정맹세 말씀이 맞는 겁니까?」 뭣이? 「두 가지로 얘기가 나오니까.」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지. 복귀시대와 복귀완성시대가 다른 거지. 복귀완성시대에는 지상에서 완성하게 돼 있고, 탕감시대에는 영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협조를 받아야 탕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맹세는 탕감시대에 기준 한 맹세입니까?」 그렇지도 않아. 영적 세계라는 것, 맹세문을 중심삼아 가지고 지금 천일국 주인이란 말이 나온대구요. 천일국 주인이라는 것이 완전한 참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나 육계나 표준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천일국 주인시대는 지상계가 주체라는 그 말씀이지요?」 지상에서 해 가지고 영계에 가는 걸 말하지. 지금 영계에 가 있는 사람도 참부모를 모셔 가지고 축복받고 그 준비를 하고 있잖아? 선생님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영계가 지금까지 지상에 대해서 주동적인데, 천사권 축복받은 가정 형태가 형님 가정과 같이 돼 있는 것인데 동생 가정이 돼야 돼요. 동생이 형님이 되려면 지상에서 협조해 가지고 동생이 형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볼 때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통일교회 교인들이 형님이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심삼고 말이에요. 그걸 중심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 완전한 주인 나라의 근본, 지상이

나 천상이나 하나되어 있는데 열매를 따서 창고에 들인 그 창고가 어디냐 하면 영계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요건은 영계에서부터 배당 받아야 된다 그 말이라구요.

「그러면 결과적 세계가 영계입니까?」 선생님이 맹세문을 만든 게 뭐예요? 맹세문의 첫째가 뭐인가? 참사랑을 중심으로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참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가정에서는 효자, 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셋째는 뭐냐 하면 본성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한다는 것이 본연의 세계의 이상을 두고 한 말이에요. 전부 다 이상적 기준을 중심으로 말했다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실체로서 갈 곳을 준비하고 있으니 간 영계를 두고 하는 말이지.

5번도 그렇다구요. 6번도 그렇잖아요? 6번이 뭐예요? 참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주변에 연결시켜야 된다구요. 하늘나라의 씨를 뿌려서 번식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예요?

그다음에 7번은 뭐예요? 참사랑을 중심으로 본연의 혈통과... 본연의 혈통이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순정·순결·순애·순혈, 순가순충·순세·순천주의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구요. 참사랑을 중심으로 본연의 혈통과... 거기에 위한다는 말이 없었다구요.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한다는 거지.

8번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8번은 뭐냐 하면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뭐예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에요. 복종은 투입하는 걸 말해요. 투입해 가지고 뭐냐 하면, 절대개성인 핵의 인간, 아담 해와를 만들어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 참부

할 말이 나와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투입·절대 아담 해와, 절대 인간이에요. 절대 인간은 절대사랑, 애성(愛性)이에요. 성이 중심이에요. 성이 없어 가지고는 사랑이 성립 안 된다구요. 지금까지 이걸 제일 나쁜 것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정성·동성 일화 통일세계, 절대인간 애성 안착 통일세계

그래서 보라구요. 내가 때가 되어서 7월을 넘어가기 전에 세밀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삼고 절대사랑, 유일사랑, 불변사랑, 영원사랑을 말하는데, 영원사랑만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뭘 하느냐?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돼 있지만 정, —정이라는 말을 알지요?— 정동, 정성(靜性) 그래 가지고 일화 통일이 돼야 된다구요. 하나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가 돼 가지고 뼈와 살이 돼 가지고 고요히 움직이니 동하질 않았다고요.

그다음에 일삼일체일념, 그다음에 뭐라구요? 「일핵입니다.」 일핵, 일핵을 했으니 핵은 무엇을 하느냐? 동하는 세계예요. 동성(動性) 일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그다음에 실체 창조시대에 와 가지고 무엇이 되느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투입, 그다음에 절대인간, 절대인간이 절대애성, 사랑의 성을 중심삼고 안착해야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을 중심삼아 가지고 정성 안착이라는 말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동성 안착이라는 말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절대인간 애성 안착이란 말을 해도 돼요. 이것은 가정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알겠나? 성, 해 봐요! 「성!」 성이 제일 중요해요. 절대 속성에 절대사랑, 유일사랑, 불변·영원한 사랑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삼고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 주고받으면서 고요히 성이 연결되고 일화가 되어서 통일되어 있

다구요. 그것이 정 가지고는 안 돼요.

정을 알지? 그다음에 동이에요. 일삼일체일념일행, 그다음에 동성 일화 통일! 성을 중심삼고 일화가 되고 통일이 되지, 다른 것을 중심삼고는 안 돼요. 그다음에 실체 창조세계에 가서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투입,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절대인간이에요. 절대인간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애성이예요. '사랑 애(愛)' 자하고 '성 성(性)' 자예요. 절대안착이에요. 절대안착 일화 통일이에요.

'성' 자를 빼 가지고 소생 안착, 장성 안착, 완성 안착, 3단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사랑의 가정에 안착함으로 말미암아 일화가 돼야 돼요. 화해야 돼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절대신앙은 신앙대로, 절대사랑은 사랑대로, 절대투입은 투입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인간이 됐더라도 화합해야 돼요. 화합이 돼야 통일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는 위만 얘기했어요. 속성을 중심삼고 말할 때 절대사랑, 유일사랑, 불변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일삼일체일념, 일행은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안착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고요. 성을 중심삼아 가지고 안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남자 생식기와 여자 생식기의 사랑이 없으면 둘이 다 도망가지.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몰랐어요. 창조의 모든 생각하는 중심도, 창조하는 것도, 창조의 이상도 성을 중심삼은 사랑관계에서부터 안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어요? 그게 맞나 안 맞나 분석해 보라고요. 7월 말이니까 내가 확실히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성(性)을 중심삼고 정적 안착, 동적 안착, 애적 안착이 돼

속성을 중심삼고 절대사랑, 유일사랑, 불변사랑, 영원사랑! 절대정성, 절대일화, 절대통일! 그다음에 일심 일체... 이것은 공간세계예요. 소생 장성으로 모든 것이 여기에 달린 거예요. 창조목적이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일심일체일념일핵, 그다음에 뭐라구요? 동성 일화 통일이에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투입, 그다음에 뭐라구요? 절대인간, 애성, 사랑의 성을 중심삼고 안착함으로 일화가 벌어지고 통일세계가 되는 거예요. 절대일화 절대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이 빠지면 일화도 안 되는 것이요, 통일도 안 돼요. 알겠나?

정(靜)·동(動)·애(愛)! 정적 안착, 동적 안착, 애적 안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밝혀야 된다고요. '성' 하면 인상이 나쁘기 때문에 '안착'이란 말로 대치해도 된다고요.

이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통일사상 이론도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통일돼 있고, 그다음엔 일심 일체도 통일돼 있고, 창조이상 분별해 가지고 정(正)에서 분(分)이 되어서 합(合)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분했지만 나중에는 성을 중심삼고 일심일체 일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한번 얘기해 보라구. 「절대·유일·불변·영원으로 나가서 정성 동성이 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동성 일화 통일의 세계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일심일체일념일핵을 중심삼고 마음세계에서는 절대성을 중심삼은 절대안착적인 일화 통일세계입니다. 이렇게 정과 동을 구별하셨습니다.」 정 동, 그다음에 창조예요. 이것은 무형이에요. 상대가 없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해서 정에서부터 분립이 벌어져요. 실체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상적 절대신앙을 중심삼아 가지고, 절대신앙이니까 얼마든지 무한

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히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의 1천억 배 되는 대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신앙이 있는 데는 절대사랑이 따라가고, 절대사랑이 있으면 절대투입이 벌어져요. 절대투입하면 절대인간이 나온다구요. 절대인간이 나오더라도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안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 애성 일화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동애, 알겠어요? 소생적 안착, 장성적 안착, 완성적 안착이에요. 그 아래는 자연스럽게 일화통일이예요. 그것은 빼 버려도 된다 그 말이 라구요. 지금 안착 다 못 했지요? 지금까지 참부모와 하나님이 결혼식을 못 하고, 출생신고를 못 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똑똑히 알아야 된다구요.

우리 주의는 참사랑을 중심한 하나님주의

다 읽었나? 「예.」 두익사상과 뭐라고? 「하나님주의 선포입니다.」 「아버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라고 해서 제가 가서 공산주의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두익은 완전한 몸을 중심한 주의고 하나님주의는 완전한 정신주의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러면... (박상권 사장)」 그 둘이 합해야 된다구요. 인간 완성이에요. 행복의 평화세계, 유토피아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완성해야 되는데, 인간이 완성하려면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일삼일체일념 아니예요?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몸 마음인데, 두익은 몸이고 하나님주의는 정신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공산주의에 반해서 아버님 주의는 무슨 주의

라고 할 때는 하나님주의라고 하면 벌써 기독교가 딱 들어가 있어서…」 저런!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나? 종교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모른다구요.

「그래서 하나님주의라고 하지 말고 두익주의라는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익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 보라구. 이것은 나라와 세계의 통일을 중심삼고 한 말이에요. 그 아래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한 말이라구요. 임자는 아래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뒤집어써워 가지고 하겠다는 말 아니야? 본래 근원이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신은 물질의 부산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아버님 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두익사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상적 인간 완성주의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들어가요. 유토피아적 완성주의! 영계도 완성하고 지상도 완성하라는 거지.

이제 두익은 뭐라구? 「두익은 완전한 몸을 중심한 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하나님주의는 완전한 정신주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둘로 갈라져 있다구요, 좌익 우익으로. 상하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 만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주의는 위하는 사랑을 중심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중심삼은 것이 없다구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런데 아버님 주위는 무슨 주의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하나님주의라고 해도 ‘참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주의’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주의하고 하나님주의…」 천부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팔정식을 하면서 여기서 천부주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천부주의는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를 하나로 뭉친 얘기입니까?」 그렇지!

보라구요. 평화의 왕이 되고, 교육의 왕이 되고, 왕 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둘이 하나되어서 하는 말이지, 혼자서 평화가 돼요? 상하전후좌우가 합해야지요. 상대적 이상의 상하관계·좌우 관계·전후관계가 돼야지요.

그다음에 교육도 그래요. 교육도 선생하고 제자가 하나되어야지. 그 다음에 교본을 중심삼고 나라를 위한다든가 세계를 위한다든가 그래야 돼요. 교본이 다르잖아요? 소학교 교본, 중고등학교 교본, 대학교 교본, 석사 코스 교본, 박사 코스 교본,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교본! 하나님께서 평화와 사랑을 중심삼고 살 수 있는 환경적 교본이 뭐냐? 영원히 투입하고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화합의 통일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주의다 이거예요. 참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주의예요. 참사랑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돼요. 알겠어요? 「예.」

유물론이 아니라 물본주의

그다음에 없냐?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썼지 막연하게 쓴 게 아니라구요. 물본주의예요, 유물론이라는 것보다도. 물본은 뭐냐? ‘유물’ 하게 된다면 물건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 된다고요. 유심론과 유물론이 달라요. 유물 하게 되면 물질이 있었다 이거예요. ‘유심론’ 하게 되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유물론 하게 되면 물질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 되지만, 유심에는 유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물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나? 「예.」

그것을 누가 묻지를 못해요. 왜 물본주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유물이라는 말, ‘유’ 자를 때려치워라 그 말이에요. 물본주의니까 정신이고 무엇이고 없어요. 물건이 먼저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유물론이라는 말을 집어치우고 물본주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동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세계의

관을 다 알아서 역사의 분석이 벌어져 나간다고요. 근본이 확실해요. 근본이 확실해야 가는 길도 확실하지. 성을 중심삼고 일화 통일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위하는 참사랑과 성을 중심삼고 소생 장성권을 통과하게 되면, 위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면 천하는 평화세계, 통일세계가 된다 이거예요. 유물론이란 말이 나는 참 싫어요. 들어 보니 그렇지요? 「예.」 유심에는 ‘유’라는 말이 없고 뭐가 없어요.

그다음에 없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상계가 주체라는 것은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섭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완성해서 돌아갈 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문 1절도 그렇잖아요?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한다 이거예요. 본연의 세계를 만든다 이거예요. 2절이니 3절 전부 다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축복가정들이 나라를 만들어야 천일국 주인이 완성돼

「근래 들어서 아버님께서 천일국 주인, 천일국 시민이 됐으니까 우리가 주체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참부모 대신 여러분이 주체니 나라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형제를 축복해 가지고, 부모를 축복해 가지고, 조상을 축복해 가지고 민족을 중심삼고 세계 국가 앞에, 성인들 국가 앞에 낙원에 갔으니 낙원을 인계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접붙여야 된다고요. 그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귀섭리를 중심삼고 선생님은 전부 다 막힌 것을, 하나님의 근원을 확실히 하고 대도를 열어 봤으니, 핍박받아 가지고 사탄을 굴복시켜 봤으니, 여러분이 나라만 하게 되면 천상세계하고 자연히 연결된다 그 말이라고요. 성인들은 낙원에 간 거예요. 사탄세계의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성인은 나라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성자야 물론 더 중

심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축복가정들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나라 기준만 만들어도 돼요. 나라와 세계까지 다 말아서 대로가 되어 있으니 나라만 되게 된다면 민족 변성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성인이 넘은 나라를 넘고, 예수를 타고 올라가서 성자의 세계, 하나님의 자리, 가정적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정이 없지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가정적 기준에서 같이 살게 될 때 같은 소유권이 돼 있으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상속은 거기에서 되지, 개인시대, 가정시대, 국가시대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8절에 가서 뭐냐 하면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 사랑·절대투입으로, 신인에 일체예요. 신과 사람이 일체예요. 신인에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이에요. 다 맞잖아요? 원리의 골자예요.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해방의 말을 놓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예요. 해방이 있어야 해방에서 석방이 벌어져서 자유·평등·평화·행복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예요.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을 말하고, 4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우주적인 형제자매가 되고, 5절에 가서는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는 하늘나라를 두고 말해요. 그다음에 6절에서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운을 움직일 수 있나? 나라가 없어 가지고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나라를 넘어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7절에 가서는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 옛날에는 위한다는 말을 안 썼어요.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위한다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때가 되니까, 성약시대로 연결하려니까 위한다는 말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신과 하나님과 애(愛) 일체이상이예요. 다 들어가지요? 속성을 중심삼아 가지고 오장육부 기관과 마찬가지로예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주체가 되어서 창조 상대가 없어요. 재차 해서 정(正)에서 분(分), 나뉘지는 거예요. 아담 대신 중심삼고 해와와 갈라져서 합되는 거예요. 절대인간과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안착해서 절대일화 절대통일세계로 해방되는 거라구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쓴 것이 아니예요. 모르니까 자기들이 보면 모호하지. 일련의 뼈와 살과 골수를 연결시켜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모르면 혼란이 벌어지지.

나라가 해방권이 됐지만 석방권까지 이뤄야

「천일국을 출범시켜 놓으시고 수차에 걸쳐서 성약시대는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끝났지! 제4차 아담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가정맹세에서는 ‘성약시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신인애 일체이상으로 성약시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그랬거든요. 성약시대를 맞아야 이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3차 아담시대거든. 제4차 아담권을 말했다구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양권 환원, 육지권 환원, 창조세계 환원, 제4차 아담권 환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라 나라가 다 있더라도, 자기 자범적 죄를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연대적 죄라든가 조상 해방까지 안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석방되어서 조상과 자기와 자기 일족을 처리해 줘야 된다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해방해 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안 해줘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가정 기준에서 노력했으면 국가 기준에는 자기

가 들어가지 못한다구요. 컴퓨터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기준에 있어서 시대를 감정할 때 세계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세계 기준이 안 되면 국가 기준도 없고 세계를 넘어서 가지고 천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생을 산 모든 기록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연의 프로젝트를 중심삼고 거기에 맞게끔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8절 할 때 ‘성약시대를 맞이하여’를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야 됩니까?」 ‘해방권’이 벌써 천일국이에요. 해방권이라고요. 천일국이 되더라도, 나라가 되더라도 왕이 되는 녀석이니 별의별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석방까지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더라도 대한민국 아래에는 여러 가지 범죄적 사실, 연대적 관계를 중심삼고 복잡하잖아요? 그것까지도 해방하는 것이 석방이에요. 타락해서 구속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야 자유·평등·평화·행복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로 간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은 원리를 읽으면... 학자세계에서 지금까지 물어 놓고 원수같이 통일교회에 가면 큰일난다고 가르쳐서 그렇지, 이것을 열어 가지고 언론계를 중심삼고 알리면 이제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자꾸 불어대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영계의 실상과 영계의 내용,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의문 채택한 것이 영계가 중심이 돼서 선포한 지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근본 원본인데, 그걸 몰라 가지고 떠돌이 했잖아 자기가 어디에 가서 머무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8단계에서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는 종족권 내에 못 가요. 종족을 넘고 민족을 넘어서 해방과 석방이 돼야 우주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자유·평등·평화·행복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상속권을 받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깨끗해요? 「예,」 박상

권! ‘예’만 하지 말고 크라구.

말씀을 모르고 살면 자기 설자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질문하고.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발표할 때 벌써 세계가 참조할 것을 알고, 세계의 학자 지성인들을 앞에 놓고 두익사상이니 하나님주의니 논거를 펴 나온 거라구요. 그냥 그대로 제멋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2세들은 우리 것이라고 얘기했나, 안 했나?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결론을 낸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삼고 결론 내 나왔던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엉뚱뚱 살았으니 자기들이 설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훈독회가 필요해요. 전부 정리해야 돼요.

*고바야시! 「예.» 훈독회를 안 하면 자기 자신의 분명한 위치를 알 수 없다구. 지금까지의 세속적인 생활환경의 전통과 습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가지고서는 영계 해방권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심각한 문제라구.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의 해방까지 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숙제라구, 숙제.

여러분도 해방의 실적으로서 숙제를 앞두고 그것에 무관심한 자기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낙제생이라구.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실적의 실체로부터 본 경우에 그것은 낙제생이지 않으면 말이야, 천지의 만물이 전부 다 보는 관에 있어서 빠져.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다구, 틀림없어. 선생님이 애매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선생님이 없으면 큰일나지. 지금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훈독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선생님 아니에요? 원래 3일 동안은 훈독회 해서 책 한 권을 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래 놓으면

‘아이구, 또 훈독회 한다.’ 하면 걸리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안 나가려고 하다가 바다에 나가지 않았어요? 기념으로 하나 뭘 남겨야 할 텐데, 자꾸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효율이 들어가자고 몇 번 했나?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지? 「한 번 했습니다.» 내가 두 번 들었는데? 닥터 리가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 (웃음) 선생님이 안 들은 줄 아나? 오늘 기념할 수 있는 것을 남겨야 될 텐데, 그래서 오려고 할 때 묻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집에 가자고 하면서 감으라고 할 때 물었습니다.»

아홉 시, 열 시가 되는데 또 한 마리, 상대가 있어야 되니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잡아야 된다는 거지. 먼저 잡은 것이... 수놈은 작고 암놈은 큰 거예요. 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체 대상이에요. 수놈이 큰가, 암놈이 큰가, 이노우에? 「암놈이 큼니다.» 그렇지! 조그만 놈이라도 수놈을 잡았으니 한 쌍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아홉 시 전에 들어오라고 야단했기 때문에 들어왔지.

그다음에 뭐야? 「섭리적 통일전환식’입니다. (정원주 보좌관)」 그건 또 몇 장이나 되나? 「한 25페이지 됩니다.» 몇 시 됐어? 「여섯 시 20분입니다.» 25페이지면 25분이면 읽지. 그만두자고? 너도 그만두면 좋겠지? 힘들지? 자, 그러면 효율이 기도하고, ‘통일전환식’은 저녁에라도 다 해요. (김효율 보좌관 기도)

언어통일을 어떻게 하겠나? *문화통일은 언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민족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킹 새면 잡는 요령과 방법

오늘은 바람이 안 불더구만. 「예, 가서 킹(킹 새면) 좀 잡겠습니다.» 내가 네 시에 여기 나와서 기도했는데 깃발을 보니까 움직이지

않대.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어제보다 낫지. 「여기 바람하고 바다하고 조금 다릅니다.」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그래. 「오늘도 20노트입니다.」 20노트면 제일 좋은 거야. 「역시 그래도 킹 잡는 게 재미 있습니다, 아버님.」 그럼! 킹 잡는 게 재미있지. 오늘은 내가 사혈을 해야 될 텐데. 「예,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오후에 내가 나갈지 모를 텐데, 그렇게 알고 있으라구.

원래는 책임량을 하기 전에는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는 잡아야 돼요, 블랙 피시를 잡든가 실버(실버 새먼)를 잡든가. 「그런 숫자로는 충분히 책임량을 다 합니다.」 가인 아벨 둘, 상대적 두 종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블랙 피시야 언제든지 한꺼번에 책임량 완수를 하잖아? 「실버가 점점 많이 나타납니다. 어제 실버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4일 지나서 내가 일본 부인들을 7일쯤 오게 하려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7일쯤에 실버가 많이 잡힐 겁니다.」 그때 많이 올라올 거라구요. 올라오지 않다가도 비가 오려고 하면 다 올라가 버려요. 「실버는 킹하고 달라서 쪽 당기면서 저만큼에서 말린(marlin)처럼 튀지는 않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모습을 보입니다.」 킹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다가 떴으려고 할 때 탁 하면 식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치그니크에 가서 40분 동안에 여덟 마리를 잡지 않았어요? 그 골수를 알거든. (웃으심)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낚싯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높여야 돼요. 딱 해 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끌려 올라오지 않아요. 살랑살랑 해서 자꾸 올라가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물 위에 뜨면 들어갔다와 나와 가지고 두 번 세 번 안 그래요. 물 위에 오면 딱 조여 놓거든. 들어가려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조여 놓으면 많이 못 가거든. 그다음에 봤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두 번 세 번까지 못 한다구요. 순식간에 잡을 수 있지.

「지난번에 아버님이 바다에서 킹 큰 거 잡으신 날 저도 그때 하나 걸었는데, 글썽 줄이 계속 나가서 끝까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돌려 세워야 할 텐데 못 돌려서 못 잡았습니다。」그러니까 좀 조이거든. 조이면서 쓰윽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게 된다면... 「그런데 이 놈이 나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려고 저려고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빠르지. 빠르게 나가지. 순식간에 다 나가지. 「돌려세워야 되는데 못 돌려세우니까 푹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낚싯줄을 그냥 놔주어서는 안 돼요. 뒤로 이렇게 감아야 돼요. 앞으로 올라오거든. 고기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수평으로 달아난 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드니까 올라오니까 ‘아이구, 이상하다.’ 하고 멈춰 있을 때 감아야 된다고요. 「낚싯대를 세워라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세워 가지고 뒤로 이렇게 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알지. 수압이 다른 걸 알기 때문에, 벌써 이상한 걸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운이 빠지면 그때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때는 반드시 조정을 해야 돼요. 가까이 와서는 반드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조였다가는 큰일나지. 큰 놈이 걸릴 때는... 한 번 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일년에 한 번, 십년에 한 번 거는 것인데 큰놈은 알거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돼요. 시간을 많이 주면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짹 짹 짹 짹, 자꾸 감으면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자꾸 감으면 가지만 뒤로 후퇴하게 돼요. 그다음에 채 가지고 감게 되면 기운이 빠져 가지고 쪽 나온다고요.

「어제 크리스는 우리가 나가니까 오전에 킹을 열 한 마리 잡아 가지고 할리벗(halibut)을 잡는다고 가던데요.」 어디서 잡았는데? 「치니악에서 잡았습니다.」 거기에 킹이 많다고요. 해마다 우리가 킹의 주인인데, 크리스가 주인 노릇을 하누만. 「그러면서도 오늘 잘 잡았느냐고

하니까 그저 그렇다고 그러니다。」(웃음) 자! (경배)

선생님이 필요하나, 필요치 않나?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큰 싸움, 학자들하고 싸우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

통반격과 축복 완성으로 나라를 찾자

(《통일교회 주요의식과 선포식Ⅱ》 ‘섭리적 통일전환식’부터 혼독)

통반격과 축복 완료가 최후에 정리해야 할 일

『……복조의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 하는 것을 없애려고 암만 선지자를 보내서 권고해도 듣지 않았다고요.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보냈어요. 바알신을 모시는 450의 제관들과 엘리야하고 싸웠습니다. 물 있는 데다 번제단을 세워 놓고 물을 끼얹은 거기에다…』

4백이야, 8백이야? 「450입니다.」 850이라고 해야 된다고. 괘호해 놓으라고. 「예.」

『바알신을 모시는 8백의 제관들과 엘리야하고 싸웠습니다. 물 있는 데다 번제단을 세워 놓고 물을 끼얹은 거기에다 살아 있는 하나님 신을 증거하기 위해 엘리야가 불을 피워 850의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 850이라고 해야지, 그럼. 그거 4백이라고 누가 그러냐? 그거

2003년 7월 31일(木), 코디약.

* 이 말씀은 아침 혼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850이라구. 그것 시정해야 돼.

『.....일족은 사돈의 팔촌까지 들어갑니다. 팔촌까지 전부 다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밀히도 다 얘기해 줬다! 하나 뺄 것이 없다구요. 효율이, 똑똑히 알아야 돼. 이름이 김효율이야. 알겠나? 효율이, 알겠나 물어보잖아? 「예.」 그래, 계속해요.

『.....가정이 사위기대 기반이 되어야만 거기에 부모님이 임재하지요. 가정 기반이라는 것은 에덴동산의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이, 아담 해와도 잘못했지만 가인 아벨이 잘못함으로써...』

그래서 나중에는 ‘축복가정왕 즉위식’이라는 말이 나온다구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통일가, 통일교회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가정적으로 사랑하고, 종족적으로 흠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표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표본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종족의 표본을 만들어야 교재를 삼아서 그들이 따라오지요. 여러분이 교재로 등장해야 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여러분의 일족을 전부 다 하늘 편에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족권 내에 있어서 종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것이 통반격과 축복 완료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남아진 최후 정리라구요. 자!

잃어버린 가정왕을 찾아야 되니 형제와 부모를 수습해야

『.....여기에 있어서는 개인의 모든 기반도 수습되어야 되고, 가정의 분립, 종족의 분립, 민족의 분립, 국가의 분립도 전부 다 세계 통일가인 아벨권을 중심삼은 이 말뚝을 꺾어 놓은 그 위에 선 부모를 모든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종족으로부터 민족, 국가로부터 세계로부터 모셔야 할 기준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 아벨의 담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엔(UN; 국제연합) 공약이에요. 유엔 공약까지 해야 돼요. 불가피한 거예요. 지금 그때가 왔다고요. 8월, 9월, 10월 달까지가 문제라고요. 선생님이 아벨유엔을 명년 4월에 세운다고요. 그걸 전부 다 선포하는 거예요. 효율이, 알겠나? 청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13일에 탕감복귀섭리역사 철수를 해서 부모님이 앞장서 나오던 것을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나라와 세계를 중심삼고 왕권 즉위식과 천주천자·천지인부모 참사랑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의 왕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니 형제를 수습해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해야 돼요, 가인 아벨. 그다음에 부모를 수습해 가지고 21대 이상의 조상들 3배 되는 63수를 중심삼고 수습해 나가는 역사적인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했던 것을 다시 찾아 가지고 참부모로부터 새로운 조상 역대를 중심삼은 천국이 비었던 것을 완성해야 돼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 기준에서 다 완결해서 갖다 맞춰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어쩌면 그렇게 세밀히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훈독)한 것이 가르쳐 준 거예요. 뻔 게 하나도 없어요. 박 상권, 알겠나? 「예.」 그걸 알아야 돼. 그거 어물어물하다가는 자기가 책임 못 한 낙심자, 탈락자가 되는 거라구.

그렇기 때문에 박상권이는 북한에 자기 대신자를 세워야 돼. 자기가 떠나더라도 대신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자기가 걸리지 않지, 가인 아벨의 기준을 남기지 못하면 자기가 걸린다는 거야. 모든 책임자가 그래요. 선생님도 여기 코디악에 와서 정비하는 것도 그런 섭리사의 완

결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구요. 자!

유엔 공약만 되면 해방권을 넘어서

『……선생님은 사상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사상, 기독교 중심사상, 기독교를 수습할 수 있는 사상,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중심삼아 물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신본주의를 중심삼고 본연의 빛이라고 할까,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원칙의 세계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세계도 소화하고 민주세계도 소화해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5대 성인들의 결의문, 공산세계의 결의문이 다 일치가 돼요. 외적인 메시아, 내적인 메시아가 하나돼야 되는 거라구요. 결의문을 영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지상에서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엔 공약만 되면 모든 것이 합치되어 가지고 타락이 없었던 해방권을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어 옴으로 말미암아 탕감복귀 구원섭리를 철수해 버려 가지고 본연의 창조이상 출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천지, 하나님과 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님이 앞장서고 참부모는 그 뒤에 아들의 자리에 서 가지고 가정적 효자, 국가적 효자 가정, 세계적 효자 가정, 천주적 효자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통일적 세계가 되어 거기에서 동거 동치함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이 전수된다! 아멘, 오케이, 억만세라구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몰라 가지고는 벗어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라구요. 1988년 올림픽대회를 중심삼고, 그때 세계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한국에 와 있었지만 응원하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가 가인권 차차, 아벨권 통일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가인권 대사관과 그 운동선수를 중심삼고 하나되었어요. 외적인 세계

의 소련과 동독이 1등을 하고 미국과 한국이 2등 했어요. 이것을 누가 뒤집어 박느냐 하면 선생님이 뒤집어 박는다고요. 자기들은 뒤집어 박지 못한다고요.

한국동란을 중심한 냉전시대로 말미암아 올림픽대회도 모스크바 대회와 로스앤젤레스 대회로 갈라져 가지고 치러졌던 것인데, 한국에 있어서 올림픽대회가 160국가를 중심삼고 열렸어요. 유엔에 가입한 북한이 160번째이고 161번째로 가입한 것이 한국이에요. 160을 따 버려야 된다고요. 16수는 사탄 수예요. 이런 모든 탕감원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도 차이 없게끔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관의 내용을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모르던 것까지 세밀히, 태평양 문명권시대를 중심삼아 가지고 비로소 한국을 중심삼고 모든 걸 완결 지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라고요.

아시아의 경제권이 현재 일본을 중심삼고 대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싱가포르를 중심삼은 4대 경제권이 한국과 연결되어 가지고 태평양 문명권이 형성된다고 말한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평양 문명권의 주역은 누구냐 하면,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엔을 공략함으로 말미암아 태평양 문명을 완성하게 되니 예수님을 중심삼고 영계 육계가 갈라졌던 것인데, 비로소 로마 대신 한국 반도를 중심삼아 가지고 일본과 미국이 하나되어야 돼요. 이것이 도서국가와 대륙이에요. 잃어버릴 때는 도서국가와 대륙을 서양에서 잃어버렸지만 동양에서 찾아와 가지고 다시 맞춤으로 말미암아, 한국·일본·미국을 중심삼고 예수님의 몸뚱이를 잃었던 것을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돌아와 가지고 영계와 육계가 갈라져 싸우던 세계를 비로소 갖다 맞춤으로 말미암아 통일세계의 기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아담권 세계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해양권 해원, 육지권 해원, 창조이상권 해원, 제4차 아담권 출현이 벌어지는 거라구요. 그 기반이 하와이를 중심으로 남북미가 하나되고 한국의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하나되어야 돼요. 이것이 두 쌍둥이 몸뚱이예요. 쌍둥이가 됐던 그 기준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 하늘과 땅이 갈라졌던 모든 전부가 바다에서부터 결합해야 된다고요.

아담 해와가 바다와 같은 복중에서 태어나기 시작했으니 근본 전체를 대신한 해양권 하와이를 중심삼고 새로운 해양... 갈라졌던 해외국가 일본을 중심삼고 책임 못 한 것을, 3대 딸을 중심삼고 묶어서 비로소 아담을 중심삼고 해와 하나를 세 딸을 이어서 탕감복귀함으로 말미암아...

필리핀이 딱 그래요. 필리핀과 미국을 중심삼고 유엔 상원 의회를 결성함으로 말미암아 9월 15일 선거까지 끝나게 되면, 우리가 3분지 2만 넘어가게 되면 아벨유엔이 설정되어 유엔의 한 부처, 상원 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이 유엔에 가입해 가지고 의회를 설정하는 거와 같이, 하늘과 땅, 유엔 상원 하원을 중심삼고 통일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기독교문화권에 배치해 가지고 선생님의 사상을 중심삼고 하나의 통일된 지상 천상 해방권 석망시대로 넘어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해 봐요. 「아멘!」

지금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7월 31일이라구요. 31일이니까 이 3일 기간은 특별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든 뭇 하든 신앙생활로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성들여 넘어가는 때라구요. 새로운 8월 달, 역사적인 8수, 재출발 수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8월 달에 모든 승패가 결정 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수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칠일절, 칠팔절, 칠구절, 칠십절을 이미 선포했다고요. 효율이는 그걸 알아야 돼.

예술과 체육을 중심삼고 평화를 실현해야

그래, 유엔 공약에 있어서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잘라 버리고 이제 한국에 있어서 아벨유엔을 설정해 종교권을 중심삼고 종교문화권을 창조하게 되면 다 끝난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는 원일협회를 중심삼은 운동이에요. 체육과 예술분야에 공과 같이 둥근 원일연합회를 중심삼고 올림픽대회와 사커(soccer; 축구) 대회를 중심삼고 나가야 돼요.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올림픽대회, 누가 체육계와 예술세계를 수습하느냐가 문제예요. 예술세계와 체육계는 선생님이 최고 정상에 올라와 있다구요, 지금. 알겠나? 그걸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유엔만 하나되게 된다면 사탄국가 중심삼은 싸움시대는 지나가요. 체육과 예술시대를 중심삼고 싸워서 안 돼요. 하늘나라의 본연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노래 아니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노래와 춤이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체육이에요. 체육과 무술입니다.

효율이, 알겠어? 「예.」 거기에다 이제 대학을 설정할 것을 이미 선포했고, 전문대학에 무술대학과 체육대학, 그다음에는 예술대학과 미술대학을 합한 두 학교를 세우기 위한 놀음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나? 전문대학에 지시한 것 알아? 「예.」 그래, 선생님이 조건적인 기준에서는 다 했다고요. 그래서 7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년 예산을 전문대학에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요전에 말한 3천만 달러는 지불 안 해도 된다고요.

이제부터 모든 끝내야 할 책임을 중심삼고 세계대학연맹으로부터 모든 학생 연합기반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Lasting Love Conference)’를 교수 한 명에 열 명씩만 하게 되면, 18개 대학, 각 나라의 교수하

고 학생이 하나가 된다면 부모가 하나돼 있으니, 이제는 교육이 하나 되고 교육이 하나되면 왕권이 하나될 수 있는 시대, 청산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13일을 중심삼고 탕감복귀시대 철회, 하나님의 전권시대를 중심삼고 선생님이 모시고 가정적 효자로부터 국가의 충신, 세계의 성인 가정으로서, 천상세계의 해방된 모든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 시대를 중심삼고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 가지고 효자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지상·천상천국이 찾아오느니라! 아멘이라구요.

알겠어요? 지금 말한 걸 잘 기억해 두라구요. 선생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코디악에 와 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이 놀음을 하고 있어요. 자!

천일국 12년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맞춰야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태양이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에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서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구문명은 밤이 오고 아시아 문명은 낮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천일국 12년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문명은 밤에서 아시아 문명을 따라오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구요. 탈락되어 가지고 영영 몰락되어 이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왜 12년이나? 80세까지 4수를 중심삼고 20이예요. 왜 12년이나 하면 삼 사 십이(3×4=12)예요.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고요. 알겠나, 효율이? 「예.」 천일국 12년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 그때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아들딸 앞에 계대를 이어 가지고 조건적인 것을 다 세워야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높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참소할 수 없게끔 탕감복귀, 구원섭리 철수, 하나님의 창조 이상 본향 땅을 중심으로 절대권한, 자주적인 선의 왕으로서 태평성대 억천만세의 지상·천상통일의 시대로 넘어가느니라! 아멘이라구요.

임자들은 앉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선생님이에요. 전문교수의 사인을 받아야 닥터 학위를 받아요. 대학원에서는 수시로 대학의 학장들, 교수들한테 논문 쓴 것이 패스해야 학위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패스해야 돼요. 알싸, 모를싸? 「알싸.」 크게 해 봐요. 「알싸!」 자!

말씀은 공판정 판사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이번 올림픽대회에서도 나 이상 나라를 중심삼고 내가 나라를 대표한 후대의 한국 민족의 권위를 세울 수 있게끔 싸워 줘야 돼요. ‘너는 안 싸웠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그런 입장에서 보고 있다. 어디 보자.’ 했습니다.』

올림픽대회도 그렇고 축구도 그래요. 한국이 세운 거라구요. 그렇지요? 올림픽대회 때 1988년은 냉전시대 완료와 소련과 미국이 갈라졌던 것이 한국에서 결합한 거예요. 냉전시대 완료를 중심삼고 개방시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축구대회도 한국에 있어서 4등 했지요? 마찬가지로요. 올림픽대회도 4등 하고 이때도 4등 했지요? 이번에 뭐인가? 피스컵 대회는 어떻게 됐나? 「3등 했습니다.」 3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1등을 해서 축구세계의 피파(FIFA; 국제축구연맹)니 올림픽대회니 소화해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피스 킹 컵(Peace King Cup)’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다음에는 피스 킹 컵 시대를 선언해야 돼요. 이번에 한국이 부정했지요? 이놈의 자식들, 사기꾼들이 되어 가지고…. 흑인인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기를 지고 갔기 때문에, 흑인 펠레를 중심삼고 대표 축구왕이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 축복해 주려는데 이것들이 사기꾼 놀음을 했어요. 그것 알아요? 효율이! 「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선생님이 있으니까 사탄이 따라 넘어오지 못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선생님이 남미를 교육할 수 있는 1백만 달러를 쥐서 펠레를 중심삼고 교육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했어요. 인사조치를 하고 새로운 책임자에게 맡겨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교육체제로 탕감조건을 세워 넘어갈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라구요.

얼마나 복잡해요? 세상에 제일 복잡한 문제를 선생님 혼자 책임지고 나왔다는 사실이 수수께끼, 뭐라고 할까, 꿈나라의 왕을 찾는 세계와 마찬가지로요. 전부 다 왕보다 훌륭하게 돼 있는데, 왕이 종과 같이 됐으니 왕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이것을, 하늘나라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하늘의 부모 하나님이 만들어서 키워 가지고 종에서부터 복귀시대의 왕좌의 권위까지 나오는 게 탕감복귀시대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기가 찬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명해 가지고 앉아 있지만 말이에요. 이것은 공판정의 판사의 선언과 마찬가지로요. 선언, 절대 기준을 중심삼고 그리 가고 그리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자!

유엔 공약에 승리하면 참부모 전권시대로 넘어간다

『……미국은 민주세계 한국의 가인이예요. 소련은 공산세계 동독의

가인이에요. 한국은 미국 앞에 아벨이요, 동독은 소련 앞에 아벨인데, 동독 말을 들으면 소련이 구원받고, 미국이 한국말을 들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독권을 소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독권은 뭐냐 하면 위성국가예요. 동구 위성국가인데 위성국가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을 중심삼고 좋아한다구요.』

동독과 서독이 하나됐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사탄 편이 하나된 거구요. 영·미·불을 중심삼고, 영국을 중심삼고 독일이 싸웠는데 하늘 편에 조건적 면에서 하나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권 독일이지요? 하나되었으니 해방권이 하나되게 된다면, 거기에 순응해 나가면 유엔과 통일적 세계로 자동적으로 갈라졌던 것이 화해 가지고 위가 아래로 가고 아래가 위로 바뀌어 가지고,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이 왼쪽이 돼요.

소련 공산주의가 민주세계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세계는 개인주의니 버튼이 얼마나 많아요? 공산세계는 하나이니만큼 상하가 엇바뀌어 가지고 절대복종, 절대순응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세계보다 공산세계가 체제적으로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모든 조건을 미국을 중심삼고 만들어 세우니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뒤집어 가지고 상하좌우전후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올라가고 오른편이 지배했다는 조건 없는 자리에서 묶어 나가기 위한 놀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승리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거짓 부모가 파괴시켜 놓은 것을 참부모가 수습해서 정착이 아니고 안착시대 지상천상 해방권으로 전진할지어다! 아멘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답변해요. 「예.」 답변해야 기록에 남기지. 여기에 앉아 가지고 답변하는 대표가 허수아비가 아니라구요. 허수아비 대신 주인의 아들딸이 지켜 가지고 참새 떼를 열심히 몰아냈느냐

못 몰아냈느냐, 주인과 하나됐느냐 하는 결정을 하는 자리가 이 코드 악이에요.

‘꼬꼬덕 꼬꼬덕’ 하는 닭이 알 낳는 그 주인 되는 것이, 지금까지 사탄이 계란을 다 잡아다 자기 것으로 했지만, 하늘나라가 이제부터 ‘꼬꼬덕 꼬꼬덕’ 하는 주인 되는 것이 코드악 아니에요? 이게 뭐라구요? 공산주의 세계와 사상적 완충지대예요. 한국은 남북의 완충지대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통일천국을 중심삼고 갈라진 지옥과 하늘나라의 완충지대로 다 통일돼 버려요.

남북한, 그다음에 유엔, 그다음에 지옥 통일이예요. 유엔 공략에 승리하면 다 끝나겠기 때문에, 섭리역사 탕감해소 본연의 창조이상 재출발 아담 전권시대, 천지부모 전권시대로 넘어간다! 아멘이라구요. 자!

『……이제 선생님 중심삼고 선생님도 그 올림픽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아들딸들도 관심 가졌지요? 둘이 출전했습니다. 전부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는 뭐야? 「그다음에는 1989년 주요의식과 선포식 ‘종족적 메시아 선포’입니다.」 종족적 메시아 선포예요, 환고향 해 가지고 몇 시인가? 「여섯 시입니다.」 딱 여섯 시인데, 오늘은 그만 하자. 효율이, 기도해요. (김효율 회장 기도)

지상에서 타락했으니 지상에서 끝장내야

다음 읽어요. (《통일교회시대 주요의식과 선포식II》 ‘종족적 메시아 선포’부터 훈독)

「다음은 ‘종족적 메시아 선포’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한 거예요.

이번에 칠팔절이지? 「예, 칠팔절이 8월 4일입니다.」 그날 요번에 5월 2일서부터 지난 것하고 요 며칠 동안에 낭독하던 걸 전부 다 완전

히 자기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승리하신 모든 말씀의 종결을 지을 때에 왔다는 이러한 교육을 해야 돼요. 그걸 준비해요. 혼독회를 해야 되겠다구요.

그것 짜 봐요, 효율이. 알겠나? 「5월 2일 날 주신 말씀을 중심삼고 원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5월 달에 27일까지 되어진 모든 사실과... 「그 원고는 아버님 말씀 여기 다 있습니다. 2일, 4일, 12일, 17일, 22일, 이렇게 다섯 쪽지가 있습니다.」 다 있을 거야. 본격적으로 현재 유엔 공략과 더불어 88올림픽 때를 중심삼아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안팎으로 맞춰야 된다구. 그 내용을 중심삼고 혼독회 할 것을 편성, 짜 보라구. 이걸 재차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선생님은 알지만 여러분 모든 대표들이 알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해야 돼. 그래야 전체 영계가 후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 되는 거라구. 알겠지?

「예. 여기 오신 분들은 5월 달 말씀은 벌써 여러 차례 혼독했습니다.」 또 해야 돼. 나뉘진 것이 아니라구. 역사시대의 모든 것이 가인 아벨과 같이 전후가 일치돼야 될 때가 칠팔절이에요. 칠일절, 칠팔절, 칠구절, 칠십절을 중심삼고 복귀섭리 해방권을 얘기했다는 거지요. 88년 올림픽대회부터 냉전시대를 철회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재차 해 가지고 천일국 12년까지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자!

『1989년 1월 3일, 음력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남동에서 세계 지도자 및 전국 교역자들이 모인 가운데 종족적 메시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88년이야? 「89년 1월 3일입니다.」 그렇지!

『.....참부모님께서서는 종족적 메시아 선포식을 하시고 모든 축복가정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종족을 복귀하여 종족의 메시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돌아가 가지고 통반격파를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김영삼이도 처리해 버리고 다 그랬을 것인데 못 했다구요. 12년 연장된 거예요.

요. 자!

『.....종적 가인 아벨을 결정해 가지고 횡적 가인 아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횡적 가인 아벨을 결정해 가지고 종적 가인 아벨을 결정해요.』

지상에서 타락했으니 지상에서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일족이 횡적 기준에서 횡적 운세를 맞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 가지고 이 종적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시운을 통해 나오면서, 그것을 책임지고 오시는 재림주는 그 세계적인 종적 운세와 횡적 운세를 다 알아 가지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놀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1이스라엘권 평화통일 갱생운동은 하나님의 조국창건의 이상이라는 말이라구요. 그렇게 결론이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놀음이지요. 자!

섭리사에서 박 씨의 역할과 책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통일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독자의 아들딸이든가 가정에서 효자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아내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섬기고 동네방네에서 추앙을 받던 아내고 또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파가 크대구요. ‘저렇게 재미있게 살고 정들어 살던 가정을 문 아무개가 완전히 파탄시켰다.’ 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국에 있어서 득삼 씨는 한국 대표요, 원복 씨는 미국 대표요, 정옥 씨는 공산세계 대표라구요. 그들이 전부 규합해 하나되어 가지고 별꺼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득삼 씨 가정에서 최순광이가 문제였고, 그다음에 원복 씨 가정에서는 석준호가 문제였고, 그다음에 공산세계

에 있어서는 정옥 씨 일가를 중심삼고, 북한에 갔던 공산당 남편을 중심삼고 대신 북한이 여기에 협조했다는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하고 민주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박 씨가 맨 처음에 못 했던 것을 대표해 가지고 한국, 미국, 일본을 대표해 박 씨들이 가서 그 놀음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박 씨 문중에 박보희, 박중현, 박동하, 박상권, 박상돈이 걸려 있어요. 공산세계 전체, 섭리사의 전체를 대신해서 차자의 결실체로서 공산권에 들어가 사탄세계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박상권, 알겠어? 「예.」 딱 그런 입장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득삼 씨 가정의 두 딸과 아들이 하나됐고, 석준호는 형님이 죽었다구요. 자살하고 그런 것 다 알아요? 남편과 한 아들이 통일교회를 반대했어요. 석준호는 월남전쟁에 쫓겨 가 가지고 그 혼란된 것을 중심삼고 섭리의 뜻을 이어 나와서 지금까지 공산세계를 대표한 방어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있어서 박 씨 할머니를 중심삼고 모든 아들딸 기준을 이 세계를 대표해서 세워야 되겠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미국의 사업이나 무엇이나 박 씨가 갖고 있어요. 박상권, 박중현이 그래요. 그렇지요? 공산세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준호하고 박상권이 하나되라고 그랬지?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북한을 어떻게 아들의 책임, 공산권 아들의 책임을 해 가지고, 죽이던 원수의 세계에서 아들 놀음을 대신해 가지고 외적 기준을 책임진 모든 전부가 공산권 세계의 아들딸의 책임을 완결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박 씨의 아들딸이 그런 입장에 딱 섰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박보희도 부정당했어요. 판다(PANDA)를 중심삼고 이번 사건을 효율이, 알지? 「예.」 그다음에 박중현도 부정당했고, 박상돈도 부

정당했고, 그다음에는 박동하도 부정당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다시 임명한 거라구요.

박상권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가다가는 안 되니 그 대책을 취해야 돼요. 민주세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신을 모셔 가지고 공산주의를 부정시킬 수 있는 선언을 해야 할 입장에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놀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미국과 북한을 중심삼고 도와 가지고, 이라크의 배후까지 선생님이 관계를 중심삼고 그 일을 전체 수습할 수 있는 대표의 자리에 세웠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통고를 해야 돼. 군부에 통고하고, 민간에 통고해야 돼요.

공산당을 인민재판처럼 정리할 때가 와

그러면 공산주의의 독재가 뭐냐? 정권을 쥐기 위한 독재이고, 군사를 중심삼은 독재예요. 정권은 왕권 탈취, 싸움은 군대를 통해서 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탄세계 세력권의 모든 것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 끝까지 김정일이 버티어 나가고 있는 거라구요. 이제 마지막 판에 왔다고요. 미국이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런 위험 수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최후통첩을 하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했다고요. 그것 알아요? 박상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미진한 사실들을 조건을 중심삼고 전부 다 해결해 놓고 조용히 불러 가지고 이런 통고를 해야 돼. 미국과 손 안 잡으면 큰일난다고, 나와 문 총재도 여기에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막힌다고 말이야. 알겠나? 「예.」 전부터 하던 모든 경제권을 너희들에게 미비할 수 있는 것을 조건적으로 넘겨 놓아 가지고 철수한다는 선언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마지막 판이에요. 미국 자체도 비둘기파와 매파가 싸우는데 매파 앞

에 비둘기파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선생님을 갖다 놓아야 비둘기파가 이기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야 이라크 전쟁이 외적 내적으로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효율이, 미국이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예.」 매파가 전부 다 몰고 나와 가지고 때려부수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교권연합운동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구요.

선생님이 그러한 조건을 나중에 다 통고했어요. 미국에 통고했고, 임자에게도 통고했어요. 한국에 있어서 최순영이 망했지요? 미국도 망하고, 공산주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전부 수습해 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승리해 가지고 돌아서야 할 입장에 섰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섭리가 그래요.

박상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효율이도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까운 입장에서 보고 받고 충고해야 돼, 자기들끼리. 알겠어? 「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선생님이 하는 유엔 공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산세계와 인본주의를 따 버리는 거라구요. 알지요? 희랍사상과 공산국가 유물사상을 추방해 버려 가지고, 앞으로에 있어서 공산당은 인민재판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인맥에 있어서 정리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북극 남극에 처리해 가지고 해결해야 할, 그것도 후원하지 않으면 안 될 비참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심각해요.

그러면 그 해결을 할 때까지 섭리사를 끌고 나가야 돼요. 선생님이 영계에 갈 때까지, —뭐 몇십년 사나?— 여러분이 해야 할 막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통고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지요? 박상권! 「예.」 선생님이 얘기할 걸 다 얘기했어요. 걸리지 않을 조건적 기준을 이미 선생님은 넘어섰어요.

아시아권에서 장자권 복귀의 기반을 닦아 해방세계를 이뤄야

그러니 미국 제2이스라엘권이 판결되고 선언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없다는 거지요.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제1이스라엘권이 실패했으니 나머지는 제2이스라엘권, 제3이스라엘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대회지요? 하나는 서구사회의 조상이에요. 기독교문화권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시아 문화권이요. 아시아에서 성인들이 나왔어요.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아시아문화권을 지도하던 입장에서 나오던 것이 갈라졌던 것이니, 이제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아시아의 문화권을 대표한 종교 형태의 절반에 있던 나라들을 중심삼고 장자권 차자권 전복운동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이라구요.

그러면 제1이스라엘권, 제2이스라엘권, 제3이스라엘권을 가지고 사탄이 선생님을 걸 수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문화권이 세계를 지배했지요? 아시아 문화권은 한국, 일본, 중국과 소련이 대치해 있어요. 전부다 원수예요. 한국과 일본이 원수고, 일본과 공산권 중국과 소련이 원수지요? 미국까지도 원수였던 것이 비로소 선생님을 중심삼고 한국, 일본, 미국이 하나되어 소련 공산권,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되는 거예요.

이랬으니 장자 차자가 뒤집어진 것을 아시아권을 중심삼은 이 기반에 있어서 새로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장자권 복귀 기반을 닦아 가지고 해방세계로 전진하느니라! 아멘이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똑똑히 알라구요. 효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똑똑히 기록을 남기라구.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과 틀리면 자기들의 책임 소행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구. 그래서 그런 사실을 지금 여기서 새로이 읽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선생님과 일치돼서 나아가야

『……역사시대의 것을 전부 다 해원성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해원성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해원성사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앞장선다고 생각하면 못 해요. 선생님이 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하지 못한 것이 뭐냐? 자기 일족을 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가정과 사돈관계가 박보희, 박중현, 그다음 또 누구예요? 박종구! 이들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사탄이 참소 못 할. 그렇기 때문에 참 재미있어요. 박보희도 문제고, 박중현도 문제고, 그다음에 박상돈도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사기 쳐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발표해 가지고. 박상권도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이번에 광정환도 현정부의 누구를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런 거라고요.

거기에 북한에 무슨 사절단으로 가겠다는 생각 박상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사절로 가려면 선생님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벨적 기준에서 장자의 자리를 같이 갈 수 있는 노 대통령을 소화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과 일치되어야 될 입장에서 있는데, 그 일치 안 되면 선언해 버려야 돼요. 똑똑히 알라고요. 지금 중요해요.

이번에 가게 되면 돈도 필요하겠구만. 돈 못 대줘요. 자기 중심삼아 가지고 저쪽에서 모든 형편을 중심삼고 차후로 미루고, 평화로 가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부 준비되어 있으니 그렇게 알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어요.

세계 유엔에서부터 공약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발표해 버려요. 인본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 철회! 숙청 이상의 무서운 사실이 벌어지

는 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피를 볼 수 없는 참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거북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 36가정이 실패한 것, 박중현이 실패한 것도... 초교파 대표로 세웠지? 「예.」 이번 이스라엘을 중심삼아 가지고 아크 비숍 (archbishop; 대주교) 회의를 중심삼고 딱 해 가지고 자기 혼자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안 붙여져요.

그다음에 박보희, 박상돈이지? 지금까지 땅 산 모든 것, 청평에 있어서 많이 팔아먹은 것이 박상돈이에요. 외적 분야를 책임 해 나온 거예요. 박동하도 바닷가를 중심삼고 바다를 따라가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 중심삼고 떨어져 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배치한 거라고요.

박상권도 그러면 안 된다구. 자기 조건이 걸리더라도 남아질 수 있는 조건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알아? 대담해 가지고 이 일을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구, 북쪽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니 내 말 들으라고 해야 돼. 그래야 된다구요. 「예.」

박 씨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전체를 해결하기 위한 섭리

아까 말한 정옥 씨 남편이 거기에 가서 죽었어요. 남편하고 자기 언니가 가서 죽었다고요. 그런 입장에 있으니, 차자의 입장에 선, 아들의 입장, 2세의 입장에 선 대표로 전체를 득삼 씨는 아담, 그다음에 최 선생은 미국, 정옥 씨는...

아담가정에도 최순광인가하고 두 아들딸, 넷이 되어 있다고요. 원복 씨를 중심삼고는 석준호가 반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둘째 번 아들인데,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형님 자살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통일교회를 반대해 가지고 석준호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월남에 가서, 전지에 가서 각성해 가지고 원리무장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결시켜 나온 거예요. 제3세계의 공산권까지 연결해 가지고 지금 박상권하고 하나되어 가지고 박 씨가 실패한 판다 프로젝트 건을 수습하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나? 「예.」

그렇기 때문에 정옥 씨 언니와 남편을 잃어버렸던 사실, 해외와 남편을 잃어버린 걸 찾는 대신 둘째 아들의 입장에 선 것이 지금 박 씨예요. 박 씨 할머니가 세우지 못했던 걸 대신 세워 가지고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 선생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선생님이 실패했다는 조건이 남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선생님 가정에 박보희, 박중현, 그다음에 박상돈은 땅을 팔아먹고 다 그랬을 거라고요.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빙자해 가지고 노태우 정권부터 관계를 맺어 사기를 쳐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도망 나간 거예요. 이것을 재차 수습하기 위한 외적 세계와 지상세계에 있어서 공산세계와의 관계를 중심삼고...

신기한 것이, 북한 정부하고 남한 정부의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 아벨의 입장에 서서 하늘 편 가인적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박 씨 가정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것을 대신 물려 가지고 여기에 선생님과 일치되어 가지고 자리잡아야 돼요. 북한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만 해방적 지상천상천국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해 주는 거라고요. 알겠나? 「예.」

그것이 지나가기 위한 탕감복귀에 불가피한 사실이에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순영이 감옥 가고 망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예요? 김영삼 때지요?

이제 마지막인데 공산권과 하나된 디 제이(DJ; 김대중 전대통령)는 통일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신문사의 이상회하고 교회 책임자, 두 책임자를 가인 아벨로서 완전히 때려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상회가 무슨 유예? 2년이 지나 이제 해방되기 때문에 이번

에 새로운 정권에 있어서 의논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 지금 외적인 용평, 광정환하고 하나되어 수습하기 위한 것이에요.

외적인 국가대표의 올림픽대회 수습, 그다음에 내적인 체육과 예술 분야를 수습하기 위한 이 놀음이 남아 있는 거라구요. 그다음에는 아벨유엔을 한국에 설정해야 해결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조건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효율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내가 없더라도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 가지고 선생님 일가라든가 아들딸 앞에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있어. 그래, 자기하고 효율이하고 원수지? 자기를 제일 미워하는 거야. 내가 효진을 뒤통을 했어, 후려갈기고. 정신차려 가지고 이제는 반대 할 수 있는 조건 다 벗어났다구.

개인이 아니고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지? 맨해튼 센터니 그것보다 교회를 책임지고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교회 책임자로서 문제가 되었으니, 교회 문제보다도 효진이 자체에서 지금까지 두 나라에 걸려서 해결해야 할 것을 선생님이 개재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아요? 효율이! 「예.」 이번에 미리 미국에 돌아온 것 알아?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구. 참, 섭리의 탕감조건은 무서울 만큼 일치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감옥 갈 때에 시중한 건 자기밖에 없잖아? 아들이 했나, 누구 어머니가 했나, 박보희가 했나? 누가 했어? 원래는 박보희가 해야 할 텐데 말이야. 박중현이 했나, 박중구가 했나? 박중구는 미리 돌아가 버렸지만 말이야.

경상도와 전라도의 섭리관적 이해

박 씨라구요, 박 씨. 박홍식의 장모, 여편네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있어서 하늘의 섭리로 이혼해 가지고... 박 씨 딸 들이에요. 할머니하고 딸들이 책임을 해서 한국, 미국, 공산권 책임을 다 끝내야 했다고요. 그랬으면 공산당이 안 나와요.

그래, 정옥 씨 3형제가 전라북도의 재벌이었어요. 일등 이등 되는 재벌이었다고요. 공산권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참 묘하다고요. 전라도가 공산권 길로 들어갈 것을 하늘이 방어해 가지고 경상도가, 뼈가 살을 수습할 수 있는 놀음을 해 놓은 거와 딱 마찬가지로 그런 노릇이 되었다는 거지요.

북한에서는 전라도가 제2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하지? 해, 안 해? 「합니다.」 미국은 부산을 중심삼고 대구, —이게 기독교문화권이예요.—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기지로 생각하고 있다가요. 딱 그렇게 되어 있다가요.

그러니까 섭리관이라는 것을 부정할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나온 시대를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다 넘어가겠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걸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 역사가 연장돼서, 1세보다 2세가 실패했다는 조건이 서는 무서운 자리에 선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상’ 자가 무슨 ‘상’ 자야? 「서로 상(相) 자인데요, 요즘은 아버님께 서 ‘장사 상(商)’ 자를 쓰라고 하셔서 그 자를 씁니다.」 그래! ‘서로 상’ 하면 화합해야 되지만 화합이 안 돼. 그러니 ‘장사 상’ 자를 써야 된다고. 어떻게든지 북한을 구슬려 가지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습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예.」 ‘장사 상(商)’ 자로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할 거라고. 외교적인 능력은 자기하고 주동문이 연결해서 주동문하고 의논하라는 거야. 미국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

효율이는 선생님 대해서 중간에 이걸 다 해야 된다고. 꼭정확하고 의논하면서 주동문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하고 의논해야 돼요. 내가 미국 정부와 철회할 수 있는 선언을 했다고요, 다 손 털고. 복귀섭리에

있어서 태평양 문명권으로, 새로운 지상 천상 문명권으로 이양할 수 있는 걸 선언했기 때문에, 복귀섭리 철화...

하나님의 본래 창조이상인 절대사랑의 왕권이 출발할 수 있는 선도적 입장에 있어 가지고, 가정의 효자, 나라의 충신 가정, 세계의 충신 가정, 하늘땅의 충신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전부 다 땅에서부터 천상세계까지 효자의 가정으로서 모셔야 돼요. 모시는 데는 소유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납입해야 돼요. 납입할 것을 선언 다 했지요, 이번엔? 교회 재산! 선생님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마저 읽자!

통반격과 축복 완성을 해서 나라를 찾자

『33년 동안 부모를 버리고, 친족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외국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지,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일족을 거느리고, 자기 처자를 사랑하는 시대를 선생님이 못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고향에 돌아가서 선생님이 하지 못한 것을 해원성사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을 해원성사 해야 돼요. 예수님이 축복을 못 받았지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여러분 나라를 찾아야 돼요. 통반격과 축복완성을 해서 나라를 찾아야 돼요. 세계 기준의 사탄을 중심삼고 사탄을 완전히 영육을 중심삼고 굴복시켜 놓았기 때문에 나라만 찾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 난다 그 말이에요. 통반격과는 축복 완성하는 것이 다! 알겠어요?

그래서 각국 191개 국이 하나되어 가지고 유엔 공약에 승리하면 한꺼번에 일주일 이내에도 60억 인류를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하는 날에는 아벨유엔을 중심삼고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지상에 없어도 여러분끼리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종족복귀를 못 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탕감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사가랴가 정과 요셉가정이 하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되지 못한 것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권 기준을 확립 못 했으니 선생님은 천상세계의 메시아권 해방, 구세주메시아재림주참부모를 중심삼고 천상 지상의 통일, 지상 천상 해방을 하여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시대로 넘어가야 되느니라! 아멘이라구요. 자!

『……그러나 이제 한국으로 딱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 모든 영들이 ‘이제는 결정한 대로 한국을 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국이 어딘지 몰랐지요?』

그래, 미국과 소련을 중심삼고 해외국가가 주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평양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놀음을 하려니,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벽이 생겨났으니 참된 사랑으로 담벽을 헐어야 돼요. 세계적인 국가 기준을 막은 것도 그래요. 사탄의 잘못된 사랑을 중심삼고…』

이번에 유엔 공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의 남북통일 해결, 그 다음에는 코디악을 중심삼고 공산세계 소련의 해결, 천상세계의 지옥과 천국의 해결이 벌어져요. 그래서 코디악이 중심이에요. 중요한 곳이라구요. 두 번째 걸려 있다구요.

중요한 시간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멍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자기는 죽고 사는 부모와 조국이 없어질 걸 생각도 안 해 가지고 철부지하게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하고 멍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지요? 자!

『……가정을 찾아가야 되겠나, 안 찾아가야 되겠나? 찾아가려면 어

디로 찾아가요? 반대하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찾아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천지의 대왕님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을 궁터로 삼고 우리 집을 출입할 수 있는 행랑방으로 삼아 달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 이 땅이 통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반격파운동을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때 우리를 반대하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것 아니예요? 그 통반격파를 위해서 참된 부모의 자리에 서 가지고...』

조상의 자리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동생이 형님이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는 거예요. 통반격파! 축복이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귀착되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뭘 하기 위해 싸웠어요? 장자권이지요? 선생님이 그 가운데 장자권을 세계적으로 맡기 위해서는 선생님 자신이 세계적 장자권을 방어함과 동시에 세계적 가정 조상, 가정을 불안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돌아올 때는 장자권 복귀를 내가 해 가지고 장자권 소유 개념, 그런 승리권을 중심삼고, 가정적 승리권을 중심삼고 비로소 이 나라에 와 가지고 뒤넘이치는 거예요. 세계적 판도 위에서 승리했어요.』

3대를 찾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형제지인연. 하나님은 3대를 연결하지 못했어요. 3대권을 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연결시키는 놀음을 하늘땅을 대표해서 깨닫기 해야 할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상대권 기준을 중심삼은 부모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해방이 벌어져요. 자!

통반격파와 축복 완성은 섭리사적 천명

『.....그러면 1천5백 면에 교회 짓는 걸 내가 돈을 대주어야 되겠

나오, 여러분의 조업전을 팔아서 교회 지어야 되겠나요? 내가 지어 주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어야 되겠어요? 자기 부락에 하나님의 사당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어 주고 나라가 지어 주어야 되겠나요,…」

지금 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권 청사를 지어야 돼요. 나라의 왕궁을 지어야 할 때가 왔다구요. 자!

『……북한이 어떻게 되겠나요? 전부 다 형제예요. 그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수산식품 사업을 해 가지고 그 2천만을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 박상권이 수산사업 전체를 책임졌어요. 그때 얘기하던 것이 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라구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스톱하면 안 된다구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핏줄을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통일산업이니 무엇이니 선생님이 포기 못 해 가지고 일화를 중심삼고 연결시켜 나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얼마나 고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른다구요. 아이 엠 에프(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대를 중심삼고 김대중이 망쳐 놓은 거예요. 그걸 수습해 놓아야 된다구요. 그 놀음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내가 어렵더라도 다 무리해 가지고 조건 기반을 중심삼고 수습해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래요. 가서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피스킹컵 대회라고 했으면 될 텐데, 합해 가지고 킹을 빼 버렸어요. 이제 킹 킹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구요. 자!

『……한국통일, 그 원한의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소화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 길입니다.』

그다음에 미주하고 소련권하고, 그다음에는 지상 천상 지옥권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남북통일과 더불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3이스라엘의 해방은 전체의 해방이지요? 지금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전체 앞장서서 하게 된다면 내가 한국에 갈 필요 없어요. 만약에 안 하면 내가 한국에 가서 간섭해야 된다고요. 제2이스라엘권이, 제1, 제3이스라엘과 접붙이는 걸 미국 정부가 못 하게 되면 내가 조건적 기반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고도 쓰라고 김효율한테 얘기한 거라고요. 알겠나? 「예.」 심각해요. 그래 놓으면 나는 지금까지 제1, 제2를 다 집어치우고 아벨유엔을 발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책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이 3일인데, 1989년에 요것만 실천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 내가 지시할, 훈령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는 핏박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엔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중심삼고 중국과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면 세계통일은 자동으로 됩니다. 중국과 하나 만들기 위해서 35년 이상 선생님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를 2세를 중심삼고 다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세와 묶어 가지고 하나는 서구사회 기독교문화권, 하나는 공산세계인데, 아시아가 뒤따라가던 것에서 아시아가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문화권이 자리잡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본연의 기준으로, 가인권과 아벨권이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이래 가지고 본연의 자리를 잡아 가지고 태평성대 하늘나라의 사랑의 왕권시대로 진입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성전 하나 못 지어 놓고 남북통일을 하겠다면 그거 도둑놈들이지요. 지방 성전이 벌어져야 4천만이 합해 가지고…』

종족적 교회를 다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전부 다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걸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집에 간다고 전보를 쳐 놓고 그리 갔다고요. 그러니 전보는 왔는데 난 안 왔으니 틀림없이 죽었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배를 타게 돼 있고 몇 시에 도착하게 돼 있는데…』

이제 배 이름이 뭐라고? 「곤륜환입니다.」 곤륜환이라는 말, 이름을 찾아 가지고 맞춰야 되겠다! 창경, 쇼케이마루... 뭐라고? 「곤린마루라고, 곤륜환...」 곤린, 그것이 창경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참고 좀 해 보라구. 자!

『그 배를 타게 돼 있고 몇 시에 도착하게 돼 있는데 딱 그 배가 전복이 된 거예요.』 전복이 아니고 침몰이겠지. (‘종족적 메시아 선포’ 혼독 마침)

선생님 기도로써 폐하자구요. 엄청난 내용을 그때 1989년 1월 3일에 발표했어요. 그때에 한 말이나 지금이나 다 같잖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섭리사적 운명이 아니라 천명의 사실이니 이걸 우리가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족과 나라들을 책임졌어요. 아무 지장 없이 통반격과 축복완성은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때이니, 모든 것이 무사형통인 것을 알고 자신을 가지고 전진할지어다! 아멘, 해 봐요. 「아멘!」 *

섭리사의 재출발과 유엔 공략

새로 온 사람들 있나? 「여기 식구들입니다.」 불을 켜야지. (성초를 켜시며) 촛불을 잘 간수해요. 「시애틀 교구장, 대답해야지. 자기 교구 아니야? (어머님)」 「예.」

8월은 섭리사의 재출발시대라구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천일국 3년 8월이기 때문에 새로운 섭리시대 가운데 재출발의 달이 되는 거예요. 8월 4일이 칠팔절이지? 「예.」 오늘이 팔일절이야?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팔일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팔일절이니 섭리사적 재출발시대예요.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인이 못 되었는데 이해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뛰어넘는 시대라구요. 팔일절, 재출발 달, 섭리사적 재출발! 천일국 3년 8월 달을 중심삼고 다 된 거예요. 기도해요.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섭리사에 있어서 창조이상 주관권 대전환시대를 금년서부터 출발하여 8월을 중심삼고 3개월을 걸고 유엔을 중심삼은 대전환시대의 정성을 들이는 달이오니, 섭리사적 재출발을 기념하면서 코디악 이 땅에 있어서 팔일절을 기념하게 된 것을

2003년 8월 1일(金), 코디악.

* 이 말씀은 팔일절 기념 행사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진심으로 감사하옵니다.

하늘과 땅이 주목하는,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일체가 되시어서 지상세계의 축복가정과 영계의 축복가정, 성인 현철과 전체가 재림하는 가운데, 영계 육계 공히 재출발의 8월을 섭리사적 종결을 지어서 출발하는 섭리사적 기간으로서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이달을 기쁨으로 맞아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전체가 일심일체일념일행의 심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상대적 이상세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절대주인인 인간, 절대일화·절대통일세계를 갖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날로 설정하오니, 하나님께서 복귀섭리의 중심에서 모든 전체를 맡으시어서 주관 주도 원하시는 대로 승리 성사하게 허락하여 주기를 참부모가 간절히 바라오니, 허락하신 뜻을 세워서 천상과 지상에 실천궁행하시기를 부모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날을 선포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선언 선포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경배식, 가정맹세, 보고기도, 케이크 커팅이 이어짐)

<말 씬> 팔일절 훈독회! 「오늘은 ‘제1회 팔일절, 한국의 날 선포’ 말 씬입니다.」 (《가정연합 8대 명절 및 주요 기념일》 ‘팔일절 — 한국의 날’ 훈독)

천일국 3년 8월의 의의

『한국을 위해』

이제 한국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귀해야 돼요. 딱 말이 맞아 떨어진다구요. 그래서 오늘 섭리사적 새로운, 춘하추동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일년을 중심삼고 탕감해 가지고 재출발의 달로 들어가는 것

을 기억해야 되겠다구요. 자, 혼독해요.

『……그래서 50개 주에 승리의 기반을 닦아서 하나님이 축복한 모든 그 뿌리를, 개인 기반, 가정 기반, 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의 기반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되어 가지고 이스트 가든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이 식이 8월 초하루입니다. 8월 초하루는 재출발 수입니다. 기념일이라구요. 지금부터 통일교회의 시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까지 하면 12회째 되는데, 그때에 모든 것을 총결산 지어서 하늘 앞에 납입시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개인에서부터 유엔까지, 하늘 땅 전체를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1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춘하추동을 갖지 못했어요. 금년 봄 절기로부터 여름 절기로부터 지금 가을 절기로 들어가는데 이런 대전환시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한 해 춘하추동을 거쳐 가지고 섭리사에 있어서 봄 절기와 여름 절기와 가을 절기와 겨울 절기를 지나서 순회할 수 있는 기원이 되는 재출발의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구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전통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참아버지를 중심삼고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축복가정과 세상의 가인가정들도 이런 전통을 상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여러분 자신의 축복가정들을 세워야 된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12지파, 72장으로 자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버님 가정을 잘 알고 과거에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목적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지금 ‘제1이스라엘권 평화통일 갱생운동은 하나님의 조국창건의 이상이다’라는 결론을 딱 지었다고요. 그래 놓아야

하늘과 땅이 하나돼 가지고 천주천지천지인부모를 모신 이상적 지상천국에 화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결론을 딱 지은 거예요. 예비적 조건이 아니고 실천적 조건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8월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끝까지 혼독 후 김효율 보좌관 기도)

10월까지 3개월 기간에 본격적인 유엔 공약을 해야

금년 3월 16일에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때부터 10월까지, 3, 4, 5, 6, 7, 8, 9, 10, 10월까지 모든 것을 벗어나는 이 기간이라고요. 유엔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간도 9월 상순에서부터 10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아벨유엔을 세워야 할 준비시대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 모든 섭리사를 거두어 가지고 하늘 앞에 탕감복귀할 수 있게끔 다 정리해서 바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생님 자신의 고난이라든가 통일교회 교인들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요.

10월은 언제나 해방의 달이에요. 해방의 달이기 때문에 3월서부터 3, 4, 5, 6, 7, 8, 9, 10, 8개월 중심삼은 해방의 달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8월, 9월, 10월의 3개월 동안이에요. 3수예요. 이제부터 유엔 공약의 본격적인 출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북한을 중심삼고 통일의 완충지대에 판문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경계선이 코디악 지역이라고요. 날짜변경선이 있어서 낮과 밤이 갈라질 수 있는 어두운 권내에 들어가는 곳이 이 코디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의 완충지대, 그다음에 뭐냐 하면 하늘과 지옥의 완충지대를 철폐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옥 철폐, 그다음에 공산주의 민주세계 철폐예요. 북한의 김정일을 중심삼고 미국이 천

사장인데, 악한 세계의 천사장 대표인 김정일이 미국하고 결투전을 벌이는 거예요.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라크를 중심삼고 승리했지만, 내적인 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종교권을 중심삼고 일치 안 되면 안 된다구요. 이라크를 중심삼고 보더라도 이라크의 대통령을 미국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4년마다 갈림으로 말미암아 12년 이내에, 세 번 되기 전에 옛날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평화의 기준은 됐지만, 평화세계에서 사탄세계의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서 점점점 약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별할 수 있는 때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간에도 원수가 또 나타나는 것이요, 종족권 내에도 원수가 또 나타나고, 가정권 내에도 원수가 나타나고, 개인권 내에도 원수가 나타나서 있으려고 해도 떨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원수와 한 방에서 아랫목 윗목에서 같이 자더라도 서로 복수전을 계속하는 그 전통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살해하는 문제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성은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준에서부터 전부 다 내려가는 이 환경에서 유엔을 중심삼고 공략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방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엔, 하늘나라를 중심삼은 새로운 유엔이 결정되는 거예요. 종교권 중심과 외적인 국가 중심이 사탄세계에서 갈라졌던 것이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유엔에서 하나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서 이제 금후의 미국의 승리 기반을 중심삼고 종교권이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수전이 연결된 사탄의 전략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해의 중심이 이 8월이라는 거예요.

섭리사 대전환의 출발을 하는 첫 달의 의미를 가진 8월

8월이라는 것은 섭리사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춘하추동을 찾음과 동시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갈라졌던 것을, 종교권과 정치권이 원수가 됐던 것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중심삼은 마음적 세계와 몸적 세계의 통일적인 개인에서부터 영계까지 일치화시킬 수 있는 참부모님이 와 가지고 하나님 대신 이 땅 위에서 수고해서 사탄세계의 아담권, 타락한 조상이 심어 놓은 것을 완전히 청산시켜 가지고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흔적이 없는 평화의 천국으로 진전할 수 있는 최후의 전략시대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운세는, 이미 7월 13일에 탕감복귀섭리사를 끝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재출발할 수 있는 시대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나? 「예.」 효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섭리사의 종결을 선언해 가지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앞서 가지고 탕감해 나오던, 하나님도 따라가던 그 모든 전부를 청산해서 탕감해 가지고 새로이 출발을 예고할 수 있는 첫달이 됐으므로 말미암아 섭리사의 대전환 출발 달이 되는 것이다! 아멘! 알겠나? 「예.」

8월에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11년 전에 환국을 선포했던 것인데, 이제 천일국 4년 12회 되는 이때에 모든 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유엔의 승리권, 아벨유엔을 창설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전환시기의 첫 달인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알겠나? 「예.」 역사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축하하는 이날에 오색가지 열매를 가을 절기를 향해 들어가는 입장에서 올린 거예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절기, 추수시기를 지

나 가지고 겨울 절기, —겨울 절기는 쉬는 거예요.— 창고에 둔 모든 전부를 중심삼고 쉬어 가지고 새로운 봄 절기 시대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지상천상 이상세계의 새로운 일년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지어 놓아야만 오늘 기억될 수 있는 이때, 섭리사적 전환시기, 춘하추동의 주인 자리에 서 가지고 사탄 권한을 완전히 제압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권을 세워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는 것보다도 철수해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상천상 통일권 해방시대로 전진하느니라! 아멘! 이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나? 「예.」

모든 종교의 통합을 한 부모님의 운세를 서양에 연결시켜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코디악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모인 거예요. 한국, 일본, 미국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런 기념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칠팔절이지요? 「예.」 칠팔절을 기념하기 위한 이날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이 가르칠 것이 많아요.

그때 말한 것이 무엇이냐? 정오정착이란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정오정착이 무슨 뜻이에요? 이번 칠팔절에는 정오정착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 대표 전체와 육대주 대표들을 여기에 참석하라고 했다고요. 「육대주 대표는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육대주 대표가 와야지. 「지난번에 한국에서 문화체육대전하고 피스컵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으니까 가서 일하고 칠팔절에는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소련과 한국 일본, 5개 국에서 안 올 수 없어요. 아시아의 대표가 말이에요. 석준호가 와야 되고, 한국 대표가 와야 되고, 일본 대표가

와야 돼요. 「물론 한국일본미국 대표는 옵니다. 석 박사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 (Lasting Love Conference)에 데려올 사람들을 준비한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와서 시작할 것 아니야? 지금 한국에 나와 있지. 「이쪽으로 오라고 할까요?」 그럼! 들려야지. 안 들르면 안 돼. 소련이 지금 중요해요.

아시아권 전체가 하나될 때예요. 하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세계가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 문화는 서양에서 시작했지만, 동양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힌두교를 중심삼고 소련의 러시아정교, 그다음에 불교, 유교 등 동양 종교가 있다구요. 서양 종교가 동양에 와서 동양 종교를 중심삼아 가지고 열매를 대신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기독교 통일, 유교, 불교, 모든 종교를 통합한 것을 아시아 지역의 선생님을 중심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운세를 서구사회에도 연결시켜야 돼요.

서구사회의 제1, 제2이스라엘이 서양을 대표한 거라구요. 이게 한국에 와 가지고 결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결탁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는 여기를 중심삼아 가지고 여기서 청년들이 한국에 가는 거예요. 세계적 중심이 한국이니까 중앙 완충지대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해방 다음날인 16일을 중심삼고 선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 「석 박사를 당장에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소련과 중국을 대표하니까 기존의 3개 국하고 해서 5개 국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부속품이에요. 남북미 하더라도 남쪽 나라 북쪽 나라인데 기독교의 구교 신교를 말하는 거거든. 구교 신교가 하나되고, 메시아를 중심한 수많은 종교의 아시아와 동로마를 중심삼아 가지고 힌두교로부터 러시아정교로부터 가인형 세계로 갈라졌던 것이 하나되어 가지고, 다른 종교하고 동양 종교가 합할 수 있는 이런

최후의 때가 되기 때문에 구원섭리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든 것을 나눠 줘야 되겠구만. 「밥을 했습니다.」 과일을 나눠 주고 밥은 나중에! 그것(성초)을 잘 간수하라구. 앞으로 기념 날에 쓸 거라구. 없애지 말고. 「예.」

8월부터는 5대 성인의 부인들이 모든 대회에 동참해야

그리고 8월부터는 선생님의 가정과 영계의 결의문을 선포한 5대 성인들의 가정이 대회에는 언제나 같이 참석할 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인, 공자 부인, 코디악에 들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가? 김명희 소크라테스 부인, 여기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래. 「칠팔절예요?」 아니 오늘에라도.

원래는 예수 부인하고 공자 부인이 칠팔절에 오게 돼 있잖아? 김명희 소크라테스 부인도 와야 돼. 여기에 안 왔잖아? 전체 여기에 들러가지고 코디악 선언을 중심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르지 않은 사람이 김명희밖에 없어요. 효율이, 알아? 「여기에 한 번 왔다 가신 걸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나? 「예.」 그랬으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동양을 중심삼아 가지고 예수하고 공자에요. 하늘에 가까운 것이 그래도 유교예요. 예법을 가르친 거예요.

「집어가라고 할까요, 나눠 줄까요?」 과일들을 집어가라고 해요. 먹을 만큼 집어가요. 집에 가지고 갈 것은 그만두고, 여기에 온 사람은 실컷 먹어라 이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기념물로서 여기 과일을 주고 음식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 세 개든 네 개든 먹겠으면 집어요. 앉아서 먹어요, 가져가지 말고. (음식을 나눠 먹음)

장정순은 자기가 예수의 부인이라고 선포해야 돼, 일족한테도. 자기

가 축복받은 지 20년이 넘잖아?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는구만. 1971년 1월 3일이야. 이제는 때가 됐다구. 발표해야 돼, 장 씨들에게. 영계에서 결의문 채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총지휘했는데, 앞으로 4대 성인들을 수습해야 돼. 혼자 숨으면 안 돼. 그늘에서 살 때가 지나간다구. 그러면 나중에 몸이 좋질 않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감사하고 다 그렇게 가야 된다구. 이제는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와서 살 때가 됐다구. (담화)

장정순은 예수님하고 짝짜꿍 하라고 내가 축복시켜 줬는데, 지금까지 혼자 살지 않았어? 축복받고 30년 됐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구. 정성을 들이면 영계의 사실뿐만이 아니라 다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야.

자, 효율이! 「예,」 장정순을 한 번 더 소개해 주라구. 장정순, 나와서 인사해요. 몇 년에 결혼했다는 것... 1971년이면 30년이 넘었구만. (김효율 보좌관이 장정순 여사를 소개함)

여러분이 예수의 부인을 보고 만났다는 사실이 영계에서 얼마나 자랑인지 모른다구요. 내일 모레 선문대학 총장인 공자 부인이니 누구니 다 올 텐데, 왔던 사람들은 들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못 올지 모를 거라구요. 그 전에 여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인사했기 때문에 못 올지 모른다구요. 대개 다 만났던 사람들은 누군지 알 거라구요. (장정순 여사 간증)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이제부터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그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대낮에 나타나서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왔다구.

오늘 날씨가 좋구만! 「예, 오늘 날씨 좋습니다.」 그러면 배 타고 나갔다 올 사람들은 배에 나갔다 와요. 「예,」 자! (경배) *

교차결혼과 애원섭리시대

「오늘은 ‘일심식’ 말씀입니다.」(《통일교회시대 주요 의식과 선포식Ⅱ》 ‘일심식’ ‘애원섭리시대 선포’ 훈독)

원일연합이라고 한 이유

『……우리는 원, 구형(球形)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이 필요하냐? 원, 구형은 축구공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완전한 구형, 축구공과 같은 것의 중심은 모든 표면에서 종적인 축의 자리를 취할 수 있어요. 축은 모든 표면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모든 곳이 수직적인 중심입니다. 어디든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종적인 참사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연결된 점은 이 중심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구형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일연합(圓一聯合)을 만들었지? 「예, 원구라고 했다가 원일로 바꿨습니다.」 원 해도 되고 구 해도 되고, 원구연합 원일연합도 되

2003년 8월 2일(土), 코디악.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는데, 둘 다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를 불러도 괜찮아요. 다 뜻이 통한다구요. 원(圓) 하게 되면 서클(circle)이거든, 구(球)는 구형이고. 원구연합이라고 했는데, 약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구요. 구일연합! 더 구체적인 사실이지. 거기에는 상하전후 좌우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일연합으로 바꾸시는 것입니까?」 글썄, 구일 하게 되면 언제나 구하는 것이 된다구요. ‘구’라는 말은 비는 것, 뭘 원한다는 거예요. ‘왕(王)’ 자에 ‘구할 구(求)’ 자잖아요? 왕 구예요. 「임금 왕’ 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보다도 원형을 중심삼고 핵이 있다고 하면 구형이 되는 거예요.

‘구’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구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원을 갖다 붙였어요. 핵이 있다는 거예요. 핵이 있으면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원구연합을 중심삼고 원이라고 했느냐? 핵을 중심삼고, 핵이 들어가야 된다구요. 그래야 구가 돼요. 이것을 물어 볼 거예요. 원구라고 하면 원수가 구하는 것도 돼요. 한국말에서는 사탄이 구한다는 말도 돼요, 원수가 구한다는.

이런 사실이 근본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눈들 깜박깜박하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가 어떤 곡절을 거쳐서 자기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거꾸로 서 있는지 몰라요. 거꾸로 서 있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지. 바로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수 나라를 하늘에 접붙여 주는 일은 역사에 없는 사실

『.....사랑생명·혈통! 이것을 내가 완결 짓는 것입니다. 지금 다 끝장내는 것입니다. 복귀섭리가 다 없어지고 구원섭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굿바이(goodby)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원섭리가

없어지면 뭐예요? 애원섭리입니다.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건 타락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원섭리시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이라구요. 지난달 13일에 구원섭리 철회를 선언해서 애원섭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가 8월 초하루지? 창조이상 주관권 대전환시기에 타락한 것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엔 공약만 끝나면 구원섭리는 다 돼요. 종교고 나라고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는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가정시대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이 결합해서 참혈통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자지관계에서 이뤄지니까 한 가정제도예요. 세계 만민이 형제라는 이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멀리 멀리 있는 것은 몇천년 전에 제일 가까웠던 형제였는데 그 형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멀리 갔으니까 몇천년 거리가 생겼으니 제일 가까운 형제를 잃어버린 것을 원수시하게 만든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서가 합해야 되고 남북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만 이렇게 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족시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원수고, 일본하고 미국이 원수고, 미국하고 독일이 원수예요. 그런 원수의 나라,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 때문이나? 미국이, 기독교가 반대해서 다 깨쳐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에 와 가지고 잃어버린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 그다음에 가인 아벨 나라가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원수 됐고, 그다음에 가인 아벨이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된 이것을 선생님이 와 가지고 누구보다도 원수 나라, 사탄세계의 완전히 복판에 서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새로운 일본과 한국이 아담 해와 본연의 사랑, 또 일본과 미국이 본연의 사랑, 본연의 생

명, 본연의 혈통, 미국과 독일이 본연의 사랑, 본연의 생명, 본연의 혈통으로 묶여지지 않은 것을 묶은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놀음을 한 거예요. 일본 여자들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고생시키고,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국 사람을 구해 주는 놀음을 했어요. 애국사상!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원수들을 모아 가지고 원수의 나라를 복 받게끔, 하늘에 접붙일 수 있게끔 해 준 그런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부모님 일대에 책임해서 하늘 앞에 바쳐야 할 사명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원수가 하나되어 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된 거예요. 미국 사람과 독일 사람이 원수 된 것인데 하나된 거예요. 비로소 부모를 중심삼고 미국 내에서 어머니 아버지, 가인 아벨이 하나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전통, 기독교의 반대를 받았지만 새로운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출발을 선생님을 통해서 해 가지고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국가시대, 세계시대를 넘어서 하늘땅이 공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십자가를 철폐하고 기독교의 연합운동이 벌어지는 거라구요.

유엔을 중심삼아 가지고 미국이 외적인 기반을 통일시켰지만 내적 기반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문 총재하고 결부 안 될 수 없어요. 유엔 문제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본연의 세계의 전통을 이을 수 있는 개인과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권으로서 지상천국화될 때 비로소 만국해방 만세계가 지상·천상으로 화하느니라! 아멘이라구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미국에 와서 고생한 것이 뭐냐? 일본 사람, 여자들을 데려다가 고생시켰어요. 일본 여자하고 미국 사람을 결혼을 많이 시켜 줬다구요. 또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을 결혼을 많이 시켜 줬어요. 가정으로부터 분산된 것을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으로 묶어 가지고 새로운 일족을 편성해서 비로소 선생님을 중심삼고 30여년간에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것을 죽지 않고 재림이상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 천하통일 지상천상 만국해방세계로 입성을 하느니라! 그것이 선생님 일대에 하늘 앞에 책임해서 헌납해야 할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엔 공약을 중심삼아 가지고 아벨유엔과 가인유엔을 하나 만들어서 봉헌할 수 있는 시대, 목전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8월이 중요하다구요. 알겠나?

지금 현재 광 목사는 뭘 하느냐? 세계 191개 국을 중심삼고 세계의 모든 통일교회 식구들이 일심 일체가 되어 가지고 360명씩 교육하는 거예요. 이 기간, 두 달 동안에 다 해치워야 돼요. 7월을 중심삼아 가지고 두 달 동안에, 9월 15일까지 해야 돼요. 유엔에 종교의회를 세우는 것을 유엔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볼 때,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어 환영해야 돼요. 그 교육을 지금 하는 거예요.

참부모를 통해서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찾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 교육이 뭐냐? 아벨유엔을 중심삼고 종교권이 외적인 유엔까지 소화해서 가인 아벨이 하나된 자리에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연의 에덴동산에 가정 파탄, 가정에서 살육전이 벌어지는 것을 세계 정상에서 비로소 해소해서 안착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상·천상 이상천국에 입국할 수 있

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 몇 사람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만, 영계 전체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쫓긋 하고 있는 거예요. 사토 상! 「예.」 왜 그렇게 즐기만 하나? 고달파? 여기에 즐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 영계의 여러분 조상들이 여러분이 조는 것을 볼 때, ‘저놈의 자식!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야. 영계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알겠나,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참사랑! 참사랑이 필요해요? 참사랑을 어디서 찾아요? 타락한 세계에는 없어요. 거짓 부모가 됐으니 참부모를 통해서! 참생명을 어디서 찾아요?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으니 참부모를 통해서! 참된 혈통을 어디서 찾아요? 거짓 부모로 잃어버렸으니 참된 부모로부터 찾는 거예요. 찾아 가지고 뭐냐 하면 가정이상을 확대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려면 결혼을 동과 서로 해야 돼요. 동양 사람하고 미국 사람, 원수 나라 사람끼리 교차결혼하라는 거예요. 남북이 교차결혼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가정에 아들이 열 둘이라 할 때는 열 둘 있는 그 형제들이 결혼하게 될 때, 첫 아들딸을 중심삼아 가지고 둘째 아들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맨 막내 아들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끝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갖다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교차결혼의 의의

그렇기 때문에 교차결혼! 해 봐요. 「교차결혼!」 여기서 교차결혼한 사람 손 들어 봐요. 교차결혼은 어려움이 많아요. 앞으로 교차결혼한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동과 서가 하나되어야지요? 남과 북이 하나되어야지요? 전후가 하나되고, 끝과 끝이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생·장성·완성으로 끝은 셋이 꺼풀을 씌운 거예요. 모든 씨는 단단하다구요. 씨가 되기 위해서는 교차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꺼풀을 씌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소생시대가 어렵고, 장성시대가 어렵고, 완성시대에 어려움과 고충을 느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가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식구나 한국 식구나... 앞으로 한국 식구하고 결혼하기 힘들어요. 지금 일본이 잘살고 미국이 잘산다고 하는데, 미국 놈 일본 놈 다 도적놈들이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부정하는 거예요. 알겠나? 「예.」

교차결혼! 해 봐요. 「교차결혼!」 교차결혼은 원수와 원수가 하는 거예요. 끝과 끝이에요. 이게 결혼해 가지고 가운데로 옮겨야 돼요. 여기서부터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서 교차결혼해서 들어가 사랑하고 세상만사의 고충을 느껴 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권 내에 '너와 내가 같구나.'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자리잡는 거예요.

가정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홀로 살면서 복귀시대에 안팎으로 고통을 느낀 그 모든 면을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차결혼한 사람들의 극과 극 일치화가 중앙에서 되어서 뻗어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일치되어 들어가서 자리잡아 가지고 하나님과 참부모의 사랑의 십자에서 딱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했으면 동과 서가 여기밖에 안 돼요. 끝이 안 된다구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원수끼리 교차결혼이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교차결혼이다!' 한 거예요. 교차결혼했지요? 수천 명을 교차결혼시켰어요. 독일 사람하고 영국 사람을 첫번 결혼해 준 것이 누구냐? 독일 말괄량이 같은 색시하고 영국 신사인데 영어 한마디 독일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결혼해 준 거예요. 너희 둘이 하나

될 때는 위대하고 훌륭한 아들딸을 낳을 텐데, 모양은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되었지만 두고 보라 이거예요. 가 보니까 참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업고 왔더라구요. 알겠나?

끝이 높은 데서 돌면 이렇게 돌지 이것만 돌겠나? 전부 다 이렇게 돌지. 구형으로 돌면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구심력으로 당겨 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두 힘이 교류하기 때문에 단단해져요. 구약신약신약시대.성약시대, 세 끼풀을 껌데기에 씌워 주는 거예요. 열매가 다 그래요.

아들딸이 여러분이 못 한 교차결혼을 해야 돼요. 3대권 내에서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결혼하라니까 자기들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건 탈락해 버려요. 구형을 중심삼고 이렇게 도는 길이 있나? 여기서 이렇게 도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높아 가지고 또 돌고 이래 가지고 여기서 또 와서 도는 거예요. 또 더 높은 데 와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차결혼 못 한 것이 한이 될 때가 온다

이제는 교차결혼 못 한 것이 한이 될 때가 와요. 일본 나라하고 한국 나라가 교차결혼할 때 그때 몇 명 했나? 효율이, 알아? 「전체는 6500쌍 때문이 했습니다.」 구보기도 5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뭐냐고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반대하고 한국 대사관이 반대했지만, 그때 하네다 비행장을 중심삼고 내가 일생에 한 번 결혼하려고 가는 비행기표를 구하는데 당신의 표하고 바꾸자고 해 가지고 울고불고 해서 빼앗아서 타고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 패스पोर्ट에 도장을 안 찍을 수 있어요? 두 나라가 합해서 도장을 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선생님에게 무슨 이익이 돼요? 지옥과 천하를 소개해야 돼요. 교차결

혼하지 않은 수난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혼한 서글픔을 느껴야 돼요.

동쪽 여자와 서쪽 여자가 있는데, 동쪽 여자가 라헬이라면 레아는 서쪽 여자예요. 원수예요. 하나돼야 돼요. 타락한 어머니와 복귀한 어머니예요. 라헬 어머니한테 굴복해야 돼요. 아버지도 그렇고, 사탄의 핏줄과 하늘의 핏줄로 끝과 끝이에요. 뒤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차결혼이에요. 원수를 사랑했다는 기준을 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일본 여자들을 데려다가 한국 선생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일하게 한 것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시키기 위한 거예요. 결혼을 많이 했지. 흑인과도 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독일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원수예요. 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원수가 됐지요? 원수가 결혼해서 바로잡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실이라구요.

미국에 있어서 기독교를 중심삼아 가지고 미국이 해와하고 잘못했던 것을 복귀하려니 이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끝과 끝을 갈라놓았으니 끝과 끝을 엮는 거예요. 선생님이 좌와 우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결혼시키는 거예요. 동과 서가 선생님을 중심삼고 묶어지는 거예요. 출발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또 남과 북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아들딸도 선생님을 중심삼고 묶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교차예요. 뒤집어 박아야 복귀되는 거라구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효율이 몇 번 교차결혼했나? 「한 번입니다.」 한 번 했지만 결혼식을 몇 번 했나? 「두 번 했습니다.」 세 번 아니고? 「한 번 더 보내 주시면 세 번이 됩니다.」 (웃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기분이 다르지? 언제나 그런 것이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생활의, 문화배경의 모든 것, 촉감과 같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언제나 상충이 벌어져요. 그걸 소화해야 돼요. 원수를 소화 못 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알겠나?

교차결혼! 「교차결혼!」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한국에서 하나 만드는 놀음,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원수를 하나 만드는 놀음을 한 거예요. 한국 여자하고 일본 여자를 중심삼고 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사람하고 미국 여자를 묶은 거예요. 미국은 백 수십 개 국가에서 이민해 온 민족이고 독일은 게르만 민족 단일민족이지만 엮은 거예요.

엮어 가지고 제1이스라엘권과 제2이스라엘권이 망하게 된 것을 비로소 다시 제3이스라엘권 출발을 중심삼아 가지고 한국에 갖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3이스라엘권 가정이상 지상·천상통일의 해방세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나?

선생님을 중심삼고 동서가 합하고, 상하가 합하고, 전후로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가 갈라졌지, 부부가 갈라졌지, 형제가 갈라진 것으로 끝과 끝이에요. 백인하고 흑인이 결혼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백인 여자들이 이런 것을 알고는 70퍼센트가 흑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섰다고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문제가 대번에 벌어져요.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컨트롤했어요. 내가 교차결혼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3분의 1만 결혼해라 이거예요.

교차결혼이 이렇게 필요한 거라고요. 세 나라를 거쳐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나라, 그다음에 부부 나라, 형제 나라예요. 세 나라를 거쳐야 돼요. 다르다고요. 1대 2대 3대가 다르지요? 그러니 끝과 끝을 소화해야 돼요. 끝과 끝을 소화해야 중심에 핵이 생겨요. 여기는 커 가는 거라고요. 둥그래진다고요. 앞으로 누가 국제결혼을 했느냐 이거예요.

정오정착의 자리에 들어가 살아야 될 때가 됐다

선생님도 앞으로 그래요. 지금 현재 3개 국에 입적 수속해서... 요

전에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 축복식을 해 준 거예요. 그때 말한 것이 정오정착(正午定着)이에요. 정오정착이 무슨 뜻인지 4일에 세밀히 얘기해 줄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때가 왔어요. 정오정착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소생·장성·완성, 이미 마음에서 시작해 가지고 상징적·형상적·실체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체를 중심삼아 가지고 첫 째 속성이 절대사랑, 유일사랑, 불변사랑, 영원사랑, 그다음에 뭐라구요? 고요한 정(靜)의 시대예요. 빼와 가족이 합해야 될 텐데, 격동하지 않고 붙어 가지고 주고받는 고요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유일·불변·영원, 그다음에 뭐라구요? 정성시대, 그다음에 일화시대, 통일시대! 성을 중심삼고 일화가 되고 통일이 벌어져요. 그다음에 뭐라구요? 하나님이 그런 데에 있어서 동적인 기준을 생각하려니 일심·일체·일념·일행, 그다음에 뭐라구요? 동성시대, 동적인 일화시대, 동적인 통일시대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를 쓰기 위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투입, 그다음에 뭐라구요? 절대인간이라고 그랬지요? 절대인간이 아니고 절대주인이 앞서야 돼요. 절대주인 괄호하고 인간, 절대인간, 주인 해 가지고 거기서 애성시대를 거쳐 가지고 일화세계 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이 귀한 거예요, 성!

타락한 사탄세계에서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이 영원히 하나 못 된다고 다 갈라놓았어요. 흑인 백인을 다 갈라놓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와서는 전부 다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부모가 부자지관계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갈라졌던 것이 하나되지요? 자녀도 하나돼야 되는데 갈라졌으니 또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중심삼고 상하 하나, 좌우 하나, 전후 하나, 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이상 핵, 구형이 되는 거라구요. 그러려니 여러분 일본 사람끼리 하나되면 개인시대 가정시대, 상하 이렇게 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핵이 되고 이것은 밖이니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일본 나라가 해체되고 미국 나라가 해체된다는 말이라구요. 알겠나?

자기들도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영계가 그렇게 되는 거라구요. 자기 멋대로 하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선생님은 올바르게 가르쳤어요. 교차결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나, 안 가르쳐 줬나? 어때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 사람들, 파더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줬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파더가 가르쳐 준 내용을 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개인 완성을 알지요? *개인의 완성도 가르쳐 줬어요.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와 우주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다 가르쳐 줬다구요. 그 내용을 알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국제결혼을 해야 하늘나라 심정권의 핵과 연결될 수 있어

앞으로 선생님의 일족과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이... 선생님의 혈족과 결혼 못 하면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못 하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일본 사람하고 결혼 못 하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 못 하면 독일 놈들이라도 결혼해야 돼요. 국제결혼이에요. 그것을 못 하게 된다면 하늘나라 심정권의 핵과 연결될 수 없어요.

이노우에도 국제결혼이야? 「아니죠.」 「일일가정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얼마나 모험을 하고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해 주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한테 욕을 먹고, 일

본 사람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을 중심삼고 미국 사람하고 해 줄 때 미국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욕하고 일본 여자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욕했나?

세상에! 정신이 돌아도 유만부동이지.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이 돼요? 한 번 하면 선생님이 욕바가지밖에 뒤집어쓰는 것이 없지. 그렇지 않고는 풀 수가 없어요. 해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

탕감복귀시대 애원시대, 지금은 애원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애원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해야 돼요. 어머니도 그래요. 선생님도 레아와 라헬 둘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 갈라졌기 때문에 레아를 버릴 수 없어요.

선생님이 이혼한 지가 수십년 됐어요.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한 거예요.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게 자기들이 협박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집어던지고 최 씨 문중에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나오지도 못한다고 별의별 협박을 한 거예요. 문중이 합해 가지고 강제로 이혼시켰지만, 그걸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도 축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이혼한 여편네까지 천상에 데리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효율이, 그거 아냐? 아냐, 모르나? 어머니가 훌륭한 것이 무엇이나? 성진이 어머니하고 이혼해서 보기를 했나? 살림살이를 대 주고 집도 두 번 씩 사 준 거예요. 이제 왕궁에 들어갈 때는 성 밖에 데려다가 살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형제를 살려 줘야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원수가 되어서 또다시 타락한 세계가 돼요.

예수 부부는 누구보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

그래서 8월부터는 장정순도 죽기 전에는 회의 때 참석해야 돼.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참석해야 돼. 「아버님이 매일같이 회의에 참석한다고요?」 자기가! 예수가 성인 아니야? 4대 성인들이 하나되어서 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모님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소개할 때가 왔어요. 누가 해 주느냐? 부모님이 안 해 주면 천년만년 해도 통하지 않아요.

장정순, 알겠어? 자기는 예수님하고 축복받았는데 선생님만 사모했지, 예수를 뒷전에 놓고? 선생님이 축복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내버려둔 거야. 한도 많았겠지. 어머니가 그런 것이 아니야. 뜻이 그래요. 몇천년 동안 기다린 뜻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 가지고 내적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외적 생활까지, 자기 일족과 나라까지 표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됐어? 30 몇 년이 됐다며? 「32년입니다.» 예수님이 33세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됐구만. 선생님에 대해 원망하고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자기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중심삼고, 어저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했지만, 그 깊은 골짜기의 주인이 되고 안에 등지를 틀어 가지고 세계의 기독교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33년이 된다고요.— 그런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지.

이제는 예수님과 둘이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흥진 군이 영계에 가서 지금 훈숙이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일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역시 훈숙이와 같이 있으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 줘도 그런 생각은 안 해 가지고 자기 혼자 불평하고... 그러니 몸이 편안치 않지. 내 말을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자기를 길가에서 만나더라도 인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 하나되어 가지고 인사해야지. 네(석준호) 어머니도 그렇지. 최 선생을 중심삼고 제일주의자가 안 돼. 어머니를 중심삼고 제일주의자가 되는 거야. 너도

그래.

부모가 없으면 예수님하고 축복을 해 줄 수 있나? 그것이 아이들 장난인 줄 알아? 세상 같으면 처녀 때 데리고 와서 옆방에서 살게 할지 모르지만, 먼데 미국 땅에 데려와 가지고 혼자 그림자처럼 살 게 한 것이 무엇이나? 개척해 가지고 심정권을 찾아야 할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번에도 부른 것이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느냐? 어머니가 부른 것이 아니예요.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알겠나? 「예.」

자기 장정순의 위신, 자기 문중에 소문날까 봐 무서워? 선생님이 사탄세계에서 별의별 놀음을 다하는데, 자기는 소문날까 봐 예수의 부인이라는 말도 말라고? 뜻길이 그렇게 되어 있나? 선생님의 체면이 어디 있어요? 위신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지상나라 전부가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당당히 그 길을 나타나서 간 거예요. 뒤에 따오면서 그 일을 하는데 ‘기독교 소화를 내가 해야지.’ 해야 돼요. 성신 놀음을 해야 된다고요. 실체 찾아진 놀음을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32년이 됐구만. 예수님이 서른 세 살까지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지루한 기간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내 말을 알겠지? 장정순! 「예.」 물어보라구,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더러 나타나서 가르쳐 주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4대 성인 부부를 동참시켜야 돼요. 이제 소개할 때가 왔어요, 자기 일족과 자기 나라 앞에. 신문에 예수의 부인 역사를 써 가지고 예수와 자기가 영적으로 통하는 내적인 내용, 비밀의 사실을 발표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강현실은 어거스틴하고 일체가 되어서 살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쁜 자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강현실이 예수의 제자예요. 그 이상 어머니의 자리에 올라가야 할 텐데, 그것이 귀한 것을

모르고 나왔다면 크게 회개해야 돼요.

이스트 가든에 4대 성인들을 자리잡아 줘야 돼요. 원래는 그 집에 와서 살아야 돼요. 사는 데는 기독교를 하나 만들고, 불교를 하나 만들고, 유교를 하나 만들고, 회회교를 하나 만들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하나 만들고 와서 살아야 돼요.

그 기간에는 예수가 기독교를, 공자가 유교를, 석가모니가 불교를, 마호메트가 회회교를 하나 만들기 위한 놀음 이상 해 가지고 하나되어서 모심 받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고 지금까지 그늘에서 살아왔지만 내가 내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똑똑히 알라구요.

애원섭리시대와 제1, 제2, 제3이스라엘 해방

애원시대 해 봐요, 애원시대! 「애원시대!」 애원시대가 무엇이나? 선생님 미국에 와 가지고 원수 원수를 증심삼고 망할 수 있는 미국을 제2이스라엘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의 십자가를 철거해 가지고 제2이스라엘권에 접붙일 수 있는 놀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가 죽지 않고 입적하는 메시아의 자리를 갖다 접붙여 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고 해도 선생님이 선포한 말은 그냥 그대로 영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계를 보조 못 하면, 이 땅 위의 유대인들이 책임 못 하면 영계에 가서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책임추궁을 받는 거라구요. 그 후손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원해 주기 위해서 제1이스라엘, 제2이스라엘, 제3이스라엘권을 증심삼고 해방을 선언하는데 그때가 8:15예요.

8:15까지 내가 여기에서 안 가려고 하다가... 안 가도 돼요. 재림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6백만을 학살했지만 탕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나 한국에 접붙여 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아시아 제국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 소련, 또 미국까지 접붙이는 거예요. 5개 국 학생들, 2세들을 중심삼고 연합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15일까지 해 가지고 한 달 동안에라도 유엔 공약을 위해 제1, 제3 이스라엘, 그다음에 2세들이 합하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가 예수의 몸뚱이를 찾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2세들과 제1이스라엘권 제3이스라엘권의 교회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하나 만들어서, 학교 교수들까지 합해 가지고 지금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발표한 뜻은 뜻대로 서 있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알겠나?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내가 간섭도 할 필요 없고, 제1, 제2, 제3이스라엘... 탕감복귀시대를 철회해 버렸어요. 이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종교권을 부정하고 정치권을 부정한 유엔 공약, 통일적인 하나님 제일주의 해방시대 자주적인 이상 창조권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효자 노릇도 해야 되고, 충산성인성자 노릇도 해야 돼요. 효자 가정 놀음을 해야 돼요. 말만 했지, 길만 열어 놓았지 고속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전부 때워 버려야 돼요.

사탄은 영영 분립돼 가지고 이제 사탄도 기독교인 이상, 종교인 이상 어려움을 종의 자리에서도 극복해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그래야 사탄까지도 하늘 앞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거라구요.

그래, 타락한 사람들을 누구하고 결혼해 주겠나? 하나님이 천사를 많이 창조했겠나, 적게 창조했겠나? 상헌 씨의 보고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효율이! 무수한 천사를 창조했다고 그랬지? 상헌 씨의 영계의 실상 보고를 못 들었나? 천사 세 사람만이 아니고 무수한 천사를 만든 거예요.

천사들에게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나, 어땠나? 여자는 참부모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기억나요? 종의 여편네를 왕이 어떻게 해주나? 그건 주인이 해결해야 돼요. 참부모님이 홀아비 천사들의 상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영계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일시에 수천만 여자도 만들어서 상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대, 천사들이 그리는 상대를 해서 때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창조이상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구요.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아들딸을 사랑하고 천사를 사랑하고 천사세계까지도 아담 해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심부름했는데, 천사세계의 미비한 상대권까지도 부모님 앞에 맡겨 가지고 해결을 바라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창조이상이 끝나는 거예요.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계속하라구.

『……종족적 메시아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더럽혀진 그들을 새로이 혈통으로 접붙여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같은 자리에 세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더럽힌 1세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슯쳐너 슯총각만 결혼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대학을 만들지 않았어요? 졸업생이 여덟 명이라나, 지금? 「여덟 명이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유엔만 찾게 되면 세계의 어떠한 왕과 왕자, 어떠한 대통령, 귀가에서 서로가 경쟁해서 모셔 가려고 할 거예요. 문세를 모르니까 다 편안하지. 자! (끝까지 혼독)

효율이, 기도해요. 애원시대, 지금이 딱 그런 때라구요. 내일 모레면 칠팔절을 맞게 되겠구만. 해방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효율 보좌관 기도)

독도 노래(‘홀로아리랑’)를 아나? 「예.」 그것을 누가 여기 나와서

대표로 불러요. 시애틀 책임자, 독도 노래! 원주랑 같이 해요. ‘홀로
아리랑! (‘홀로아리랑’ 합창) 효율이, 만세 해요. (억만세삼창) (경
배) *

대전환시기와 칠팔절

<기 도> 사랑하는 아버지님, 오늘 코디악에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이 역사적인 전체 주체 총 전환시대를 향하여 새로운 시대의 전환의 달로서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8수를 중심삼고 제1 8수, 제2 16수, 오늘 세 번째 삼 팔이 이십사($3 \times 8 = 24$), 네 번째 사 팔이 삼십이($4 \times 8 = 32$), 예수님의 연령을 중심삼아 가지고 섭리하던 모든 전부를 탕감 해원 복귀하여 이 땅 위에 탕감의 시대를 지나 당신이 직접 주도 주관하는 세계로 전환할 수 있는 8월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달에 처음 맞는 안식일, 천일국 3년 8월 3일 이 안식일에 아버지, 칠팔절을 앞에 놓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준비의 주일로서 또한 출발의 날로서 경배식을 봉헌하옵니다. 하늘땅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일심일체가 되어서 땅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과 참부모가 이 땅 위에 실제 형상을 써 가지고 만민의 부모, 지상에 완결하여 천상세계 영원한 세계에 그 권위를 세워 나가는 창조이상 완결을 결착시킬 수 있는 지상세계의 출발을 허락했습니다.

하오니 모든 것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이 주도하는 데 있어서 일심일체일념일행을 중심삼은 동적인 사랑의 세계를 향하

2003년 8월 3일(日), 코디악.

* 이 말씀은 주일 경배식 및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여 일화 통일세계로 넘어가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투입·절대주인 인간 완성하여 애성 안착을 중심삼고 일화 통일세계로 완결할 수 있게끔, 승리의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출발하는 기념의 안식일과 새 달에 세 번째 맞는 24수를 중심삼고 경배식을 거행하면서 선포하겠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경배의식, 가정맹세, 보고기도)

<말 씬> 앓아요.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맹세문이에요, 맹세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훈독회에는 부부가 같이 참석하라

하나님이 춘추동의 모든 것, 하나님의 해를 갖지 못했던 것인데, 금년이 그런 해라구요. 전체가 돌아가는 마지막 전환시기예요. 왜 그런 때냐? 선생님이 83세인 동시에 8월 3일과 8월 4일이예요. 천일국 3년, 4년을 중심삼고 세상을 전부 다 뒤집어 박아야 돼요. 세상이 안 듣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가던 길을 가야 돼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일과 내일이 연결된다는 것이 참 뜻이 깊어요. 선생님의 83세와 84세를 중심삼고 전체를 탕감하는 거예요. 천일국 4년 4월 11일 까지인데, 청산기간과 일치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금년 이 해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러한 기간에 여러분이, 한국 일본 미국의 국가 대표가 세계를 대표해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거룩히 지내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혼독회! 칠팔절 말씀을 혼독해요. 잘 들어 봐요. 칠팔절을 여기서 했지? 「칠팔절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나? 응, 서울에서 했구나.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이제 혼독회에 부처끼리, 부부가 나와야 돼요. 이제부터는 부모들이 주도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없게 될 때는 장남 장녀, 장손이 혼독회를 주도할 수 있는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통일교회 혼독회에는 본래 혼독회가 있지만 혼독하기 전에 자기들은 반드시 부부로서 제일 기억될 수 있는 은혜의 내용을 가져서 부부가 혼독한 후에 세 가정이면 세 가정 한꺼번에, 시간이 많이 갔으면 한 가정이 대신 해서 부처끼리 한 타이틀을 절반 절반 읽는 거예요. 남편이 읽고 그다음에 다음을 부인이 읽어 가지고 자기들의 은혜를 같이 나눠 줄 수 있는 평준화, 천지부모를 중심삼고 평준화, 지상의 가정을 중심삼고 평준화 은혜를 하늘땅 앞에 공히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가정적 혼독회를 중요시하는 때가 왔다고요.

교회의 혼독회도 귀하지만, 반드시 자기 부부로부터 내일이면 내일 아침 혼독회에 가게 될 때는 자기들이 은혜 된 그런 제목을 중심삼아 가지고 혼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혼독회를 세계적으로 영계와 일치시켜서 해야

그리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참석할 때는 이런 혼독회 할 때 여기에 들어오면서 추첨을 하게 돼 있다고요. 추첨하는 가운데서 1번, 2번, 3번을 중심삼아 가지고 혼독회를 하게 돼 있다고요. 주로서 하늘을 대표한 혼독회를 중심삼고 영계 육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영계 육계가 천일국 3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는 기념날을 중심삼고 대전환시기의 혼독회라고요. 그 혼독회와 더불어 여러분이 그것을 맞기 위한 지상의 준비 혼독회를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된 모든 내용들을 정식 혼동회가 끝난 다음에 세 가정 가운데서 한 가정은, 책임자가 지적하는 사람은 그 부부가 다음에 가정적 혼동회와 영적 혼동회를 일치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교회 혼동회는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같은 것을 해야 돼요. 영계도 그렇고 지상에서도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하고, 여러분의 가정적인 혼동회는 자기들이 은혜 받은 대목, 그것을 찾아서 하면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정해 가지고 일년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일찍 일어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녁이라도 그것을 해야 돼요. 내일 교회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자기가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훈련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 될 수 있다구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데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구요.

협회에서는, 여기 3국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오늘 8월 3일부터 앞으로 계획을 세워, 8월 3일에 출발한 것을 중심삼고 날짜를 정해서 어느 페이지 어느 페이지 해서 천일국 4년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에 영계의 조상들과 전체가 혼동회를 같이 해야 된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하늘과 더불어 같이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전 세계의 가정들과 하나되는 거예요. 영계의 가정들과 하나될 수 있게끔 혼동회를 하는데, 여러분 일족을 대표해서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황 씨면 황 씨 가정을 대신해서 가정적 혼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황 씨 가정이 전부 다 같은 혼동회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하리는 거예요. 가정적 혼동회는 자기들이 은혜 된 부분을 중심삼아 가지고 출발해서 계속하고 또 옮기고 싶으면 옮겨도 괜찮다구요. 알겠지요?

그런 내용, 하늘땅이 같이 공식적인 혼동회를 하고 끝난 후에 원래

는 세 가정이 나와야 할 것인데,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 장자 나라 세 사람이 할 것인데, 짧으면 두 사람이 해도 괜찮고 안식일이 겹치든가 하면 세 사람이 해도 괜찮게 해야 돼요. 바쁜 날에는 한 사람이 세 가정을 대표해서 가정적 훈독회를 계속해야 되겠다구요.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부처끼리 나와서 읽는 데는 은혜 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몇 번씩 읽어 가지고 그 내용이 은혜 될 수 있게 해서, 하늘땅의 칭증이 공칭회를 한 훈독회 내용의 감동에 지지 않게끔 여러분이 그것을 받들어 주는 은혜를 계속해서 가정이 이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선언한다구요. 알겠지요? 「예.」

선생님 84세 되는 천일국 4년이 중요해

명년이 천일국 4년이에요, 4수! 선생님이 84세예요. 84세는 4수를 중심삼고 일 사 사($1 \times 4 = 4$), 이 사 팔($2 \times 4 = 8$), 삼 사 십이($3 \times 4 = 12$), 사 사 십육($4 \times 4 = 16$), 오 사 이십($5 \times 4 = 20$)! 4를 열 번 하면 40이 되거든. 그러면 80세라는 것은 4가 스물 번이고, 84세라는 것은 4수를 중심삼아 가지고 사위기대가 스물 한 번째를 넘어가는 고 개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을 중심삼고 볼 때 대전환시기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거짓 부모가 나와서 다 더럽힌 것을 복귀하는 거예요. 일대에 개인으로부터 하늘땅 전부를 망쳐 봤어요. 일대에 사랑의 핏줄을 더럽혀 봤기 때문에 일대에 탕감복귀하는 거예요. 원래는 선생님이 40세에 이 일을 다 끝마칠 것인데... 영·미·불이 2차대전 이후 기독교 승리 판도 위에 선생님을 모셨더라면 선생님 40대에 끝날 것인데, 80세에 와 가지고, 80을 중심삼고 스물 한 번의 4수를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향한 천일국 4년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아닐 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또 어머니의 생신을 중심삼아 가지고 지상의 처리할 문제, 6수 탕감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60세 되는 1980년 그때에 못 한 것을 어머니의 61세 환갑을 중심삼고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수 완결, 그다음에 칠일절, 칠팔절, 칠구절, 칠십절을 금년에 기념했다구요. 그거 알겠나? 「예.」

이럼으로 말미암아 8수, 80수 전부 다 넘어설 수 있는 해방의 지상 천국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겠다구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칠팔절 혼독회를 하고 지내야 돼요.

영계를 하나 만들어 유엔 공약을 통해 한국 해방을 맞춰 나온다

그리고 한국의 남북에는 판문점이 있지만 이곳은 소련과 미국의 판문점과 마찬가지로 경계선이예요. 한국 해방으로 소련 해방... 천상세계의 지옥과 천국이 막혀 있다구요. 한국이 터짐으로써 다 터진다고요. 이 중요한 지역, 코디악을 중심삼고 소련과 미국이 하나될 수 있는 경계선으로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스크바에 가는 것이나 워싱턴에 가는 것이나 거리가 같다고요. 그런 경계선, 완충지대예요. 남북한 완충지대, 공산권 민주세계...

예수가 가인 아벨의 실패를 복귀할 수 있는, 기독교를 중심삼고 가인과 아벨인 국가와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넘을 수 있는 것을 못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 경계선이 생겼고, 소련에 경계선이 생겼고, 천상세계에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제3이스라엘 해방과 더불어 이걸 전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미국과 유엔을 중심삼아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유엔은 공산당의 유엔이에요. 이것을 트기 위해서는 종교유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좌익과 우익, 가인과 아

벨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 놀음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영계나 육계나 해 가지고, 영계에서 형님을 동생의 자리로 나오게 해 가지고 유엔을 공략하는 시대를 중심삼고 유엔 공략과 더불어 한국 해방을 거꾸로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십자가를 떼고, 제1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접붙여서 십자가를 장사 지내고 예수가 유대 나라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교육해서 박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 국가 기반 위에 미국이 서지 못했으니 붕 떠 가지고 하늘과 갈라졌다고요. 제1이스라엘의 예수를 메시아로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영육 국가의 출발 못 한 것을 재림시대까지 와 가지고 청산하는 거예요.

영육 중심삼은 제1, 제2, 제3이스라엘을 통일한, 남북한 완충지대, 코디악 완충지대, 영계 완충지대를 철폐해 가지고 통일 이스라엘권 메시아 국권을 중심삼은, 메시아 영육 국가를 중심삼은 지상·천상·천국 해방세계로 넘어간다, 예수가 죽지 않고 재림주가 와 가지고 대신 다 청산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하늘땅 꼭대기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지상에 와서 이래 가지고 한국까지 가서 이번에 선포하는 거예요. 제3이스라엘 선포를 해 가지고 하나되어서, 하나되는 날에는 유엔은...

제1, 제2, 제3이스라엘에 대한 참부모의 사명

보라구요. 제1이스라엘 나라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제물을 소유했어요. 물질의 주인이 된 나라예요. 제2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가인 아벨이니까 인간세계의 민주당 공화당이 싸우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두 패가 되었잖아요? 가인 아벨이 하나 안 됐지요? 제3이스라엘은 부모가 하늘땅을 평정화시켜 가지고 지

상천상 축복가정 일원화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또 사탄세계의 지식 분야라든가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민주세계의 국가, 가인세계와 아벨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중심삼고 형제가 하나된 자리예요. 그다음에 성약시대의 참부모는 제1이스라엘 국가 기반 위에 로마까지 합한 가인 아벨 기반과 같은 입장에 서지 못했던 것을 탕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라면 로마와 같은 것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천사장적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원수간이라구요. 이것이 형제지인연을 중심삼아 가지고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같은 종류예요.— 접만 붙이면 참감람나무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덟 살 이상 된 아이들까지도 참감람나무 축복가정들은 집을 붙여 줄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8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8수의 2배 되는 16세를 중심삼아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16세를 중심삼고 24세까지예요. 삼 팔이 이십사(3×8=24)예요. 앞으로 대학원코스는 24세 이내에 해야 된다고요. 박사코스는 32세까지 해야 돼요. 그 기간 내에 해야 돼요.

천주천지부모를 중심한 가정제도를 확대한 세계가 돼

앞으로는 학교도 없어져요. 가정제도를 확대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일족에 있어서 처리해요. 일족의 종족적 메시아지요? 문제는 종족적 메시아인데, 종족적 메시아가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일족이 문제되면 일족의 회의를 중심삼아 가지고 원리원칙의 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경찰도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진다고요. 종교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져요. 한 가정이에요. 알겠나? 천지, 천주부모를 중심삼고, 종횡의 부모를 중심삼고 하나의 혈족이에요.

흑인 백인이라는 것은 뭐냐? 몇천년 전에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갈라져 갔기 때문에 오래된 형제가 갈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몇천년 전에 갈라진 형제니 몇천년 동안 잃어버린 형제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사모하던 형제를 만나서 기뻐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정의 천일국을 상속 받을 심정세계의 장자권 아들딸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흑인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색인종이 뭐냐? 역사적으로 갈라진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자기 일족과 다를 뿐이지, 자기 일족과 결혼하는 것을 하늘은 원하는 거예요. 가인 아벨이 교차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얘기했지요? 참부모를 중심삼고 동과 서가 끝과 끝이 하나되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하나되어야 돼요. 부자지관계의 심정을 누가 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참부모가 끌어 붙여야 되고, 하나님과 참부모가 동서로 끌어 붙여야 돼요. 아들딸도 전부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끌어 붙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하지, 딴 데서 할 수 없어요.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구형은 설계할 때 십자를 그려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상하관계좌우관계전후관계예요. 아들딸이 3대예요. 3대가 없으면, 아들딸이 없으면 가정이 성립 안 돼요. 요즘에 부처끼리 하나되어 있으면 그것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이상적 참가정이라고 하는데, 참가정이 아니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연결된 아들딸이 없어 가지고는 가정이라는 것이 성립 안 된다구요.

그래서 성인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족 장 씨면 장 씨의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삼고 양자 계통으로 가인 아벨로서 연결시켜야 된다구요. 양자 책정시대에 들어간다구요. 천일국을 중심삼고 4년만 넘게 되면, 하늘나라 유엔이 설정되는 날에는 양자까지 자기 형제

들 가운데서 책정하는 거예요. 형제하고 그다음에 이종사촌, 그다음에 외사촌이에요. 삼 사 십이($3 \times 4 = 12$)를 중심삼고 하늘나라의 삼위기 대 12수를 맞춰 나가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 갈래, 자기 형제, 그다음에 고모 형제, 그다음에 외갓집 형제예요. 세 갈래를 하나 만드는 것이 중심존재예요. 메시아가, 참부모하고 천지부모가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래 가지고 삼 사 십이($3 \times 4 = 12$), 12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수가, 하나님, 천주부모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360도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원만한 운동이 안 돼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것이 공식노정인데 싫다고 운동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 대상간에 작용을 해야 힘이 생기고 존재가 설정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자들도 우주는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힘이 그냥 생겨나질 않아요. 힘이 있기 전에 작용이 벌어져야 돼요. 눈이 보더라도 눈이 작용해서 봐야 알지, 그냥 그대로 아나? 아래위로 봐서 아는 거예요. 작용해 가지고 눈이 보는 거예요.

힘이 생기기 전에 작용이 있어야 돼요. 전기의 힘에 의해 불이 밝아 지는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체 대상이 주고받는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기 전에 작용이 있어야 되고, 작용이 있기 전에 주체와 대상 관계가 없어 가지고는 존재가 설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공식이 돼 있다가구요.

모든 피조세계의 만물은 쌍쌍제도로 돼 있다가구요. 음양 이치예요. 성(性)이에요, 성. 성(性)이라는 것은 ‘마음 심(心)’ 변에 ‘날 생(生)’이예요. 정(情)이라는 것을 ‘마음 심(心)’ 변에 ‘푸를 청(靑)’을 한 거예요. 중심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중심삼고 언제나 푸른 것이예요. 푸

른 것(靑)은 주인(主) 자리에, 왕(王) 아래에 ‘달 월(月)’을 한 거예요. 정서의 세계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철학세계에서 말할 때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정의’가 아니고 ‘정지의(情知意)’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꾸로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지식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한 철학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종교는 정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그래서 중요한 해예요. 8월 3일은 83세 선생님의 해와 맞먹는 거예요. 40세에 끝날 것이 83세예요. 43년을 연장해서, 가나안 복지 430년 연장한 것을 넘어서 44년으로 연장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맹세 8절이 뭐예요?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복종이라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입이에요. 우리 인간이 탕감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리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복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적인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영원히 무조건적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개성진리체의 자기 형체를 갖춰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만, 복종(服從)이라는 것은 자기가 없어요. ‘복’ 자가 무슨 ‘복’ 자예요? ‘다시 복(復)’ 자도 돼요. 다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도 돼요.

복종을 넘어서야만 투입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탕감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세계권 내에, 원리원칙의 세계에 접붙인다 이거예요. 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걸 확실히 알고, 과연 세계가 달라진다고요.

대이동과 남미 4개 국의 기반

하나님도 춘하추동... 선생님이 그래요. 금년에 3월 16일부터 봄철 이에요. 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월부터 10월까지예요. 3, 4, 5, 6, 7, 8, 9, 10, 10월까지, 10수 귀일 수를 중심삼고 선생님의 고생하던 것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유엔까지도 9월말을 중심삼고 10수는 해방의 달이니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정리하려고 선포하는 거예요. 유엔이 안 들으면 차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동부대로 가 가지고 격리된 자리에서 살아야 할지 몰라요. 대이동으로 우루과이로 갈지 파라과이로 갈지 몰라요. 별동부대에요. 대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르딘에 가서 40일 교육받을 때 보따리 싸 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말했나, 안 했나? 「하셨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남극에 크릴새우를 잡으러 간 7천 톤급 배에 몇 명이나 타겠나? 박구배! 「예.」 피난 가려면 몇천 명이 탈 거라구. 「예, 많이 타죠.」 얼마나 탈 것 같아? 대이동이 벌어질지 몰라요.

남극에서 크릴새우를 잡는 것보다도 통일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대이동을 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려니 남미의 4개 국에 준비한 거예요. 본래 파라과이가 시 아이 에이(CIA; 미국중앙정보국)의 남미 기지예요. 파라과이에서 출발해서 우루과이,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이에요. 이 4개 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남미 기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지.

다 망하더라도 통일교회 패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의 일족이 떠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미련 없이 대이동하는 일도 있을지 몰라요. 세상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원

자폭탄을 썬 가지고 자멸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유엔에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필사적인 놀음을 해 가지고 금을 긋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새로운 종교유엔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망하게 됐으니 종교권이 하늘을 중심삼아 가지고 구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미면 남미 4개 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체를 연결시켜야 돼요. 4개 국이 남미 땅의 80퍼센트 이상 되는 거예요. 박구배, 그거 알아요? 「예,」 아르헨티나까지 네 개 나라를 빼면 주변 국가는 얼마 안 돼요. 80퍼센트 이상의 땅을 가졌으니 80억 인류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거기는 4모작이 가능해요. 그런 방대한 지역이 지금 폐허가 되어 가지고 소를 먹이고 있어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먹고사는 천국이 돼 있다구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가인세계를... 남미가 가인이예요. 천주교권이거든. 북미 아벨을 중심삼고 남북미가 하나되면 세계 인류를 다, 종교권이든 물질적 세계에서도 세계를 지도해서 평화의 가정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나?

제일 문제는 소련과 중국이예요. 소련과 중국이 가인 아벨과 마찬가지로요. 백인하고 유색인종이예요. 아르헨티나는 순전히 백인이고, 브라질은 유색인종이예요. 브라질은 흑인과 합한 것이고, 파라과이는 파라니 족속하고 합한 거예요. 우루과이 같은 데는 순전히 백인이예요.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한 패고,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와 한 패로 순전히 백인이예요. 우루과이의 산에 큰 십자가가 있는데 최후의 흑인 하나를 죽인 산에 십자가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섭리의 때에 큰 판도를 중심삼고... 옛날에 보게 되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원수였어요. 그것을 정리한 것이 영국이라구요. 섭리사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연결되게 돼 있지. 섭리사를 앞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해결 역사관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평화의

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의 기점과 유교사상의 삼강오륜

평화의 기점이 내 몸 마음이 하나된 데서부터 시작하지, 몸 마음이 하나 못 되면 천국 못 가요. 저나라에 가서 선생님이 명령해서 지옥을 열두 번이라도 들락날락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 이상의 훈련을 시켜 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몸뚱이를 불로 지지는 놀음을 해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채찍이 필요해요. 동양에서는 미운 자식은 먹을 것을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채찍을 주라고 했어요. 미운 자식, 먹을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서양 놈들이에요. 그건 의리도 없어요.

중국이 이렇게 많은 민족을 거느리게 된 것은 유교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 했지?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매일같이 서당에서 가르쳐 준 것을 못 하면 초달(楚撻)을 맞아요. 어제 못 했어도 초달을 맞고, 오늘 못 해도 초달 맞고, 일주일 못 하면 일주일 초달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밤을 새우면서라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많은 민족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런 중국의 사상이 뭐냐?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도지상(天道之常)이요!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은 원칙적인 하늘나라의 법이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성지강(人性之綱)이라!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말한 거라고요. 그게 유교 정신의 골자라고요. 인격적 신을 몰라요. 자연계의 현상적 사실은 알았지만 인격적인 신은 몰랐어요. 천(天)이라는 것이 막연한 천이에요. 원형이정은 천도지상! 천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인격적인 신을 몰랐어요.

‘원형이정은 천인도상(天人道常)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라!’ 이

래야 돼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람이 없어요. 인격적 신을 몰라요. 그래서 유물론과 합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삼강오륜(三綱五倫)에서 삼강이 뭐인가? 오륜이 뭐예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삼강이 뭐예요?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군위신강(君爲臣綱)입니다.」

아니까 확실히 가르쳐 주라구요. 송영석! 「예.」 나와서 가르쳐 주라구. 이제 뭐라구? 「부위자강!」 부위가 뭐야? 「아버지입니다.」 그다음에 뭐야? 「부위부강!」 남편, 그다음에? 「군위신강!」 신이 뭐야? 「임금과 신하입니다.」 충신이에요. 부자지관계로 충신의 도리를 해야 돼요. ‘가르칠 교(敎)’ 자도 부자지관계예요. 가르치는 것이 뭐냐? 충신이라면 삼강오륜 골자를 통해야 돼요.

부자유친이 어디 있어요? 친한 것 가지고 뺨골이 하나로 영겨지지 않아요. 인격적 신을 몰랐어요. 그러나 삼강오륜을 중심삼고 철저히 기준이 안 되면 채찍으로 다스렸어요. 초달! 초달을 맞아 봤어요? 선생님 글방에 다니면서 초달도 맞아 봤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첫 번이 뭐라구요? 「부위자강입니다.」 「부위자강 부위부강 군위신강입니다.」 부자지관계하고 충신이에요. 삼강오륜 중에 오륜의 첫째가 뭐냐 하면 부자유친이에요. 부자유친이 어디 있어요?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에요. 삼강오륜이 천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서삼경(四書三經)이라든가 예법이라든가 경서까지도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주역에 들어가면 팔자풀이 사주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공식과 같이 맞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영클어져 있어요. 원리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개인서부터 가정·종족·민족 전부 다예요.

백인·황인·흑인의 배경과 기원

도서에서 자란 것은 뭐냐 하면, 정배(定配) 간 거예요. 남양 같은 데 도서국가에 가서 얼마나 비참했느냐 이거예요. 쫓겨나서 정배 가서 다 갈라진 거예요. 색깔이 같은 백인끼리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예요. 백인들은 북극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예요. 사냥을 해먹고 살던 사람들이예요.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예요. 섬나라에 가면 바다에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남양에 가면 육지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고기를 잡아먹어야 되고, 북극에 가면 곰을 잡아먹고 얼음 아래의 고기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극에 사는 토기도 계절에 따라 까매진다구요. 여우도 그렇고 다 그래요. 백인이라고 자랑하지만 백인들은 사냥해 먹던 수렵 민족이구요. 황인종은 중간 지역을 중심삼고 춘하추동에 따라 천운을 따라서 농사를 짓고 살던 농경 민족이예요. 남방에서는 일하지 않고 노래하는 거예요. ‘베짱이와 개미’라는 우화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노래하고 계절에 따라서 먹을 것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살 것 걱정 안 해요. 집 걱정이 필요 없다구요. 먹을 것이 걱정 없다구요.

남미에 가게 된다면 다섯 식구면 다섯 식구가 아침이 되면 먹으러 가는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에 아침 먹을 것, 점심 먹을 것, 저녁 먹을 것이 다 있어요. 칼 하나 가지고, 젓가락 하나만 가져가게 된다면 밥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 추는 것밖에 몰랐지.

백인끼리 하면 안 돼요. 동물들도 그래요. 연어는 여기서 태어나서 커 가지고 바다에 갔다가 핑크 새먼(pink salmon)은 2년 만에 돌아와요. 핑크, 레드(red) 새먼은 2년 만에 돌아온다구요. 그다음에 실버(silver)는 4년 만에, 킹(king) 새먼은 6년 만에 돌아와요. 참(chum)

이라는 것도 실버 새면과 같이 4년 만에 돌아오는 거라구요.

고향에서 태어나서 뭐냐? 여기는 상당히 추우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에 와서 새끼 치는 것이 11월 12월, 추운 때라구요. 추운 때 까니까 벌레 같은 것이 전부 다 이동해 버려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 어머니 살코기를 뜯어먹으면서 자라 가지고 겨울을 지내고 봄을 지내서 벌레가 오는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다 먹이사슬이 되어 있는 거라구요.

동물의 생태와 생존 방법

연어들이 4천 마일, 5천 마일 오대양을 여행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상당히 빠르지. 킹 새면이 물게 되면 백 미터는 달리지? 잡아 봤어? 박구배, 그거 알지? 찌익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것이 걸려 놓으면 뒤넘이치고 이래 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실버 새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지고 둘이 오는데 어떻게 수놈이 먼저 와요. 암놈이 나중에 와서 짝패를 맺는데, 짝패를 맺기 시작하면 절대적이예요. 수놈이나 암놈이나 사촌같이 똑같았지만 짝패를 맺게 되면 수놈은 아주 호랑이같이 돼요. 등이 나오고 무서워져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수한 종자를 남기기 위해서 대이동하는 거예요. 그래, 철새들이 왜 대이동을 하느냐? 남방에 갔던 제비가 왜 북극으로 날아오느냐 이 거예요. 기러기 같은 것도 대양을 넘고 대해를 건너 가지고 여행하잖아요? 열대지방에 있던 것이 한대지방에 와서 새끼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요. 열대지방에서 부풀기만 하면 되나? 수축되어 가지고 뼈가 될 수 있어요. 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사자 같은 것도 자기가 사는 골짜기 지방이 있어

요. 사슴도 자기 영토가 있고, 곰도 영토가 있어요. 그 산중에 제일 왕초는 어디에 산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곰이면 곰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왕초하고 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아래 계급의 곰들은 싸워서 훈련해서 왕초하고 대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놀라워요. 왜? 강인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수사슴 한 마리가 암사슴 쉰 두 마리까지 새끼를 치게 할 수 있다고요. 사슴 같은 것은 배 위에서 붙는데 오랜 시간이 아니라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아는 거예요. ‘문 총재는 저것을 언제 다 알았노?’ 하는데, 자연과 더불어 살면 그것을 다 알게 돼 있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비디오를 내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영화 비디오를 보려고 하지만, 그것 다 꾸며서 만든 것인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세계의 비디오는 꾸민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사실이에요. 진지하지. 생식기관이 날갯죽지에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다 새끼를 치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전기의 무엇이 있어서 인력관계로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 새먼(salmon)이 뭐예요, 새먼? 구원을 말하는 켈베이션(salvation)하고 통일교인을 말하는 무니(moonie)예요. 켈베이션 무니가 새먼이에요. 통일교회 레버린 문의 레이스(race; 족속), 새먼 레이스가 축복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고향에 돌아가 죽어야 돼요. 에덴동산에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자나 남자나 혼자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처끼리 오라고 했어요. 여기는 부처끼리 찾아와야 의의가 있는 거예요. 왜? 새먼 세계예요. 핑크 새먼, 레드 새먼, 실버 새먼, 킹 새먼, 참! 인간이 그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부가 돼야지, 노라리판 부부들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새끼도

못 까요. 놀라운 역사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비디오를 보면, 사자 세 마리가 새끼를 열 여섯 마리인가 아홉 마리인가를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떼거리로 다녀요. 사자 암놈 떼거리가 새벽에 가서 사냥하려니까 새끼들도 층층으로 키워 가지고 사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토기사냥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혼자 다 먹이지 못하거든.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일년 반이 됐는데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왜 죽느냐 이거예요. 사자 암놈이 사냥하는 시간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장땡이지만 너희 새끼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큰놈들은 약한 짐승이 밥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나보다 약하면 내 밥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이에나를 알지요? 이놈이 동물 중에 제일 못생겼어요. (웃음) 사자가 큰사슴, 엘크(elk) 같은 것을 잡아서 벌여 놓고 잔치하려고 새끼들을 거느리고 있어도 하이에나 세 마리만 오면 그걸 남겨 놓고 도망가야 돼요. 점점 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신호만 하면 어디서든지 날아오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나 하면, 목하고 앞동반이하고 가슴이에요. 궁둥이는 꼬리 같아서 앞기에 필요하지, 앞동반이는 사자에게 지지 않아서 물게 되면 농지를 앓는 거예요.

사자도 하이에나 세 마리만 오게 된다면 벌써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자의 미끼를 빼앗아 먹는 것은 보통이지만 새끼를 잡아먹어요. 이놈의 암사자가 몇 시에 사냥 나가는 것을 다 안다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서 살면서 새끼가 몇 마리인가 알게 되면 사냥 나갈 때는 가서 뒤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대변에 알지. 개 종류니까 냄새를 맡고 알지. 이래 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놈이 언제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세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지.

개미가 토기도 잡고 그래요. 작은 것이 연합하면 큰놈도 잡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약소국가가 합하게 되면 강대국도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취해야 돼요. 곤충세계를 보면 이빨이 있나, 없나? 잠자리도 이빨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다 있지. 그냥 삼키질 못하잖아요? 이빨이 있다는 것은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주인이에요. 인간은 주인인데 절대 주인이에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투입, 그다음에 절대주인! 주인이라는 것을 인간이라고 해도 돼요. 절대주인, 괄호하고 인간, 그다음에 절대 성이에요. 절대 성, 애성 안착이에요. 절대 성 위에서 안착이에요.

세계 평화의 기지가 될 수 있는 코디악

그런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코디악이 완충지대예요. 세계 평화의 기지가 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Lasting Love Conference)를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을 전부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나? 코디악에서 할 것을 이동해서 한다는 것 말이야. 「예.」 확실히 해야 돼. 다음에는 또 여기 코디악에서 할지 몰라요.

코디악에 일부변경선(날짜변경선)이 있다구요. 하루 차이가 있어요. 경계선이 삼팔선과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련 편도 할 수 있고 미국 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련과 미국의 꼭대기에 제일 가까운 것이 일본이에요. 한국도 소련과 국경을 갖고 있고, 일본도 소련과 국경을 갖고 있어요. 국경을 중심삼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거예요. 미국을 공격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2차대전 때 하와이를 중심삼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어요. 여기에도 토치카(totschka)를 설치해 놓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선이 원수라구요. 남한 북한의 둘로 갈라져서 사탄세계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그러지요? 문 총재는 남한의 아버지예요. 두 아버지가 싸우고 있어요. 김일성은 총칼을 가지고 힘으로 하지만, 선생님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박상권도 가 있지만, 북한에 우리 호텔이 있어요. 보통강호텔이 김일성이 처음 만든 것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세계의 라디오니 무엇이든 수신할 수 있는 디시(DC; 데이터통신)를 중심삼고 거기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당들도 세계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거기에 와서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중심삼고 자동차 기술을 옮겨 주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만드는 거예요.

한국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활동

원래는 중국에 독일 기술을 연결시킨 사람이 나라구요. 벤츠니 비엠 더블유(BMW) 회사의 3백 명 가까운 과장급들과 중요요원을 한국 통일산업에 데려다가 교육했던 거예요. 한국 정부가 우리 통일산업에 허가를 내줬으면 현대니 대우니 나타나지 못해요. 자동차 공장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통일교회는 기독교문화권을 수습할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고, 공산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고, 남한에 내려온 1천만 민족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술 기준을 중심삼고 통일산업이 자동차를 만들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라구요. 1970년대에 독일의 5대 공장을 샀어요.

정주영의 동생(정인영)이 목포에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중기를 만

들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교섭하게 될 때 별의별 비용을 쓰고 다 해 가지고… 독일 대사관에 있던 서기관이라든가 사무관들을 잡아 죽여야 돼요. 거기의 제일 중요한 공장하고 3년 동안 교섭해서 기술을 이양 받기 위해서 와 보니 문 총재의 공장이예요. 이놈의 자식들! 선생님 이 그렇게까지 준비해 놨던 거예요.

소련이 동독을 중심삼고 독일 공장의 기술을 비밀리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공장을 가진 거예요. 벤츠니 비 엠 더블유(BMW)의 150미터 되는 라인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일가는 공장을 내가 인수한 거라구요. 다 하늘이 역사한 거예요.

한국의 선생님이 일본의 이케가미 같은 제일가는 큰 공장하고 합해 가지고 독일 공장을 해서 중국, 소련과 협력해서 공장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정부가 했으면 그거 다 공장 만들었을 거예요. 판다가 문제가 아니라구요. 기계 한 대에 1천만 달러짜리가 있는 거예요. 5백만 달러 이상씩 해요. 그런 집채 같은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순회하고 ‘이게 문 총재 공장이나?’ 하고, 북한 사람도 ‘이게 문 총재 공장이나?’ 하고 놀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을 열고 문 총재의 꿈무니를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반을 닦아 가지고 소련과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 나온 거라구요. 다 모르는 거지. 이놈의 자식들! 그런 세력 기반을 가졌어요. 내가 가진 기반, 기술면 사상면 종교면에서 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평양과 대구를 중심삼아 가지고 기독교문화권인데, 종교권 기반을 가지면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래서 때려잡은 거예요.

돈을 벌어서 통일산업에 다 처넣지 않았어요? 뭘 하나 시작했다면 앉아 가지고 남한테 신세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주인 하겠다고 하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30대 재벌 가운데 기계를 다루는 공장의 요원들은 통일산업의 출신

이라고요. 전략적으로 3분의 1은 매해 쫓아내 버렸어요. 월급을 안 주고 말이에요. 통일산업에서 기계를 검사한 거예요. 국가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검사하는 기계 최고의 것을 통일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산업이 해 가지고 검증 받은 것은 국가 검증 대신으로 공인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비싼 거예요.

새로운 전환시기의 칠팔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는 큰일나겠구만. 그만 하고, 8월 3일과 4일을 중심삼고 연대해서 칠팔절 기념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 전환시기에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기를 영계에 있는 5대 성인을 중심삼고 축복받은 성현 현철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우리 아들 딸 우리 후손이 여기에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기 힘들다고 해서 ‘아이구, 매번 왜 부르노?’ 하는데, 매번 부르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영계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아이구, 비용도 없고...’ 어찌고 하는데, 비용은 조업전(祖業田)을 팔아서라도 마련하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팔아서라도 여기에 오는 비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돈 대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천일국 3년을 중심삼아 가지고 8월 3일이에요. 선생님이 83세라고요. 83세, 천일국 3년 4년이 중요한 때라고 선포한 그 모든 것을 이 기간에 결정해서 깨끗이 하늘에 모든 전권을 이양해 드려야 돼요. 내가 이양해 드렸다고요. 전달 13일까지예요.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실패자가 아니에요. 다 끝내고 가게 되면 천상세계의 하나님으로부터 4대 성인 전체가 총동원되어서 환영하게 돼 있어요. 역사에 없는 큰 잔

치가 벌어질 거라구요. 선생님이 43년을 연장시켰으니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40대에 될 것인데 83세가 웬 말이에요?

자, 칠팔절 훈독해요. 잘 들으라구요. 통역하지? (《가정연합 8대 명절 및 주요 기념일》 ‘칠팔절’ 훈독)

놀라운 내용의 칠팔절 말씀

『칠팔절 — 천지부모천주안식권 선포』

그때 선포한 것이 이제 끝장이에요. 11회지? 2004년에는 12회예요. 명년까지 12회로서 청산 짓고 유엔 공약을 중심삼고 하늘나라의 유엔을 발표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선생님은 하는 거라구요. 그 원칙으로 냅다 몰 거라구요. 자!

『참아버님께서는 77세 되시는 1997년 음력 7월 7일(양력 8월 9일) 오전 7시 7분 7초에 한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중앙수련원에서 전 세계의 국가 메시아 및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식구들을 포함한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천지부모천주안식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칠팔절’이라고도 명명하시며, 통일교회의 명절 중의 명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칠팔절이에요? 「7이 여덟 개입니다.」 양력으로는 8월 9일이 된다고요. 자!

『……그날을 바라시고 얼마나 고대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표준을 중심삼고 남기신 축복의 이 책임을 만국 어디든지 한 가정도 남기지 않고 이것을 다 싸잡아 가지고 하늘의 혈연권으로 전향하여 당신을 자유롭게 모실 수 있는 자유천지로 전진, 전진, 전진하기를 비나이다.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내일 되풀이해야 돼요. 내일 훈독회 할 것을 음미하고 뜻의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원리원칙을 아는 사람으로서 보게 될 때는 놀라운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자!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아들딸이 됐더라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종적 부모, 횡적 부모가 되어 가지고 천주의 모든 소유권을 그냥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 식이 결혼식입니다.』

간단하지요? 타락 안 했으면 간단한 거예요. 핏줄을 더럽힌 것이 하늘땅을 다 더럽혀 났어요. 원수의 피로 더럽힌 거예요. 종 새끼가 왕후를 점령해 버렸어요. 자!

『……참부모라는 이름은 창세 전부터 있어 가지고 창세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됐느냐? 인간이 태어난 것이 2천5백만년이 넘어요. 성경 역사에는 뭐라고 해요? 6천년? 정신들이 돌아도 유만부동이에요. 몇천만년이 된 것입니다.』

상어라든가 큰 짐승들은 2억5천만년 잡아요. 그런데 창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을 6천년 전에 만들었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다 연결된 그런 영향권 내에서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 됐다는 거예요. 자!

『……안식의 집이 몇 단계예요? 8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종족적 메시아가 할 수 있는 160가정에서부터 185가정, 180가정에서 185가정이예요.』

185가정에서 180가정인데, 유엔 가입국가가 185개 국이기 때문에 185가정이라고 했다구요. 삼 육 십팔($3 \times 6 = 18$) 18수, 사 사 십육($4 \times 4 = 16$) 16수예요. 축복가정들은 160가정이예요. 국가 기준에서 160가정, 세계 기준에서 180가정이예요. 유엔 가입국가가 185개 국이기 때문에 185가정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180가정이예요.

사 사 십육, 삼 육 십팔로 사탄 수의 사위기대와 6수 실패한 천주가 다 들어간 거예요. 6수의 3배인 삼 육 십팔($3 \times 6 = 18$), 사 사 십육(4

×4=16), 이것은 복귀 수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18수를 둘로 나누게 되면 9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전판에서 9수가 장땡이라구요. 자!

어머니는 효자를 만들고 아버지는 나라의 충신을 만들어야

『……그다음에 남자는 뭐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복잡 다단한 일을 처리하고 정상의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승리한 패권자로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천하가 벌어질 때, 손을 들게 되면 천하의 모든 사방 팔방에서 ‘우리 만왕의 왕은 영원 하늘의 행복이 길이 길이 연속될지어다! 아멘!’ 하고 만세를 불러야 돼요. 거기에는 ‘오케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효자를 만들어야 되고, 아버지는 나라의 충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 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구요. 어머니는 효자가 되게끔 해서 아들딸을 품고 아버지 앞에 가서 굴복해야 돼요. 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아버지는 나랏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백성을 품고 나랏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의 아들딸을 충신의 갈 길로서 안내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버지는 충신의 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라구요.

지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아버지 앞에 절대신 양-절대사랑-절대복종하고 절대주인이 될 수 있게끔, 절대인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안전한 절대애성, 절대 성을 중심삼고 할아버지도 하나되고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되고 그다음에 자기 부부도 하나되고 아들딸까지 하나되어서 4대권까지, 4차 아담권 부부까지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그것을 무엇 중심삼고? 생식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식기가 파괴

왜든 집이 똥가당똥가당, 어머니 아버지가 깨져도 똥가당똥가당, 자기 부처끼리 그래도 똥가당똥가당, 4차 아담권을 중심삼고 그래도 나라가 똥가당똥가당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프리 섹스와 마찬가지로 호모와 같이 되어서 완전히 폐허가 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갈 때 잔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정도 잔치를 해야 되고, 종족도 잔치를 해야 되고, 민족도 잔치를 해야 되고, 국가도 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에서 종친연합으로, 그다음에 국가시대의 국가연합을 중심삼고 세계연합으로 직통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데는 방해가 없는 때에 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한국에서 전부 다 했던 것을 실천을 못 했다고요. 통반격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메우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돼요. 잔치가 뭐예요? 축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잘 먹고 노래하고 춤춰 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해방해 주는 것이 잔치라고요. 통반격과는 축복완료예요. 대한민국, 이북까지도, 김 씨면 이북의 김 씨는 가인 김 씨가 되어 있잖아요? 김일성 김 씨 말이에요. 이남하고 갈라져 있지요? 문 씨도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것을 가인 아벨로 묶어 버려야 된다고요. 자!

사탄의 인연, 혈통을 완전히 끊어 버려야

『……천천만만년을 하나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효녀 효자를 못 맞은 부부, 못 맞은 하나님의 한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고, 그 마음의 뿌리까지 우리 부부로 말미암아 씻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원히 나와 더 붙어 살 수 있고, 하나님 자체가 맹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실 수 있는 터를 만들겠다고 해야 돼요.』

자, 그런 부부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다들 부처

끼리 왔으니 손 들어 봐요. 왜 손 안 들어요?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음) 되지는 않았나? 그러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손 들어 봐요.

몸뚱이를 때려잡아야 돼요. 사탄의 피가 들어와서 억천만세 동안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로 고문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아들딸을, 원수의 자식을 자기 직계 아들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는 없다가요. 하나님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 손으로 걷는 것, 딱 물구나무와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놓아야 돼요.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서 완성기에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알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중심삼아 가지고 순응하겠다고 하면 본연의 인간 가치의 기준, 면목과 체면을 세울 수 없어요. 사탄의 혈통과 관계, 인연되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랑의 기관이 문제예요. 타락한 세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식기를 불살라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생식기를 불살라 버려야 되고, 자기 부부의 생식기를 불살라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딸의 생식기를 불살라 버릴 수 있어 가지고 침 빨고 돌아서야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나라에 가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가요. 이게 무슨 놀음놀이가 아니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수의 핏줄을 이어놓은 것을 어떻게 맑히겠나? 광물세계로부터 모든 전부를 수놈 암놈 쌍쌍제도로 만들어 놔던 것을 원수 앞에 빼앗겼으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재창조가 몇백 배 힘든 놀음이에요. 창조의 몇백 배 힘든 놀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보게 된다면, 그 생식기를 튜 침을 빨어 치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인이건 무엇이든. 또 여자들은 남자들을 대해서 그 생식기에 침을 빨어서 뱉어 치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런 혁명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3대예요. 3대만이 아니라 수 천 대지. 미인이 원수고 미남이 원수예요. 알겠나? 「예.」

내일 이것을 되풀이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때 봐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 줄 거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보류했던 얘기라고요.

자, 얼마나 남았나? 「다섯 페이지 남았습니다.」 그 다섯 페이지 읽으라고.

아벨유엔을 발표하는 때를 맞아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의 날입니다. 천지부모, 하나님은 내적인 부모요, 외적인 부모는 참부모입니다. 이것이 하나되어야 돼요.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한 것을 이루어서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에요, 8, 9, 10, 3수를 중심삼고. 10월은 해방의 달이에요. 유엔 총회가 9월에 열려서 중심을 넘어설 수 있는데, 10월에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9수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유엔 총회도 9월에 열려요? 사탄세계라고요. 9수예요.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을 터뜨려 가지고 10수까지 해방의 고개를 넘어 가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유엔 공략의 최후 전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진 명령을 다짐하기 위한 칠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83세에서 84세로 넘어가는 천일국 4년에 새로운 아벨유엔권을 발표할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참사랑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는 그 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식기예요. 이것이 제일 천대받았

어요. 천지가 뒤집어져 가지고 제일 쌍것으로 취급했지만, 복귀된 천하에서는 이것이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요, 양심의 본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라도 안 생겨나고, 이상 세계의 발전도, 기원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3대가 없으면 전후관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효율이! 「예.」 며칠에 얘기해 줬나? 이번에 얘기해 줬다구. 「예.」 3대가 없으면 전후관계가 안 생겨요. 상하좌우는 아담을 중심삼고 하나님으로 하나될 수 있지만, 전후라는 것은 아들딸을 중심삼고 3대가 아니면 안 생겨난다 이거예요. 전후가 생겨야 십자 가운데 점을 중심삼고 구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불가피한 사실이에요.

열매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두 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계의 세계요 어머니 아버지는 육계의 세계로 두 세계의 결실의 열매가 아들딸이니만큼 비로소 지상에서 아담을 창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부도 아담 해와와 같은 재창조의 터전을 중심삼고 3대의 축복가정이 새롭게 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해와 한 쌍을 지었지만 아담 해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구요. 아들딸을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심어 가지고 열매가 몇십 배, 몇백 배로 번식한다는 거지. 자! (끝까지 혼독) *

제7회 칠팔절 기념식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코디악에서 천일국 3년 8월 4일 제7회 칠팔절 행사를 거행하고 있사오니, 하늘과 땅이 주시하는 가운데서 축복가정들이 일치가 되시어 하나님 섭리의 새로운 주권을 가지고 하늘 전권이 선두에 서서 이 세상을 치리할 수 있는, 천주부모 참부모의 평화통일 해방 정착시대를 선포한 기념일에 참석한 모든 대표들이 일심일체일념을 가지고 출발하여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이 식전을 받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대표 가정들, 그 가외 전 세계에 있는 축복가정들이 일심일체일념을 가지고 부모님이 거행하는 식전에 동참할 수 있는 혜택을 영계와 더불어 같이 허락하시어, 엄숙히 봉헌하는 영광의 이 식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뢰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경배, 가정맹세 제창, 대표 보고기도, 축하 케이크 커팅, 억만세삼창)

<말 씬> (1997년 음력 7월 7일(양력 8월 9일)에 있는 제1회 칠팔절 기념식 말씀 훈독)

2003년 8월 4일(月, 음 7월7일), 코디악

『……‘꿈 가운데서부터 세상 천하통일의 이념 동산의 꽃과 같이, 등대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여왕의 자세가 나타날 것이다. 어머니는 그 여왕 중의 여왕이다! 아멘! 천하의 주인이 나타났나이다! 내 소원을 완성 필!’ 그거라구요.』

하나님이 체를 써야 창조이상이 완성돼

왜 하나님이 체를 써야 되느냐? 아들딸이 체에서 태어나요, 체. 실체 아담 해외의 몸을 빌려 태어나니만큼 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도 체를 입어야만 아들딸들을 대해 이 세계에서나 저 세계에서나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체를 못 썼어요. 체를 못 썼기 때문에 창조이상의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담 해외를 만든 것은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체를 가진 가정과 수많은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체를 써 가지고 저나라에 갔으니 아버지 될 수 있는 그분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세계의 체를 대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어서 비로소 아버지로 태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 가지고 체의 아들딸을 낳아 체의 이 세상과 무형의 세상인 영계에 가서 같이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기를 다시 찾아가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체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독교에서는 몰라요. 재림할 때 허깨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큰일이라는 거지요. 체를 입을 수 없어요. 체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를 거쳐 결혼식을 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여

머니 참아버지의 핏줄과 연결시켜 가지고 자식이 나오는 거라구요. 체를 쓰기 위해서는 비로소 가정 정착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1대라면 아담 해와는 2대, 3대가 연결돼야 돼요.

3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려면 불가피적으로 체가 필요해요. 무형에서 체를 통해 가지고, 실체 부모의 참사랑을 중심삼은 영육이 합한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를 못 썼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사실이라구요.

그래,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참부모가 와서 체를 써 가지고 어린양잔치를 하여 비로소 완성한 참사랑을 중심삼은 1대, 2대 아담, 3대 아들딸을 낳은 그런 부모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는 가정적 정착의 기반을 이룰 수 없어요. 3대를 거쳐야만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를 입기 위해서는 3대까지 거쳐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그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자, 계속하라구.

참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가 효자를 길러야

『그래, 집에서는 여자가 왕이에요. 아기들을 거느리고, 가정 만사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왕 중의 왕이 자기 아내예요. 그다음에 남자는 뭐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복잡다단한 일을 처리하고 정상의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승리한 패권자로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참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가정에서 효자를 길러야 돼요. 효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와 효자가 하나되어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아버지는 나라에 대한 충신의 도리를 갖출 수 있게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 된 아들과 효자 된 딸을 품은

그 어머니는 충신 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불가피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신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 가정은 성인의 도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되어 가지고 성인의 도리를 해야 돼요. 성인이라는 것은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를 사랑한 부모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신의 가정은 성인의 가정이 되어 가지고 충신의 가정을 리드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가서는 이상적 성인의 가정이 되고 이상적 충신의 가정, 이상적 효자의 가정, 소생·장성·완성의 과정을 거쳐 성자의 가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안팎의 영육이 완성한 가정적 기틀의 자리에서 체를 입은, 영육이 일체 될 수 있는 아들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동위의 자리에서 가지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채림하지 않고는 상속권을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불가피적으로 체를 입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실체를 써야 아들딸이 천국에 따라 들어갈 수 있어

『……천지의 모든 전부가 생사지권을 넘어서 파괴의 일로로, 지옥행으로, 파멸될 길로 가는데, 간섭할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을 수 없는 자리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타락한 아들딸이 영계에 가게 되면 체 있는 아버지, 부모가 없다구요. 그러니 재차 지상을 통해 탕감복귀해 가지고 영계에 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체를 입은 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부모가 안 돼 있다구요. 왜? 참사랑과 참생명 참혈통적 3대권을 중심한 가정 정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정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형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채로, 불꽃 놀이의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체가 없어요. 상현 씨의 '영계의 실상' 보고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바른 쪽에 부모님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표한 내용을 하고 있지만 왼쪽에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7월 13일을 중심삼고 칠일절, 칠팔절, 칠구절, 칠십절을 선포 했다고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복귀섭리의 모든 것이 완결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육을 중심삼고 부모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영계에 가면 부모님이 참부모로 나타나는데, 어머니가 모든 전부를 탕감 필해 가지고 해방권을 못 이뤘기 때문에, 천주부모 천지 안식권 선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못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귀도상에 나와 가지고 가정시대로부터 쪽 해 가지고 세계 해방시대까지 갔지만 선생님만 나타났지 어머니는 안 나타났어요.

이번에 탕감시대 복귀를 통해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육을 중심삼은 일체적 창조이상이 지상과 천상에서 완결돼 가지고 부모의 성혼식과 입적식이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세계도 성혼식과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섭리를 두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창조이상이 완결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영적으로 하게 된다면 큰일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부터 어머니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흥진 군이 영계가 얼마만큼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고해 올 거라고요.

체를 써 가지고 저나라에서 부모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부모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마음적 아버지가 되고 몸적 아버지는 아담 해와가 되어 하나님의 몸을 실체를 써 가지고 그 형태로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아들딸이 전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재촉
복받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거라구요. 원리원칙이 그렇게 되
어 있다구요.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체
를 써야 돼요. 자, 계속하라구.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 고독 단신
의 그 입장을 누가 알아요? 재창조할 수 없는 것에 지금까지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천만년 동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신세를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한 많은 고비와 명을 남긴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오
늘날까지 그런 것을, 선생님이 그 전통을 알았기에 잊어버릴 수 없는
이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총을 아무리 쏘더라도 타깃이 맞지 않아요. 타깃이 없다구요, 타락
한 세계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소모전이에요, 수천년 동안. 그러
니 불쌍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가 누구냐 하면 우리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입니다. 자!

3대를 갖지 못하면 천국이 성립 안 돼

『……구약시대에 실패했고 신약시대에 실패했고 성약시대에도 실패
했어요. 선생님 일대의 40년 광야노정이라는 것은 비통한 것입니다.
아담가정 1대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국가적
기준을 성사해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지 못한 슬픔 이상의 슬픔의 자리
라는 거예요.』

개인의 폼(form), 가정의 폼, 체를 써야 돼요. 종족민족국가
세계·천주적 폼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적 축복가정의 폼을 갖
출 수 있는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참부모가 될 텐
데,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핍이에요, 핍. 만유의 존재가 쌍

쌍제도로 된 모든 전부가 실제 완성을 위한 부모의 자리를 결정하려고 하던 것인데, 그 실제완성을 못 함으로 모든 전부가 폐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비로소 개인시대로부터 만물시대로부터 다시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재차 빚어 만든 실체권 중심삼은 광물세계, 식물세계, 동물세계, 인간세계 영·육계가 사탄세계를 능가할 수 있는 승리의 패권 자리에 서서 참부모 절대 기반에서부터 참부모 가정이 정착해 가지고 그 아들딸을 중심삼고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3대가 있어야 돼요. 3대가 안 되면 가정이 안 돼요. 알겠어요?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요. 가정이 들어가는데 3대를 연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하관계, 좌우관계가 평면은 되지만 입체가 안 된다고, 전후관계는 자녀를 두고 말한다고 얘기해 준 거라고요. 자녀가 없으면 가정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부처끼리면 자기들이 가정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무슨 가정이에요? 그건 일대로 다 끝나는 거예요. 홀아비, 과부가 왜 불쌍하냐 하면 자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딸을 해 가지고 보충해서 축복시켜야 돼요. 장정순도 이제 참부모를 통해 가지고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계대를 이어 영계에 간 계열, 상하관계를 이어 별동으로 접붙여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재림주가 구름 타고 오면 큰일난다는 거예요. 폼(form)이 없어요, 폼. 저나라에 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다고요. 실체를 중심삼고 땅 위에서 사랑을 중심삼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몸뚱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몸뚱이로부터 어머니의 젖을 분할해 먹고 아버지의 피살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아들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라의 주인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다 가정을 완성해 가지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 5단계를 넘어서야만 사탄세계의 국가 기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준을 못 넘어서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권은 국가 기준을 넘어서는 거라구요. 성인이 그래요. 성인의 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 아니고 천국 들어가기 위한 대합실에 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구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위한 실체를 쓰고 영육 일체가 되어서 영적 참사랑, 육적 참사랑을 중심삼고, 두 세계의 참사랑을 중심삼아 가지고 두 세계의 사랑, 남자 여자의 사랑을 가지고 핏줄을 연결해 두 세계의 실체적 사랑의 부모를 통해서 실체로 태어나는 것이 제3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대를 갖지 못하면 천국이 성립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아들딸이 없으면 가정이 못 된다구요. 일대예요, 일대. 일대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둘이 잘산다 하더라도 일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불쌍한 것이 고아이고 불쌍한 것이 과부, 홀아비라는 거지요.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된다구요. 없어지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실체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모호하게 해요. 뭐 적당히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체 자기 씨로서 거두어야 된다구요. 거두어 가지고 가야 돼요.

실체권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투입해야

그러니 참부모가 실체를 써 가지고 천국 들어가니만큼 여러분도 실체 자체가 영적 완성과 실체 완성, 두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은 열매로

서 거뒀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왕이라면 부모는 지상 세계의 왕이니 두 세계의 왕이 중횡으로 합한 거예요. 그 두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딸이 없게 되면 하나님과 참부모 가정이 나타나지 않는 다구요. 알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참부모를 중심삼은 가정적 기반이 나옴으로 그것을 중심삼고 여러분 가정 모델이 부모가 될 것인데, 부모의 가정 모델과 완전히 자기도 상대적 참사랑을 중심삼고 축복받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피살을 연결시킬 수 있는 3대 아들딸을 중심삼고 선생님 가정과 하나돼야 들어간다고요. 이걸 형님의 가정이고 여러분 가정은 동생의 가정과 마찬가지로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 천대 만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아버지가 형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지관계로 돼 있는 거예요.

위가 하나님이니 형제와 마찬가지로요. 두 형제가 하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상하가 하나되고 좌우가 하나되고 전후가 하나되어 가지고 가정적 정착이 벌어져요. 가정을 중심삼고 완성한 그 기준이 안 되면 천국에 옮겨 갈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은 실체권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투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물세계에서부터 식물세계로부터 동물세계로부터 인간세계, 영계까지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아담 해와를 창조하던 그 놀음을 하려니 광물세계 해방, 식물세계 해방, 동물세계 해방, 인간세계 해방, 천상세계 해방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잘못했으니 부모가 전부 다 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체를 잃어버렸던 것을 체를 입는 데는 하나님이 내적이요, 외적은 몸과 마음이 일체 될 수 있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일심·일체·일념·일행, 그다음에 동성(動性)을 중심삼고 일화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사랑의 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실체의 아들딸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겠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라구요. 속성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하지만 영원한 그때에서 하나님은 뼈와 살, 가죽만 씌워져 있어요.

완성한 실체 가정이 아니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정적인 정성(靜性) 시대예요. 정적인 성이 하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뼈와 가죽과 같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고요한 가운데 기쁨을 느끼느냐 하면 성적으로 하나돼 있다는 거예요. 개인시대, 가정시대 주고받으면서 이게 수평이 되니까 여기서 준 것은 반사되니까 여기서 커서 올라가 가지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90도 각도로 들어왔으니 90각도로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체를 입기 위하여니 뼈와 가죽밖에 없는데 여기에 오장육부를 갖다 박는 거예요. 폐장, 심장, 위장, 간장, 췌장, 이런 것이 동물하고 딱 마찬가지로요. 곤충도 다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균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체를 입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니 모든 전부가 종적 횡적으로, 입체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구조적 내용을 충당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뼈와 살이 붙어 있던 여기에 갖다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공중에 달려 있어요. 폐도 잘라 보면 그렇고 항문까지 몽땅 공중에 다 있다는 거예요. 동물 같은 것을 잡아 봐도 그렇지요? 그 폐장 심장이 있어야 동물세계의 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몽땅 달아놓은 거예요.

절대·유일·불변·영원하신 그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일삼일

체 되기 위한, 일심일체의 중간체가 뭐냐 하면 오장육부라구요. 공중에 뺨 뚫어진 데 맞추기 위한 것이 오장육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적인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 그냥 그대로,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인데 격위에서 남성격이니까 그걸 몽땅 뽑아다가 아담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아담도 뼈와 살과 같이 거기에 뭐냐 하면 일체일심일념일핵을 중심삼아 가지고 오장육부를 갖다 박아 넣었다는 거예요. 넣어 가지고 아담이 그렇게 됐으니까 해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는데, 갈빗대는 오장육부를 보관할 수 있는 집이에요. 갈빗대 열두 개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창조이상의 남성격 주체를 기름 짠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것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태어나 가지고 아담을 중심삼고 빼서 지어 가지고 자라 나가는 거예요.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국가 기준까지 자랄 수 있기 위해서 사랑을 알고 절대남자 절대여자가 필요한데, 이게 절대주인이예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절대투입하여 절대주인이 되는데, 절대주인이 뭐냐 하면 아담 해와요, 절대주인은 참사랑, ‘사랑 애(愛)’자 애성(愛性)이에요. 사랑의 기관을 통해서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일화, 모든 것이 통해서 통일세계가 되는 거라구요. 이론적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체를 이루지 못하면 만사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체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바라던, 모든 뼈와 살이 하나되고 모든 오장육부가 하나된 그 남자 여자가 완전히 하나돼야 돼요, 몸과 마음이. 그러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완성한 실체 가정이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체를 중심삼은 실체 가정이 나오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부모도 예수가 못 이루었던 것을 다시 와서 땀질해 접붙여 가지고, 선생님이 광야시대에 정착 못 하고 나라를 못 찾았을 때까지는 혼

자 있었지만, 어머니를 중심삼아 가지고 탕감해서 비준을 세워 가지고 딱 창조이상 완결과 더불어, 탕감복귀시대를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비로소 아버님과 어머니 실체가 완전히 태어나 가지고, 그 실체를 중심삼은 그 모델형의 사랑과 생명의 씨를 받은 실체적 부부가 되어 3대를 이룬 그 가정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축복해 줬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실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싸움한다고... 축복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장정순도 그렇지. 32년? 32년 전에 축복해 줬지만, 축복해 주면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체를 중심삼은 생활에 있어서 사랑을 중심삼고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가지고 아들딸을 낳아서 길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못 했으니 부모님이 닦아 준 것인데, 영계의 축복해 준 가정들을 갖다 땀 때워 가지고 비로소 부모님의 동생의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라구요. 같이 못 들어가요. 횡적으로 부부가 들어가게 돼 있지, 일렬로 못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선생님이 보고 싶고 그렇더라도 선생님이 마음대로 불러다 이래라 저래라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날을 선포한 그때부터는 자기들을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정순이는 예수의 부인, 선문대 총장 이경준은 공자의 부인, 최원복 씨는 석가의 부인, 그다음에 이정옥은 마호메트의 부인, 강현실은 성 어거스틴의 부인으로 축복해 주었는데 이래라 저래라 못 해요. 자기들이 실체 부모를 중심삼고 아들딸 실체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모르고 있어요. 막연해요. 주동문도 확실히 알겠

나? 「예,」 허깨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를 복귀해서 선생님 자신이 어머니를 표창한 거예요. 또 통일교회가 표창해야 되고, 창조주가 표창해 줘야 된 다구요. ‘우리 어머니다! 아버지와 같다!’ 이래야 돼요.

상헌 씨의 ‘영계의 실상’에 있지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불꽃같이 나타나는데, 그 오른 편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말하게 될 때는 그 말이 불꽃같이 되어 가지고 영계에 감동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바른 쪽에 있지만 왼쪽에 어머니가 없어요. 왼쪽에 어머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칠일절, 칠팔절, 칠구절, 칠십절을 중심삼고 해방의 시대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7·10수를 중심삼아 가지고 탕감복귀시대 철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나타나던 형상을 집어치우고 실체 아버지의 상대와 같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실체적 지상천상천국이 되느니라! 알겠어요?

실체 부모가 하늘나라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일삼일체, 완전한 여자하고 완전한 남자가 되어 일삼일체가 되고 일념이 하나되어 가지고 아들딸을 중심삼고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완성돼요. 가정을 완성하지 못한 그 가정은 저나라에 가서 허깨비니까 허깨비 가정은 못 들어가니만큼 모진 수욕을 중심삼고 360도를 거쳐 나가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메워야 될 그런 기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겠나, 주동문? 「예,」

실체로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싸움하고 뭐 어떻고 이혼하고 장가 한 번 더 가면 좋겠다고? 이놈의 자식들, 통일교회 축복을 두 번씩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싫다고 해서 갈라져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축복 다시 받겠다고 했댔자 통과하지 않아요. 이 원칙이 완연히 남는 거예요. 그 원칙에 안 되게 될 때는 지상에 와 가지고 천년만년 축복받은 그대로 순종한 몇십 배, 몇백 배의 수난 과

정을 거치지 않으면 축복을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메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심정적 기반에 있어서.

선생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날을 책정한 후에는 여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에게 맡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 그거예요. 울고불고 전부 다... 얼마나 끝났어? 내가 얘기를 한마디해 줘야 되겠어요.

영육 완성의 실체 부모라야 참사랑 참생명의 완전한 씨가 태어나

알겠어요? 실체! 실체권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찾아 나오는데, 역사적인 하나님의 수고의 길을 부모님이 개척해 가지고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참생명·참실체의 아들딸이 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변함 없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절대주인·절대인간 중심삼고 절대사랑의 기관이 하나된 그 자리에 있어서 태어난 아들딸이어야 일화가 되고, 일화가 돼야 통일되는 거예요. 양창식, 알겠어? 「예.」

어편네를 차고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남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축복받았어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절대적이예요. 결혼하려면 ‘하나님의 무형의 성상도 내 마음이 닮았고 실체 성상도 닮았습니다. 이러니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그래야 되는데, 몸 마음이 싸우잖아요? 그 동지를 해소해야 돼요. 선생님이 몸 마음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나? 일심일체·일념의 주인의 자리지요. 참부모다 이거예요.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실체. 실체를 통하지 않고는 아들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실체 부모의 영육 완성의 기반을 통하지 않고는 참사랑 참생명의 완전한 씨가 태어날 수 없으니, 사탄세계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 원리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축복가정 생활이예요. 오관을 중심삼고 제멋대로는 다르고 코 다르고 입 다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축복이 얼마나

무서워요! 선생님도 그래요. 어머니를 모셔 가지고 어린 어머니를 키워 나오면서 거기에 같이 놀아났으면 벌써 깨져 나갔어요. 어머니 하는 대로 다 했다면 다 깨져 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가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려 가지고 3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면 3단계 앞서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해 줘요. 하나님이 투입하고 잊어버리면서 투입해 줘야 실체가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집, 해 봐요. 「집!」 천주(天宙)가 집 아니에요? 하나의 집이에요. 실체완성, 해 봐요. 실체완성! 「실체완성!」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걸 다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던 여편네, 남편네 모양으로 살고 별동부대를 중심삼고 뭐 통일교회 선생님... 선생님을 못 따라간다구요. 이번에 탕감시대 철회까지 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 것이 없어요. 철회예요. 이번에 7월 13일 철회한 거예요.

주동문은 그거 모르지? 탕감복귀시대 철회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전부 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실체 안 가진 사람들은 법적으로 걸린다 이거예요. 아담 해와 타락한 핏줄의 흠이 있는 것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 하기 위해서는 통곡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매일같이 ‘이놈의 자식, 몸뚱이가 살아 있구만.’ 하고 때려잡아야 돼요. 이놈의 뉘시깔, 코, 입, 귀, 십관이 전부 다, 뼈와 살이 하나 안 돼 있어요. 뼈와 살이 90각도로 주고받아야 커 가는 거예요. 90도 수직으로 가니까 사랑을 수직으로 주고받으니 크는 거라구요.

정성(靜性), 동성(動性), 절대애성(絕對愛性)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했느냐? 하나님도 성상과 형상이 사랑을 중심으로 입을 맞추고 몸뚱이가 하나되어 가지고 생식기도 하나되

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시대예요, 정성. ‘고요 정(靜)’ 자 정성(靜性)시대예요. 충격을 못 느껴요. 그것이 동성(動性)시대, 일삼일체·일념·일핵을 중심삼아 가지고 동(動), 핵이니까 주체 대상을 옮겨가서 창조했으니 핵이 되어 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적 주체로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성상 형상의 중화적 존재와 남성적 주체 된 그것을 아담에게 씌워 가지고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몽땅 집어넣는 거예요.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이 동(動)해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가운데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데 거기에, 남자가 결혼식을 하고 생식기가 하나되는 거기에 중간에 뿌리와 싹이 심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날 첫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중형을 중심삼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가던 것이 그냥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여기 들어와 합하게 될 때, 중을 중심삼고 이것이 수평이 돼야 씨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뿌리와 줄기와 순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소생·장성·완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평이 안 되어 가지고는 안 돼요. 수평이 안 되어 가지고는 뿌리와 순, 줄기가 될 수 있는 씨가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신앙이에요. 절대사랑이에요. 절대 위하는 자리가 돼야만 절대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중심이, 주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대인간, 거기서 비로소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마음, 절대 하나님, 절대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라구요.

육신생활을 제멋대로 해 가지고는 안 돼요. 밤이나 낮이나 남자는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자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주장을 해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이제 내갈려요. 선생님도 그래요. 언제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이러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섭섭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는 자기대로 가기 때문에 각도가 달라져요. 저

꼭대기 천상에 가서 갈라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탕감시대에 하나님 완성만이 아니고 성자 완성시대, 성인 완성시대 다시 탕감해야 돼요.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 원칙이 변할 수 없다고요.

영계의 영적 눈과 실체 눈, 십관이 하나됐느냐 이거예요. 아담 해와 들썩이예요, 하나씩이예요? 완전히 하나 하나예요. 절대적으로 수평이 돼야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씨 되는 뿌리가 생기고, 순이 되고 크는 거예요. 이게 커야 돼요. 이게 커야 된다고요.

그러려니까 가정의 아들딸이 있어야 크지요. 아담 해와 둘이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벌어져야, 종적인 씨가 돼야만 뿌리가 생기고, 순이 생기고, 뿌리와 순, 줄기가 생겨 가지고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크면 이건 자동적으로 몸도 커 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들딸이 커 나가서 낳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길러 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요즘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타락한 세계에서 그래요. 부모를 이길 수 있는 자식이 없어요.

보라구요. 자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태어난 주동문이면 주동문이 아버지 어머니의 정자 난자가 합할 때에 정자는 99.99999가 돼요. 난자는 한 점이에요, 하나.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 가서 자궁에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 99.99999 이래 가지고 어머니의 난자와 하나돼 가지고 100이 됐는데 거기에 자기라는 개념은 없다고요. 남는 것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밖에 없어요. 그걸 중요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어머니 아버지를 중요시하고 자기를 길러 준 은덕을 중요시해서 절대복종 절대사랑 절대신앙을 표준해 가야 됩니다. 절대신앙이 있는 데는 절대사랑, 절대사랑이 있는 데는 절대투입이 벌어져요. 절대투입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적 주인이 생겨나 가지고 아담 해와가 절대사랑의 성, 절대애성(絕對愛性)에 하나되어 가지고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데 있어서

비로소 3대가 주고받고 좌우도 일화가 되는 거예요. 절대성의 자리의 안식권을 거치지 않으면 일화가 없어요. 통일교회는 일화를 중요시해요. 일화 축구가 이름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원리원칙에 흘러나온 말들이라는 거지요.

실체 통과와 실체 정착

실체 통과! 해 봐요. 「실체 통과!」 남자나 여자나 정(正)의 남자, 여자도 정(正)의 여자가 돼야 돼요. ‘바를 정(正)’이에요. ‘머무를 지(止)’ 위에 뚜껑(一)을 덮었어요. 모든 것이 오케이(OK)다 이거예요. ‘머무를 지’ 위에 뚜껑, 하나님께서 수평을 댔으니 이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예요. 이게 하나되어서 그렇지, 가운데 오장육부를 중심으로 채워 가지고 정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출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삼일체일념을 중심삼고, 절대사랑·유일사랑·불변·영원한 사랑을 중심삼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돼 가지고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성성상의 중화적 뼈와 살이 된 거기에 실체권을 집어넣어 옮겨 가지고 아담을 지은 거예요, 아담. 아담의 폐장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위장으로부터 간장으로부터 전부 다 창고 기관으로 돼 있는데, 동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눈이 있지요? 오관이 있나, 없나? 폐나 무엇이나 전부 다 있어요. 균의 세계나 아무리 작은 곤충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닮았다구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요소를 잡아 먹어야 소화가 되고, 세포에 가서 크게 되어 있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구별이라는 것이, 먹이사슬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실체권 참부모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동기로부터 실체가 사랑으로 하나되어 가지고 실체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계의 영적 하나님과 실체 하나님이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된

다구요. 재림해서 몸뚱이를 써 가지고 다시 접붙여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통일교회 축복가정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실체권이예요, 실체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고생한 것입니다. 개인 실체권, 가정 실체권, 종족 실체권... 사탄세계를 대표한 개인·가정·종족·민족... 8단계 모든 전부가 들이 반박했지만 깨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깨져 나갔지.

그들은 자기를 중심삼고, 자아 자각권을 중심삼고 나왔지만 선생님은 아니예요. 타아 자각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위해서 투입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타락세계의 모든 인연을 전부 벗어 버리고 완전한 순결 바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체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체를 정착하려니 개인적인 체 정착, 가정적인 체 정착, 종족민족..., 8단계의 체를 정착해 가지고, 성자의 가정을 중심삼은 하나님 닮았던 영육 실체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참부모의 가정적 형태를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창조, 하나님 대신 복중에 커 나가던 모든 전부를 재현해 가지고, 아들딸을 복중에서부터 키우면서 공기시대로부터 결혼시대까지 다시 체험해 가지고, 하나님 대신 상속적인 심정권을 이어받아 체를 같이 완성시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가 있어요? 주동문!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36가정은 지금 문턱에 들어가 있는데 전부 데리고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다 걸렸어요. 이번에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묶어 줄 수 있어요. 가정들이 양자를 택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영원히 안 될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영계에 가 가지고 싸우면 큰일나잖아요?

영계에 들어가 싸울 수 있는, 몸 마음이 갈라진 자체를 품고 통일교회 교인들이 선생님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불경이 없고 불효가 없고

불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죽을 사지에 가더라도 내가 실수를 안 했어요.

실체권이 부활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최후의 십자가 자리에 들어갈 때 ‘아바 아바 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어요. 그랬나, 안 그랬나? 실체, 실체를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필요해요. 사탄 사랑으로 죽을 사지에 갔으니 하늘 사랑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려니 몸뚱이를 부정해야 돼요. 사망과 부활이 합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이번에 부처끼리 오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변소에 가더라도 손잡고 가고 싶고 말이에요, 다 그래야 돼요. 24시간 어디나 같이 위해서 살겠다고 해야 된다고요. 평계하게 된다면 실체권 완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생명의 인연을 중심삼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불변, 영원한 천리의 궤도니만큼 그 궤도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응? 「없다!」 ‘없다’예요.

실체권, 이제부터 그게 문제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처끼리를 중심삼고 실체권이 되기 전에 소유권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엔(UN)을 중심삼고 선생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몽땅 소유권을 완전 부정할 수 있는 자리로 넘어가서 저쪽에서 실체권을 축복해 줘야 돼요. 이쪽은 소유권을 허락 못 하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 부부가 집을 팔아 가지고 절반을 감추다가 당장에 장사 치른 것을 알아야요? 이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는 못 넘어가요. 유엔을 중심한 법을 만들어 재차 넘겨 가지고 살려 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요. 실체권이 불가능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지상 천지에, 하나님을 땅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영계도 끌어 내려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 육적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축복한 가정도 같은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환경적인 여건을 코치하라는 거지요. 재차 코치하는 거예요. 영계의 천사권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저 나라에 가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거라고요. 알겠나, 이 쌍것들? 요사스런 해와 패들!

실체권이 부활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타락 안 했으면 실체권을 지상에서 이루었을 거예요. 실체권 소유권을 허락한 것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유엔을 못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고생해야 돼요. 아벨유엔을 만들어 이것들 대신 국경을 넘어가서 싸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왕좌에 못 올라간다고요. 알싸, 모를싸? 「알싸!」

실체권을 완성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없어요. 있나, 없나? 주동문! 「없습니다.» 없어요! 문 총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엔을 중심삼아 가지고 완전히 탕감복귀 해탈해야 돼요. 유엔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옥도 보낼 수 있고 말이에요. 가정 축복한 것을 내가 지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쪽에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잊을 수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아들딸이 본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처끼리 잘살아라

그것 마저 끝내자. 원래는 요전에 효율이, 내가… 「5월 2일, 4일, 10일, 17일, 22일,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무슨 주의? 두익주의? 「두익사상하고…」 두익사상하고 하나님주의, 그걸 철해 놓으라고 했다구.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읽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실체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두 세계가 합해야 된다는 내용을 오늘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다 부처끼리 오라고 한 거예요, 부처끼리.

자기가 어디 가더라도 세밀히 일기를 기록하고 살리는 거예요. 숨기고 뭐 적당히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아들딸이 본 받아, 쌍것들아! 본 받는다고.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거짓말한 것을 모르나?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거짓말한 것을 모르나? 알겠어요?

실체권을 통과한 부부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몰라요. 허깨비 된 주님이 와 가지고 무슨 뭐 영적 세계에 있어서 비상천 해 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워? 미친 것들! 창조이상을 모르는 미친 것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나? 실체권! 「실체권!」 실체권 부모! 지상에서도 실체가 되고 천상에서도 실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닮을 수 있는 실체권을 대신할 수 있어야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아들딸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들딸, 3대를 못 찾았다가는... 옛그제 3대라는 말을 할 때, 중형을 중심삼고 셋째인 아들딸에 있어서 구형이 되지, 하나님 종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상하관계 좌우관계에서도 아들딸이 없으면 구형이 못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얘기해 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모임의 자리에 떨어졌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청평에도 오라고 그런 거예요. 남편도 그래요. 남편하고 하나돼야 돼요. 확실해요, 희미해요? 「확실합니다.」

실체권! 「실체권!」 하나님이 실체권을 창조하기에 수천만년 걸렸어요. 어디서 고장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제로 ‘이놈의 몸뚱이,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입아! 이놈의 가슴아! 이놈의 생식기야! 또 나를 망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를 악물고 갈아뭇개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어머님보고 하는 말이, 축복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듣고도 선생님과 같이 심각하지 않아요. 실체권, 아들딸이 없으면 안 돼요.

아들딸이 있어야 실체권이 완성돼

양자를 들여 대신 직계의 자기 장 씨들을 중심삼고 조상의 계열을 통해 접붙여 주어야 된다고. 그 나무, 돌감람나무를 잘라 접붙여 줘야 돼.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잘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분명하지 않으면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가 축복을 탄 사람을 해 주고. 「아니, 장 씨네한테서 예수님의 양자를 구하라는 말씀이예요?」 자기 형님이나 동생을 복귀하잖아? 축복해 주잖아? 탄 사람보다도 가깝잖아? 그렇지 않아? 「글쎄, 그게 분명하지 않아서요.」 왜 분명하지 않아? 지금 얘기했잖아? 누가 더 가까운 거야?

「장 씨네가 아직 통일교회에 대해서 한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돼. 형제 형제를 구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3대 해 가지고 쪽 구하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안 하니까 모르지, 책임 안 졌으니까. 그렇잖아?

선생님도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해 줬지요? 형님도 축복해 주고. 걸리지 않아요. 우리 훈숙이도 그렇지. 흥진이 상대로 곁 혼해 줘 가지고 신철이를 축복해 줬어요. 동생의 아들을 데려다 상속해 준 거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전도하라구. 하나되면 된다고. 그러면 자기 형제가 아니면 말이야, 이모 사촌, 외사촌도 얼마나 많아? 「36가정인 장원순 커플도 아직 따르지 않는 입장에 있는데…」 자기가 문제야! 뭘 앓아 가지고 주절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알라고 참석하라고 그랬어. 똑똑히 알고 가야 돼요. 저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다시 축복할 수 있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36가정이 안 되게 될 때는 다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계와 축복해 줘요, 영계. 영계에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겠나, 실체권? 실체권은 아들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딸을 얼마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딸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 아들딸보다도 가인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사탄을 부정하고, 실체를 깔아뭉갠 사탄을 자동굴복 시킴으로 말미암아 실체권을 탕감해서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 열매에 접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요. 이번에 그래서 다 불러 왔어요.

실체 가정권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가

양창식, 알겠어? 「예.」 양창식 부인 왔나? 누구야? 하나됐나? 아들딸 앞에 투닥투닥하고 이래 가지고 보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요.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장에 그런 일이 없게끔 옛날의 아버지 자리, 옛날의 어머니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는 돌아갈 수 있는데 어머니는 못 돌아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차피 강제로 타고 앉아서 멍개 가지고 꺾테기를 벗겨 빼다귀라도 해서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도 그래요. 널 살로닌이라든가 누구인가? 유티 에스(UTS; 미통일신학대학원)의 누구? 「타일러 헨드릭스입니다.」 타일러 헨드릭스! 부처끼리 오라고 그랬는데 혼자 왔구만. 그렇지? 「왔어요, 같이.」 같이 왔어? 어디? 그래? 완전히 하나돼야 돼. 서양

간나, 미국 놈! 형제예요. 모양이 그래도 몇천년 전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색깔이 달라진 거라구요. 몇천년 동안 갈라져 가지고 그 리워하던 하나님을 속 태운 이상 내가 사랑해서 풀어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탕감복귀역사 철폐했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는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실체권을 닦아야 돼요, 실체권. 실체 정착에 주력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 타락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참사랑의 씨를 못 받았지만, 이제 참사랑을 부모님에게 가르침 받아 알았으니 그 기준에서 몸뚱이를 때려잡아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사랑하던 자기 여편네를 이제 축복받고 나서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그리고 복 빌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들 딸 낳은 것을 사탄에게 떠넘겨 주고 복 빌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권에 들어가야 느낄 수 있어요.

사탄하고 사랑하던 그 생식기를 하나님이 가서 붙을 수 없어요. 핏줄이 다른 원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탄의 흔적도 없었다는 3단계 앞에 넘어가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 못 한 거예요. 알겠어요?

실체를 완성해야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던 역사를 대신해 실체를 써 가지고 부모의 자리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시는 재림주가 하나님의 몸뚱이를 이래 가지고 하나되어 가지고 몸뚱이를 쓰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들도 같은 몸뚱이를 쓸 수 있는 열매의 자리에 서야 천국이라는 나라, 가정이 들어간다는 논리 형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이외에는 없다가구요. 그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다 깨끗이 가르쳐 주었어요.

선생님이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기도할 때 미인이 별거벗고 앉아 가지고 안아 달라고 해요. 안아 주면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야 없었겠어요? 실제 사실이 그래요. 선생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별의별 놀음

을 다했다는 거예요. 별거벗고 들어와 살려 달라고 하면서 자물쇠를
들 채웠어도 뜯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을 흠모한다고 마음대로 사
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실체 가정권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
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내려요.

선생님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몸과 같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을 닮을 수 있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얼굴과 어머니의 얼굴을 닮아
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갈라졌으면 갈라진 그 얼굴을 중심삼고
다시 떼서 붙여야 돼요. 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흑, 흑. 그냥 뒤두면
별동의 순이 나와 가지고 세상을 망친다는 거예요.

참부모가 영육의 실체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

자, 그거 읽으라구. 얼마 남았나?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으면
뭘 하겠나? 밥 먹고 뭘 하겠나? 오늘 노는 날인데, 잔칫날 쉬는 날인
데. 이거 지금 바라보면서, 배가 고파 쭈뼛 그렇게 되면 나눠 줄게.
(웃음) 자!

『……기독교문화권이 비로소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영국, 미국,
불란서권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상 위에 이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독립되어 가지고 만세를 불렀는데 선생님은 아직까지
만세를 불러 보지 못했어요.』

요즘에 만세를 불러요, 1992년 이후서부터. 자!

『……우리의 때가 오기 때문에 활개를 펴고 백주에 선명한 태양 빛
이 아침에 솟구치게 될 때 그것을 정면으로 기쁜 하나님의 심정을 가
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던 환경적 대왕마마를 모실
수 있고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바닷물, 본연의 물과 생명체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전부 다 모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못 했다는 거예요. 환경의 왕이 될 수 있는 태양을 사랑하지 못하고 물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안 하면 실체가 안 생겨난다구요. 사랑 못 한 거라구요. 이제 여러분은 우주를 사랑해야 돼요. 실체를 만들어야 된다구요, 조건으로라도. 자!

『공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땅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접붙이는 거예요. 눈접을 붙이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수만 개 되는 걸 잘라 버려 가지고 참감람나무 하나하고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다 없애 버리고 눈접 하나 붙이기 위해서 전부 다 부정하고 눈접을 전체 이상 가치권으로 해야 된다구요.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눈접이 출발되어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라구요. 자!

『……그래, 6500가정을 중심삼고 그 기반의 10차, 9를 넘어서 귀일수에 들어가서는 세계적 가정 판도 종적인 기반을 세운 것이 1992년입니다. 8월 25일, 그때에 비로소 세계적 판도가 소생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초민족적 수평권 내에서 종적인 소생 기반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성의 36만쌍, 거기에 완성 기준이 360만쌍이에요. 그래, 금년 표어가 뭐라구요? ‘360만쌍 축복완성은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참부모가 영육의 실체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는 봄이 일어나요. 세계의 마을 마을마다 깃발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탄성의 노래, 북소리,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빨리 열 사람한테 ‘내 말 듣고 가면 천국 티켓을 줍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축복을 못 하겠으면…」

축복 세계화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열 사람, 타락하게 된 이후 귀일

수로, 10수로 돌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전체 내용을 대표한 기준에 있어서 자기 형제와 3대를 중심삼고 결속하라는 거예요. 세 사람씩이면 삼 삼은 구($3 \times 3 = 9$), 12수! 천지부모 하게 되면 12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구요? 천지부모 천주안식권 선포의 날입니다. 천지부모, 하나님은 내적인 부모요, 외적인 부모는 참부모입니다. 이것이 하나되어야 돼요.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는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확실히 얘기해요. 참사랑은 아들딸에서부터 연결되지, 자기가 아무리 했댔자 아들딸이 없으면 참사랑이 연결 안 돼요. 다 확실히 얘기해 줬다구요. 자!

『이것이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요, 양심의 본궁이라는 것입니다.』 씨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훈독 마침)

아침 먹고 또 해요. 프로그램이 많아요. 두익사상하고 하나님주의, 그것 하려면 한 40분 걸리지? 요전에 40분 걸리던데. 밥 먹고 해, 계속해? 「진지 접수시키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두 시가 돼. 그러면 언제까지, 몇 시? 아홉 시 반이에요. 열 시에 모여? 「열 시 반에…」 밥 먹고 두익사상 하고… 「바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 빨리 읽으라구. 잘 들으라구요.

이제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이걸 정리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유엔 공약을 하는 데는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을 철폐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억하고 그걸 적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5월 20일부터 또 할 일이 많아요. 다시 전부 다 되풀이해야 된다고요. 소유권 문제를 철저히 다룬 내용이 나온다고요. 자, 빨리 읽으라구. 잘 들으라구요. (《통일교회시대 주요의식과 선포식Ⅱ》 ‘두익사

상과 하나님주의 선포' 말씀 훈독)

(경배) 몇 시야? 「열 시입니다.」 점심때 되겠구만. 점심 먹고 또 모여? 「오늘은 명절날이니까 웃놀이 한번 할까요?」 웃놀이? 「예.」 저녁에 바다에 갔다 와서 해, 웃놀이 해? 「바다에 갔다 와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

운동과 부항요법

(주동문 워싱턴 타임스 사장이 미국의 봉사조직 및 동성애자 문제, 남미의 '티 엠 포스 델 문도' 신문에 대해 보고)

한 곳만 풀리면 전부 풀릴 수 있는 길을 짜 놓았다

「.....딴 것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고 어찌자고 그러고, 뭘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가 보다 그런 것을 배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후가 어떻게 되는지, 워싱턴이 문제라구요, 세계의 수도이니 만큼. 워싱턴의 영향이라는 것은 세계적인데요. 섭리의 뜻이 지금 제일 어려운 때라구요. 지금 현재 공산세계와 민주세계 양극이 대치하는 문제, 종교권과 정치권이 대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영계와 인간들이 대치하는 문제가 전부 다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2003년 8월 4일(月) 오전, 코디약.

* 이 말씀은 제7회 칠팔절 기념식 이후 모임에서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것은 한 곳만 풀리면 연대적으로 풀릴 수 있는 길을 짜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일이었지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현 정부라든가 미래의 정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 최고의 다국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정치적인 좌익과 우익의 세계를 재벌들과 국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작동하는 영향을 좌우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수고했어. (박수)

어제 저녁에 우리 혼동회 하려고 했더랬지? 얘기만 하고 안 하지 않았어? 누구 한번 혼동회 하지. 우리가 영계와 육계가 같이 혼동회 하지만, 이제 가정들을 중심삼고, 하늘이 협조할 수 있는 상대적 기반이 각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모든 지금 혼동회 하는 동원요원들이 땅을 중심삼고 선생님과 순회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그걸 짜 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끼리 가정들을 거느려 가지고 친척관계를 중심삼고 가정교회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허락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계획이 틀어져 나간다

그러면 박구배! 「예.» 언제 가겠다고? 「내일 모레쯤 가겠습니다.» 중국 문제하고 우루과이에서 일하는 문제를 지금 끌고 가려면 자본이 필요하잖아? 「예.» 당장에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라도 필요합니다.» 주 사장은 지금 남미에 대한, 우루과이에 대한 자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나? 주 사장! 「예. 그것을...」 「남미로 갈 것을 요쪽으로 갔다가 가기

가 또 어려우니까요,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유정옥) 왜 교체하기로 해, 왜? 「일부는 갔고요.» 일부는 갔다니? 「일부는, 3천만 달러 중에 일부는 갔습니다, 반은.» 반은 가고… 「반은 여기 있는데, 일본에서 남미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또 유 시 아이 (UCI)로 갔다가도 또 어렵고 그래서 유 시 아이로 갈 것을 남미로 가고, 거기 있는 것을 쓰기로 하고 그렇게…」

그러면 예산을 자기들끼리 해야 할 것을 대체하지 않고 그렇게… 「그걸 일본에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에… 「유 시 아이로 갈 것을 남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유 시 아이 자체는 변동이 없나? 「예, 그렇습니다. 두 달만 대체했습니다.» 두 달이면 얼마였어? 「두 달 값만 1천6백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없어졌네. 「그러니까 1천5백은 갔고요…」 아, 갔는데 절반 남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절반 남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남미 우루과이…」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구. 「왜냐하면 저쪽에서 못 간다고 그래 가지고 우선 유 시 아이로 갈 것을 저쪽으로…」

글쎄, 갔으면 예치금을 언제든지 해놔야지. 「예.» 어디 해놨나? 「지금 건 남미로 가야 되지요.» 아, 남미로 가기 전에 워싱턴의 것을 다 갖다 쓰지 않았나 말이야. 이제 당장에 써야 할 텐데 이제부터 준비하겠다는 얘기가, 보냈다는 얘기가? 「그건 은행문제 때문에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행문제 때문에 그걸 잘라서 탄 데로 돌리면 되나? 「워싱턴에서 거기로 가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유 시 아이가 남미에서 빌려간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 워싱턴에 그러면 다 없잖아, 주동문은? 「예, 그런 상태지요.» 한푼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재정비하는 기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7월도 그렇고…」 재정비라니? 그걸 선생님이 돌려쓸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나에게

연락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걸 자기들이 관리할 게 아니라구. 그게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주 사장 얘기가, 남미로 빌려간 것을 다시 갚아 줘야 한다고, 3개월 만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요, 법적으로…」

글쎄, 그런 것을 나한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나는 모르게 하고 자기들끼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구. 선생님이 계획하던 것이 틀려져 나가잖아? 산 너머 할아버지로 취급하고 있잖아? 난 현찰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없잖아, 지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돈도 없잖아? 일본에 준비했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언제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의를 해 가지고 예치하라고 얘기한 것 아니야?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야. 어렵더라도 해 나가야지. 어렵다고 전부 다 미루고 자기 편리하게 해 가지고 뭐가 돼?

일본이 경제문제에서 책임 못 하면 큰일나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 올 때 유 티 에스(UTS; 미통일신학대학원) 문제, 브리지포트 문제, 그다음에 여기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한푼도 준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8월 달이 뭐야? 지금 당장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한푼도 없구만. 일본의 자기가 관리하고 뭐 이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하게 안 돼 있다구. 안다는 자체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야? 전체의 책임은 선생님이 지고 있는 거야. 돈이 어디에 있는 줄 알면 바쁘다고 그걸 대체해 써 버리고 그다음에 그걸 누가 물어낼 거야?

분담한 장부면 장부를 분별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 놔야지, 한 장부에 해 가지고 여기 저기 돌려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

지 사업분야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막히잖아? 큰 사건이 생긴다구.

그걸 똑똑히 얘기해. 얘기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될 것을 책임 못 지게 되면 대책을 취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밀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일본 여자들이 오는 것도 현찰을 해결하고 한 데 쓰라고 해서 특별지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뒤로 물리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거꾸로 하잖아? 여기에 당장 현찰 5백이 필요하다고 가져오라고 한 것 아니야? 「120명이기 때문에 많이 못 가져오고 하나쯤 가져올 겁니다.» 무엇이? 「120명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져옵니다.» 120명이 많이 못 가져오다니? 「120명이면 많이 가져와도 1백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에 돈이 있나?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구. 유 시 아이로 보내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보내나마나 보내지 않지 않았어, 지금 현재? 「예, 제가 올 때 못 보냈습니다.» 있기는 있나? 「제가 올 때 없었습니다.» 자기 온 지 며칠 됐어?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책임 못 하면 큰일나는 거야, 일본이. 시대가 달라져.

효율이! 「예.» 워싱턴의 돈 어떻게 되나? 땅 파는 것. 「땅 파는 것은 아직 몇 개월 있어야 할 겁니다, 빨리 나와도요.» 박구배는 당장에 얼마나 필요해? 원래 부두는 5백을 잡지 않았어, 일년에? 「급하게 한 150만 있어도...」 임자도 돈을 쓰는 것을 무턱대고 이래서는 안 돼. 요전에 5백 대야 할 것 중에 2백을 내가 지불했잖아? 워싱턴의 주동문을 통해서 2백 가져갔더랬나? 「예.» 그건 지불했지? 「예,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부두 5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2백을 지불한 것이 되잖아? 「그 일부는 파라과이에 조금 보내고...」

그러니까 곤란해, 그러니까. 자기 개인 생활비로 쓸 돈이 아니야. 계획한 것이 1.4분기면 1.4분기, 4.4분기면 4.4분기별로 한계가

정해졌으면 정한 대로 해야지, 자기 의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

그거 본래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나? 「파라과이로 그냥 보내도 됩니다.」 파라과이 어디? 「교회 구좌입니다. 파라과이 땅은 교회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응, 교회로 보내.

12월까지 금년 예산을 잘라서 어떻게 단축시키자고 약속하지 않았어? 「예.」 그래, 어떨 것 같아? 「지금 할 계획은 틀림없이 가고 있습니다. 8월 9월을 보면은 대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두 달이 튀우는 거야. 9월 달까지 1천억이 필요해요, 1천억. 그거 준비 안 하면 안 된다구.

여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우리가 지금 제일 돈을 많이 써야 할 때가 왔어요. 돈을 제일 많이 쓸 때가 왔다구요. 지금은 유엔 공약이라는 문제... 유엔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하늘을 믿고 밀고 나가는데, 땅의 사람들이 책임할 수 있는 책임 소행을 못 하면 얼마나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구요. 중간에 선생님이 치워 버려요.

한국에서 ‘라스팅 러브 컨퍼런스(Lasting Love Conference; 영원한 사랑 대회)’ 하는 것은 5억 다 받았지? 「예, 나머지는 지금 제가 부탁하려고...」 응? 「다해서 아버님, 한 8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보태 가지고요, 일부를 조금 돕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은 다 준비 못 했지만 하고 있습니다.」

여수! 「그걸 지난번 아버님께서 30개 주셨는데요, 그 중에 네 개 반을 김종수 씨 주라고 하셔서 스물 다섯 개 반 있는 것 해서 잔금 못 준 것 주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120개 국가에 부항기구를 나눠 줘 치료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어디 갔나? 닥터 리! 닥터 리 갔나? 「안 갔습니다. 아버님, 못 가게

하지지 않았습니까?」 「7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부항 뜨는 기계들을 세계 120개 국가 선교국에 나눠 줘 가지고 부처끼리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한국에 옛날부터 있는... 아시아에서야 옛날부터 해 온 것이지. 내가 그동안에 실제로 해 봤어요.

효율이! 「예.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해. 「아버님, 그 기계는 썩습니다.」 어느 기계가? 「부항 기계는 썩습니다.」 싸다니? 그 모터가 하나에 15만원이 나간다고, 15만원. 「아, 모터까지 사면요?」 모터까지 해야지, 그럼. 「사실은 모터 없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저희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국에서 책이랑 비디오 테이프도 다 나옵니다.」 아니, 손으로 하면 하기 힘들잖아? 「아닙니다. 손으로 하기 쉽습니다.」 「다섯 번만 하면...」 몇 번? 「몇 번 하면 압축기가 있으니까...」 그 압축기 간단한 그것? 「예, 그걸로 합니다. 다. 이 양반은 많은 분야를 치료의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려니까 겁도 붙이고 뭇도 하나까...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있어, 닥터 리? 오라고 그래. 「한국에서도 아버님, 부산교구에서 저걸 전문으로 개발해 가지고 통반격과 하는 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 세계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고.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기계를 우리 통일산업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본다구. 테스트해 보고... 손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아? 「아닙니다.」 「닥터 리는 여러 개를 많이 하니까, 보통 하는 것보다 뭐 5배, 10배도 하니까요.」 그럼, 그렇게 빨리 해야 돼. 천천히 하면 안 된다구.

효율이 얘기 좀 하라구. 「의사보고 하라고 그러지요.」 「닥터 리는 겁나게 합니다.」 겁나게 하기는? 아, 그렇게 많이 안 할 수도 있잖아? 「아버님, 워싱턴에서 한 번 했는데요, 발을 여기다 딱 대니까 젓가락만한 침으로 막 뚫어 버려요.」 어디에 갔어? 「내려옵니다.」 「침으로

발등에서 발바닥까지 나오게 관통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의사들이 침 놓는 것이야 뭐…» 「주 사장 목의 이것을 떼어 주겠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용기를 못 냅니다. 뭘 어떻게 해? 「목에 있는 여기가 상당히 이렇게 부풀어 있거든요.» 웃지 말라구.

몸을 관리하기 위한 운동법으로 운동을 해 왔다

응, 여기 나와서 얘기 좀 하라구. 그 기계 모터 있지? 「예.» 이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어드런가? 「소규모로 할 때는 모터 없이도 할 수 있지요?」 「예.» 어머니가 며칠 했나? 「한 열 번쯤 했습니다.» 열 번만 했는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모터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어드래?

「태권도 1단도 기왓장 한 장을 깨는 사람이 있고, 열 장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소총으로 나가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콩코드를 타고 가든지 해서 무기를 준비해야지요. 여러분이 연장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몸을 좀 한번 풀어 보고 하겠습니다.» 몸을 풀다니? 운동? 「자기 소개부터 좀 하세요.»

「……몸이 정말 건강하신 분은 부항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또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서 몸을 몇 가지 움직여 주면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옥중에서 개발한 운동법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뭐 오십견이니 뭐니 몸을 만져 보더라도 굳은 데가 없구요.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 가족 판때기를 이겨 붙인 것 같구요. 「아버님은 특수체질이고 보통 인간들은…» 특수체질? (웃음) 물론 특수체질도 있겠지. 그렇지만 20

대에서부터 운동을 계속한다구요. 우리는 예민하기 때문에 어디의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중심삼고 반드시 아픈 데가 있으면 여기 반응이 있다구요. 그걸 앉아서 주욱 짚어 가지고 풀어 줘야 된다고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놀음을 하는 거거든.

자기 몸을 자꾸 관리하기 위한 그런 운동법을 개발해야 돼요. 감옥에서 그걸 개발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올 때도 95킬로그램이었어요. 지금 82킬로그램 나가는데, 그때는 95킬로그램까지 나갔었다고요. 그렇게 운동이 필요해요. 밥 한 숟가락 안 먹으면 일이 얼마만큼 힘드느냐를 숫자로 계산적으로 나온다고요. 그걸 절약해 가지고 비준을 맞춰 가지고 운동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얘기해요. (이송현 한의사 보고)

「……응기나 함몰이나? 응기가 된 것은 막힌 겁니다. 차고 넘치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 주동문이 한번 해 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박수)

죽은피를 빼서 맑은 피가 돌게 만들면 건강해져

내가 낚시를 25년 동안 했다고요. 그래도 아픈 것을 모르는 것은 내가 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피를 뽑아 보니까 가슴하고 여기가 나오더라구요. 피를 뽑으니깐 상당히 가벼워지고 그래요,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고.

내가 발에 침도 맞고 들이 찌고 다 그랬는데 말이에요, 상당히 아프더라구요. 그런데 말초신경이 연령에 따라서 마비되어 들어가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이걸 했었는데, 하니까 하루 이틀 사흘 되니까 이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기분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피를 뽑아 주는 것이 하수구 구멍이 막힌 것을 열어 주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이틀을 계속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아주 기운이 쪽 빠져요. 다리의 힘이 쪽 빠져요. 그것이 빠졌던 것이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빠져나가면 마지막이 될 텐데 말이에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니까 점점 점점 회복되는 것이 빨라요. 빠르다구요. 보통 같으면 며칠이 걸려야 할 텐데, 이걸 하고 나서 회복되는 것이 빠른 것을 보면 말이에요, 나쁘지 않다구요.

그래서 통일교회 교인들은 돈도 안 들어가고, 부처끼리 붙들고 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아픈 데 하면 되는 거예요, 뽑고 이려고 몇 번씩만 하면 피 많이 나오는 데는 굳은 피가, 끈적끈적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데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새 피가 나오는 데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 놓으면 맑은 피가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그건 건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해 보니까 괜찮기 때문에 장려하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돌아가면 말이야, 이 양반한테 2천4백만 원 돈 해서 기계 값 물어주라구. 120개! 모터는 다 알지? 그 말이 맞아요. 손으로 하게 되면 일정하지 않아요. 손으로 하게 되면 옆에서 해도 일정하게 안 되는데, 이 전기는 갖다 이 옆에서 대더라도 바로 대니까 전부 다 같이 된다고요. 손으로 하게 된다면 거리가 있고 그러니 지장이 많더라고요. 또 그리고 하는 데 대해서도 전부 다 같지 않고.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데, 그 방법이 바로 부항요법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우습게 보이는데 이 우습게 보이는 치료체계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어떤 의료체계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수)

그래, 해 보라구. 해 보고 박수라도 해야지. 하지 않고 박수를... 「오늘 박수를 좀 심하게 안 친 사람들은 골라서 제대로 좀 치료하겠습니다.」 (웃으심)

하여튼 내가 해 보니까 좋아요. 내가 교회 책임자로서 뜬도 내가 해 봤고, 전기치료법도 내가 해 봤고, 이것도 내가 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활용하면 상당히 건강회복에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라구요.

하나는 뜬은 자연 방법이고, 옛날의 고대법이고, 전기는 신식법이고, 뜬이라는 것은 몇천년 전부터 했잖아, 그게? 「한 2천, 3천년 됐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다 그러면 정신수양을 하고 영계에서 가르쳐 줘 가지고 개발한 거라구요. 그래, 오래 되었다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항요법을 하면 처음에는 아프지만 점점 덜 아파져

「……이 치료는 벌써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치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치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

운동도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피가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 아픈 지점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아프지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점점 덜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만두서는 안 돼요. 아픈 것을 자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지 않게 느껴지면 그게 점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것은, 몸 전체에 부항을 붙인다, 한 번 할 때 세 시간을 잡는다, 위쪽 상쪽에다 붙여 주고 치료는 다리 쪽을 하고 있다, 다리를 치료하는 기다리는 동안 30분 40분 동안 부항이 피부 밑에까지 노폐물을 끌어올리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치료해 주고, 또 위를 치료하다가 다리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쪽에 집중을 해 주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를 뽑을 곳과 안 뽑을 곳,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피를 안 뽑고 하는 건부항 치료로 환자를 치

료해야 한다! 잘 하면 5회, 많이 한다면 10회 정도 안에 피를 뽑는 치료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런 치료법에 다들 도사가 되서 가지고 그런 분들의 지친 몸을 먼저 치료해 주다 보면 그다음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짧게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박수)

「시디(CD)에 들어 있는 치료 장면을 좀 몇 컷 보여 주세요. 없어요?」「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장님 직접 한번 시범을 해 봐요.» 「그리고 저는 절대 환자를 사람들 앞에서 놀림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환자는 귀한 겁니다.» (웃음) 주 사장,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픈 데가 많을 거라구. 맨 처음에 아프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점점점 가라져. (치료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 줌)

의사들은 모험성도 있어야 돼요. 남이 못 하는 것도 하겠다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응급처치에도 좋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끝이 없는데 그만…» 그만해. 「예, 그만하겠습니다.» (박수)

주동문이 해, 올라가서. 「예.» 올라가서 해 주라구. 「밥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녘니까?」 응, 밥! 「세 시가 다 됐습니다.» 응, 그랬어? 오늘 이렇게 지내는 게 나아.

내가 지금 연구중이라구. 발을 이틀 했나? 「발은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지? 「예.» 두 번 했는데, 상당히 아주 희망적이라구. 이제 두 번만 더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60대 정도의 상태로 돌아가면 젊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그런 거예요. 말초신경이 마비되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빼 주고 그걸 주물러 주고, 주물러서 들이 짜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더구만. 그 막힌 것을 빼 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 받게 될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해요. 그것

을 안 하면 병이 들어요. 어디든지 피를 내고 하면 그게 숨구멍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주고 그러면 그것이 호흡과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에 잡혀 버리지 않아요.

점심 먹었나?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점심 먹지. 「예.» (경배) 주동문이 해 봐요. 「예.» 내가 전기치료도 하고 뜸도 뜨고 했더랬는데, 이번에 몇 번 했는데 많이 풀렸어요. 피를, 사혈(死血)을 뽑으니까 통하니깐 맑아진다는 것이 이론적이라구요. 자! *

혈통복귀와 해방시대

5월 달 그거 다시 한 번 하자. (2003년 5월 2일, 5월 4일 말씀 혼독 후에 5월 10일 말씀 혼독)

하나님이 부탁 안 해도 참부모가 혁명적 개척 개발해서 이뤘다

『.....영계에 가 있는 조상들은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 있지만 동생을 지상에 내려와 협조해 가지고 지상의 아담가정을 협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인들이 내려와서 아벨가정으로부터 주권, 천상천국 지상천국을 완성할 때까지 협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사장권을 넘어서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천사장보다도, 타락한 누시엘보다도 나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사실을 헤쳐 가지고 갈라졌던 것을 통합 연결시켜 냈기 때문에 사탄은 자연굴복하고 하나님은 타락권 후손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품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타락이 없었던 해방의 자리에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출발을 가지고 새 지상천상천국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

2003년 8월 5일(火), 코디악.

* 이 말씀은 아침 혼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황선조! 사탄도 알더라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더라도 가르칠 사람이 없대구요.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소생·장성·완성의 씨를 가지고 본연의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새로운 핏줄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권을 넘어선 천사장 이상의 가정적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모든 것, 사탄의 미지의 사실, 하나님의 미지의 사실을 알더라도 사탄이 가르쳐 줄 수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사탄과 하나님을 화해 붙일 수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새로이 재창조해야 된대구요. 완성기 완성급 7년노정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못 가 봤어요. 하나님도 못 가 봤고 사탄도 못 가 봤고 참부모가 개척해서 가야 할 것인데, 가려면 사탄을 소화 흡수해야 돼요. 사탄을 소화시켜 가지고,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사랑의 전통을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권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다 개척이에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개척해야 된대구요. 알면서도 못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원칙에 일치될 수 있는 걸,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공인하고 사탄이 공인해야 돼요. 사탄은 자기가 더럽힌 사탄세계를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은 찾아야 돼요. 부모님의 승리권에 새로운 핏줄을 중심삼고 인수해야 된대구요. 그것을 인수하는 데는 하나님이 인수해 달라고, 왕권 수립을 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선생님이 해야 된대구요. 사탄과 성인과 성자들을 같은 자리에서 축복을 해 달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나? 위신상 체면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혁명적인 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

더라도 그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고 다 메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선생님이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참부모가 안 나왔으면 영계 해방과 하나님 해방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개문하고 해방할 수 있는 권한이 완성권 7년노정에 결정됐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을 중심삼고 천상세계를 개문해 가지고 통일적 사랑의 일체권 세계를 완성하여 지상·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이룰 수 있느니라! 아멘이라구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발해야 돼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 선생님이 개발한 그 원칙을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자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준 그것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 수고한 모든 공적을 갖고 천년만년 한이 하늘과 땅에 사무친 원한의 세계를 다 해소해 가지고 해방된 특권의 자리에 서 가지고 하나님도 사탄도 해방해 주고 인류도 해방할 수 있는 권한을 7년 완성권에 개발해 가지고 5퍼센트 기준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뭐라구요? 아담 해와가 7년노정에 축복받는 그 자리가 뭐라구요? 책임분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책임분담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책임분담은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요, 참부모가 전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부모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지옥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선생님이 닦아 준 모든 것을 거느려서 제1차 아담시대, 제2차 아담시대, 제3차 아담시대, 조상이 다르지만 하나의 완성적 참부모권에 소생·장성·완성 단계에 된 지상·천상·천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지옥과 낙원, 천상세계도 해방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리가 정비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기준에 있어서 탕감복귀 세계를 하나님 앞에 회부,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달 13일에 한 거라구요. 그것을 다 알고 가야 된다고요. 모르면 저나라에 가 가지고 얼마나 어색해요? 잔칫날을 모르고 가 가지고 잔칫상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안 그래요? 예복도 안 입고 모르고 가 가지고 앉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알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 선생님이 안 나왔으면 하늘나라나 지옥을 해방할 길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개척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도 개발해 가지고 오고갈 수 있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이 중요해요. 자, 계속하라구.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를 축복해 줘야

『……36가정부터 다시 불러 가지고, 요전에 불러서 내가 용서해 주기로 했지만, 진짜 이제 천국에 입적할 수 있는 명단을 뽑는 데 탈락 되면 영원히 탈락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삼위기대 있지요? 36가정, 72가정, 124가정 삼위기대를 자기들이 불러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무책임하게 살았다고요, 형제들인데.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천지부모 천지왕권을, 왕을 모시고 형제지애를 세울 수 있는 하늘나라의 궁전에 처음 들어갈 수 있는 황족권 내에 입적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사지권의 판결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처한 처소에 있어서 해야 할 책임 완수에 결여가 없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요. 지상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일족들을 중심삼고 영계보다 자지 않고 24시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축복 안 해 주면 큰일이라고요.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누가 해 주느냐 하면 어머니가 할 수 없어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아들이 아버지를, 동생이 형님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간다구요. 천지개벽 시대라구요. 천지개벽이 뭐냐 하면 그거라구요. 핏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머니 아버지 3대 전부가 핏줄이 달라졌어요. 핏줄이 달라졌으니까 뒤로 돌아서 가지고 거꾸로 가니 손자가 할아버지 자리에 올라가고, 아버지 자리에 아들이 올라가고, 형님의 자리에 동생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핏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천사장권은 상대가 없는 것인데, 상대적 권을 중심삼고 아담이 16세 이후에 사탄세계에 모든 것을 승리한 그 기준을 중심삼고 완성한 아담의 몸뚱이를 접붙여 준 거예요. 접붙이는데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형님의 자리, 형님 가정을 따라 동생 가정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탕감복귀, 복귀라는 명사를 중심삼고 전부 청산할 수 있는 그 일의 위의 것이 아래에 가고 아래 것이 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으로, 왼쪽이 오른쪽으로 전부 다 뒤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인데 탕감복귀의 법으로 보면 말이예요, 할아버지가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대표 자리요, 아버지가 그 다음이요, 자기가 그다음이라는 거지요. 4차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는 제4차 해방권시대를 발표했어요. 이것은 타락권을 넘어선 것을 말해요.

부모님이 사탄의 참조권이나 천상의 참조권을 다 제거해 가지고 마음대로 평준화될 수 있는 승리의 패권세계에 하나님의 왕권을 모실 수 있는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을 지니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지고 같이 동거해서 살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구요. 선생님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복귀의 길잡이는 원리를 아는 참부모만이 할 수 있어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력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또 무력보다도 원수가 더럽힌 그 생활하던 무대에, 원수가 잘살고 사랑하던 그 침대, 그 이부자리, 가정기물을 침 뺏고 보기도 싫어할 텐데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생활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일 원수가 뭐냐 하면, 남자 여자의 생식기예요. 종교는 독신생활을 수천년 동안 강조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수천년 동안 절개를 지켜 나오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아담 해와도 하나님과 같이 소망의 천국을 바라서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절개의 길을 세워 나오면서 찾아 나왔어요. 그래,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 실체권에 대해 어제 얘기했지요? 「예.」 체를 입어야 돼요, 체. 체를 못 입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심삼고 승리한 하나님 체, 또 승리한 사탄 체를 입어야 돼요. 천사장도 복귀하고 하나님도 복귀하는 거예요. 천사장을 복귀하면 하나님도 복귀되는 거지요.

그럴 수 있는 돌이키는 길잡이를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못 하고 사탄도 못 하고 참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원리의 세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알겠나? 박구배! 「예.」

다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르니까 눈을 꺼벅꺼벅 하고 살지, 아는 선생님은 얼마나 바쁘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모르니까 그저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그저 그럭저럭 살면 되겠거니 한대구요. 프로그램을 알면 탕감 길이 얼마나 바쁘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알면서 못 가르쳐 준 거라구요. 왜 못 가르쳐 주었느냐? 핏줄이 달라요. 원수예요, 원수. 반발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에서 맞으면서, 사탄이 나갈 길 앞에

서 가지고 반대를 받으면서, 밀려 나가면서 다른 데 길을 찾아 나온 거예요. 점점 개인시대에서 가정시대, 가정시대에서 종족시대... 멀어져 나온 거예요. 생각하면 대단한 거지요. 꿈같은 얘기인데 엄청난 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이상, 사탄 줄개들이 모시는 이상 모셔도 미칠 수 없는 자리까지 권한을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지요. 천상에 가 있는 사람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거라구요. 그것이 꿈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다가요. 세상 천지가 정리 안 돼요.

문 총재가 가르치는 길을 가야

5월 달이 중요한 달이에요. 금년 5월 달이 그렇지요? 5월 달은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한 해를 중심삼고 돌아가는 맨 돌고비 달이에요. 여기에서 전부 다 탕감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춘하추동의 한 해를 찾아서 청산 지을 수 있는 돌고비, 돌아서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니까 적자가 서자의 자리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돌아갈 때에는 그래요. 요즘 세상을 보면 판따라패들이 국회의원을 해먹고, 미국의 배우들이 움직이잖아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요.

여기서 호모, 레즈비언... 어제도 주동문이 얘기했지만, 혼란 된 환경이 돼서 그렇지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됐다가는 일대로 끝나요. 안 그래요?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부정하고 새로이 문 총재가 가르치는 길을 가야 돼요. 서자 취급을 받았어요. 적자 중의 적자인데 서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래의 주인이 이것을 가려니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자 중의 적자로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권위를

가졌으니, 적자도 그것을 못 가졌지만 서자의 자리에서 이것을 전부 다 탕감복귀해 가지고 획득했기 때문에 천하의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는 그 특권적 휘하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치리를 받아 가지고 정(正)과 부(否)의 세계를 가려 갈 줄 알아야 지상 사탄세계와 천상세계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 결론이라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듣고도 모를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자!

참사랑의 핏줄에 연결된 가정을 이뤄야

『핏줄이 더럽혀진 돌감람나무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참감람나무로 핏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절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으로 참부모의 아들딸이라는 의식이 어떤 나라의 충신, 어떤 나라의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의 직책에 있는 것보다도 실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는 멀지요? 고생을 해야 돼요. 보따리 싸들고 별의별 삼천리반도를 누벼 가지고, 세계를 누벼 가지고 내가 기반을 닦은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족 기반을 누벼 빨리...』

세상만사 사탄세계의 타락한 모든 비참사를 당했으면, 하나님은 그 비참사를 당하는 모든 개개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 비참한 일을 당하고 복귀하기 위한 마음의 아픔을 언제나 느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락한 세계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마음에 아픔을 느껴 가지고 같이 동감하면서 자기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상의 자리에 가야 천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자기 부모들이 아들딸을 바라보고 느끼는 이상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늘나라 권속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세계가 얼마나 멋지고 깨끗한 세계이고

얼마나 빛나는 세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핏줄! 해 봐요, 핏줄! 「핏줄!」 무슨 핏줄이에요? 참사랑의 핏줄이에요. '선약' 할 때 선도 말이에요, 소생 선, 장성 선이 있지만, 참사랑의 핏줄 하면 하나예요. 소생시대나 장성시대나 완성시대나 핏줄을 통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 구약시대도 더러운 피를 뽑으려고 했고, 신약시대도 아들딸의 피를 뽑으려고 했고, 성약시대도 몸뚱이의 피를 짜내기 위한 거예요. 피 기름을 짜내는 놀음을 해 온 거라고요.

그래서 더럽혀진 피가 전부 다 뼈의 기름 가운데, —골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뼈 가운데도, 살 가운데도, 피 가운데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에 인연된 핏줄에 일체화될 수 있는, 내적 외적 일체, 상현 하현, 우현 좌현, 전현 후현 전부가 입체적 구형에 일체화될 수 있는 하나의 본연의 참사랑과 참혈통을 중심삼은 열매, 하나의 구형체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1대, 2대, 3대권을 중심삼은 전후관계의 구형세계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손자를 갖지 못하면 가정이 안 돼요. 아들딸만 가지고는 가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딸을 가졌으면 그 전에 할아버지의 대 전 사람은 말이에요, 가정을 가질 수 있지만, 타락할 때 3대를 못 가졌으니 영영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가정이 없다고요.

그렇게 깨끗이 다 가르쳐 줬는데 제멋대로 살아 보라는 거예요. 저 나라에 가 가지고 어떻게 되나 봐요. 그러니 말씀을 중심삼고 문답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걸리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한 거라고요. 참사랑을 중심삼은 첫사랑의 핏줄,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결혼식과 연결될 수 있는, 3대를 이을 수 있는 참사랑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래, 둘째 번 사랑이 아니고 첫사랑이에요. 첫번 사랑이 귀한 거라

구요. 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기준

『……선생님 가정의 대신자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입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부모님의 승리한 모든 특권을 핏줄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라고요. 옛날에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유리 짜박지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 영국의 왕실에 517캐럿의 왕관의 보석이라구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래, 그것을 알고 보면 무한한 가치지요. 영국 나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래요.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아니까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빨리 빨리 탕감 기한 내에 끝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기한이 10년이 있으면 귀일수 10년을 보내지 않고 1년에 해 버리는 거예요. 귀일수라는 것은 타락한 이후의 것 아니예요? 일시에 다 끝내야 할 텐데 10년 귀일수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쁘겠나, 노라리로 하겠나? 하는 일들도 그래요. 여유 있게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는 살 가지고 승리하는데 뺄와 기름까지도, 골수를 전부 다 퍼부어야만 해결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도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피살을 깎아 가지고, 1년에 자기가 몇백만 달러를 썼으면 몇십만 달러라도 벌어서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수전노인지 알아요? 어디 시장에도 안 나가요. 시장에 나가서 점심도 안 사먹고 집에 와서 먹고 다 그랬다고요. 요즘에

통일교회 폐들도 제멋대로 가 가지고…。 요즘에 내가 몸이 이래서 먹는 타령을 해요, 먹는 타령. 무얼 갖다 줘도 안 먹고 그러는데, 몸이 그러니 입에 안 맞고 그러니까 싫어요. 싫으니까 옛날에 좋던 것을 전부 다 부정해요.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밥이 맛있고 김치가 맛있고 다 이랬는데 다 부정하는 거예요. 색다른 것을 찾아요. 먹는 것이 달라져요. 노는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저럭 살지만 아는 사람은 바빠요. 몇천만년 역사를 탐감복귀해서 일대에 맞춘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말이 쉽지요.

원리 말씀에 탐감복귀라는 말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거짓말을 했나, 사실인가 생각해 보라구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빨리 끝내자!

『일심, 본연의 일심 세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몸도 전부가 하나되고 마음도 하나되었으니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심일체일념이 갈라졌어요. 몸과 마음이 싸우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본연의 일심, 하나님과 같이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몸과 하나의 이념이에요. 그 이념이라는 것이 지상천상천국의 해방적 가정정착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정착…』

핏줄! 핏줄로 연결시키는 가정정착이에요. 가정 하면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한 타락이 없고 타락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완성한 피를 중심삼은 핏줄을 연결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얼마나…。 미국 가정, 일본 가정으로서는 이거 다 꿈같은 얘기에요. 그것을 저나라에 가서 정비하기 위해 천국을 몇 단계 개조해 내야 돼요. 소생 천국에 들어가지 완성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자!

타락했다는 것은 핏줄이 더럽혀졌다는 것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재창조한 아담 해와 이전의 자리

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천사 세계 사탄세계는 완전히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했다고 할 때는, 핏줄이 달라진 것을 말해요. ‘타락’ 할 때는 핏줄을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핏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핏줄을 못 받았습시다. 그것은 탕감법을 통해야 됩니다. 개인시대, 가정시대… 8단계의 탕감법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핏줄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있어서 개인적 핏줄을 연결시키고 가정-종족민족, 8단계의 핏줄을 연결시킨 것인데, 그것을 말만 알지, 어떠한 심각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절대신앙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고 선생님이 하라는 일은 무엇이든지 개인의 1도를 중심삼고 바라던 것을 360도 하라고 그래도 거기에 절대신앙을 해야 돼요. 그 이상 다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선생님이 대주고 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황후를 사탄이 유린한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타락’ 하게 되면 사랑의 원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간부(姦夫)예요. 여자 셋(姦)을 합한 것이 3시대 여자를 말해요. 간부가 그렇잖아요? 핏줄을 더럽혔다는 거지요. 알겠어요? ‘타락’ 하면 뭐라고요? 「핏줄!」 사탄의 핏줄! 하나님의 원수의 핏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바로잡아 가지고 본연의 사랑의 핏줄과 같이 갖다가 심기에 천년만년 소원한 이상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심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사탄이 더럽힌 핏줄 위에 정리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핏줄을 심기에 주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안 됩니다.

결혼했던 여자가 재차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신부가 새로이 시집가 가지고 본남편하고 잘 살던 그 모든 전부를 중심삼

고 ‘당신, 우리 남편하고 살던 이불 중에 제일 좋은 이불이니 여기에 와서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나? 섬뜩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유정옥! 「섬뜩합니다.」 불사르고 싶고 혹 불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보다도 부대자루를 깔고 자더라도 본연의 사랑의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 부부생활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실체권! 하나님의 형태를 이어받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모순된 사실인가 생각하면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탕감하는 데는 수난 길을 가야 돼요. 반드시 죽을 자리에 가야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 그 말이 참 하늘나라의 고백이에요. 더럽힌 핏줄을 찾아 나가는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얼마나 끔찍해요? 대할 수 없는 것을 대하니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것은 핏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핏줄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권을 몰라요. ‘아버지!’ 하게 된다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들의 심정이라는 것은, 천리 떨어져 있더라도 자기가 시간권 내를 넘어서서 데려다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와 같이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예요. 심정의 세계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 열매를 수확해 바치면 창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준다

『이제 축복가정들은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만물을…』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박구배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어? 「예.」 정성들여 가지고 해야지, 거기에 사기꾼들이 있어서는 안 돼. 선생님 이상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생님! 대준다

고 좋아하지만 좋아할 것이 아니야. 잘못하게 되면 자기 조상들이 전부 다 탕감해. 걸려 들어온다는 거야. 조상의 산이 무너져 나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빗지려고 안 그래요. 누구보다도 예수한테 신세지려고, 하나님한테 신세지려고 안 해요. 알았으니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는 전부 다 도와 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 주소.’ 하고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지요. 탕감을 누구보고 해 달라고 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 뭐냐? 부모가 고마운 거예요. 부모가 이 일을 대신하니 진짜 부모의 핏줄을 받은 아들딸이라면 부모의 소유권과 모든 권한을 전부 다 이어받을 수 있고, 부모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부모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형님이나 누구나 하나되지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에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고, 선생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개인적 회개를 말해요. 타락한 세계의 개개인이 전부 다 지금까지 결혼도 못 하고 수절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가정적 회개예요. 선생님은 국가적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 나라를 못 가지면 선생님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에게 나라를 찾기 위한 일을 시키지요? 자기 가정에서부터 8단계를 대표해서 씨가 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종족, 민족으로 키워 8단계 전체, 하늘나라까지 커버할 수 있는 씨의 내용을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방되는 거예요.

심었던 열매를 수확해 가지고 하늘 앞에 바침으로써, 그래도 하나만

아니고 두셋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써 첫 번 창고에서부터 셋째 번 창고를 열고 전부 다 저장해 가지고 거기에 사랑의 양을 보태서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참사랑의 양, 무한한 세계의 소유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랑을 보태서 전부 다 주겠다는 거지요. 하늘나라의 비밀 창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가는 뭐... 몇 시 됐나?

천적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희랍사상 철학으로 보게 된다면 만우주는 투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원수가 아니에요.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인 자본론이라든가 변증법을 보게 되면 투쟁해서 발전한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투쟁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균도, 요즘에 사스(SARS)라는 병이 나왔는데, 그 병원 앞에 천적 몇 마리만 있더라도 다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천적 알아요?』

개가 십만 마리 있더라도 호랑이 두 마리만 있으면 다 조용해지는 거라구요. 천적이 있다는 거지요. 병원도 그렇지요. 지금까지 투쟁으로 보는데, 천적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예요. 대개 균이라는 것은 7일에서 47일 이내밖에 못 살아요. 그 기간에 사는데 천적이 있으면 천적에게 먹혀 버리는 거예요. 천적이 흡수한다는 거지요.

요전에 방영한 것이 천적에 대한 것인데, 바이러스의 천적들을 중심 삼고 물건 자체도 보이지 않는 균들이 다 잡아먹어요. 물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라구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하나 만들기 위한 통일의학이라는 것은 보호의학입니다. 병이 나기 전에 천적의 기반을 활용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술 안 해 가지고도 근원적인 모든 것을 해방할 수 있는…」

박구배, 우리가 산 회사가 그런 일면을 지금 책임지고 하잖아? 박구배! 응? 왜 답변이 그렇게 희미해? 지금 하고 있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다는 답이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나중에 왜 자꾸 작아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뭐가 잘 안 돼?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관심이 있어요. 군에 대한 천적! 그래서 내가 박 여인을 하와이에 데려가 가지고 세상에 없는 귀빈 이상의 대우를 해 줬어요. 그 컨셉이 필요해요. 자!

원수 나라 식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훈련해야

「……천일국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천일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천일국 국민증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 뭐라고 써서 있어요? 천주평화통일국 학습증! 거기서부터 개인시대 해방…」

학습증 다음에 뭐인가? 선습증인가? 「교습증, 선습증입니다.» 그렇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제 콘도미니엄 시스템에서 가정을 중심삼고 훈련시켜야 돼요. 독일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의 원수 나라를 중심삼고 3년 생활을 하는데, 그 아들딸을 중심삼고 내 아들딸 네 아들딸, 자기 여편네 네 여편네 하던 것, 집에서 살림 살이도 자기 계열로 찾아 들어가 살던 것을 전부 다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혈족보다도, 자기 직계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놀음을 중심삼고 되어야만 천국이상이 확대된 세계가 나와 더불어 관계를 크게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제일주의를 가지고 주변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자!

『……그렇게 완결해서 바쳐 드려야만 자기들까지도 3대권, 하나님 1대, 아담 2대, 3대의 가정으로서, 부모님 대신 가정의 자리에 서 가지고 천일국 중심가정으로서 해방되어야 된다고요. 책임분담 완성 못 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가정은 손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알지요? 「예.」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양 사람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남자가 여자를 대해 책임 안 지고 또 아들딸을 책임 안 지고 도망 다녀 가지고 프리 섹스니 무엇이니 호모니 무엇이니 그러고 있단다고요. 그러던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을 불태워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원수의 세계 사람들이 말이예요. 통일교회가 전부 다 그 주인이 되어 버려요. 자!

『……입적할 수 있는 나라와 자리와 그 출생 기지, 만민의 축복 조상으로 세워 가지고 계대적인 기준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연결되어…』

여기 여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3시대를 유린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고생시켰느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없으면 지옥 밑창에서 구더기보다도 더 천대받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불구덩이에서 머리로부터 콩지까지 잘라내 가지고 영원히 태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니지. (웃음)

왜 웃어요? 다 불쌍해요. 가만히 보면 불쌍하단다고요. ‘저렇게 여자들 남자들이 다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쳐 주기는 다 가르쳐 줬는데, 몇 번씩 얘기해도 바다 건너에서 나는, 불은 안 보이지만 연기는 보인단다고요. 연기는 보이는데 불을 몰라요, 불을 몰라. 딱 그 격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불에 타야 할 텐데, 자기 자신도 연기가 되어 가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5월 10일 말씀 훈독 마침)

코디악의 정신을 알고 돌아가라

또 있잖아, 또? 또 있잖아? 「또 있습니다。」 그것 죽 읽으라구. 22일 날 한 것까지 읽으라구.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 읽어 봐요. 계속해 읽어요. 「목이 좋지 않아서요。」 목이? 병을 고쳐야지. (5월 12일 말씀 훈독)

그것을 다 빼놓고 읽지 않았어? 그다음에 또 있지? 「그다음에 5월 17일, 22일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통일된 모든 것, 탕감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27일까지 말씀한 것을 전부 다 훈독회 해야 돼요.

이것 처음 하잖아, 처음? 「이건 새로 만든 책이라 그 전에 안 됐던 것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글쎄, 끼워 넣었다는 것은 안 됐다는 거지. 다 했어야 되는 거지. 수련해야 된다고요. 세부적인 단계적 해결 방법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통일적인 모든 지상 천상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넘어가더라도 그 남아진 것이 사탄의 참조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요? 그것을 세밀히 읽으면서, 훈독회 하면서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부 다 ‘아하!’ 하고 알아 가지고 5월 10일 선포한 것이, 창조이상 총 주체권 전환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저녁에 할까, 내일 할까? 임자네들이 세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저녁에 한다고 했지만, 어제도 못 하고 오늘도 못 하고 언제 하겠나? 어디 갔나? 양창식, 기도해요. (양창식 회장 기도)

이제부터 사흘 동안, 5일, 6일... 7일에 다 떠난다고 그랬지? 「예。」 열심히 이제 낚시... 코디악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코디악의 정신이라는 말을 했지요? 코디악의 정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알

고... (경배)

이제는 경쟁이에요. 알겠어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하라구요. 배가 있으면 부처끼리, 세 부처가 나가 가지고 운전도 배우고 그래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세상에 경계선이 없으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순회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육지는 멀어요. 바다는 직단거리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중심삼아 가지고 여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라구요. 배를 타고 배를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라구요.

선생님은 관여하지 말라구요. ‘선생님은 타나?’ 관심 갖지 말라구요.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지요. 바다의 책임자 세 사람씩 세계적으로 배치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 다 잊어버리고 책임 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영계에 가서 걸려요. 자! 「감사합니다.» *

文鮮明先生말담選集 <第414卷>

印刷 2006年 1月 10日
發行 2006年 1月 20日
編者 文鮮明先生말담編纂委員會
發行者 郭 錠 煥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6-6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申告番號 제302-1961-000002호
申告日 1961年 5月 20日